

# 자료순서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의 다짐
- 제25차 정기총회 식순
- 제24차 정기총회 의사록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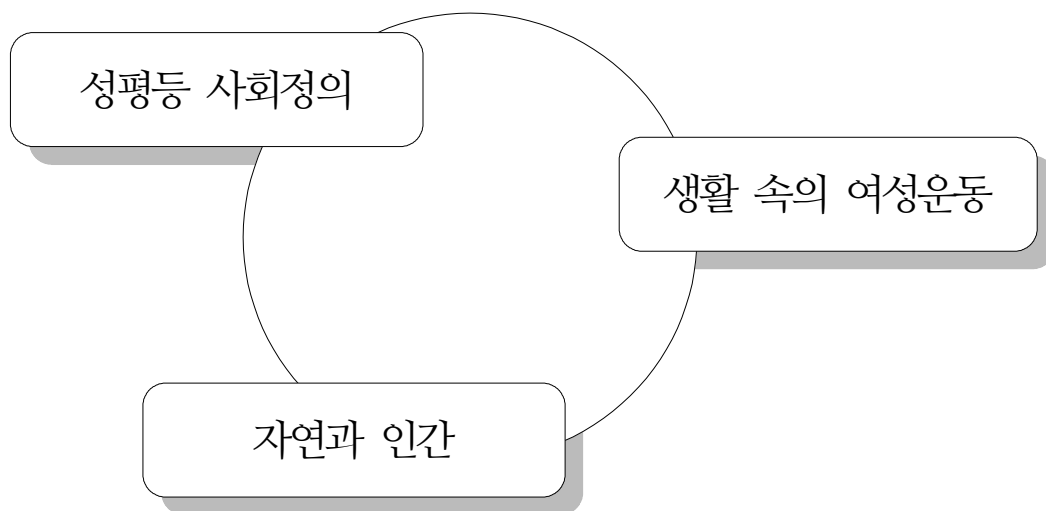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총평(안)	11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평가(안)	18	
회원조직 18	지역 40	교육 46
홍보 58	정보 69	재정 77
특별기획사업 81	반차별 88	
여성노동·노동상담 99	여성건강 119	
미래준비사업 131	기타 134	
• 부설 미디어운동본부 사업평가(안)	142	
•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업평가(안)	160	
• 한국여성민우회 결산(안)	198	
• 지역여성민우회 활동 총평	207	
• 한국여성민우회 감사 보고서	217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계획(안)	227
• 부설 미디어운동본부 사업계획(안)	249
•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업계획(안)	253
• 한국여성민우회 예산(안)	264
• 지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269

### 별첨자료

• 임원 선거 (감사후보 명단 및 약력)	275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발간 자료 목록	276
• 본부/지부 활동가 명단	277



## 한국여성민우회 회원의 다짐

우리는

하나, 성평등과 사회정의를 실현되는 사회를 만듭니다.

하나,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 생활 속의 여성운동을 만듭니다.

# 2012년 제25차 정기총회 식순

● 오후 2시 ~ 오후 5시

- | 개회선언
- | 인사말
- | 회원다짐 '우리 민우회 회원은'
- | 대의원 성원보고
- | 의순채택
- | 회의록작성자 및 서명인 선출
- | 전차회의록 낭독
- | 의안심의 및 특별프로그램
  - 1) 2011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승인
  - 2) 지부 사업 총평 보고
  - 3) 2011년 감사 보고
  - 4) 임원선거 : 감사
  - 5) 선출 임원 소개

[특별 프로그램] 함께 가는 회원상, 모듬상, 감사패, 평생회원패, 정책위원패 수여

  - 6)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7) 지부 사업 계획 보고
- | 폐회

# 2011년 제24차 정기총회 의사록

1. 개최일자 : 2011. 1. 22(토) 오후 2:00 ~ 6:00

1. 개최장소 :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

**총대의원수 170 명      출석자수 111 명 (위임 25 명 포함)**

상임대표 권미혁은 의장석에 앉아 정관규정에 의해 위와 같이 정족수에 달하는 총회구성원이 출석하였으므로 제24차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린 뒤 개회를 선언하고 회의의순을 채택하다.

동의 : 유경희

재청 : 김자현

총회 의사록 작성자로 문성훈, 이선미를 선출하고, 서명인으로 이해경, 윤정주, 정은선을 선출하다.

동의 : 김연순

재청 : 박숙희

의사록 공증 절차에 대하여 의사록에 대한 공증은 이사들에게 위임하다.

동의 : 조영임

재청 : 김영준

김희정 : 전자 회의록을 낭독하고 심의를 구하다.

동의 : 이선화

재청 : 신소영

## 의안1. 201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감사 보고 승인

### <사업보고>

박정숙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 <결산안>

박정숙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 <감사보고>

김경희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김경애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 사업 보고

동의 : 이여로

재청 : 윤숙영

### 회계 보고

동의 : 김유임

재청 : 김지숙

위의 보고에 대한 승인의 가부를 물은 즉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 의안 2. 정관 개정 건

공동대표 김인숙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참석대의원 수 141 명    찬성 대의원 수 131 명    반대 대의원 수 8 명    기권  
2 명

위와 같이 정관 개정안을 통과하다.

정관 48조(법인해산)를 개정하여 본회 해산 시 잔여재산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기존안

은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귀속됨을 명시함.

### 의안 3. 이사, 감사, 대표 선출

이여로(공천위원장) : 2011년 임원선출을 앞두고 1차 총준위에서 이여로, 오경훈, 권미혁, 주현정, 최진협, 김연순, 정은선 총 7명으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회의에서 이사감사 대표 추천에 대해 공천위원들이 후보등록과 여론수렴 후 2차 회의에서 이사 후보로 백영경, 유경희, 유선영, 윤정숙, 이숙진, 장지연, 정영애, 최은순, 하승수를 재정감사 후보로 남인순을, 대표 후보로 김인숙, 박정숙을 추천하였음을 보고하다.

김정민(선거관리위원장) : 임원선출을 앞두고 1차 총준위에서 김정민, 김영준, 조영임, 이혜경, 백미숙, 김희영, 김미숙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사 9인, 감사 1인, 대표 2인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각 직위별로 일괄투표 방식을 제안하다.

일괄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출

동의 : 이영인

재청 : 박미숙

일괄투표 방식으로 대표 선출

동의 : 김선화

재청 : 이원형

위의 임원선출방식에 대한 승인의 가부를 물은 즉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각 직위 별로 일괄투표로 진행하기로 하다.

〈특별 프로그램1 진행〉

○ 회원공모사업 결과 발표 다소, 육결

○ 감사패 수여 : 권미혁(상임대표), 김경애(회계감사), 김영준(다음기획), 하승창, 박어진, 박영란, 이재경(이상 이사), 강혜란(미디어), 김정민(원주), 이여로(고양파주)

- 평생회원패 수여 : 5명중 참석한 3명 김희정, 오영식, 오스칼
- 함께가는 회원상 수여 : 정윤경(춘천), 이은숙(본부), 정경분(본부)
- 함께가는 모듬상 : 고양파주 공감여행
- 심지상 : 김진옥(생협)

이사 유경희(중임), 유선영(중임), 이숙진(취임), 백영경, 윤정숙, 장지연, 정영애, 최은순, 하승수에 대한 투표 결과

: 참석 대의원 수 113명(피선거인 제외) 찬성 대의원 수 112명 반대 대의원 수 1명

으로 이사를 선출하다.

감사 남인순(회계감사)에 대한 투표 결과

: 참석 대의원 수 117명(피선거인 제외) 찬성 대의원 수 114명 반대 대의원 수 2명 무효 1

으로 감사를 선출하다.

대표 김인숙(상임대표, 중임), 박정숙(공동대표, 취임)에 대한 투표 결과

: 참석 대의원 수 115명(피선거인 제외) 찬성 대의원 수 110명 반대 대의원 수 4명 기권 1명

으로 대표를 선출하다.

위와 같이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의해 임원을 선출하다.

2011년 1월 26일에 전임 이사 임기가 만료되므로 오늘 선출한 이사들은 1월 26일부터 취임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전임 상임대표 권미혁에서 신임 상임대표 김인숙으로 의장을 교체하다.

〈특별 프로그램2 진행〉

- 권미혁 전 상임대표 환송 행사

의장이 사무처장으로 주현정을, 부설기구 성폭력상담소장에 이혜경을, 부설기구 미디어 운동본부 소장에 윤정주를 임명하다.

## 의안 4.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사업계획〉

주현정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 〈예산안〉

주현정 : 보고서대로 보고하다.

동의 : 이정아

재청 : 백희정

위의 보고에 대한 승인의 가부를 물은 즉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써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 기명날인하다.

2011년 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권 미 혁 (인)

김 인 숙 (인)

이 혜 경 (인)

윤 정 주 (인)

정 은 선 (인)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평가 (안)

-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총평(안)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평가(안)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업평가(안)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업평가(안)

10 제25차 정기총회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총평(안)

## I.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활동목표

1. 성폭력상담소와 고용평등상담실의 최근 5년간의 상담분석 토론회, 가족담론 대응 토론회, 낙태대응활동 등을 진행함으로써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여성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담론형성과 실천적 운동을 기획한다.
2.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성폭력아동지킴이 사업모니터링 등 본부, 지부, 부설의 민우회 전체 공통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2010년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운동을 심화시키고 각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3. 민우회 운동의 전환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모색으로 민우회원 통계분석 및 지역여성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이달의 토론, 순회교육 등 회원교육을 강화한다.
4. 미래준비사업으로 민우회 별칭 짓기와 물.길(민우유스네트워크) 2기 구성을 진행함으로써 여성운동을 재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5. 재정적 안정을 위한 새로운 모금기획을 강화한다. 블로그, 트위터, 해피로그 등을 기반으로 대중 속에 민우회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며 사회에 조용하는 운동을 함으로서 이것이 재정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II. 2011년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 1. 한국사회 속에서 여성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새로운 담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다.

성폭력과 노동시장 안에서의 여성노동의 문제, 신자유주의와 신가족주의가 만들어낸 전업주부의 허상, 낙태정국에서 고통 받는 여성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냄으로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다양한 여성의 삶과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민우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과 고용평등 상담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785개의 성폭력 상담과 1,959개의 고용평등상담을 분석하여,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온 상담사례분석에서 벗어나 5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고용평등상담 분석의 일차 목표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읽어내고 여성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그대로 사회에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미 법제도가 상당 수준으로 갖추어진 상황에서 고용평등 상담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대응활동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새로운 상을 모색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이었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어떤 차별적 노동환경이 존재하는지 드러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여성노동현실이 상담통계를 통해 드러났으며 고용악화가 결국 여성노동자를 무력화시키는 악순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체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상담지원의 과제와 민우회 상담활동 자원의 한계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다만 분석작업이 여성노동의제와 과제발굴로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존재한다. 상담통계 틀의 재구성, 상담역량강화, 상담현장을 기반으로 한 여성노동의제의 개발 등이 이후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여성노동사안과 고용평등상담의 연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상담일지 분석은 성폭력의 유형과 내담자들의 성폭력에 관한 인식의 흐름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축적된 방대한 상담자료를 통해 다양한 조건과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의 현실과 그것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국가 주도 정책의 허와 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모르는 성인 남성에게 의한 피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이 계속해서 입안되고 있지만 전체의 77.3%가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

지가 분석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한편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과 동시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과정은 그간 상담활동을 통해 축적되어온 고민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성문화와 인식변화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폭력성을 강조하는 성폭력 개념의 한계와 법 개념 안에 갇혀서 일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현실에서 빠져나와 일상의 문화와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운동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에게 이중적이고 모순된 성규범을 강요하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맥락을 드러내고 성규범을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성보수주의나 보호주의에 밀리지 않기 위해 보다 쉽고 구체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노력과 이중적 성규범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체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을 실행해야 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활동과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동과 성폭력 각각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노동과 성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현실을 꿰뚫는 분석과 의제 발굴로 이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보수가족담론이 만들어낸 ‘신가족주의’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교육매니저로 대변되는 전업주부의 이미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시도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전업주부들의 목소리로 ‘교육매니저’, ‘가정의 CEO’라는 전문성의 허상을 드러내었다. 도구화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 드러내기 그리고 여성주의적 가족담론의 방향과 전략을 찾고자 시도했다. 전업주부의 정체성은 여성의 몫이며 고정적이라는 통념을 깨고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임시적인 것이며 여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신자유주의, 신가족주의에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업주부의 모델이 우리 사회의 전업주부 모습의 전부가 아님을 드러냄으로서 다양성을 꿈꾸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중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확산하는 작업은 미비하였다. 또한 대안적 가족 패러다임의 구성을 위한 논의로까지 확장되지는 못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을 실은 사례집을 통해 낙태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그대로 드러내어 왜곡된 사회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생명’과 ‘선택’의

이분법을 넘어 여성의 주체적 관점을 반영한 ‘사회적 고통’과 ‘성적시민권’이라는 새로운 언어와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공론화와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종교계나 프로라이프가 주도했던 낙태 담론을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여성들의 시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극, UCC, 사례집 등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점 또한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언어와 개념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다. 이후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라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전체 공동사업을 통해 운동의 지속과 심화 그리고 주체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다.

공동사업을 통해 얻고자 한 바는 운동의 확산,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 조직 기반 강화, 활동가의 역량강화이었다. 식당사업은 운동의 지속성과 심화를 위해 2년 연속 공동사업으로 선정된 주제이다.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운동의 확산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운동의 동력이 재충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동사업의 목표로 삼았던 운동의 확산과 활동가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

회원들로 구성된 여휴인 활동으로 진행된 실태조사는 식당 노동 환경과 식당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서 사회적인 관심과 반향을 일으키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호칭 공모를 통해 식당노동자의 새 호칭 ‘차림사’가 발굴되었고, 이를 통해 식당노동에 대한 존중과 식당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각 지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조직적 역량 강화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부 편차를 고려해 공동 목표 속에서 지부가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독자적인 내용을 기획하는 전제와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호칭확산을 통해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내고 실질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아동지킴이집 실태조사는 재정확보 문제로 지부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면서 역동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공동사업 진행에 있어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체 동력을 갖추는 것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 3. 회원과의 심층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운동의 전환 모색을 시도하다.

회원조사와 지역여성조사는 회원인터뷰를 통해 지역과 여성의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운동의제를 발굴하는 취지로 진행하였다. 회원층을 들여다보고 분석한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그리고 회원조사 인터뷰 과정에서 참여했던 회원들과 활동가 모두가 성장하는 성과를 낳았다. 또한 회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접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켜주었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켜주는 긍정적인 지점이 있었다고 평가된다. 본부는 회원조사 심층인터뷰와 온라인 설문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회원과의 새로운 접촉면을 시도함과 동시에 회원과의 소통강화라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

지역기초조사는 민우회의 기반이자 지역주민인 회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여성운동의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지부 회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지부가 주도적인 운동 주체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소통과 교류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조사 내용에 대한 재해석과 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2012년에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대중교육이 침체되면서 조직의 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못하면서 대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부들의 요구로 본부와 지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체 참여자의 수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비회원의 참여가 높아짐으로서 민우여성학교의 부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향후 지부별 편차를 반영한 기획이 가능하도록 각 권역별 진행 또는 진행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4. 물질 2기 액션팀 활동으로 여성운동 재생산의 가능성을 엿보다.

4년 째 20대를 조직하기 위해 기획된 물질은 올해 20대 여성주의자들이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하며 여성주의자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캠프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상 속 여성주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성주의자 7명을 만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3개월간의 액션팀 활동으로 여성주의 실천적 삶에 대한 고민을 지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20대와 민우회와의 네트워크와 신뢰가 구축되는 소정의 성과

를 거두었으며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지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 이후 네트워킹의 범위를 확대하고 나아가 여성주의적 고민을 시작하는 단위들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내에서 여성주의의 확산하는 매개체 역할로의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미래준비사업으로 기획된 별칭짓기사업은 민우회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기획과정에서 단순히 별칭을 짓는 것이 아닌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많은 역량과 준비과정 그리고 회원들과의 소통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이후 체계적인 기획을 가지고 폭 넓은 소통과정을 거쳐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5. 트위터, 해피로그를 통해 대중에게 민우회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다.

블로그, SNS 등 작년에 신설한 온라인 창구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민우회의 활동을 대중에게 홍보하고 대중과의 소통창구를 활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온라인 컨설팅을 통해 현재 민우회가 활용하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점검하고 이후의 활용방향과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상을 만들어낸 것은 큰 성과이다. 내년에도 집중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일상적인 SNS를 활용한 민우회의 활동 홍보에 애써야 할 것이다.

재정적 안정을 위해 새로운 모금기획을 강화하는 작업은 많은 사전 조사와 기획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을 추동해 낼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인력이 절실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 위해 내년에는 조직적 지원을 통해 다양한 기획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1년 사업목표의 3가지 키워드는 ‘새로운 담론 형성’, ‘운동의 심화’, ‘미래준비’였다.

세 가지 키워드를 올 한해 사업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중심으로 세우려 노력했다. 그 노력의 성과들은 어느 때 보다 많은 그리고 또 주제도 다양했던 토론회와 문화제 등의 행사로 결실을 드러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이사과 정책위원, 활동가(운영위원), 회원들의 역할이 컸다. 어느 때 보다 밀접하게 연구자로 토론자로 그리고 인터뷰어와 인터뷰이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었다. 그 결과 사업의 활성화 뿐 아니라 내용을 풍부하게 함으로서 새로운 담론 형성과 의제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여성회의 애프터를 신청하다’, ‘공정한 병역이행 남자가 말하다’ 를 통해 시의성 있는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더불어 돌봄에서 초점을 확대하여 주거, 연금 등 전 영역에서의 성평등 복지 의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통해 여성주의적 복지정책이 왜곡되고 협소한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흐름에 발맞추어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그동안 여성운동계의 정책적 대안 부재라는 한계를 스스로 벗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움직임이었다. 다양한 여성들의 삶의 문제를 반영하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안을 마련함으로써 내년 총대선 정국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평가(안)

## 회원조직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활발한 회원참여를 기반으로 민우회 사업전반에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소모임 신설 등 역동적인 회원활동을 구현한다.
- 2) '21세기를 여는 회원확대 캠페인 2011'을 통해 새로운 회원층을 발굴, 여성운동의 저변을 확장하고 회원과의 따뜻하고 진솔한 관계맺음으로 회원조직 정체성을 강화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올해 회원활동은 다양한 성격의 소모임을 새롭게 조직하면서 회원 참여를 보다 활발하게 이끌어내고 새로운 활동 회원층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성주의 내공세미나모임, 자기성장모임, 자전거모임, 생활글쓰기모임이 구성됐고 이 모임들에서 활동을 시작한 회원들이 늘어나 활동 회원층이 다양해졌다. 향후, 새로운 소모임 활동회원들은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를 통한 회원활동 및 다른 소모임과의 보다 유기적인 연계 접점을 이끌어내고 친밀한 관계맺음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소모임들의 활동은 동력을 얻지 못한 채 느슨하게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기존 소모임들은 모임의 목적이나 운영방식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모임 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 주최로 기획 실행한 회원 모꼬지(7월)와 회원 송년회(12월)는 활동 회원과 비활동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고 회원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이어가, 참신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기획됐으며, 뜨거운 참여 속에 진행됐다. 특히 회원 모꼬지의 경우 4년 만

에 부활된 프로그램으로서 비활동 회원을 포함하여 회원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등 회원 활동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모꼬지의 기획 및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후로도 모꼬지와 같은 회원 프로그램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소모임별 모임 외에 전체 회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만듭으로써 회원이 주체적으로 서로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나누고 회원 정체성을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는 계기마련이 중요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회원들이 기획단(식당여성노동자 설문조사 참여단 ‘여휴인’, 낙태소시오드라마팀 ‘얼음뎡2’, 성교육교구개발기획단 ‘석달만씨’)이나 이슈 모임(반지하 주거권모임 ‘반반올라가면 일층’)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기획단 활동은 회원들의 일상 속 고민과 아이디어를 담아냄으로써, 민우회 활동들이 보다 실제적이고 대중적으로 펼쳐질 수 있게 했으며, 이슈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와 다양한 방식 속에 진행돼 회원들이 여성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통로를 제공했다. 또한 회원들 스스로 각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등 긍정성이 큰 회원활동의 주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 지속적인 이슈결합 회원활동을 위해 사업 종료 후에도 소통을 명확히 하고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민우회 활동을 통한 회원들의 참여뿐 아니라 회원들의 일상 속 여성이슈를 가지고 소통하고자 하였다. 회원참여캠페인 ‘내가 있는 곳이 민우회’와 민우회원 만남의 날 ‘탐나는 다방’을 통합하여 활동가가 회원들이 있는 곳, 회원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 다양한 여성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다.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봄, 가을 연 2회기로 진행한 여성주의 세미나(멋진 페미니스트 되기 프로젝트, 환절기)모임은 회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었다. 활동회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기르고 신입모임 구성원간의 유대관계 형성을 위해 모임의 시간대, 주기, 내용 및 홍보 등 기획 구성을 보다 새로이 할 필요가 있다.

향후 회원활동에서도, 민우회와 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첫째, 회원 모꼬지, 송년회 등을 통해 다양한 회원층의 욕구를 반영하여 비활동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둘째, 활동회원이 다양한 민우회 활동 속에서 보다 즐겁게 보람을 느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새로운 소모임을 안착시킴으로써 회원활동에 신선한 동력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올해 회원확대 캠페인 ‘21세기를 여는 2011명’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현재 (11/21) 255명의 새로운 회원을 만났고 84%목표를 달성했다.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였음에도 100% 목표를 이루지 못한 주요 이유는 회원을 통한 회원확대 비율(5%)이 낮았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에 내년에는 회원을 통한 회원확대 방안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차(별에 눈감지 않는)도(시)녀(자)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주축으로 대상과 장소를 달리하여 적극적인 회원가입 캠페인을 진행했다. 38세계여성의날 기념 연

속캠페인, 여성영화제 기간 캠페인은 여전히 회원가입 주력층이 있는 곳으로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재정사업 빨래와 민우유스네트워크 <물, 길> 2기 등 사업과의 연계 속에서 회원가입이 두드러져 활동을 통한 소통 속에서 회원가입이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또한 가입 대상층에 대한 면밀한 접근을 통해, 작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회원확대캠페인에 비해 발전된 형태로서 ‘고구마줄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획은 참신했으나 그 대상이 생협매장과 회원의 직장 1곳, 민주노총 총 3곳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대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슈, 신선하고 유연한 방법, 감동적인 홍보영상 개발 등 새로운 기획의 소개 프로그램 개발의 작업이 요구된다.

올해 회원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소소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출되었는데 원활한 집행을 위해 향후 다다다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은 재미있게 실행하고 회원팀에서는 비회원대중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의 활동가 재교육과 제반 프로그램을 기획, 집행하는 역할조율이 필요하겠다. 회원가입경로를 보면, 상근활동가의 권유를 통한 회원가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한 회원 가입도 사실상 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회원가입 권유에 대한 동기를 확실히 부여하고 활동 속에서 회원가입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비인상캠페인도 별도로 진행되지 않아 작년에 비해 회비인상이 감소했다. 또한 홍보대사에 대한 지속적 관계맺음을 하지 못했는데, 참여한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적극성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활동 회원층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도 좋겠다.

한편, 따듯하고 진솔한 관계맺음을 통해 ‘민우회 회원’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형성하고자 노력한 한해였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에서는 다양한 소재로 소통하기를 시도하였다. 매회 주제를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 어릴 적 추억, 명절 추억 등 다양한 주제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회원을 통한 회원활동 소개는 단순한 회원활동 목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실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의 소감을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었어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소개가 되도록 했다. 조각그림 그리기, 팔방수 만들어 먹기, 함께 시 짓기를 통해 회원의 활동욕구를 파악하고 관심사를 소통했다. 그러나 홍보와 조직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하는 동시에 일회적인 만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신입모임과 결합한 형태를 시도하는 등 좀 더 유기적인 관계맺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문자메시지, 감사전화 하기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첫 달 회비 감사 문자메시지를 성실하게 보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회비납부를 유도한 활동이 기도 했다. 가입 후 빠른 시일 안에 감사전화와 함께 손 편지를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써 민우회와 따뜻하고 긴밀한 관계맺음을 이어갔다. 특히 손 편지는 감성을 자극하는 좀 더 따뜻한 관계맺음이었다는 회원들의 피드백을 받았다. 그리고 상반기에 미납회원 회비독려 전화를 통해 회비계좌변경, 주소변경 등의 정보변경을 하였고 이는 회비 안정화로 이어졌다. ‘회원과 소통하는 날’을 마련하여 회원과의 일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회비 안정화 및 민우회 활동과의 긴밀한 연계를 꾀할 필요가 있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회원 및 회비 현황

#### 1) 2011 본부지부 회원현황

회원현황표						
소속	정회원	일반회원 (구독회원)	평생회원	회원합계	생협회원	총 회원수
본부	1,504	418(13)	125	2,047	9,054	11,101
고양파주	351	216	57	624	3,859	4,483
광주	161	186	10	357		357
군포	138	103	15	256		256
남서	94	10	12	116	4,921	5,037
동북	304	59(53)	48	411	4,141	4,552
원주	93	75	16	184		184
인천	41	198(87)	17	256		256
진주	133	227	0	360	820	1,180
춘천	167	147	26	340		340
미디어	33	0	0	33		33
지부부설 소계	1,515	1,221(140)	201	2,937	13,741	16,678
<b>합계</b>	<b>3,019</b>	<b>1,639(153)</b>	<b>326</b>	<b>4,984</b>	<b>22,795</b>	<b>27,779</b>

2) 2011 본부지부 월별 신입회원 가입현황

월 소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합계
본부	16	13	46	19	7	19	23	21	24	25	26	17	256

고양파주	9	3	12	13	22	9	4	2	3	6	12	5	100
광주	8	3	0	9	5	1	2	1	4	5	1	0	39
군포	1	4	2	7	1	11	1	2	3	3	4	0	39
남서	0	1	1	2	0	0	0	0	2	0	0	0	6
동북	3	1	0	5	1	4	1	0	0	2	3	0	20
원주	4	4	10	6	15	4	2	2	4	1	6	1	59
인천	1	0	3	1	3	5	1	0	3	1	2	5	25
진주	3	1	1	4	6	9	4	0	0	3	15	2	48
춘천	1	3	9	7	2	15	3	4	3	3	13	2	65
미디어	0	0	0	0	0	0	0	0	0	0	0	1	1
지부부설합계	30	20	38	54	55	58	18	11	22	24	56	16	402
생협	317	217	297	435	473	423	290	338	252	278	252	181	3753

합계	363	250	381	508	535	500	331	370	298	327	334	214	4411
----	-----	-----	-----	-----	-----	-----	-----	-----	-----	-----	-----	-----	------

3) 2011 본부 월별 신입회원 가입현황 및 경로

구분	권유	교육강의	캠페인	온라인	기타	직접	합계
1월	10	0	0	0	3	3	16
2월	7	0	0	1	0	5	13
3월	9	2	27	4	0	4	46
4월	1	0	12	4	0	2	19
5월	4	0	0	2	0	1	7
6월	11	0	3	4	0	1	19
7월	19	0	1	2	0	1	23
8월	13	0	0	5	0	3	21
9월	21	0	0	3	0	0	24
10월	14	4	0	6	0	1	25
11월	22	0	0	3	0	1	26
12월	6	0	0	10	0	1	17
합계	137	6	43	44	3	23	256

#### 4) 2011 본부지부 회비현황

‘ CMS 회비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본부	12,310,000	13,659,000	13,709,000	13,532,000	13,598,000	12,844,000	12,617,000
지부	19,738,000	19,880,000	19,893,000	20,141,000	20,257,000	20,406,000	20,908,000
미디어	435,000	415,000	420,000	430,000	450,000	430,000	430,000
합계	32,483,000	33,954,000	34,022,000	34,103,000	34,305,000	33,680,000	33,955,000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액
본부	12,759,000	13,009,000	13,615,000	12,941,000	13,466,000	158,059,000
지부	20,571,000	20,712,000	20,724,000	20,452,000	21,253,000	244,935,000
미디어	425,000	425,000	425,000	425,000	405,000	5,115,000
합계	33,755,000	34,146,000	34,764,000	33,818,000	35,124,000	408,109,000

‘ CMS 제외 회비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본부	375,000	425,000	495,000	315,000	155,000	355,000	175,000
지부	425,000	425,000	625,000	200,000	435,000	325,000	435,000
합계	800,000	850,000	1,120,000	515,000	590,000	680,000	610,000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액
본부	265,000	285,000	345,000	145,000	265,000	3,600,000
지부	455,000	335,000	485,000	520,000	560,000	5,225,000
합계	720,000	620,000	830,000	665,000	825,000	8,825,000

## 2. 회원 소모임 활동 강화를 통한 역동적인 회원활동 구성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로운 소모임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주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 소모임 발굴하고 다양한 활동 욕구를 반영한 단기, 장기 소모임 구성한다.</li> </ul> </li> <li>2.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 활동 강화(격월 연 6회)</li> <li>3. 회원이 만드는 활동 및 비활동 회원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모임 및 기획단 박람회(4월), 운동회가 있는 1박2일 회원 총애편(8월), 회원 송년회(12월)</li> </ul> </li> <li>4. 기존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li> <li>5. 신입회원 만남의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우회 소개 및 함께하는 놀이</li> <li>- ‘민우회와 나’를 주제로 신입회원 소개하기</li> </ul> </li> <li>6. 신입회원과 기존회원과의 만남의 날 진행(연 1회 이상)</li> <li>7. 신입회원 세미나</li> </ol>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새로운 소모임 조직</li> </ol>

소모임명	활동 주제 및 내용	담당	모임주기
내공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주의 관련 책 읽고 경험 나눔</li> <li>· 7/6 남성성과 젠더 1장</li> <li>· 7/20 남성성과 젠더 2장</li> <li>· 8/3 남성성과 젠더 3장</li> <li>· 8/17 남성성과 젠더 4장</li> <li>· 여성주의 고전읽기 &lt;열독&gt; 참여</li> <li>· 11/9 남성성과 젠더 5장</li> <li>■ 참여회원: 평화, 정엽, 빠른거북이, 세라, 면진, 회색연필, 무사고</li> </ul>	폴	격주 1회(수)
생활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와 주변의 생활을 글로 표현하기</li> <li>· 7/1, 7/15, 7/22, 8/12, 8/26, 9/7, 9/23, 10/7, 10/24, 11/11: 생활 글 쓰고 읽고 이야기 나눔</li> <li>■ 참여회원: 용가리, 수선화, 두부, 배짱이, 캔디, 그루</li> </ul>	낭미	격주 1회(금) 오전11시
자전거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전거를 매개로 친목도모 및 새로운 동력을 일상화</li> <li>· 7/23: 한강 라이딩</li> <li>· 8/6: 한강 여의도 라이딩</li> <li>· 10/15: 자전거로 두물머리가요제참여</li> <li>■ 참여회원: 미드, 잔느, 까리, 세라, 리나, 화창, 또세, 윤소, 달개비</li> </ul>	나은	수시 (주말)
자기성장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만의 고유 빛깔을 찾아가면서 일상 속 힘과 용기를 키우는 모임</li> <li>· 7/12~8/30(6회): 집단상담프로그램(회원 황은영 재능나눔)</li> <li>· 9/26~ 11/14(5회): 애니어그램(강사-정은지)</li> <li>■ 참여회원: 최강, 타란, 빈의자, 하토르, 프마, 단팔, 도화지</li> </ul>	주가이	격주1회 (월/화)

2.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 활동 강화(격월 연 6회)

- 제 1차 다다다 회의
- 일시: 1월 14일(화)
- 참석: 요망단(가을), 육결(물결), 작삼(수풀), 다소(오스칼), 회원팀 신기루, 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li> <li>· 2011 회원활동계획, 각 소모임 활동계획 나눔</li> <li>■ 제 2차 다다다 회의</li> <li>- 일시 2월 15일(화)</li> <li>- 참석: 요망단(가을), 육결(물결), 작삼(수풀), 다소(오스칼), 회원팀 신기루, 폴</li> <li>- 안건</li> <li>· 소모임별 활동공유, 총회평가, 여성의 날 기념행사 및 회원참여 프로그램 기획, 회원확대캠페인 기획, 함께 가는 여성 모람풍경 논의</li> <li>■ 제 3차 다다다 회의</li> <li>- 일시: 5월 17일(화)</li> <li>- 참석: 요망단(가을), 명치(물결), 세여소(달빛), 다소(오스칼), 회원팀 신기루, 폴</li> <li>- 안건</li> <li>· 소모임 별 활동공유, 모꼬지 일정 및 장소 확정, 프로그램 기획</li> <li>■ 제 4차 다다다 회의</li> <li>- 일시: 6월 27일(월)</li> <li>- 참석: 세여소(달빛), 작삼(수풀), 다소(오스칼), 명치(물결), 요망단(가을), 회원팀 신기루, 폴</li> <li>- 안건</li> <li>· 소모임 별 활동공유, 재정사업 및 회원확대 캠페인</li> <li>■ 제 5차 다다다 회의</li> <li>- 일시: 10월 21일(금)</li> <li>- 참석: 다소(오스칼), 세여소(체리향기), 명치(윤소), 요망단(보넌), 설로우고고(그루), 회원팀 신기루, 폴</li> <li>- 안건</li> <li>· 소모임 별 활동공유, 재정사업 평가, 벼룩시장 및 송년회 기획</li> <li>■ 제 6차 다다다 회의</li> <li>- 일시: 11월 22일(화)</li> <li>- 참석: 다소(오스칼), 세여소(달빛), 내공세미나(희색연필), 자기성장모임(최강), 회원팀 신기루, 폴</li> <li>- 안건</li> <li>· 송년회 기획 및 소모임 활동 평가서 공유</li> <li>■ 제 7차 다다다 회의</li> <li>- 일시: 12월 13일(화)</li> <li>- 참석: 다소(오스칼), 생활글쓰기(지원), 내공세미나(희색연필), 설로우고고(그루)</li> </ul>
--	---

- 루), 요망단(가을), 작심삼일(단팔), 회원팀 풀, 꼬감, 모후아
- 안건
- 송년회 평가, 소모임 활동 평가 나눔
- 제 25차 정기총회 일정 및 프로그램 공유

**3. 회원이 만드는 활동 및 비활동 회원 참여 프로그램**

1) 민우회원 모꼬지

- ① 일시: 7월 30-31일(1박 2일)
- ② 장소: 일영유원지 햇살마루 펜션
- ③ 프로그램

	프로그램	진행
첫째 날	인사, 팀 나누기	회원팀
	마니또 게임	수풀
	동심게임 (공기놀이, 투호, 비석치기, 망줍기)	물결
	저녁 식사	다 같이
	스윙 배우기	오스칼, 새음
	뒤풀이(각종 게임)	다 같이
둘째 날	아침 식사	다 같이
	마니또 발표 및 마무리	회원팀

- ④ 기타: 회비 30,000원
- ⑤ 참여인원(활동회원 16명, 비활동회원 9명, 활동가 13명 총 38명)

2) 회원 송년회 '민우회 날라리'

- ① 일시: 12월 2일(금) 오후 7시 반
- ② 장소: 시민공간나루 성미산 마을극장
- ③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1부	인사	
	오프닝 공연1	탱고(회원 에바, 자보)
	갯잎 문학관	내공세미나, 세여소, 글쓰기모임 발표
	동시상영관	자기성장모임, 요망단, 작심삼일 발표
	음악다방	기타모임 명치 공연(2곡)
	쉬는 시간	
2부	오프닝 공연2	풍물모임 설로우고고 공연
	뮤지컬 설거지	빨래 패러디공연(수풀, 바리, 민트, 날리)
	오락실	2011 민우회 키워드로 하는 단체빙고 게임

		따뜻한 마음의 정을 나누는 선물교환
	고고장	다소 공연
		다 같이 추는 <민우회 날라리> 라인댄스
	뒤풀이	

④ 기타: 참가비 5,000원

⑤ 참여인원: 비활동 회원 포함 70여명

#### 4. 기존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

##### 1) 기존 회원 소모임 활동

- 다소(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소소한 즐거움)
  - 고전읽기 <열독> 적극 참여 등 민우회 각종 행사 참여
  - 격주 1회(수)
- 세여소(세계로 가는 여성주의 소설읽기)
  - 김애란 <물 속 골리앗> 읽기 등 민우회 각종 행사 참여
  - 격주 1회(화)
- 작심삼일
  - 각 소모임 특징 클레이아트 제작(함께가는여성 203호 표지로 활용)
  - 연극 및 영화 관람 등 민우회 각종 행사 참여
  - 격주 1회(수)
- 요망단(여성주의 영화제작)
  - 영화 관람 및 단편 영화제작
  - 뮤지컬 빨래 맛이 <나의 아름다운 세탁소> 작은 영화제 개최
  - 월 1회(월)
- 코드명: 치명적(기타 연주 소모임)
  - 수준별 기타 교육 및 연주회 개최
  - 정모 격주 1회
  - 비정기 공연(현대차 대응 문화제, 여성의 날, 마을축제 등)
- 설로우고고(여성주의 풍물패)
  - 풍물 연습 및 공연(귀어문화축제 퍼레이드 길놀이, 송년회)
  - 정모 매주 1회(수) 외 비정기 번개(면월경대 제작 등) 모임

##### 2) 소모임 상근자 교육 및 회의

- 소모임 상근자 교육
  - ① 일시: 4월 26일(화)
  - ② 강의: 김인숙

- ③ 참석: 모후아, 나은, 낭미, 너굴, 풀
- ④ 내용: 회원, 회원조직, 회원 소모임의 의미와 역할, 회원과의 관계 맺음 방법 등 조직 활동가 마인드 기르기
- 1차 소모임 상근자 회의
  - ① 일시: 8월 10일(수)
  - ② 참석: 풀, 신기루, 하이다, 모후아, 꼬감, 여경, 낭미
  - ③ 내용: 각 소모임 별 활동 내용 공유 및 하반기 활동 계획 나눔, 담당 활동가로서의 고민 나눔
- 2차 소모임 상근자 회의
  - ① 일시: 12월 1일(목)
  - ② 참석: 풀, 신기루, 하이다, 꼬감, 모후아, 여경, 나은, 주가이
  - ③ 내용: 각 소모임 별 활동 평가

### 5. 신입회원 만남의 날

1) 신입회원 만남의 날(격월, 총 5회 진행)

일시	참석	내용
3월 29일 (화) 늦은 7시 30분	9명	<b>1차: '어느 봄 날, 신입회원 만남의 날'</b> ① 가볍게 민우회 소개 : 민우회 동영상보기 ② 신입회원 소개 : 지금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지품으로 자기 소개 ③ 자세한 민우회 소개 : 민우회 20년사 동영상 보기, 다양한 민우회 회원활동 소개, 기꺼이 불편해지기 민우회 문화 소개 ④ 함께 하는 활동 : 봄맞이 '조각그림'만들기 - 꽃 밑그림에 우리(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 세상 꾸미기 -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주의가 꽃피우기를 라는 해석
5월 24일 (화) 늦은 7시 30분	3명	<b>2차: '오월, 푸르른 날 민우 신입회원 만남의 날'</b> ① 가볍게 민우회 소개 : 민우회 동영상보기 ② 신입회원 소개 : 어렸을 때 나를 이야기 하며 서로 친해지기(어릴 때 사진 가져오기) *회원참여율이 적어서 간소하게 진행함.
7월 14일 (목) 늦은 7시	12명	<b>3차: '초(初)복덩이 신입회원 만남의 날'</b> ① 가볍게 민우회 소개 : 민우회 동영상보기 ② 신입회원 소개 : 여름의 추억이야기 하며 서로 알아가기 ③ 자세한 민우회 소개 ㉠ 민우회 20년사 동영상 보기 + 퀴즈를 통해 민우회 더 알아가

30분		기 (사무처장 담당 /10분, 5문항 정도) ⑥ 민우회 문화 소개 / 민우 회원활동소개 / 회원이 직접 소모임 소개 (7월 - 수플 담당) ④ 함께 하는 활동 : 나만의 레시피로 여성주의 빙수 만들기! (우유빙수 만들어 먹기)
9월 27일 (화) 늦은 7시 30분	11명	4차: '구월, 신입회원 만남의 날' ① 가볍게 민우회 소개 : 민우회 동영상보기 ② 신입회원 소개 : 추석 명절 추억 이야기 하며 친해지기 ③ 자세한 민우회 소개 : 민우회 20년사 동영상 보기, 다양한 민우회 회원활동 소개, 기꺼이 불편해지기 민우회 문화 소개
11월 23일 (수) 늦은 7시 30분		5차: '똑똑똑! 신입회원 만남의 날' ① 가볍게 민우회 소개 : 민우회 동영상보기 ② 신입회원 소개 : 우리가 민우회를 선택한 이유 ③ 자세한 민우회 소개 : 민우회 20년사 동영상 보기, 다양한 민우회 회원활동 소개, 기꺼이 불편해지기 민우회 문화 소개 ④ 함께 하는 활동 : 함께 맞춰 가는 '마음퍼즐'(함께 짓는 시)

6. 2011 멋진 페미니스트 되기 프로젝트, 환절기

(1) 4월 신입회원 세미나

- ① 일정: 4월 21일~5월 26일, 매주 목요일(총 5회)
- ② 참가: 총 9명(가현, 레몬, 블랙빨, 즐거운, 뽕, 세라, 평화, 낭미, 모후아)
- ③ 주 교재: 여성학(미래M&B)
- ④ 내용

주제	내용	비고
1강. 여성주의 및 여성학 기본	여성주의에 대한 기본적 흐름을 읽고 일상 속 여성 및 소수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눔.	진행: 풀
2강. 성폭력에 대한 통념깨기	성적의사소통 능력 점검.데이트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사고방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눔.	진행: 썬(성폭력 상담소)
3강. 여성의 노동 현실, 고용평등법 보기	'나의 노동인생곡선 그리기'를 하며 각자 겪었던 다양한 노동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여성노동권 문제를 나눔.	진행: 바람(고용평등상담실)



	교육 및 조직활동가 체크리스트 개발, 활용.																											
집행	<p>1. 민우회원 만남의 날 ‘탐나는 다방’ 진행</p> <p>- 회원이 있는 곳에서 회원 각자의 여성주의 관련 일상 및 고민과 민우회 활동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모람세상에 공유</p> <table border="1" data-bbox="327 353 1150 663"> <thead> <tr> <th></th> <th>글쓴이</th> <th>회원</th> </tr> </thead> <tbody> <tr> <td>4월</td> <td>하이디(김희정)</td> <td>오서방(오성민)</td> </tr> <tr> <td>5월</td> <td>신기루(선백미록)</td> <td>즐거운(조은혜)</td> </tr> <tr> <td>6월</td> <td>나은(문성훈)</td> <td>서소(서소은희)</td> </tr> <tr> <td>8월</td> <td>모후아(지은정)</td> <td>길고양이(김예림)</td> </tr> <tr> <td>8월</td> <td>여경(정슬아)</td> <td>오디(오세은)</td> </tr> <tr> <td>10월</td> <td>반아(문지은)</td> <td>재운(노재운)</td> </tr> <tr> <td>12월</td> <td>달개비(정하경주)</td> <td>파란(유영선)</td> </tr> <tr> <td>2011년</td> <td>7명</td> <td>7명</td> </tr> </tbody> </table>		글쓴이	회원	4월	하이디(김희정)	오서방(오성민)	5월	신기루(선백미록)	즐거운(조은혜)	6월	나은(문성훈)	서소(서소은희)	8월	모후아(지은정)	길고양이(김예림)	8월	여경(정슬아)	오디(오세은)	10월	반아(문지은)	재운(노재운)	12월	달개비(정하경주)	파란(유영선)	2011년	7명	7명
		글쓴이	회원																									
4월	하이디(김희정)	오서방(오성민)																										
5월	신기루(선백미록)	즐거운(조은혜)																										
6월	나은(문성훈)	서소(서소은희)																										
8월	모후아(지은정)	길고양이(김예림)																										
8월	여경(정슬아)	오디(오세은)																										
10월	반아(문지은)	재운(노재운)																										
12월	달개비(정하경주)	파란(유영선)																										
2011년	7명	7명																										
	<p>2. 전 상근활동가 조직활동가 정체성 강화를 위한 활동</p> <p>① 일시: 6월 16일(목)</p> <p>② 참석: 하이디, 신기루, 모후아, 폴, 바람, 하나, 꼬잠, 나우, 썬, 너굴, 달개비, 여경, 나은, 주가이, 낭미</p> <p>③ 내용: 상근자를 통한 회원 확대 필요성 공유, 회원과의 일상적 소통 방법 나눔, 회원 전화(정보변경, 탈퇴, 가입문의) 응대방법 실습 등</p> <p>3.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회원활동</p> <p>1) 여연 주최 3·8 여성대회</p> <p>① 기념식</p> <p>- 일시 및 장소</p> <p>: 2011년 3월 7일(월) 오전 11~12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p> <p>· 제27회 한국여성대회 소개 및 축사·성평등 디딤돌걸림돌 발표</p> <p>· 제23회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퍼포먼스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p> <p>② 전국 동시다발 플래시몹 ‘Happy Women’s Day!’(3/8)</p> <p>- 일시 : 2011년 3월 8일(화) 오후 12시~오후 6시</p> <p>- 장소 : 지역별 유동인구 밀집지역 12시(명동), 3시(강남역), 5시(신촌)</p> <p>- 프로그램: 깜짝 플래시몹(아바 ‘댄싱 퀸’라인댄스) 및 여성의 날 홍보</p> <p>③ 특별기획 ‘Herstory telling’(3월 한 달 간)</p> <p>- 프로그램: 네이버 해피빈, SNS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한 유포 및 확산</p> <p>④ 사,고,축 캠페인 : 엄마, 언니, 동료 등 주변의 여성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함.</p> <p>2) 민우회원과 함께 하는 3·8 세계여성의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민우회 3·8주간: 3/3~3/8(6일간)</li> <li>- 제목: 체인지 가든 ‘마치 내가 ‘여성’인 듯’</li> <li>- 목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 간의 자매애, 연대의식 고양</li> <li>- 프로그램</li> </ul>	
프로그램	내용
마치 내가 ‘여성’인 듯! 체인지 가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인지가든: 4가지 여성 경험 체험하기: 공공장소(택시)에서, 직장(임신출산)에서, 가족(명절노동)에서, 식당(여성노동)에서</li> <li>• [3.8=365] 기념버튼 만들기</li> <li>• 무경계 라인댄스</li> </ul>
3.8맞이 특별 미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3월 3일~8일, 6일 동안 내 주변의 여성들에게 마음만 가득 품고 있던 말들 표현해보도록 함.</li> <li>• 미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 이모, 고모 등의 여성 가족에게 감사메시지 고맙습니다. 사랑해요.</li> <li>-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면 식당여성노동자에게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li> <li>- 딸이나 여자조카에게 튼튼하고 씩씩하게 커다오!</li> <li>- 여성인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남자에게 말이 통하는 멋진 그대!</li> <li>- 동료에게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닌 가장 든든한 사람!</li> <li>- 친구에게 차(별)에 눈 감지 않는)도(시)녀(자)인 너! 정말 멋지다! 라고 칭찬!</li> </ul> </li> </ul>
돛자리 음악회	돛자리 위에서 기타모임의 연주 듣기
차별 송판깨기	송판 위에 없애고 싶은 차별을 적고 깨보기 체험
<p>3) 3.8 맞이 체인지가든 대중 캠페인 운영 모금함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피로그: ‘참여하세요’ 게시판에 체인지가든 참여유도 글 업데이트</li> <li>- 2/26~27 네이버 메인 페이지(하단 테마캐스트 사회공헌)에 배너 노출</li> <li>- 모금액: 491,000원</li> <li>- 해피빈 관련 댓글 ‘역차별’대응 답글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한 &lt;체인지 가든&gt; 캠페인’ 업데이트(3/14)</li> </ul>	

#### 4. 회원확대 및 회비인상 캠페인 ‘21세기를 여는 회원확대 캠페인 2011’



<p style="text-align: center;"><b>계획</b></p>	<p><b>1. 회원가입 목표: 303명</b></p> <p>1) 회원확대 거리캠페인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단체회원 되기 캠페인(3월2일~ 3월8일)          - 여성영화제 거리캠페인(4월 중순 일주일간)</p> <p>2) 회비인상캠페인          - 민우회 창립기념 민우회에 생일선물 챙기기 연속진행</p> <p>3) 확대 대상층을 특화한 ‘고구마줄기’를 통한 회원확대          - 집중적인 회원확대가 가능한 여성노동조합 간부, 여성학 교수 등을 발굴해 해당 조직에 찾아가서 회원확대 캠페인을 진행함.          - 대상발굴→정기적인 관리→해당조직 내에서 캠페인 진행</p> <p><b>2. 회원을 통한 회원확대, 일상과 감동의 회원확대</b></p> <p>1) 회원홍보대사 활동 체계화          2) 민우회와 자연스럽게 관계 맺고 회원이 되도록 하는 모임 '둘이 놀다가 하나가 되는 2&amp;1, 놀자!' 운영          3) 일상적인 회원확대 분위기 조성 및 온라인 공간을 통한 꾸준한 독려</p>																																																																																																				
<p style="text-align: center;"><b>집행</b></p>	<p>• 본부 회원가입 목표: 303명          총 255명(11월 21일 현재, 회비인상, 평생회원 포함) 가입</p> <p><b>1. 2011년 회원확대 및 회비인상 현황</b></p> <table border="1" data-bbox="316 1088 1225 1406"> <thead> <tr> <th>구분</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h>총합</th> </tr> </thead> <tbody> <tr> <td>회원 확대</td> <td>16</td> <td>13</td> <td>46</td> <td>19</td> <td>7</td> <td>19</td> <td>23</td> <td>21</td> <td>24</td> <td>25</td> <td>26</td> <td>17</td> <td>256</td> </tr> <tr> <td>회비 인상</td> <td>6</td> <td>1</td> <td>1</td> <td>1</td> <td>-</td> <td>4</td> <td>3</td> <td>3</td> <td>4</td> <td>4</td> <td>-</td> <td>1</td> <td>28</td> </tr> <tr> <td>평생 회원</td> <td colspan="12">장현진(10월), 이은숙(11월), 박어진(11월), 양정규(12월), 홍지명(12명), 김미숙(12월)</td> <td>6</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16 1440 1193 1731"> <thead> <tr> <th rowspan="3">교육강연</th> <th colspan="10">권유 180</th> <th rowspan="3">인터넷</th> <th rowspan="3">직접</th> <th rowspan="3">기타</th> </tr> <tr> <th colspan="5">거리캠페인 55</th> <th rowspan="2">물길</th> <th rowspan="2">상근활동가</th> <th rowspan="2">회원,소모임</th> <th rowspan="2">회원벼룩시장</th> <th rowspan="2">자원활동</th> </tr> <tr> <th>38</th> <th>여성영화제</th> <th>빨래</th> <th>장자연시법정</th> <th>찾아가는 캠페인 (생협, 민주노총)</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	회원 확대	16	13	46	19	7	19	23	21	24	25	26	17	256	회비 인상	6	1	1	1	-	4	3	3	4	4	-	1	28	평생 회원	장현진(10월), 이은숙(11월), 박어진(11월), 양정규(12월), 홍지명(12명), 김미숙(12월)												6	교육강연	권유 180										인터넷	직접	기타	거리캠페인 55					물길	상근활동가	회원,소모임	회원벼룩시장	자원활동	38	여성영화제	빨래	장자연시법정	찾아가는 캠페인 (생협, 민주노총)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합																																																																																								
회원 확대	16	13	46	19	7	19	23	21	24	25	26	17	256																																																																																								
회비 인상	6	1	1	1	-	4	3	3	4	4	-	1	28																																																																																								
평생 회원	장현진(10월), 이은숙(11월), 박어진(11월), 양정규(12월), 홍지명(12명), 김미숙(12월)												6																																																																																								
교육강연	권유 180										인터넷	직접	기타																																																																																								
	거리캠페인 55					물길	상근활동가	회원,소모임	회원벼룩시장	자원활동																																																																																											
	38	여성영화제	빨래	장자연시법정	찾아가는 캠페인 (생협, 민주노총)																																																																																																

7	27	10	14	2	2	13	87	16	6	3	42	21	6
---	----	----	----	---	---	----	----	----	---	---	----	----	---

## 2. 회원가입 캠페인 및 기획행사

### (1)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민우회 회원가입 캠페인

① 제목: 차(별에 눈 감지 않는) 도시녀가 되어 주세요!

② 일시 및 장소

3월 3일(목) 오전 11시 ~ 오후 4시 2호선 삼성역

3월 5일(토) 오후 1시 ~ 오후 4시 시청 앞 청계광장 민주노총 주관 여성대회

3월 8일(화) 오후1시~ 오후 4시 2호선 삼성역

③ 프로그램

- 38기념 주사위를 돌려라!(입술보호제, 월경대, 함께가는 여성, 버튼 선물과 함께 민우회 단체 소개 듣기)
- 민우회 활동 소개 및 회원가입 소개
- 38 여성의 날을 맞아 가장 없애고 싶은 차별은? (찍별밤/ 근가산제/ 여자탓하기/ 성희롱/ 기타 자유롭게 적기)
- 회원가입선물(달콤한 입술, 월경대 등 선물 풀 셋트)
- 회원가입 엽서 배포와 홍보물 신규(회원 홍보대사 소개 및 2011년 주요 활동 소개)제작

④ 결과 및 평가: 총 27명 회원가입(회비인상 1명)

### (2) 4월 여성영화제 맞이 민우회 회원가입 거리 캠페인

① 제목: 차(별에 눈 감지 않는) 도시녀가 되어 주세요!

② 가입목표: 15명

③ 일시 및 장소 : 4월 8일 금요일 3시~7시/ 4월 9일 토요일 10시 30분~1시 30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신촌 아트레온 열린광장

④ 프로그램

- 돌려라! 선물 주사위! : 입술보호제, 민우회 버튼, 함께가는 여성, 사탕, 민우회 주최 영화 초대권 응모기회, '민우회는 어떤 단체일까요?' 설명 듣기
- 여성주의 체험하기! :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를 위한 인권 밥상 차리기, 낙태 에 대한 통념 OX스티커 붙이기, 성폭력 통념 OX퀴즈

⑤ 평가: 총 12명 회원가입(회비인상 2명)

### (3) 2&1여성영화초대 '21세기를 여는 짜릿한 13일의 금요일'

- 일시: 5월 13일(금) 오후 7시

- 대상: 여성영화제 차도녀 캠페인에서 여성영화초대권에 당첨된 18명+회원이 데려오는 회원가입대상 5명

- 가입목표: 5명
- 프로그램: 공포영화‘인어공주의 유혹’ 상영후 민우회 소개 및 즉석회원가입 코너 진행.

(4) 행복중심 생협매장 찾아가는 거리 캠페인

- 가입목표: 상암매장 10명
- ① 사전활동 ‘생협조직 이해하기’ 교육
  - 목적: 생협활동에 대한 이해, 조합원의 참여와 생협조직(회비와 출자금의 차이, 생활재 이용 등)에 대한 이해, 민우회와 생협운동의 역사성 이해가 필요함.
  - 일시: 7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 강사: 공기
- ② 일시 및 장소: 7월 25일 오후 4시~7시 상암매장 앞
- ③ 회원 가입대상: 행복중심생협조합원
- ④ 프로그램: 참석인원(회원팀 4명, 달개비 총5명)

프로그램	내용
주사위를 돌려라!	주사위 돌린 후 민우회 소개 (입술보호제, 평등한 가족문화만들기 수첩, 영화초대권, 민우회 버튼, 함께가는여성, 사탕)
우리아이에게 꼭 필요한 책자! 받아가기	성적의사소통 통념 체크리스트 후 상담, 아동지킴이를 위한 길라잡이 배포
여성주의 도서상담코너	민우회 발간 도서 3종+여성학, 행복한 페미니즘 등 여성주의 기본 도서 소개

- ⑤ 홍보: 조합원 전체 대상 문자홍보, 웹자보 출력 매장에 광고
  - ⑥ 결과: 회원가입 1명
- (5) 기타- 장자연 시민법정 진행시 회원가입 거리 캠페인
- 일시: 6월 8일 수요일
  - 장소: 홍대 차없는 거리
  - 프로그램: 가입설명 판넬 및 DD, 강용석 서명받기 등
  - 가입: 가입2명, 회비인상 1명
- (6) 회원가입을 위한 베틀시장
- ① 목표: 33명
  - ② 대상: 회원의 지인, 직장동료, 친구, 그 외 미가입자
  - ③ 프로그램

일시	11월 18일(금) 저녁7시
장소	나루 교육장
프로그램	각 소모임별 베틀시장 참여 민우회 활동소개 및 즉석가입부스 운영 타로(나디아)

④ 결과: 6명 회원가입, 약 40만원 수입

(7) 고구마 즐기 활동

① 목적: 회원가입이 가능한 핵심적 장소(\*\*대회, \*\*건물)와 인물(\*\*학교 ○○씨, \*\*노조 ○○위원장)를 추천받아 찾아가는 회원가입 캠페인 진행.

② 성미산 마을 축제(5월 29일 오후1시~4시)

- 가입목표: 5명

- 프로그램: 주사위를 돌려라! 코드명치명적의 기타공연

③ 고구마 즐기 찾아가는 회원가입 설명회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방문 설명회 진행: 6월 21일 오후 2시에 여성위원회 정기회의에 방문 민우회 소개 및 즉석회원가입 프로그램 진행함.

- 결과: 총 1명 가입

④ 민우회 소개영상 및 민우회 소개 참여식 프로그램 개발: 민우회 영상 편집작업(7/8까지).

⑤ 고구마 즐기 찾아가는 회원가입 설명회

- 일시장소: 7월 14일 회원 소다 회사 율토피아(3호선 경찰병원역)

- 대상: 콜센터 중간관리자 리더십교육 수강자 40명

- 참석: 주가이, 신기루

- 프로그램: 민우회 소개영상 및 민우회 소개 PT

(8) 평생회원 조직

① 목표: 10명

② 대상: 고액후원자, 열심회원, 전 상근활동가, 직장에서 상여금이나 포상 받은 회원

③ 홍보: 함께가는 여성 전면광고(11-12월호)

3. 일상적인 회원확대 분위기 형성

(1) 온라인 회원가입 배너 제작 배포(3/24)

(2) 하반기 주요사업 총화 프로그램 및 토론회를 통한 회원확대

① 목표: 53명

② 대상: 토론회 발제자 및 토론자, 참가자, 사업관련 관계자(다큐감독, 공모당선자, 공모참여자)

	<p>(3) 상근활동가를 통한 회원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가입목표 : 각 7명</li> <li>- ‘77스마일’ : 7월 한 달 동안 7명! 회원확대</li> <li>- 상근활동가 마인드 교육: 6/15(수) 오전 10시 30분 전체 상근자에 대한 회원 확대 마인드 강화 교육 후 회원가입을 위한 꾸러미(함께가는 여성, 소형 민우회 활동소개DD, 가입다짐서, 리플렛, 가입서등) 전달</li> </ul> <p>① 목표: 40명</p> <p>② 대상: 활동가의 지인, 가족, 개인별 인터뷰 담당자, 사업관련 연대회의 관련자</p> <p>③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별 활동가 가입방법: 신입(가족, 애인, 친구 등 지인), 중견이상(개인 인터뷰 적극 응대, 방문상담자 가입권유, 업무상 관계자)</li> <li>- 회원가입 최다 상근활동가 및 노력활동가에 시상(문화상품권)</li> </ul>
--	---

## 5. 회원에 대한 일상적인 관계 맺기 및 회비 안정화

계획	<p>1. 전체회원에 대한 접촉면 확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일상화하고 회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획, 독려한다.</li> <li>2) 전체 회원에 문자 메시지: 민우회의 주요한 활동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 감동 생일축하 문자 메시지</li> <li>3) 전체회원에 연2회 전화 연락을 통한 접촉 확대 : 연중 본부 전회원이 2회 정도 전화 안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li> <li>4) 회원 간 활발한 소통 및 상근자 회원조직 활동가 마인드 강화</li> </ol> <p>2. 회원정보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 DB에 들어갈 기초정보 업데이트</li> <li>2) 회원DB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일관성 있는 정보관리</li> <li>3) 후카메모장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록 공유관리</li> <li>4)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한 백업</li> </ol> <p>3. 가입 탈퇴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입 시 전화, 이메일, 우편물 발송</li> <li>2) 탈퇴, 보류 시 전화를 통한 확인 및 처리</li> <li>3) 가입서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관</li> </ol> <p>4. 모람세상 관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람세상 가입률 증대</li> <li>2) 원활한 회원 참여를 위한 회원참여 캠페인 진행</li> </ol> <p>5. 회비 납부율 향상</p>
----	---

	<p>1) 정기적인 회비납부 독려 작업 - 회비 미납 회원 전화 연락</p> <p>2) 첫 달 회비 납부 회원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p> <p><b>6. 연말 정산 영수증</b></p> <p>1) 연말정산 영수증(1월초) 발송 - 1년간 후원한 회원에게 감사편지를 동봉하여 영수증 발송</p> <p><b>7. 홍보물 발송명단 전송</b></p> <p>1) 참여발송 회원명단, 반송된 명단 정리 및 주소 변경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집행</p>	<p><b>1. 전체회원에 대한 접촉면 확대</b></p> <p>1) 회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일상화하고 회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획, 독려함 - 회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각 사업별 기획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p> <p>2) 전체 회원에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접촉면 확대 - 총회 알림 전체문자(1/19) - 평등명절 설맞이 문자(2/2) - 38여성의 날 맞이 3월6일(청계광장) 행사안내문자(3/3) - 38여성의날 축하문자(3/8) - 故 장자연씨 다음 아고라 청원 서명 문자발송(3/15) - 쿼어 문화축제, 성미산 마을축제 회원참여 문자발송(5/27) - 재정사업 뮤지컬 ‘빨래’안내문자(8/5) - 무상급식 주민투표 거부관련 문자(8/23 - 서울거주 회원) - 평등명절 추석맞이 문자(9/11) -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 독려 문자(10/25 - 서울거주 회원) - 송년회 알림 문자(12/1 - 서울거주 회원)</p> <p><b>2. 회원정보관리</b></p> <p>1) 회원 DB에 들어갈 기초정보 업데이트 2) 회원DB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일관성 있는 정보관리 3) 후카메모장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록 공유관리 - 회원과의 소통하였을 때에 내용, 회원정보 변경시 사유, 날짜를 기입 4)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한 백업</p> <p><b>3. 가입 탈퇴 관리</b></p> <p>1) 가입 시 전화(수시), 이메일, 우편물 발송(격월) - 신입회원 감사 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편물 발송 : 함께 가는 여성, 민우회 발간 사업 리플렛, 배지, 감사 손편지</li> <li>- 격월 발송 : 1/28, 2/10, 4/8, 6/3, 7/19, 7/28, 9/28, 11/25</li> </ul> <p>2) 탈퇴, 보류 시 전화를 통한 확인 및 처리</p> <p>3) 가입서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정리 및 보관</li> </ul> <p><b>4. 모람세상 관리</b></p> <p>1) 모람세상 개편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페이지별 성격 공지</li> <li>- 소모임 소개 페이지 구성(찰떡궁합 모람 찾기)</li> </ul> <p>2) 모람세상 가입률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회원 감사전화 시 모람세상 가입 독려</li> <li>- 140여명의 신입회원이 모람세상 가입함</li> </ul> <p>3) 원활한 회원 참여를 위한 회원참여 캠페인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여성의 날 체인지가든 아이디어 댓글로 참여 유도</li> <li>- 38여성의 날 특별한 미션 캠페인</li> <li>-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에 민우회를 소개할 수 있는 배너달기 캠페인</li> </ul> <p><b>5. 회비 납부율 향상</b></p> <p>1) 정기적인 회비납부 독려 작업(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미납회비독려전화 31명 중 4명의 회원이 회비를 재개함</li> </ul> <p>2) 첫 달 회비 납부 회원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2/9(4건), 2월: 3/17(13건), 3월: 3/30(27건), 4월: 5/9(24건), 5월: 6/2(3건), 6월: 6/30(9건), 7월: 8/2(17건), 8월: 9/9(17건), 9월: 10/4(19건), 10월: 11/3(13건), 11월: 11/30(30건)</li> <li>- 메시지 내용 : [민우회] 반짝반짝회원님, 안녕하세요! 소중한 첫달 회비가 잘 전달되었어요. 고맙습니다.</li> </ul> <p><b>6. 연말 정산 영수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정산 영수증(1월 중순) 우편발송</li> <li>- 1년간 후원한 회원에게 감사편지를 동봉하여 영수증 발송</li> </ul> <p><b>7. 홍보물 발송명단 전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발송 회원명단, 반송된 명단 정리 및 주소 변경 처리</li> </ul>
--	--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지역여성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지부간담회,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역여성운동활성화를 모색하여 지역운동의제를 개발한다.
- 2) 지부 활동가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간활동가 성장에 기여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지역여성운동 활성화는 수년 전부터 본부와 지부가 함께 고민해 온 주제이다. 이를 위해 지역민우네트워크 운영, 본부지부공동사업 등이 진행되어 왔다. 활동 규모와 회원 규모, 활성화 정도에서 9개 지부들이 보여 주는 다양성 속에서, 본부와 지부는 지역 기반의 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왔다.

지부간담회는 지부의 핵심 활동가들인 운영위원들과 함께 지역상황, 지부활동가들의 생각과 의견, 지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는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춘 지부운영위원교육을 기획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또 간담회를 통해 한 해 지역사업 계획을 브리핑하고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본부와 지부 사이 연대감을 높였다. 지부 간담회 진행과정에서 지역기초조사를 통해 지역여성운동의 현실을 바꿔내는 의제개발의 목적과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후 각 지부들이 갖고 있는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보다 깊이 나누기 위해 기획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역기초조사 ‘회원탐구활동’은 대중조직인 민우회의 출발선은 회원일 수밖에 없다는 고민에서, 또 회원은 지역주민이기도 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운동이슈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회원을 직접 만나 인터뷰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회원인터뷰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 뒤, 각 지부 별로 인터뷰 결과를 두고 자체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 토론 결과를 보고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토론회까지 치름으로써 인터뷰를 통해 회원들을 만나고 회원들의 목소리 속에서 민우회의 활동 방향을 짚아 보려 하였다. 특히 고양파주, 군포 지부는 조직 발전 전망을 논의하는 과정에 회원인터뷰를 심분 활용하였다. 회원인터뷰를 통해서, 또 지부별 자체 토론을 통해서 지부들은 회원과의 일상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이미 각 지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과의 만남을 기획해 나가고 있다. 또 지부별 자체 토론 속에서는 다양한 내년 사업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회원인터뷰를 통해 회원들이 민우회를 어떤 공간으로 여기는지, 민우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회원들은 민우회 지부가 여성문제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한편, 여성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사라져 가는 공동체성을 되찾을 수 있는 편안한 구심 역할을 해 줄 것 역시 기대하고 있었다.

비록 인터뷰 진행 준비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회원들의 관심사의 다양함, 인터뷰 건수가 부족하여 인터뷰 속에서 지역의 문제와 이슈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 지부들은 회원인터뷰를 통해 활력을 만들어 냈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보다 면밀한 지부별 자체 토론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탐구활동’은 지역여성정책위원회와 민우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역여성정책위원회는 회원인터뷰 질문지 감수 및 인터뷰 진행지도, 인터뷰 결과 분석 등을 총괄하였다. 또한 지역민우네트워크는 지역여성운동 의제개발을 위한 회원인터뷰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회원탐구’과정이 지역운동활성화의 밑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다만 회원인터뷰 사업을 총회 시기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못하여 지부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과부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부별 편차를 고려한 세밀한 기획이 부족하였다. 지역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부 여건에 맞는 단계적 목표와 기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지부 핵심 활동가 층의 성장을 위해 진행한 지부운영위원교육은 지부간담회를 통해 운영위원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민우네트워크 차원에서 기획되고 집행되었다. 특히 민우회의 정체성에 대한 강의와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통해 민우회 핵심 활동가로서의 위치를 돌아보고 구체적인 실천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운영위원교육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표, 운영위원, 상근활동가 등 각 위치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도출되었다.

한편 중간활동가 층의 성장을 위해 상근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운영위원교육 모듈토론에서 드러난 상근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활동가교육을

기획하기 위한 사전 조사의 의미로 진행하였다. 상근활동가들의 다양한 고민들을 접할 수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통해 활동가들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단순 실무교육보다 민우회 내에서 체계적인 활동가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교육을 집행하는 대신 지역민우네트워크 차원에서 활동가교육 체계 마련에 관한 결의를 모아냈다. 비록 올해는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활동가 교육체계 마련은 전체 민우회 조직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지역여성운동 활성화

계획	<p><b>1. 지역여성정책위원회</b></p> <p>1) 지역운동 전문가들로 지역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부 활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언한다.</p> <p>2) 논의 내용은 개별 지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수준을 넘어 지역여성운동의제를 개발하는 데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한다.</p> <p>3) 상반기에 진행할 지부간담회에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격 운영하며 연 4회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p> <p><b>2. 지부 방문 및 간담회</b></p> <p>1) 전 지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지부 활동의 고민을 경청하고 공동 해결을 모색하는 지부간담회를 실시한다.</p> <p>2) 지부간담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여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여성정책위원회의 논의를 다시 지부간담회, 액션러닝교육 지원 등의 방식으로 환류한다.</p> <p><b>3. 지역민우회ON!</b></p> <p>1) 본부 회원과 민우회를 아는 대중이 온라인에서 지부 활동 소식을 알 수 있도록 본부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활용한다.</p>
집행	<p><b>1. 지역여성정책위원회</b></p> <p>1) 구성 : 하승수(위원장), 김인숙, 김정민, 박기남, 이숙진</p> <p>2) 1차 회의 : 6/9(목) 진행. 지부간담회 결과 및 회원인터뷰 진행상황 보고 및 논의 / 지역여성정책위원회 역할 및 운영계획 논의/ 회원인터뷰 결과 분석기준 논의</p> <p>3) 2차 회의 : 9/1(목) 진행. 회원인터뷰 녹취록 검토 및 분석/ 지부 자체 토론에 대한 조언 논의/ 회원인터뷰 종합토론회 기획</p>

4) 3차 회의 : 10/26(수) 진행. 회원인터뷰 녹취록 검토 및 분석, 종합발제 방향 논의/ 회원인터뷰 종합토론회 기획

2. 지부 방문 및 간담회

1) 진행 방식 : 운영위원 및 활동가 참가, 자기소개 및 관심사 소개, 지역 사업 소개, 지부 활동 고민 수렴

2) 진행 결과

고양파주	4/11(월), 12명 참가	원주	4/21(목), 5명 참가
광주	5/12(목), 5명 참가	인천	4/15(금), 7명 참가
군포	4/18(월), 9명 참가	진주	4/27(수), 11명 참가
남서	4/18(월), 5명 참가	춘천	4/20(수), 6명 참가
동북	4/14(목), 8명 참가		

3. 회원인터뷰 사업(회원탐구활동) 및 종합토론회

1) 진행경과

- 지역여성운동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민우회 여성운동의 방향을 잡기 위한 근거 찾기, 지역 여성운동 이슈 개발의 목적을 가지고 회원인터뷰 계획 수립.
- 상반기 지부간담회에서 본부 지역팀 사업 계획 소개.
- 본부에서 인터뷰 질문지 구성(박기남, 이숙진 감수) 후 2차 지역민우네트워크(5/12목)에서 총괄 계획 결의
- 6월~9월 : 각 지부 및 본부 회원인터뷰 진행 및 기록 정리
- 9월~10월 : 각 지부 및 본부 회원인터뷰 결과 자체 평가 토론 진행 및 결과보고서 작성
- 회원인터뷰 진행 결과

고양파주	23명	원주	6명
광주	7명	인천	9명
군포	14명	진주	18명
남서	7명	본부	22명
동북	9명	총계	115명

2) 회원인터뷰 종합토론회 <여성운동 길잡이를 위한 토론회 - 민우회 회원탐구를 중심으로>

- 기획 및 주관 : 민우회 지역여성정책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1월 10일(목), 함께 일하는 재단 교육장
- 프로그램  
- 1부 지부 및 본부 회원인터뷰 결과 5분 프리젠테이션 및 지역여성정책위원의

	<p>조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부 종합발제 및 토론 : 박기남, &lt;민우회 회원들의 '구술'을 통해 짚어보는 민우회의 활동 방향 - 개인화 시대의 여성운동 방향 탐색&gt;</li> </ul> <p>• 참가자 수 : 약 40여 명</p> <p><b>4. 지역민우회ON!</b></p> <p>1) 홈페이지 [하이슈]게시판에 [지역민우회ON!]이란 말머리로 등록 / 본부 뉴스레터로 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 3/24, 춘천, &lt;춘천닭갈비 골목에서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gt;</li> <li>• 2차 : 7/25, 동북, &lt;모두 함께 "핵 없는 세상~!"&gt;</li> <li>• 3차 : 9/30, 군포, &lt;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즉각 취소하라&gt;</li> <li>• 4차 : 11/2, 인천/동북, &lt;인천과 동북에서도 심심타파 캠페인 진행!&gt;</li> </ul>
--	--

## 2. 지역민우네트워크

계획	<p><b>1. 지역민우네트워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지부 대표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고민을 교류한다.</li> <li>2) 지부운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성운동 의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li> <li>3)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2011년도 첫 회의에서 지부 대표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확정한다.</li> </ol> <p><b>2. 이슈별 네트워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존했던 이슈별 네트워크를 지부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하고 운영한다.</li> <li>2) 본부 주도 방식을 벗어나 지부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만들어 간다.</li> </ol>
집행	<p><b>1. 지역민우네트워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차 회의 : 3/3(목) 본부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부활동공유/ 본부 지역 계획 논의/ 지부운영위원교육 기획/ 지역자치네트워크 중단결정/ 2011년 지역민우네트워크 운영 계획 논의</li> </ul> </li> <li>2) 2차 회의 : 5/12(목) 광주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부운영위원교육 기획안 검토/ 회원인터뷰(회원탐구활동) 계획 논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동 토론/ 지부간담회 평가</li> </ul> </li> <li>3) 3차 회의 : 7/7(목) 본부에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부운영위원교육 평가/ 지부간담회 결과 후속작업 논의/ 회원인터뷰 결과 분석 작업 논의</li> </ul> </li> <li>4) 4차 회의 : 9/8(목) 본부에서 진행.</li> </ol>

### 3. 지부 활동가 교육

<p>계획</p>	<p>1. 지부 운영위원교육</p> <p>1) 2010년에 실시한 지부운영위원 교육을 보완하여 지부 운영위원이 핵심중간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집중교육을 실시한다.</p> <p>2) 지부 간담회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부의 교육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운동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액션러닝 교육을 지원한다.</p> <p>2. 지부 활동가 교육</p> <p>1) 지부 활동가들의 교양과 실무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p>
<p>집행</p>	<p>1. 지부 운영위원교육</p> <p>1)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28일(토), 충남여성정책개발원</p> <p>2) 참가인원 : 지부활동가 50명, 본부활동가 5명</p> <p>3)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민우회의 역사 알기, 정체성 찾아가기&gt; 강의, 박봉정숙.</li> <li>• &lt;민우회 운영위원의 역할&gt; 강의와 모둠토론, 김민문정 진행.</li> <li>• 활동가 친목 도모 시간</li> </ul> <p>2. 지부 사무국 상근활동가 간담회</p> <p>1) 목적 : 지부 상근활동가들 대상의 실무교육 대신 욕구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간담회 기획</p> <p>2) 일시 및 장소 : 2011년 8월 31일(수), 얼티즌 팜카페</p> <p>3) 참가자 : 고양파주2, 광주3, 군포2, 남서1, 동북2, 진주1, 본부2 등 총 13명</p> <p>4)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활동가 친목도모 프로그램</li> <li>• 상근활동 관련 간담회 : 민우회 활동 관련 고민, 상근활동 평가 등</li> </ul>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민우회 본부, 지부가 공동기획 해 여성주의대중교육인 ‘민우여성학교’를 진행, 민우회만의 여성주의자를 만들어내는 산실로서의 자리매김한다.
- 2) 민우회만의 특성을 살린 대표적인 전문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평등 조직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보완, 홍보한다.
- 3) ‘이달의 토론’(가)을 통해 본부, 지부 회원들의 여성운동, 사회운동 의제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 내고, 민우회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공유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올 해 민우여성학교는 민우회 본부, 지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중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초로 본부, 지부 공동사업으로 교육사업이 진행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공동기획 사업으로 지부에서의 교육역량 인프라 구축과 기획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 진행과정은 교육담당자들이 모여 기획회의와, 교육욕구 조사, 기획력 워크숍, 교육담당자 사업 설명회 등 본부와 지부에서 민우여성학교 진행팀을 구성하여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것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교육욕구조사 설문분석 결과를 토대로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심리를 주제로 전체 순회강의와 대대적인 교육홍보를 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시간을 내용에 맞추어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주로 가능한 시간대인 낮(오전)으로 배치하여 기획하였다. 이에 2강으로 구성된 강좌에서 본부, 지부 전체 연인원 568명이 수강하였고, 회원 328명, 비회원 240명으로 6:4 비율이었다. 특히 진주지부의 경우 131명이 교육을 함께 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인 높은 참여율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총 600명 가까이 수강한 점은 주목할 만하나 개별 수강자들이 민우회와의 접점을 얼마나 긴밀히 만들어 냈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편이다. 또한 여성주의자의 산실로서의 역할에 대한 목표에

비해 강좌 이후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본부, 지부 공동사업으로서 민우여성학교는 본부, 지부들 간의 특성과 편차에 따라 실행 시기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전문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평등한 조직문화교육은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출강하였다. 민우회만의 특색 있는 교육으로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홍보하는 노력은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출강교육의 수요는 급격히 절감되었다. 특히 평등한 조직문화교육은 의뢰가 없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강사풀에 대한 보강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고 등 전문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판단이 필요하다. 향후 전문교육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가 가진 여성주의 교육에 대한 기획력을 살려 진행했던 외부 위탁 교육인 아이쿱활동가 교육은 총 5개 권역에서 페미니즘과 가족, 페미니즘과 복지 2개의 강좌와 여성주의 감수성 워크숍으로 구성 진행하였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여성주의 기술학교는 전년도에 이어 여성들이 기술에 약하다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실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교육으로 도시농부 되기, 자동차수리,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 등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을 수강한 참가자들의 반응도 꼭 필요한 교육이고 유익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교육을 시도하였으나 단회로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여성주의 고전읽기 <열독>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타 교육 프로그램과의 시기조정을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여성주의 고전읽기 <열독>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여성주의 고서를 제약된 시간에서 다루다보니 토론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무상교육이라는 점이 참가자들의 큰 호감으로 작용하였다. 교육주제와 무상교육이라는 기획, 전문 강사의 재능 나눔이 빛나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대중들이 여성학을 공부하고 민우회의 활동과 그 가치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미한 교육이었다.

3) 본부, 지부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진행된 이달의 토론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현안으로 주제를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선정하여 진행되었다. 민우회 내에서 일상적 토론문화를 형성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만들어나가고,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사업이었다. 하지만 토론이 활성화 되고 진행된 토론내용을 외화 해 본부, 지부 전 회원이 공유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민우회 정체성, 활동기조 공유 관련하여 다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본부-지부가 함께하는 민우여성학교 –“2011 민우여성학교 지금, 만나러 갑니다.”

<p>계획</p>	<p>1) 본부, 지부 공동교육 기획단 구성(6월초)                  2) 교육홍보(8월 중순)                  3) 민우여성학교, 여성주의 학교 간다 진행(9월-10월)</p>
<p>집행</p>	<p>1) 기획회의 : 3/31                  - 내용 : 민우여성학교 방향, 목표, 전체일정, 진행팀 구성                  2) 교육육구조사 : 4/26~6/27까지                  - 교육육구조사 설문 배포 및 수거 : 본부·지부별 10부씩 비회원, 민우회 가입 1년 미만의 회원을 대상으로 민우여성학교 교육기획에 반영할 설문조사 진행                  3) 기획워크숍 : 7/15                  - 내용 : 민우여성학교의 역사, 교육육구조사 분석 발표, 기획력 특강, 민우여성 학교의 키워드, 일정공유                  4) 민우여성학교 진행팀 회의                  - 진행팀 : 이정아(고양·파주), 권주희(동북), 신기루(선백미륵), 하이디(김희정)                  - 1차회의(7/26) 내용 : 민우여성학교 주제와 강사리스트 확정                  - 2차회의(8/5) 내용 : 민우여성학교 교육명, 강사확정, 교육홍보와 예산, 지역 담당자 설명회 일정확정                  5) 민우여성학교 지역담당자 설명회 : 8/26                  - 내용 : 전체일정 및 진행보고, 지역좌담회 설명, 교육조직 노하우, 민우여성학교 홍보물 배포                  6) 홍보 및 자료집 배포                  - 홍보 : A4전단지 1,000장, 포스터 300장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제작 및 SNS 활용. 시민사회·노조·단체 우편발송,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 교육자료집 : 500부 제작, 본부·지부별 배포                  7) 프로그램                  - 본부-지부 함께하는 민우 여성학교 “2011 민우여성학교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일시: 9월 19일 ~10월 28일 각 지부 2강씩 오전 10시~12시(인천 오후7시~9시)</p>



- 목적: 여성주의의 대중적 확산
- 대상: 비회원 3-40대 여성
- 강의제목, 내용, 강사

강의제목	강의내용	강사
페미니즘과 자녀교육 <오매! 돌아 버리겠네!>	교육의 주요 대상인 30~40십대 여성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는 여성으로서, 활동가로서, 아내/어머니로서 겪게 되는 갈등 중 특히 자녀교육으로 길을 잃었을 때, 여성주의로 자녀교육을 묻고 소통과 관계맺음의 길을 찾는 강좌로 진행. 행복한 가족은 평등한 관계 위에서 가능하고 여성 성인 나에 대한 인식과 가족구성원 전체의 노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며, 여성주의적 생활실계를 통해 행복한 삶의 대안을 제시한다.	정희진 나임윤경
페미니즘과 심리 <널뛰는 나, 여성주의로 중심잡기>	여성으로서 살게되면서 갖게되는 불안과 우울, 남편과 자식을 대하면서 생기는 죄의식과 분노 등을 여성주의적으로 읽어주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해소할 수도 있고, 본인의 감정을 돌보고임파워먼트할 수 있는 강의로, 여성주의로 자신을 긍정하고 복잡한 감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철학적인 심리강의라고 할 수 있다.	김양희 김영옥 권김현영

- 민우여성학교 일정표

지부	날일	시간	자녀교육	심리
진주	9/19,30	오전(10:30~12:30)	정희진(9/19)	권김현영(9/30)
인천	9/21,28	오후(7:00~9:00)	나임윤경(9/28)	권김현영(9/21)
군포	10/19,26	오전(10:00~12:00)	나임윤경(10/19)	김양희(10/26)
남서	9/27,29	오전(10:30~12:30)	나임윤경(9/29)	권김현영(9/27)
광주	10/20	오 전 (10:30~12:30), 오후(1:30~3:30)	정희진	정희진
원주	10/17,18	오전(10:30~12:30)	정희진(10/17)	권 김 현 영 (10/18)
춘천	9/28, 10/5	오전(10:30~12:30)	정희진(9/28)	김양희(10/5)
고양·파주	10/19	오 전 (10:30~12:30), 오후(1:30~3:30)	정희진	정희진
동북	10/10	오 전	심리/김영옥	심리/김양희

(심리2강)		(10:30~12:30), 오후(1:30~3:30)		
본부	10/27,28	오전(10:30~12:30)	정희진(10/27)	김양희(10/28)

8) 민우여성학교 평가회의 : 10/31

- 내용 : 본부·지부별 평가 및 공동사업에 대한 평가 진행
- 본부·지부 교육참가 현황

지부	1강 참가자		2강 참가자		연인원 합계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고양·파주	15명	9명	15명	9명	48명
광주	15명	24명	10명	25명	74명
군포	22명	13명	22명	13명	70명
남서	14명	4명	9명	4명	31명
동북	17명	6명	15명	6명	44명
원주	14명	17명	11명	2명	44명
인천	18명	-	20명	-	38명
진주	35명	30명	32명	34명	131명
춘천	10명	15명	11명	10명	46명
본부	14명	15명	9명	4명	42명
소계	174명	133명	154명	107명	568명

## 2. 2011 그녀들의 페달밟기

계획	1) 여성들에 대한 자전거 교육 홍보, 지도 계발 활동(3-4월) 2) 성별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기계?기술치라는 고정관념 타파와 자신감 회복을 위해 자전거를 매개로 자전거 타기, 자전거 정비 등을 교육(5월) 3) 지역 내 잔칫길 자전거 여행(6월), 자전거 소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직화함.
집행	• 서대문구 프로젝트에 지원하였으나 탈락, 여성주의 기술학교로 대체하여 애초 기획하였던 성별고정관념으로 만들어진 여성들이 기계, 기술치라는 고정관념을 없앤다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였음

## 3. 전문교육

계획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

	<p>1) 강사단 워크샵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강사단을 확충</li> <li>- 강사단 워크숍의 체계적 진행(연 2회 이상)</li> <li>- 직장내 성희롱 상담사례워크샵, 강의능력향상을 위한 특화교육</li> </ul> <p>2) 예방교육안 점검 등 운영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강의안의 스토리, 콘텐츠 점검 및 재구성</li> <li>- 강의 평가 체계화</li> </ul> <p>2.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p> <p>1) 강의안 개발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민우회가 개발한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완성한다.</li> <li>- 성평등한 조직문화 자가진단표, 체크리스트 보완 등</li> </ul> <p>2) 적극적인 홍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을 발굴하고, 조직 내 평등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적극 홍보한다.</li> <li>- 노조, 단체, 기업 등 대상별 적극적 홍보, 해피빈을 활용한 홍보</li> </ul>																																																																																																									
집행	<p style="text-align: center;">〈2011년 전체 출강교육현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번호</th> <th style="text-align: center;">강사</th> <th style="text-align: center;">강의주제</th> <th style="text-align: center;">강의대상</th> <th style="text-align: center;">날짜</th> <th style="text-align: center;">교육시간</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소희</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 강사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 청소년 문화센터</td> <td style="text-align: center;">2/22</td> <td style="text-align: center;">3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5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최진협</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아름다운 가게</td> <td style="text-align: center;">4/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5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6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소희</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립 은혜로운 집</td> <td style="text-align: center;">4/29</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수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 상담원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대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5/13</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박봉정숙</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한국무역협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6/30</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선백미록</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7/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55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td> <td style="text-align: center;">박봉정숙</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그랜드엠버서더호텔</td> <td style="text-align: center;">7/27</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수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대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8/25</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5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9</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수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대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8/26</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05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수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대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9/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수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대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9/20</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수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대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9/22</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3</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수현</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대카드</td> <td style="text-align: center;">9/27</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명</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소희</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희롱예방교육</td> <td style="text-align: center;">민우회 생협</td> <td style="text-align: center;">12/16</td> <td style="text-align: center;">1시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31명</td> </tr> </tbody> </table> <p>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p>	번호	강사	강의주제	강의대상	날짜	교육시간	인원	1	이소희	성희롱예방 강사교육	부천시 청소년 문화센터	2/22	3시간	15명	2	최진협	성희롱예방교육	아름다운 가게	4/20	1.5시간	60명	3	이소희	성희롱예방교육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	4/29	1시간	30명	4	권수현	성희롱예방 상담원교육	현대카드	5/13	1시간	50명	5	박봉정숙	성희롱예방교육	한국무역협회	6/30	2시간	30명	6	선백미록	성희롱예방교육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7/20	2시간	55명	7	박봉정숙	성희롱예방교육	그랜드엠버서더호텔	7/27	1시간	100명	8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8/25	1시간	105명	9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8/26	1시간	105명	10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9/16	1시간	150명	11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9/20	1시간	150명	12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9/22	1시간	150명	13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9/27	1시간	150명	14	이소희	성희롱예방교육	민우회 생협	12/16	1시간	31명
번호	강사	강의주제	강의대상	날짜	교육시간	인원																																																																																																				
1	이소희	성희롱예방 강사교육	부천시 청소년 문화센터	2/22	3시간	15명																																																																																																				
2	최진협	성희롱예방교육	아름다운 가게	4/20	1.5시간	60명																																																																																																				
3	이소희	성희롱예방교육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	4/29	1시간	30명																																																																																																				
4	권수현	성희롱예방 상담원교육	현대카드	5/13	1시간	50명																																																																																																				
5	박봉정숙	성희롱예방교육	한국무역협회	6/30	2시간	30명																																																																																																				
6	선백미록	성희롱예방교육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7/20	2시간	55명																																																																																																				
7	박봉정숙	성희롱예방교육	그랜드엠버서더호텔	7/27	1시간	100명																																																																																																				
8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8/25	1시간	105명																																																																																																				
9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8/26	1시간	105명																																																																																																				
10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9/16	1시간	150명																																																																																																				
11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9/20	1시간	150명																																																																																																				
12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9/22	1시간	150명																																																																																																				
13	권수현	성희롱예방교육	현대카드	9/27	1시간	150명																																																																																																				
14	이소희	성희롱예방교육	민우회 생협	12/16	1시간	31명																																																																																																				

	<p>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획팀회의 : 2/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단워크숍, 강의스킬 특화교육 기획</li> </ul> <p>2) 슈퍼강사 M의 강의스킬 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3월 28일</li> <li>- 장소 : 민우회 나루교육장</li> <li>- 강사 : 문구미정</li> <li>- 참석 : 박봉(박봉정숙), 주가이(주현정), 나우(최진협), 바람(이소희), 낭미(안미선), 신기루(선백미록), 하이디(김희정), 모후아(지은정), 여경(정슬아), 하나(최김하나)</li> <li>- 내용 : 강의스킬, 강사 마인드교육</li> </ul> <p>3)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단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5월 4일</li> <li>- 장소 : 민우회 나루교육장</li> <li>- 참석 : 맨발(권수현), 생기(유경희), 나우(최진협), 바람(이소희), 박봉(박봉정숙), 신기루(선백미록), 하이디(김희정)</li> <li>- 내용 : 권수현 특강 - 사무직의 노동과정과 성희롱 사례유형 연구, 고평상담실 성희롱상담사례 공유, 강사단 PT공유</li> </ul> <p>4) 성희롱 예방교육 신규강사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4월 29일</li> <li>- 장소 : 은평구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li> <li>- 대상 : 서울시립 은혜로운 집 임직원</li> <li>- 강사 : 바람(이소희)</li> </ul> <p><b>2. 평등한 조직문화 교육</b></p> <p>1) 평등한 조직문화 교육 홍보회의 : 3/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교육명을 '성평등한 조직문화 교육'에서 '평등한 조직문화 교육'으로 확정. 교육홍보대상 리스트, 홍보문구와 내용 확정</li> </ul> <p>2) 평등한 조직문화 교육 강사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3월 23일</li> <li>- 장소 : 민우회 회의실</li> <li>- 내용 : 교육 체크리스트 점검, 교육홍보, 출강계획 논의</li> </ul> <p>3) 1차 교육홍보 : 4/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대상 : 성희롱예방교육 기업(2009~2010 교육진행 사업장 19개), 30인 이상 근무하는 큰단체(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 홍사단, YWCA 6개)</li> <li>- 홍보방법 : 홍보대상 이메일, 홈페이지 쇼케이스 제작, 홍보</li> </ul>
--	---

	4) 2차 교육홍보 : 8/2 - 홍보대상 : 전교조 중앙, 전교조 서울, 한겨레신문사 - 홍보방법 : 교육담당자 통화 및 이메일 발송
--	---

#### 4. 활동가교육

계획	1. 신입활동가 교육 - 신입활동가의 민우회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인다. - 교육내용 : 민우회의 과거와 현재/ 조직체계 및 정관/ 내규/ 조직활동가 되기/ 지부 및 부설기관 이해/ 홍보 및 정보교육/ 캠페인 참가/ 여성주의 세미나 등 2 활동가 교육 - 상근자 포럼 진행: 활동가들의 활동이나 생각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슈대응력 향상을 위한 상근자 포럼 진행 - 민우회 정책위원들의 전문강의, 좌담, 토론 등 방식 다양화.																																										
집행	1. 신입활동가 교육 1) 상반기 신입활동가 교육 - 기간 : 1월 10일 ~ 1월 28일 - 대상 : 낭미(안미선), 모후아(지은정), 케이(김가영) - 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일정</th> <th style="width: 15%;">시간</th> <th style="width: 55%;">교육주제 및 내용</th> <th style="width: 20%;">강사 및 담당</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0-11:00</td> <td>교육일정 소개</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하이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1:00-12:00</td> <td>- 활동가 준비할 내용 등</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11</td> <td style="text-align: center;">13:00-14:00</td> <td>민우회에서 살아가기</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하이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4:00-15:00</td> <td>- 회계, 캡스 등</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0-12:00</td> <td>정보, 홍보 교육</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여경</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6:00-17:30</td> <td>- 정보, 홍보 활동 tip</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13</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0-12:00</td> <td rowspan="2">세미나 - 여성운동 새로쓰기 1부</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하이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17:00</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14</td> <td style="text-align: center;">14:00-15:00</td> <td>민우회의 과거와 현재</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박봉</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17:00</td> <td>- 여성운동 새로쓰기에서 본 민우회와 그 이면의 야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24</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0-12:30</td> <td>신입활동가 이슈탐방 - 홍대 청소용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인터뷰</td> <td style="text-align: center;">하이디</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27</td> <td style="text-align: center;">10:30-12:30</td> <td rowspan="2">지역여성운동, 민우회 지부방문</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동북지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5:00-17:00</td> </tr> </tbody> </table>	일정	시간	교육주제 및 내용	강사 및 담당	1/10	10:30-11:00	교육일정 소개	하이디	11:00-12:00	- 활동가 준비할 내용 등	1/11	13:00-14:00	민우회에서 살아가기	하이디	14:00-15:00	- 회계, 캡스 등	1/12	10:30-12:00	정보, 홍보 교육	여경	16:00-17:30	- 정보, 홍보 활동 tip	1/13	10:30-12:00	세미나 - 여성운동 새로쓰기 1부	하이디	15:00-17:00	1/14	14:00-15:00	민우회의 과거와 현재	박봉	15:00-17:00	- 여성운동 새로쓰기에서 본 민우회와 그 이면의 야사	1/24	10:30-12:30	신입활동가 이슈탐방 - 홍대 청소용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인터뷰	하이디	1/27	10:30-12:30	지역여성운동, 민우회 지부방문	동북지부	15:00-17:00
일정	시간	교육주제 및 내용	강사 및 담당																																								
1/10	10:30-11:00	교육일정 소개	하이디																																								
	11:00-12:00	- 활동가 준비할 내용 등																																									
1/11	13:00-14:00	민우회에서 살아가기	하이디																																								
	14:00-15:00	- 회계, 캡스 등																																									
1/12	10:30-12:00	정보, 홍보 교육	여경																																								
	16:00-17:30	- 정보, 홍보 활동 tip																																									
1/13	10:30-12:00	세미나 - 여성운동 새로쓰기 1부	하이디																																								
	15:00-17:00																																										
1/14	14:00-15:00	민우회의 과거와 현재	박봉																																								
	15:00-17:00	- 여성운동 새로쓰기에서 본 민우회와 그 이면의 야사																																									
1/24	10:30-12:30	신입활동가 이슈탐방 - 홍대 청소용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인터뷰	하이디																																								
1/27	10:30-12:30	지역여성운동, 민우회 지부방문	동북지부																																								
	15:00-17:00																																										

1/28	16:00-17:00	민우회와 카페문	나디아
	17:00-17:10		
3/4	09:30-10:30	신입활동가 프리젠테이션	굿모닝

2) 하반기 신입활동가 교육

- 기간 : 8월 22일~8월 24일
- 대상 : 본부-반아(문지은), 민트(최윤라), 지부-원주(이연이, 심재희), 남서(고나경)
- 프로그램

일정	시간	교육주제 및 내용	강사 및 담당
8/22(월)	10:30~ 11:00	교육일정 소개 - 활동가 준비할 내용 등	하이디
	11:00~ 12:00	민우회 조직체계- 조직체계, 정관, 내규 설명 등	주가이
	13:00~ 14:00	조직활동가 되기 - 조직활동가란? 조직과 회원, 회원 소모임, 회원활동이 갖는 의미 등	폴
8/23(화)	11:00~ 17:00	세미나 -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1부	폴
		세미나 -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2부	
		세미나 - 여성학 1-2부	
		세미나 - 여성학 3-4부	
8/24(수)	16:00~ 18:00	동북지부 방문	나은
10/6(목)	9:30~ 10:30	신입활동가 프리젠테이션	굿모닝

2. 활동가 교육

- 일시 : 10월 6일
- 장소 : 나루 교육장
- 주제 : 민우회 역사알기, 정체성 찾아가기
- 강사 : 박봉정숙 대표
- 내용 : 민우회 창립배경과 지금까지의 변천사(조직구조, 이슈별 대응활동 등)를 포함한 향후 대중적 여성운동에 대한 민우회 정체성을 찾아가는 강의

## 5. 이달의 토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정책, 사회 현안 등에 대해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 3회 본부, 지부 회원이 함께 토론하고 공유한다.</li> <li>- 주제는 본부와 지부가 중앙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선정한다.</li> <li>• 토론을 통해 함께 의견을 만들어나가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민우회 여성운동의 활동력과 참여를 높이는데 의의를 둔다.</li> <li>- 활성화 방안: 회원참여 캠페인, 신입회원 세미나 등</li> </ul>
집행	<p>1. 이달의 토론 주제</p> <p>1) 이달의 토론 season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주제 : 방송사 서바이벌 경쟁프로그램, 합격인가? 탈락인가? - 본부 소모임-요망단, 신기루(선백미룩), 이운소, 남서, 광주지부 댓글/답변 참여</li> <li>- 두 번째 주제 : 이대 로스쿨 '여성만' 입학은 차별(역차별)인가? - 본부활동가 댓글/답변 참여</li> </ul> <p>2) 이달의 토론 season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주제 : 대학 등록금 갑등 어떻게 풀것인가? - 본부활동가 댓글/답변 참여</li> <li>- 두 번째 주제 : 슬릿워크(잡년행진), 성폭력이 아한 옷 때문이라고? - 본부활동가, 군포, 고양·파주지부 댓글/답변 참여</li> </ul> <p>3) 이달의 토론 season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 번째 주제 : '가족' 신가족주의 사회, 전업주부를 말한다!</li> <li>- 두 번째 주제 :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li> <li>- 세 번째 주제 :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사례와 통계로 본 여성노동 현실</li> <li>- 네 번째 주제 : 아동,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li> </ul>

## 6. 여성주의 기술학교 - 세상을 바꾼 3대 기술혁명

집행	<p>1) 기획회의 : 6/24, 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자전거 교육 잠정 폐강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여성주의 기술교육 아이디어와 강사진에 대해 논의함</li> </ul> <p>2)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8/8~8/20</li> <li>- 민우회 홈페이지, 블로그, 온라인소식지, 타단체 게시판, SNS 홍보</li> </ul> <p>3) 교육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여성주의 기술학교를 통해 여성들이 기술에 약하다는 고정관념 타파와 실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교육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8월 22, 25, 26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li> <li>- 참가대상 : 민우회 회원 + 비회원</li> <li>- 교육비 : 한 강좌당 1만원(회원 10% 할인)</li> <li>- 내용 : 3대 기술혁명'을 농업, 컴퓨터, 자동차로 선정하여 농업분야에서 도시농업, 컴퓨터 분야에서 죽은 컴퓨터 살리기,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관리 및 긴급보수의 내용으로 여성주의가 접목된 엄선된 실기위주의 교육 형태로 진행</li> </ul>				
날일	장소	내용	강사	참가인원
8/22 (월)	시민공간 나루교육장 /옥상	도시생활 속에서도 농업이 갖는 대기정화, 기후조절, 공동체 문화, 정서함양의 가치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농업을 만드는 상자텃밭 만들기	정규석 (환경정의 활동가)	7명
8/25 (목)	성미차병원	운전은 할 줄 알지만 자동차는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자동차 관리와 긴급보수교육	윤광석 (차병원 사장)	10명
8/26 (금)	나루교육장	죽은 컴퓨터를 살리고, 컴퓨터 수명을 장수하게 사용하는 법 실습	류영미 (폴리텍 대학 교수)	12명

## 7. 여성주의 고전읽기 ‘열독(熱讀)’

집행	<p>1) 기획회의 : 6/24, 7/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여성주의 무상교육으로 여성주의에 관심있는 여성들이 민우회를 통해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획교육 논의</li> </ul> <p>2)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 : 8/8~8/30</li> <li>- 민우회 홈페이지, 블로그, 온라인소식지, 타단체 게시판, SNS 홍보</li> </ul> <p>3) 교육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한 시대를 대표했던 페미니즘 고서를 읽으며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li> <li>- 일시 : 8/31(수), 9/7(수), 9/21(수), 9/28(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총 4회)</li> <li>- 장소 : 나루 교육장</li> <li>- 참가대상 : 민우회 회원 + 여성주의에 관심있는 대중</li> </ul>
----	--



	- 교육비 : 여성주의 무상교육(교육비 없음)										
	- 강사 : 최정은영(민우회 정책위원, 여성학자)										
	- 교육내용										
	<table border="1"> <tr> <th>날일</th> <th>내용</th> </tr> <tr> <td>8/31(수)</td> <td>베틀프리단/ 여성의 신비</td> </tr> <tr> <td>9/7(수)</td> <td>앵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td> </tr> <tr> <td>9/21(수)</td> <td>스피박/ 다른세상에서</td> </tr> <tr> <td>9/28(수)</td> <td>뤼스이리가레이/ 하나이지 않은 성</td> </tr> </table>	날일	내용	8/31(수)	베틀프리단/ 여성의 신비	9/7(수)	앵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9/21(수)	스피박/ 다른세상에서	9/28(수)	뤼스이리가레이/ 하나이지 않은 성
	날일	내용									
	8/31(수)	베틀프리단/ 여성의 신비									
9/7(수)	앵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9/21(수)	스피박/ 다른세상에서										
9/28(수)	뤼스이리가레이/ 하나이지 않은 성										
- 참여인원 : 강좌당 평균 25~30명											

## 8. 아이쿱 활동가 교육

집행	1) 진행																															
	- 8/9 민우회, 아이쿱생협 교육회의 진행																															
	- 8/19 아이쿱생협 교육기획 확정																															
	- 9/2 강사섭외 완료																															
	- 10/4 자료집, 현수막 제작 배포																															
	2) 교육프로그램																															
	- 교육목적 : 아이쿱 생협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의식 향상과 아이쿱활동가 층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진행방식의 교육진행																															
	- 교육제목 : 가을하늘이 높으니 여성주의로 마음을 살찌운다!																															
	- 대상 : 지역 조합 활동가 (이사장, 상임이사, 위원장, 마을지기 등)																															
	- 일시와 장소 : 10월 5일~10월 14일 1일 5시간 교육 / 5개 권역 5개 시(서울, 서대전, 광주, 순천, 부산)																															
- 강사 : 페미니즘과 가족-정희진(여성학자), 페미니즘과 복지-이숙진(대구카톨릭대 교수, 민우회이사),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민우회이사)																																
- 프로그램 진행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역</th> <th>날일</th> <th>시간</th> <th>공통</th> <th>페미니즘과 가족</th> <th>페미니즘과 복지</th> </tr> </thead> <tbody> <tr> <td>서울</td> <td>10/5</td> <td>10:00-16:00</td> <td rowspan="5">여 성 주 의 감수성 단 박 워크숍</td> <td>정희진</td> <td>이숙진</td> </tr> <tr> <td>부산</td> <td>10/7</td> <td>10:00-16:00</td> <td>정희진</td> <td>장지연</td> </tr> <tr> <td>광주</td> <td>10/11</td> <td>10:00-16:00</td> <td>정희진</td> <td>장지연</td> </tr> <tr> <td>대전</td> <td>10/12</td> <td>10:00-16:00</td> <td>정희진</td> <td>장지연</td> </tr> <tr> <td>대구</td> <td>10/14</td> <td>10:00-16:00</td> <td>정희진</td> <td>이숙진</td> </tr> </tbody> </table>	지역	날일	시간	공통	페미니즘과 가족	페미니즘과 복지	서울	10/5	10:00-16:00	여 성 주 의 감수성 단 박 워크숍	정희진	이숙진	부산	10/7	10:00-16:00	정희진	장지연	광주	10/11	10:00-16:00	정희진	장지연	대전	10/12	10:00-16:00	정희진	장지연	대구	10/14	10:00-16:00	정희진	이숙진
지역	날일	시간	공통	페미니즘과 가족	페미니즘과 복지																											
서울	10/5	10:00-16:00	여 성 주 의 감수성 단 박 워크숍	정희진	이숙진																											
부산	10/7	10:00-16:00		정희진	장지연																											
광주	10/11	10:00-16:00		정희진	장지연																											
대전	10/12	10:00-16:00		정희진	장지연																											
대구	10/14	10:00-16:00		정희진	이숙진																											
- 각 권역별로 활동가 2인이 현수막, 강의평가서, 교육진행함																																
3) 최종보고서 제출 : 11/4																																
- 강의 기획, 강의주제, 내용, 강의평가 분석, 회계정리 보고서를 아이쿱 교육팀에 보고함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2011년 영문뉴스레터 발행과 언론사 기자리스트, 시민사회단체 등의 리스트 정비를 통해 홍보데이터 확대 및 안정적 관리를 꾀한다.
- 2) 민우회의 활동목표와 지향, 회원들의 삶과 목소리를 담는 기관지 <함께가는 여성>의 발행목적은 다시 한 번 확고히 하고, 정기적으로 발행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 1) 2011년 영문뉴스레터 발행

<함께가는 여성>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와 블로그까지 활용하여 영문뉴스레터에 적합한 글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성의 있는 번역과 감수로 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3년 마다 발행되는 영문뉴스레터의 성격상 기존 담당자 부재, 공식 영문명 부재, 축적된 자료 부족 등의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짧은 시간에 제작되면서 부실, 팀별 활동 내용이 더 균형 있게 실리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 제작과정을 정리·보관하여 차후 영문뉴스레터 제작 과정에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2) 홍보데이터 확대 및 안정적 관리

홍보데이터 안정화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나 올 해는 특히 간과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계획으로 삼은 바 있다. 하지만 상반기에 시민단체 리스트, 언론사 리스트 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 활동가 교체가 있어서 흐름이 끊겨 하반기에 다시 정비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더 많은 데이터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특히 언론사 리스트는 기자들이 이직, 팀 전환이 많아 연별로 진행하기보다 분기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홍보 데이터의 주기적인 관리와 데이터 안정화를 위해 홍보팀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홍보 데이터 안정화라는 과정적인 관리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홍보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도 홍보 데이터 안정화의 중요성을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 3) <함께가는 여성> 발행

올해 <함께가는 여성> (이하 참여)은 안정적으로 발행되었다. 민우회 전체 사업들이 골고루 다뤄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시의성, 회원들의 관심사 등에 대한 고려 속에 주제를 결정하였다. 참여 구독자의 나이대가 다양한 반면, 필자나 인터뷰 대상 등이 20~30대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대상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향후 글의 주제, 필자 선정에 있어 세대를 아우를 수 있게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참여 제작비용이 전체 민우회 예산에 비해 꽤 높다는 지적이 계속 있고, 생협 분리 등 내년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에 따라 모금함 개발, 지면 광고, 부수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매번 필자 섭외 과정의 어려움을 겪는데 제작시기가 제한된 참여의 특성상 필자 섭외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나, 담당 활동가와 회원들의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하고 단체 곳곳의 소식에 귀 기울이는 등 다양한 필자 발굴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회원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드러내기 위해 기획이나 평가 과정에서 회원 참여 방법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편집이루미 활동은 새로운 회원층의 활동으로 상반기에 활성화 되었으나 하반기로 오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 회원의 참여 속에 함께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한 회의 단위로서 편집이루미 활동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고정 필진이 약해져 실질적으로 ‘기획’글의 주제 선정 과정에만 역할이 한정 되었다. 섭외, 원고쓰기 등의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 풀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획’꼭지 주제 선정은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될 수 있다. 차후 현재의 편집이루미 상을 축소하거나 변경하여 참여하는 회원들의 성취감을 높여내고 내부 편집팀의 활동의 역동을 강화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참여 평가는 서면 평가가 질문 내용이 너무 많고 평가 내용의 서술의 비효율성 때문에 구글 툴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연초에 활동가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홍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평가의 연속성을 갖고 주기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이유로 하반기에는 회원, 소모임, 활동가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라인 소식지에 ‘참여 평가’ 배너를 삽입하여 회원 평가를 유도해내려 했으나 이 창구를 통해 평가한 회원이 없었다. 또한 소모임에서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필자, 편집이루미, 기타 개인적인 피드백 외에도 활동회원들의 참여 평가가 잘 취합되지 않았다. 향후 회원을 위한 참여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2. 사업명 : 홍보데이터 정비 및 안정적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데이터 정비 및 안정적 관리</li> <li>: 시민단체/언론사/기자/후원(기업)/학교관련 리스트 정비를 완료하고, 체계적 관리 틀을 완성한다.</li> <li>: 체계적인 관리와 꾸준한 업데이트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관계망(활동가, 기자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하고, 새롭게 취합된 리스트는 민우회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데이터에 포함시킨다.</li> </ul>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언론사 리스트 : 하반기 사업 외화 기간에 개별 활동가들이 받은 명함, 네트워크 있는 기자 내용 받아 리스트 추가함(이메일)</li> <li>2. 시민단체 리스트 : 상반기 일부 진행함.</li> </ol>

## 3. 사업명 : <함께가는 여성 발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우회를 대표하는 기관지로서 여성운동 및 정책에 관한 심층기사, 민우회의 주요 사업과 이슈, 여성주의 관점의 에세이 등 풍부한 읽을거리를 기획한다.</li> <li>▪ 편집이루미를 보강하여 기획력과 필자 섭외 등을 보완하고, 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를 위한 참여를 독려한다.</li> <li>▪ 회원(개인) 및 기업 등의 광고유치에 힘쓴다.</li> <li>▪ 적극적인 평가내용 취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꾀한다.</li> <li>▪ 발행 : 격월 간 (홀수 달 말~짝수 달 초, 발행, 총 6회)</li> <li>▪ 판형 : B5 변형   ▪ 매수 : 48-52P</li> </ul>																												
집행	<p>1) 발행 및 부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호</th> <th>내용</th> <th>발행부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2월호(201호)</td> <td>2월 16일, 52p</td> <td>5800부</td> <td>정상 발송</td> </tr> <tr> <td>3·4월호(202호)</td> <td>3월 31일, 52p</td> <td>5800부</td> <td>정상 발송</td> </tr> <tr> <td>5·6월호(203호)</td> <td>5월 31일, 52p</td> <td>5800부</td> <td>정상 발송</td> </tr> <tr> <td>7·8월호(204호)</td> <td>7월 31일, 52p</td> <td>6000부</td> <td>정상 발송</td> </tr> <tr> <td>9·10월호(205호)</td> <td>10월 4일, 52p</td> <td>5800부</td> <td>정상 발송</td> </tr> <tr> <td>11·12월호(206호)</td> <td>12월 9일, 52p</td> <td>5800부</td> <td>정상 발송</td> </tr> </tbody> </table> <p>2) 각 호별 표지그림</p>	호	내용	발행부수	비고	1·2월호(201호)	2월 16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3·4월호(202호)	3월 31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5·6월호(203호)	5월 31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7·8월호(204호)	7월 31일, 52p	6000부	정상 발송	9·10월호(205호)	10월 4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11·12월호(206호)	12월 9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호	내용	발행부수	비고																										
1·2월호(201호)	2월 16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3·4월호(202호)	3월 31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5·6월호(203호)	5월 31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7·8월호(204호)	7월 31일, 52p	6000부	정상 발송																										
9·10월호(205호)	10월 4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11·12월호(206호)	12월 9일, 52p	5800부	정상 발송																										



[ 1·2월호 (201호) ]



[ 3·4월호 (202호) ]



[ 5·6월호 (203호) ]



[ 7·8월호 (204호) ]



[ 9·10월호 (205호) ]



[ 11·12월호 (206호) ]

3) 각 호별 내용

① 1·2월호 (201호)

꼭지	내용 및 필자
민우 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사냥에 나선다 : 정슬아</li> <li>• 성폭력상담소 상담원들이 한 건~ 한 건~ 정성들여 진행한 2010 상담 총정리 : 최김하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하소연 할 수 없는 이상한 나라’ : 이소희</li> <li>• 여자들은 묻는 걸 싫어한다고? : 이운소</li> </ul>
	민우스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여성노동자의 맛있는 노동!을 위한 토론회와 영상, 연극이 있는 시간, 회원송년회 &lt;명랑한 민우생활&gt; 외 5 : 편집팀</li> </ul>
	생생한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기피 부담금에 대처하는 자세 : 오영식</li> <li>• 체벌 금지로 교단이 무너진다고? : 조영선</li> </ul>
	문화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히티의 달, 욕망의 대상 : 이결</li> </ul>
기획	참 재밌는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과 함께하는 총회스케치 총회는 축제다 : 김민정</li> <li>• 2011년, 새로움을 약속한 김인숙과 박봉정숙에게 드는다 : 편집팀</li> <li>• 2011년 민우계획 한눈에 보기 : 편집팀</li> <li>• 사회 변화에 맞선 ‘새로운 담론모색’ : 김인숙</li> </ul>
	생협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협 된장과 간장, 고추장으로 요리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 보세요 : 김현정</li> </ul>
	9개의 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형극으로 말하기 : 남혜연</li> </ul>
	모람풍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SO : 이은숙</li> </ul>
	마포나루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대한 시작 ! : 강선미</li> </ul>
	나의 삶 나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를 통과했던 생각의 편린 : 임정우</li> </ul>

② 3·4월호 (202호)

꼭지	내용 및 필자
민우 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치(Mzrch) 내가 여성인 듯 ‘체인지 가든’ : 지윤정</li> <li>• 견적내기프로젝트 성형OTL : 정슬아</li> <li>• 정부여 제발, 돈이 아니라 의미를 받아라! : 이입혜경</li> </ul>
민우스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무부와 면담 진행 및 법무부 규탄기자회견! 우리는 밤(생활공간)과 장미(휴게공간)을 원한다! 외 4 : 편집팀</li> </ul>
민우칼럼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하승수</li> </ul>
생생한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 무엇이 문제인가 : 박용신</li> <li>• 여성이 편안하고 온전할 권리를 위하여 : 최김하나</li> <li>• 미션 3.0 : 사회에서 실종된 여성 찾기 : 최은순</li> </ul>

기획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하면 좀 어때 : 김창연</li> <li>•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할 것일까 : 박민영</li> <li>• 나, 우리의 불안을 함께 헤아리는 : 임보라</li> </ul>
	나의 삶 나의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을 기억하다 : 정이아</li> <li>결혼식,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 전조용미</li> </ul>
	모람풍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찰떡궁합 모람을 찾아서 : 강선미</li> </ul>
	마포나루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듦에 대하여 : 주가이</li> </ul>
	문화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른 봄, &lt;만추&gt;를 보다 : 김윤아</li> </ul>
	생협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게 최선입니까? : 김자현</li> </ul>
	9개의 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지부 대표를 소개합니다 : 편집팀</li> </ul>

③ 5·6월호 (203호)

꼭지		내용 및 필자
	민우 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사정, 제발 법대로 하자 : 이소희</li> <li>• 단단한 일상 속 호박 넝쿨 같은 회원 인터뷰 : 김인숙</li> <li>• 지하철 2호선 혹은 project line 2 : 정슬아</li> </ul>
	민우스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리캠페인] 여성영화제, 차도녀를 만났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여성, 생명, 평화 마당 외 4 : 편집팀</li> </ul>
	민우칼럼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여성회의를 다녀와서 : 정영애</li> </ul>
	서터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큐멘터리 감독 [기:영]을 만나다 : 편집팀</li> </ul>
	생생한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여성운동, 너와 나의 만남으로 새로운 시작을 : 평화</li> <li>• 인터넷 신문/포털사이트의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불편한 시선 : 최운정</li> </ul>
기획	버지니아 울프, 70주기를 추모하며, 2011년, “자기만의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는 매일 아침 능에서 눈을 뜬다 : 선백미록</li> <li>• 내 방 이야기 들어볼래?.jpg : 이유경, 정은선, 김희영, 민문경, 김나현</li> <li>• 외양간 짚터미와 라디오 : 임정우</li> </ul>
	독자인터뷰 n문 n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식 : 편집팀</li> </ul>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봉정숙 : 편집팀</li> </ul>
	문화산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시절 드라마에는 '가족'이 있었다 : 최지은</li> </ul>
	모람풍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람 대 모람 : 설고 대 명치 : 이운소, 장현진, 강선미</li> </ul>



마포나루에서	• 나는 요즘 ㅁ 에 꽃혀 있다 : 문성훈
나의 삶 나의 이야기	• 숯돌이의 도시락 이야기 : 정영혜
생협이야기	• 10대 성장기 아이에게 꼭! 필요해요 : 김현정
9개의 시선	• 육아에서 길을 잃다 : 홍문정

▪ 신설 쪽지 : 人터뷰 \*

생생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 신설 쪽지 : 독자인터뷰 n문 n답\*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가독성을 높여주는 쉬어가는 쪽지

▪ 신설 쪽지 :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

독자 참여와 재미를 주기 위한 기획

④ 7·8월호 (204호)

쪽지		내용 및 필자
민우 ing		•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 김희영 • 만담, 그 자체의 설렘 그리고 반가운 여성주의 : 지윤정 • 여성회의, 에프터를 신청합니다 : 선백미록
민우스캐치		• 2011년 지부운영위원교육이 있었습니다, 복날에 만난 복덩이 신입회원들과의 모임 외 4 : 편집팀
민우칼럼 창		•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는 이름이 있다 : 장지연
人터뷰		• 작게, 조용하게, 평화롭게, 노래하는 가수 <시와> : 편집팀
생생한 시각		• 내겐 너무 복잡한 "희망 버스" : 우현권 • 교회, 침묵을 말하다 : 유신애
기획	나는 절대로 장녀다	• 장녀로 산다는 것은 삶의 비밀을 좀 더 일찍 알게 되는 것 : 편집팀 • 그때 그 장녀들 : 문지은, 박봉정숙, 이임혜경 • 장남과 장녀의 연대기 : 김민균
독자인터뷰 n문 n답		• 이미경 : 편집팀
이 아이는 누구 일까요? ^^		• 김선화 : 편집팀
문화산책		• 아, 사랑하는 소녀들아 : 조승미
모람풍경		• 새로운 모람을 소개합니다 : 강선미, 안미선, 주현정, 문성훈, 선백미록
마포나루에서		• 원더풀 원지랜드! : 정하경주
나의 삶 나의 이야기		• 회원 vs 회원, 조은혜 vs 조은혜 : 편집팀
생협이야기		• 행동동의 한 자봉 세 가족 이야기 : 신이찬희

9개의 시선	• 회원, 그들의 육성이 들린다 : 김혜정
--------	-------------------------

⑤ 9•10월호 (205호)

꼭지	내용 및 필자
민우 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외요, 호외! 고수들이 노하우(Knowhow:路賀佑)를 공유합니다 ~ : 이선미</li> <li>• 식당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며 : 안미선</li> <li>• 작은 꽃 아픔으로 피다! : 이소희</li> </ul>
민우스케치	• [반차별 연속 포럼 '주체 논쟁']공정한 병역 이행 '남자가 말한다', [성명]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시킨 18대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외 4 : 편집팀
민우칼럼 창	• 서울시장 선거에 즈음한 생각 : 유경희
人터뷰	• 여행작가 황희연을 만나다 : 편집팀
생생한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 김희운</li> <li>•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 주현정</li> </ul>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찌질했던 나를 말하다 : 오영식</li> <li>• 사실, 나도 아직 답이 없다 : 문성훈</li> <li>• 해군은 장벽을 만들고 평화는 길을 만든다 : 조약골</li> </ul>
독자인터뷰 n문 n답	• 김성희 : 편집팀
이 아이는 누구 일까요? ^^	• 김미숙 : 편집팀
문화산책	• 마당을 나온 암탉아, 너를 위해 날아봐! : 박지숙
모람풍경	• 모람 vs 모람 : 다소 vs 작심삼일 : 이경숙, 김소연
마포나루에서	• 서울말은 너무 어려워 : 최윤라
나의 삶 나의 이야기	• 나의 삶 나의 할머니 : 화정
생협이야기	• 그녀들의 화려한 휴가 : 이슬비
9개의 시선	•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 장희정

⑥ 11•12월호 (206호)

꼭지	내용 및 필자
민우 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反)성폭력 운동, 물음표를 차근차근 풀어갑니다. -2006~2010년 상담사례 분석 토론회를 마치며 : 최김하나</li> <li>•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고용평등상담을 중심으로 : 최진협</li> <li>• 너는 본디 공주였다. - 신가족주의사회, 전업주부를 말</li> </ul>

		한다. : 선백미록 • 민우회원들은 누구일까? 어떻게 함께 할까? -회원인터뷰와 토론회를 마치고 : 문성훈
	민우스캐치	•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개정을 촉구한다, [물길, 바다를 이루다] 촉(觸)발(發) 문화제 후기 외 4 : 편집팀
	민우칼럼 창	• '죽어가는 자의 고독' vs '살아남은 자의 슬픔' - 무연사 대신 사회가 책임지는 죽음으로 부르면 어떨까? : 박진
	人터뷰	• [추은혜의 페미니즘 서재] 그리고 일상의 반란들 : 편집팀
	생생한 시각	• 나, 우리, 그리고 녹색당 : 히승수 • 미정 : 김희영
기 획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스물아홉 : 김영진 • 마흔 단상 : 전경순 • 다시 어린아이처럼 : 유경희
	독자인터뷰 n문 n답	• 강미영 : 편집팀
	이 아이는 누구 일까요? ^^	• 강선미 : 편집팀
	문화산책	• 나의 일기같은 그녀의 12년 9개월 : 문지은
	모람풍경	• 자기성장모임 VS 내공 세미나 : 강나영, 최유경
	마포나루에서	• 나의 손 끝에서 전해지는 텐션 : 지은정
	나의 삶 나의 이야기	• 내가 캐디였던 날들 : 장현진
	생협이야기	•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특별한 여행- 여성민우회 생협연합회 2011 생산지 기행 : 이슬비
	9개의 시선	•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 이정아

4) 편집이루미  
• 편집위원 : 회원/ 김민균, 노재운, 배범호, 이인화, 임정우  
활동가/ 박봉정숙, 김희영, 김가영(상반기), 문지은(하반기)ss  
• 편집 이루미 회의 : 참여평가 및 '기획' 꼭지 기획, 섭외, 집필  
- 2/21, 4/18, 7/1, 8/31, 11/2

5) 평가  
▶ 편집팀 내부 평가 ▶ 편집이루미 회의 평가  
▶ 상근활동가 평가서 취함 (구글문서) ▶ 온라인뉴스레터를 이용한 회원평가

--	--

#### 4. 사업명 : 홍보물 패키지 점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물 패키지 점검</li> </ul> <p>: 일상적으로 민우회를 알리는 홍보물 패키지 (명함, 각종 봉투)를 점검해 수정된 디자인을 만들어 일상적 홍보에 사용한다.</p> <p>: 홍보물 패키지 점검에 있어 새로이 등장한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 유저들이 편리하게 민우회의 온라인 도구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p>
집행	<p>1. 신입활동가와 기존 활동가들의 추가 명함에 디자인 변화와 더불어 홈페이지 QR코드를 삽입하였다. 각 활동가들의 트위터 아이디도 추가하여 다양한 소통 도구도 명함에 추가하였다.</p> <p>2. 각 팀의 사업 포스터, 홍보물에 QR코드를 적극 활용하였다. 함여의 '민우ing'에도 QR코드를 지속적으로 삽입하였다.</p>

## 1. 사업총평

### 1. 사업 목표

- 1) 민우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소통통로(홈페이지, 온라인 소식지, 블로그, 트위터, 해피로그 등)를 기반으로 한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활동 내용을 기획, 실행한다.
- 2) 민우회의 DB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후관리에 힘쓴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올 해 온라인 활동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은 블로그, sns 등 작년에 신설한 온라인 창구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홈페이지 개편과 블로그 활성화에 따른 기존 '후기'식 글쓰기에서 이슈나 이미지 강조를 통해 민우회 활동을 알려내고, 해피로그 활성화를 통한 네이버 캐스트 기획글 연재, 온라인 컨설팅, 트위터 활용을 일상화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보 영역에서의 다양한 온라인 창구를 구축해나간 해였다. 외부에서 민우회의 온라인 콘텐츠의 대중성과 스토리텔링에 많은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이 있었다. 내년에도 '일상성'과 '집중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해 구축한 온라인 소통통로의 집중과 일상적인 sns활용, 블로그 글쓰기 등을 통해 민우회 활동을 알려내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

1) 개편 이후 홈페이지 구성 메뉴가 바뀌면서 핫이슈, 민우ing, 공지 등 전반적인 게시판의 꾸준한 업데이트가 잘 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사업 외화가 몰릴 때에는 글이 한꺼번에 올라와 업데이트 과정을 잘 분배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연초에 핫이슈 꼭지의 업데이트가 잘 안되어 팀별로 진행되는 이슈 관련 활동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이슈가 고르게 업데이트 되고 있다. 웹로그 분석에 의거하면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유입자수는 하루 평균 190여명인데, 이중 68%인 130여명은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활동가나 회원들로 추측된다. 검색으로 민우회로 들어오는 방문자는 19%로 하루 평균 40여명으로 집계되어 실제 외부에서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방문자가 매우 적

은 것을 알 수 있다. 홈페이지 유입을 늘리기 위해 트위터 활용이나 블로그 콘텐츠 다양화와 홈페이지 연동 강화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온라인소식지는 2주일에 1회씩 발송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정상 발송되었다. 소식지를 통한 홈페이지 유입량(전송량, 약 2천부/홈피 유입량, 62명)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어 유입량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제목 설정, 서식 축소를 통한 관심의 집중 높여내기, 타단체 뉴스레터 분석을 통해 좋은 콘텐츠 확보, 온라인 소식지와 관련된 작은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올 해 블로그의 유입자수는 총 30,120여명이고 외부에서 검색으로 들어오는 유입자는 58.5%(17,617명)로 검색키워드는 1위가 국회의원 강용석(451건), 2위가 낙태(260건), 3위가 낙태 가능한 병원(230건), 4위가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173명), 5위가 싸움의 기술(143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블로그는 연초에 홈페이지의 콘텐츠와 차별성이 없었으나 블로그형 콘텐츠를 확산하기 위해 블로그에서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나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상다반사의 카테고리에 2주일에 1~2번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올해 대표들의 일상적인 이야기인 ‘대표적으로’ 꼭지를 신설하였다. 향후에도 활동 내용, 이슈 중심의 후기 글뿐만 아니라 글의 양에 관계없이 다양한 주제로 주기적으로 블로그 업데이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통일성 없는 주제의 내용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하는 등 꾸준히 시리즈로 포스팅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하여 블로그 방문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목 설정할 때도 낚시성 제목보다는 민우회만의 키워드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제목의 통일성 맞추기, 블로그 성격상 한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글쓰기, 활동가들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파워블로그의 글쓰기 교육, 블로그 메인 이미지 바꾸는 등 이후에도 내용 구성이나 대중적 반응을 높이기 위한 내외부적인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활용을 통해 회원 참여 프로그램을 신청하거나 자료집 요청, 활동 문의 등이 많은 해였다. 트위터의 경우 상반기에는 저조했으나 하반기에 재정행사, 사업 내용, 회원참여 프로그램, 민우회 일상 등 다양한 주제로 활용성을 높였다. 이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상과 활동 내용을 알려냄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온라인 채널의 활용성을 높여내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팀이 현재 팀 계정을 신설하였는데 이후에도 팀별 계정 신설을 유도하여 구체적인 이슈로 대중과의 직접 소통을 높여내고, sns발행 시 주제를 기

확해서 시리즈로 콘텐츠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무조건 많은 채널을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채널 자체의 집중성과 꾸준함을 높여내야 할 것이다.

해피로그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해도 식당노동자, 낙태, 반지하모임, 여성노동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해피로그 모금함 개설을 진행하였다. 민우회 활동 내용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듯 모금함 주제의 다채로움과 더불어 콘텐츠 생산도 스토리텔링이나 읽는 사람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말랑한 글쓰기에 대한 활동가 훈련이 잘 되고 있다는 해피빈 담당자의 외부 평가가 있었다. 모금함 개설뿐만 아니라 이후 모금 후기를 올리도록 활동가들을 독려할 것, 큰 액수를 모금하는 네티즌의 경우 온라인 소식지 리스트 추가하는 등 모금한 사람들에 대한 이후 관리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해마다 진행되는 당해 자료 제본은 올 해도 하반기에 진행되었다. 이슈나 회의록 등 이후 활동에 참고 필요한 자료 중심으로 제본하였으며 외장하드에도 정리 하였다. 자료 정리가 담당자가 계속 교체되고, 오프라인 자료 축적 매뉴얼이 정해지지 않아 제본하고 자료실에 자료 내리는 것 이상의 체계화된 정리 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다. 내부 자료가 아닌 정부 부처나 연구소 등에서 오는 외부 자료의 경우 자료 축적의 내부 기준 설정을 잘 마련하여 축적하여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설정하기 보다 상반기나 하반기 한 주를 정해 압축적으로 자료 정리 day를 만들어 전체 활동가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나 베란다 등 사무실 내부에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고 리스트화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 축적 기준은 상반기에 내부 회의를 통해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3) 외부 제안도 있었고, 내부에서도 정보 업무의 전반적인 분석 결과가 이후 활동 계획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하였다. 시기적으로 10월부터 컨설팅이 본격화되었으나, 그 시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외화 하는 기간이어서 조직적으로 다른 팀도 함께 교육을 듣거나 팀 내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어려워 업체와의 일정 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온라인 홍보 활동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집중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내부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진행했으면 더 효과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컨설팅 결과, 콘텐츠의 내용은 풍부하나 이를 외부적으로 홍보하거나 콘텐츠 생산 이후의 효과분석이 취약한 민우회 온라인 활용의 특징을 전문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업체와 내년 2월까지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구입, 하루에 트위터리안 1인과 대화하기,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의 연계점 찾아내기, 블로그 댓글 꾸준히 달기 등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은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활동이 긴 호흡을 가져갈 필요성을 공유한 시간이었고 정보활동의 집중성을 높여내기 위한 기술 교육 등을 통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홈페이지 정비 및 업데이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편된 홈페이지 오픈 및 정비와 관련된 마무리 작업</li> <li>- 정기적인 업데이트(민우칼럼 창 2주 1회)</li> <li>-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li> </ul>
집행	<p>1. 뉴스 업데이트 수 2010년 137개 -&gt; 2011년 88개(12월 2일 현재 핫이슈)</p> <p>2. 민우 칼럼 총 13편 게재(2011년 12월 2일 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 명절과 춤추다 -안미선(2/7)</li> <li>■ 한 '비혼 여성' 작가의 죽음과 잃어버린 꿈에 대하여 -박건(2/23)</li> <li>■ 꽃보다 연대(solidarity)를! -이소희(3/14)</li> <li>■ 위험사회를 대비해야 할 삶의 방법 :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캠페인에 나서자 -남윤인순(3/28)</li> <li>■ 헌법재판소의 알 수 없는 헌법해석,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정율(4/11)</li> <li>■ 미용성형에 관한 '윤리적인 질문' 만들기 - 태희원(5/9)</li> <li>■ 성폭력 피해여성의 죽음 -장서연(6/15)</li> <li>■ 우리 마을에 퀴어버스가 떴다! -김소란(6/27)</li> <li>■ 여기는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서민자(8/2)</li> <li>■ 부산 ICAAP에서 벌어진 경찰 폭력 -최지나(9/9)</li> <li>■ '도가니'와 가족의 가치 -박봉정숙(10/4)</li> <li>■ 나는 왜 결혼했을까? -문혜주(10/18)</li> <li>■ 구시대적 선거법 앞에 유권자의 권리는 없다 -황영민(11/3)</li> </ul> <p>3.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활동가 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18, 인트라넷에 쇼케이스 구성을 위한 서식 업데이트함.</li> <li>2) 4/21, 민우회 내부 SNS 미디어 활용교육 진행</li> </ol> <p>-블로그 글쓰기 tip, 프리지 간단 활용법, 온라인 기반 이미지편집 프로그램 등 교육함</p>



-참석 : 정슬아, 이소희, 안미선, 김희영, 주현정, 지은정, 권유경
---

## 2. 온라인 소식지 발송

계획	- 온라인 소식지 발송 리스트 정비 -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디자인 정비 - 2주 1회 기획 및 발송
집행	-연초에 온라인 소식지 내 배너 이미지 변경함. - 신입회원과 온라인소식지를 신청하여 업데이트된 구독자수는 230여명 - 전체적인 수신율 (2011년 12월 2일 현재) 성공 : 31,575 (99.2%) 실패 : 250 (0.8%) 확인 : 6,048 (19.2%) 거부 : 2 (0%) - 총 18회 발송 : 1/12, 2/25, 3/17, 4/14, 5/13, 5/27, 6/10, 6/24, 7/8, 7/22, 8/17, 8/31, 9/14, 9/28, 10/14, 10/31, 11/14, 11/28

## 3. 민우회 블로그 운영 및 트위터

계획	-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도구인 블로그 활동 적극적 구현 : 여성문제에 관한 오피니언 리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 결과가 아닌 '과정'을 공유하는 광장형 블로그 : 시민운동의 사람냄새 나는 블로그 : 사진, 동영상, 슬라이드, 라디오 등 다양한 방식의 매체 시도 - 블로그 유입경로를 확대하기 위함과 실시간 소통의 기반이 되는 트위터 활동을 통한 일상적 온라인 관계형성에 힘씀
집행	<b>업데이트 된 포스팅 수(12월 현재)</b> <b>■ 핫뜨거운 민우회 총 40건</b> : 관련 주제로는 낙태, 현대차, 교육, 군대, 성폭력,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등 (1/6, 2/7, 2/9, 2/10, 2/10, 2/10, 2/21, 4/11, 4/28, 5/20, 5/27, 6/3, 6/13, 6/14, 6/23, 6/29, 6/29, 7/7, 7/7, 7/13, 8/1, 8/18, 8/19, 9/2, 9/2, 9/8, 9/8, 9/9, 9/30, 10/12, 10/13, 10/14, 10/17, 10/21, 10/25, 11/2, 11/4, 11/14, 11/14, 11/23, 11/29, 11/29) <b>■ 대표적으로 총 15건</b> : 도가니, 스파이명일, 반값등록금, 나이들 등 : 대표들이 겪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2~3주에 1회씩 연재함. 올 해 신설된 꼭지임. (2/18, 3/3, 3/10, 3/21, 3/30, 4/13, 4/20, 5/26, 6/9, 7/1, 7/15, 8/1, 8/13, 8/30, 9/29) <b>■ 일상다반사 17건</b> : 뮤지컬 빨래, 바자회 등 (2/11, 2/21, 5/23, 5/25, 6/24, 7/26, 8/5, 8/8, 8/11, 8/22, 8/24, 8/24, 9/6, 9/28,

<p>11/7, 11/9, 11/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없는 세상 만들기 총 14건 (1/, 21, , 2/24, 3/10, 8,18, 6/24, 6/30, 8/10, 8/11, 8/17, 8/31, 9/8, 10/5)</li> <li>■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총 15건 (2/23, 3/3, 3/7, 3/28, 3/31, 4/15, 4/18, 5/20, 6/3, 6/13, 7/29, 9/23, 9/23, 10/13, 11/21)</li> <li>■ 차별 없는 나라로 총 18건 (1/13, 1/26, 1/31, 3/11, 3/11, 3/14, 3/28, 3/28, 5/15, 5/15, 5/25, 6/28, 6/29, 7/15, 8/12, 10/12, 11/3, 11/30)</li> <li>■ 견적내기프로젝트_성형OTL 총 8건(3/24, 3/31, 4/19, 4/21, 6/16, 6/27, 6/30, 7/8)</li> </ul>
---

#### 4. 자료 DB 정비 및 구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DB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자료실 정비</li> <li>- 자료 워딩작업 및 업로드</li> </ul> </li> <li>▶ 오프라인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제본, CD화</li> <li>- 지하 1,2층 자료실 리스트 정리 및 정비</li> </ul> </li> </ul>
집행	-2010년 온/오프라인 자료 축적 : 낙태범죄화 대응 활동, 반차별 사업, 식당노동자 인권 사업, 지역 관련 회의 자료, 이사회, 총회 등 관련 회의 자료 등(자료집 제본하여 지하2층 자료실에 정리함)

#### 5. 온라인컨설팅

계획	계획 없음			
집행	1) 일정			
	날짜	구분	내용	비고
	9/2	오리엔테이션	사업 오리엔테이션	
	9/8	1차 미팅	업체 미팅 및 향후 스케줄 작성	
	9/22	2차 미팅 예정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솔루션 제출 준비	
	9/30	중간보고제출		
	11/21	사전미팅	중간점검 및 컨퍼런스 전 사전 미팅	
	11/29~30	컨퍼런스	컨설팅 결과 및 사례발표	
			솔루션 진행	
	11/30	최종제안서제출	컨설팅 관련 최종 미팅	
		활용기간		
	12/2/25		최종보고서 제출	
	12/2/29		최종결과물 발표	

2) 세부계획			
날짜	내용	집행날짜	집행내용
9/8	온라인 마케팅의 이해와 단체 맞춤 전략	9/8	처음 담당자 미팅
9/15	키워드 마케팅이 왜 필요한가?	9/21	온라인 마케팅 상품 이해
9/22	블로그 마케팅 진행사항과 아이디어 회의	9/28	로그분석
9/29	sns 전략마케팅의 허와실 + 모바일마케팅 QR	10/7	키워드마케팅
10/6	ucc마케팅 제작과 배포	10/13	바이럴마케팅
10/13	사람을 움직이는 마케팅	11/10	중간점검
10/20	아이디어 상품 개발	11/16	행사촬영
10/27	가장 강력한 마케팅- 카페운영	11/17	편집스킬교육
11/10	카페 운영 진행과정 체크	11/21	컨퍼런스준비
11/17	향후 전략 및 스토리텔링 & 브레인스토밍	11/30	컨퍼런스
- 온라인 컨설팅으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2012년 2월까지 민우회 내부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 6. 기타 - 해피로그 관리, 나루도서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과 캠페인 중심으로 모금함 개설</li> <li>- 민우회 활동과 관련된 내용 주기적인 업로드(제 2의 블로그)</li> <li>- 콩 기부자들과 관계망 형성 (감사 쪽지, 블로그 방문, 민우뉴스레터 보내기 등)</li> <li>- 나루 도서관 기획 및 운영 관련</li> <li>- 온라인컨설팅으로 키워드, 정보활동가 역량교육</li> </ul>																		
집행	<p>1. 해피로그 관리</p> <p>1) 2011 모금함 개설 및 진행기간 (총 9개)</p> <table border="1"> <thead> <tr> <th>모금함(기간)</th> <th>모금액(기부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2011 한국여성민우회 후원금(1/1~12/31)</td> <td>566,500원 (504 명)</td> </tr> <tr> <td>2011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노동환경만들기(2/14~5/31)</td> <td>422,600원 (656 명)</td> </tr> <tr> <td>체인지가든 마치 내가 여성인듯 체험캠페인(2/25~3/31)</td> <td>491,000원 (1,110 명)</td> </tr> <tr> <td>이땅의 워킹맘님 힘내자고요! :(4/7~7/31)</td> <td>92,400원 (118 명)</td> </tr> <tr> <td>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디어바로보기 교육을!(4/25~7/31)</td> <td>585,200원 (714 명)</td> </tr> <tr> <td>세상이 알아야 할 &lt;낙태&gt;(5/27~7/27)</td> <td>1,128,900원 (1,300 명)</td> </tr> <tr> <td>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그녀들의 노동일기(6/3~8/31)</td> <td>423,200원 (478 명)</td> </tr> <tr> <td>반지하사는 사람들의 주거권 한뼘 올리기(10/25~12/25)</td> <td>600,000원(731 명)현재</td> </tr> </tbody> </table>	모금함(기간)	모금액(기부자 수)	2011 한국여성민우회 후원금(1/1~12/31)	566,500원 (504 명)	2011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노동환경만들기(2/14~5/31)	422,600원 (656 명)	체인지가든 마치 내가 여성인듯 체험캠페인(2/25~3/31)	491,000원 (1,110 명)	이땅의 워킹맘님 힘내자고요! :(4/7~7/31)	92,400원 (118 명)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디어바로보기 교육을!(4/25~7/31)	585,200원 (714 명)	세상이 알아야 할 <낙태>(5/27~7/27)	1,128,900원 (1,300 명)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그녀들의 노동일기(6/3~8/31)	423,200원 (478 명)	반지하사는 사람들의 주거권 한뼘 올리기(10/25~12/25)	600,000원(731 명)현재
모금함(기간)	모금액(기부자 수)																		
2011 한국여성민우회 후원금(1/1~12/31)	566,500원 (504 명)																		
2011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노동환경만들기(2/14~5/31)	422,600원 (656 명)																		
체인지가든 마치 내가 여성인듯 체험캠페인(2/25~3/31)	491,000원 (1,110 명)																		
이땅의 워킹맘님 힘내자고요! :(4/7~7/31)	92,400원 (118 명)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디어바로보기 교육을!(4/25~7/31)	585,200원 (714 명)																		
세상이 알아야 할 <낙태>(5/27~7/27)	1,128,900원 (1,300 명)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그녀들의 노동일기(6/3~8/31)	423,200원 (478 명)																		
반지하사는 사람들의 주거권 한뼘 올리기(10/25~12/25)	600,000원(731 명)현재																		

여성! 나의 일, 나의 이야기를 말 하다.(11/25~1/31)	33,100원 (64 명) 현재
-------------------------------------	-------------------

: 총 기부후기 4회, 미가입 후기 5회 (현재진행 3개)

2) 블로그의 포스팅을 해피빈게시판에도 게시

- 새소식 21, 참여하세요 2, 기부-봉사 후기 13, 핫뜨거운 민우회 12, 대표적으로 6, 민우칼럼 7, 일상다반사 3

3) 네이버캐스트

날짜	제목	담당	덧글	모금총액
6/13	10대들의 성	이선미(성폭력상담소)	95	57,100
6/21	성형광고 취재기	정슬아(여성건강팀)	14	700
6/28	따르릉 나의 상담기	이소희(여성노동팀)	12	10,000
7/5	낙태, 진실과 오해	김희영(여성건강팀)	156	724,500
7/12	잘못 사용하면 독!	한경희(미디어운동본부)	4	10,900
7/19	대학생을 찾아요	선백미록(반차별회원팀)	35	101,800
7/26	식당인권의 숨은 진실	안미선(여성노동팀)	101	165,000
8/2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이선미(성폭력상담소)	25	218,800

※ 네이버캐스트? 해피로그 활동으로 연계된 것으로 네이버 메인 화면 하단에 “테마캐스트”의 사화공헌 탭이 추가 되어 1주에 1회씩 민우회를 비롯한 다른 단체들의 모금함이나 후기, 활동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것으로 올 해 해피빈재단과 기획하여 진행함.

2. 나루도서관

-나루 도서관 운영위 회의 : 2/14, 3/28, 4/12, 9/5

-4/27, 저자와의 대화 『예쁜 여자 만들기』, 이영아 진행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수준 있고 참신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 2) 네이버 해피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 3) 회계업무의 체계화와 시스템 안정화에 힘쓴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민우회 재정사업으로 처음 시도되었던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콘서트와 연극의 장점을 고루 갖는 복합장르로서, 회원층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후원자들에게 변화된 민우회 재정 사업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 특히 유쾌한 춤과 노래를 비롯해 비정규직, 이주 등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담은 질 높은 콘텐츠는 재정행사를 넘어 참신한 문화행사로 위치하여, 민우회 이미지 제고와 회원확대에 유의미한 창이 되었다. 다만, 너무나 유명한 뮤지컬이기에 본 사람이 많았던 점, 재정행사 전후에 공연이 진행되고 예정되어있는 점 등은 후원자를 조직하는데 있어 현실적 어려움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수익 대비 과도한 지출비용과 노력이 발생하여 향후에는 재정확보로서의 기능에 충실한 재정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재정사업이 주요한 사업들이 집중되는 하반기에 동시 진행됨으로써 진행과정에서 과부하된 측면이 있다. 이후 재정사업을 기획하는 경우 주요사업과의 시기중복을 피하는 적절한 일정안배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식당노동자, 낙태, 반지하모임, 여성노동상담 등 다양한 주제로 다채롭게 모금함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모금함 업데이트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표모금함만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은 아쉽다. 무엇보다 모금함 개설 뿐 아니라 모금 후기 작성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온라인 소식지를 보내는 등의 후원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보 담당자가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는 역부족이다. 이후 재정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반상근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만을 전담하면서 일상적인 회계업무가 체계화되었다. 따라서 월 단위 결산 정례화와 분기별 결산서 온오프라인 공개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4) 올해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다양한 일반 후원들이 있었다. 이사님의 정책사업 후원, 바자회 물품후원, 회원의 생일 후원, 기아자동차 사회봉사기부고객 후원 등 다양한 일반 후원금이 조성되어 재정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이후에도 다양한 후원금 조직 방식을 조사하고 기획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재정사업

#### 1) 문화행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조사를 통해 참신하고 수준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개최한다.</li> </ul>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한국여성민우회 후원공연 뮤지컬 빨래</li> <li>-일시: 2011년 9월16일(금) 오후8시 9월17일(토) 오후3시, 오후7시</li> <li>-장소: 마포아트센터</li> <li>-후원금 종류 : 바람자리 4만원 햇살자리 6만원 하늘자리 10만원</li> <li>-조직화 : 회원, 이사, 정책위원, 노조, 단체, 지부, 부설, 생협, 일반으로 나누어 작업</li> <li>-인쇄홍보물 : 티켓/엽서리플렛/A4리플렛/ 팸플렛</li> <li>-설치홍보물 : 외벽 현수막</li> <li>-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 블로그, 온라인 소식지를 통한 홍보</li> <li>-포트폴리오 제작</li> </ul>

#### 2) 해피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사업과 캠페인을 중심으로 모금함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기반 마련에 힘쓴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콩 기부자들과 감사쪽지, 블로그 방문 등 지속적인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하도록 한다.</li> </ul>																				
집행	- 해피빈 모금함 모금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모금함(기간)</th> <th>모금액(기부자 수)</th> </tr> </thead> <tbody> <tr> <td>2011 한국여성민우회 후원금(1/1~12/31)</td> <td>566,500원 (504명)</td> </tr> <tr> <td>2011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노동환경만들기(2/14~5/31)</td> <td>422,600원 (656명)</td> </tr> <tr> <td>체인지가든 마치 내가 여성인듯 체험캠페인(2/25~3/31)</td> <td>491,000원 (1,110명)</td> </tr> <tr> <td>이땅의 워킹맘님 힘내자고요!:(4/7~7/31)</td> <td>92,400원 (118명)</td> </tr> <tr> <td>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디어바로보기 교육 일(4/25~7/31)</td> <td>585,200원 (714명)</td> </tr> <tr> <td>세상이 알아야 할 &lt;낙태&gt;(5/27~7/27)</td> <td>1,128,900원 (1,300명)</td> </tr> <tr> <td>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그녀들의 노동일기(6/3~8/31)</td> <td>423,200원 (478명)</td> </tr> <tr> <td>반지하사는 사람들의 주거권 한뼘 올리기(10/25~12/25)</td> <td>600,000원(731명)현재</td> </tr> <tr> <td>여성! 나의 일, 나의 이야기를 말하다.(11/25~1/31)</td> <td>33,100원 (64명) 현재</td> </tr> </tbody> </table>	모금함(기간)	모금액(기부자 수)	2011 한국여성민우회 후원금(1/1~12/31)	566,500원 (504명)	2011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노동환경만들기(2/14~5/31)	422,600원 (656명)	체인지가든 마치 내가 여성인듯 체험캠페인(2/25~3/31)	491,000원 (1,110명)	이땅의 워킹맘님 힘내자고요!:(4/7~7/31)	92,400원 (118명)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디어바로보기 교육 일(4/25~7/31)	585,200원 (714명)	세상이 알아야 할 <낙태>(5/27~7/27)	1,128,900원 (1,300명)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그녀들의 노동일기(6/3~8/31)	423,200원 (478명)	반지하사는 사람들의 주거권 한뼘 올리기(10/25~12/25)	600,000원(731명)현재	여성! 나의 일, 나의 이야기를 말하다.(11/25~1/31)	33,100원 (64명) 현재
	모금함(기간)	모금액(기부자 수)																			
	2011 한국여성민우회 후원금(1/1~12/31)	566,500원 (504명)																			
	2011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노동환경만들기(2/14~5/31)	422,600원 (656명)																			
	체인지가든 마치 내가 여성인듯 체험캠페인(2/25~3/31)	491,000원 (1,110명)																			
	이땅의 워킹맘님 힘내자고요!:(4/7~7/31)	92,400원 (118명)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미디어바로보기 교육 일(4/25~7/31)	585,200원 (714명)																			
	세상이 알아야 할 <낙태>(5/27~7/27)	1,128,900원 (1,300명)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그녀들의 노동일기(6/3~8/31)	423,200원 (478명)																			
반지하사는 사람들의 주거권 한뼘 올리기(10/25~12/25)	600,000원(731명)현재																				
여성! 나의 일, 나의 이야기를 말하다.(11/25~1/31)	33,100원 (64명) 현재																				

### 3) 아름다운동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겨레21의 정기구독 후원인 ‘아름다운 동행’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한다.</li> </ul>
집행	-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통해 홍보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진행하지는 못하였다. 참여를 통한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요청이 필요하다.

## 2. 회계업무의 체계화, 시스템 안정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구 및 월 결산 정례회를 통해 일상적 회계업무의 시스템 안정화와 체계화에 힘쓴다.</li> <li>▪ 결산자료의 온라인 공개시기를 체계화한다.</li> </ul>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결산 정례화</li> <li>- 분기별로 온라인 결산서 공개와 참여를 통한 오프라인 결산서 공개가 체계적으로 운영됨</li> </ul>

## 3. 나루운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루운영위원회와 행정업무 담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li> <li>▪ 나루운영위원회, 행정, 회계</li> </ul>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운영위원회 주재 : 1/13, 2/10, 3/10, 4/7, 5/12, 6/15, 7/14, 9/8, 10/7, 11/4, 12/9</li> <li>- 나루 회계 담당</li> <li>- 교육TF 구성 및 운영</li> <li>- 나루 상근자 교육 실시 : 11월 28일, 시민운동과 정치 (강사: 김기식)</li> </ul>



# 특별기획 사업 : 보수화된 가족패러다임 대응활동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보수적 담론이 주도하는 현 가족패러다임에 문제제기하며, 새로운 가족패러다임 재구성에 대한 모색을 통해 이후 반차별 이슈의 구체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보수화된 가족패러다임 대응 활동은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의 역할을 주부로 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조장·확산하는 담론에 대한 문제제기를 목표로 전업주부 주체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과 소통, 기존의 전업주부 이미지에 대한 균열내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토론사업을 진행하였다. 계획상으로는 노동, 건강, 반차별 등 각 영역별로 가족패러다임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TF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각 팀별 사업역량에 대한 고려 및 대응활동을 구체화하는 과정 속에서 TF 구성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내용적으로도 활동 방향성을 선회하였다. ‘가족’ 영역으로 집중하여 세부 의제발굴을 꾀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이 아닌 연구를 통한 대응활동으로 진행하였다.

전업주부 10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최근 가족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경험을 가시화하고자 한 ‘신가족주의사회, 전업주부를 말한다’ 연구토론 사업은 중산층 이상의 여성들로 대변되는 전업주부 담론에서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된 대상인, ‘중간계층’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데 유의미했다. 사업진행 결과 첫째, 전업주부 정체성은 일시적, 불안정한 정체성이다 둘째, 전업주부에게도 보편적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취업주부 대 전업주부의 구분이나 ‘주부=여성’이라는 고정관념에 새로운 인식을 제공하면서, 보수적 가족담론을 상대화시키는 전략으로서는 유효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대안 모색단계에 그쳐 사업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데 아쉬움이 컸고, 대안적 가족패러다임의 구성, 반차별 이슈의 구체화 그리고 가족 관련 의제 발굴을 위한 목적에는 활동이 충분히 진행되진 못했다. 향후, 본 연구사업을 통해 드러난 교육, 돌봄, 가족, 국가 등을 키워드로 여성의 요구들을 반영한 복지 패러다임적 접근을 시도한다면 신가족주의 가족 담

론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할거라 기대한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보수화된 가족패러다임 대응 활동

계획	<p>1. 가족패러다임 대응을 위한 TF구성 여성노동, 여성건강, 반차별팀, 정책위원이 결합해 특별팀을 구성하고 정부정책 및 언론을 대상으로 가족담론을 분석하고 대안적 가족담론을 연구한다.</p> <p>2. 보수화된 가족담론 대응 토론회 개최 가족담론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저출산, 건강가족 중심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p>
집행	<p>1. 가족토론회 ‘신가족주의 사회, 전업주부를 말한다’</p> <p>(1) 기획회의(3/30): 여성노동, 여성건강, 반차별 등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정책 및 언론에 대한 담론 분석을 하는 것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 담론 비판 연구사업과 다르지 않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고, ‘전업주부’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가족이슈를 발전시키면서 가족담론에 문제제기하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구성한다.</p> <p>(2) 전문가 간담회 : 주부주체에 대한 접근방법, 운동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전업주부관련 주요논문 연구자와 간담회를 진행함.</p> <p>- 이박혜경(5/20) : ‘신자유주의적 주부주체의 담론적 구성과 한국 중산층가족의 성격 : 미디어 담론분석 및 면접조사를 바탕으로(이박혜경, 2008)’ : 박봉, 신기루</p> <p>- 조주은(5/23) : ‘중간계급 유배우 취업여성의 압축적 시간경험에 관한 연구’ : 신기루, 폴</p> <p>(3) 연구팀의 구성 및 연구회의 진행</p> <p>① 연구기획팀: 정영애(서울사이버 대학교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김선미 (이대 여성학과 통합과장), 박봉정숙, 선백미록, 강선미</p> <p>② 연구회의 - 1차 7/22 : 연구주제의 선명화 및 분석 범위 설정. 건강가족기본법 및 이에 대한 정책적 비판부분을 과감하게 줄이고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 가족담론의 형성/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결과분석을 하기로 함.</p>

- 2차 8/4: 심층인터뷰 질문 구체화와 이전 연구자료 검토
- 3차 10/17: 심층 인터뷰 분석회의
- 4차 10/19: 심층 인터뷰 2차 분석회의
- 5차 10/21: 토론회 기획
- 6차 10/31: 원고검토회의

(4) 심층인터뷰

① 인터뷰 대상 :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전업주부 상태의 여성 10명

구분	연령	학력	배우자 소득	배우자 직업	일 경험	혼인 기간	자녀수 (연령)	주요 관제망	기타
1	28세	대졸	560만원	증권회사 직원	유치원 교사	5년	미취학 2명 (5세, 2세)	교회	임신 중
2	31세	전문대졸	250만원	공무원	건설회사직원	5년	미취학 2명 (6세, 3세)	교회	
3	32세	대졸	180만원	회사원	시민단체간사	6년	미취학 2명 (6세, 3세)	여성단체	
4	36세	대졸	580만원	회사원 (금융)	구직	8년	미취학 2명 (7세, 5세)	여성단체	
5	43세	대졸	750만원	회사원	회사원	8년	미취학 1명 (6세)	여성단체	
6	43세	대졸	350만원	회사원	논술강사	10년	취학 1명, 미취학 2명 (11세, 5세, 2세)	교회	
7	40세	대졸	420만원	회사원 (IT)	다큐멘터리 조감독	10년	미취학 2명 (7세, 5세)	여성단체	
8	38세	대졸	300만원	회사원	사회복지사	11년	취학 1명, 미취학 2명 (8세, 2세, 2세)	자녀 또래 엄마	미취학 2명, 은등이
9	40세	대졸	400만원	중소기업 관리직	회사원	16년	취학 3명 (15세, 11세, 9세)	자녀 또래 엄마	
10	51세	대졸	1000만원 이상	은행 지점장	은행원	24년	성인 (23세, 22세)	성당	

② 인터뷰 질문: 주부 정체성(주부되기의 선택, 주부역할), 전업주부, 삶의 전망,

	<p>자녀, 사회적관계망과 참여정도를 중심으로 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8개 영역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왜 전업주부를 선택하였는지, 주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이 생각하는 부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li> <li>- 자신이 생각하는 가사노동이 무엇인지, 가계의 경제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가사노동 외에 다른 일을 하고 싶은지</li> <li>- 가족 간의 유대관계와,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가족과 자신의 삶의 양립여부</li> <li>- 신가족주의가 추구하는 전업주부의 역할과 이에 상응하는 정책의 실행여부를 분석해보고자 이들이 생각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보상 문제를 질문하고 8월 8일부터 9월 28일 까지 활동가(박봉정숙, 선백미록, 강선미)가 인터뷰, 녹취함.</li> </ul> <p>(5) 토론회</p> <p>① 일시 와 장소: 11/ 15(화) 오후2시 민주노동총대회의실(경향신문 13층)</p> <p>② 제목: 신가족주의사회, 전업주부를 말한다.</p> <p>③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박봉정숙(민우회 공동대표)</li> <li>- 발제1. '전업주부' 범주의 사회적 의미와 여성주의 가족 담론의 방향 : 정영애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li> <li>- 발제2. 신가족주의에 저항하는 전업주부의 가능성을 찾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 자녀를 둔 중간계층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 김선미(이화여대 여성학과)</li> </ul> </li> <li>-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업주부의 삶을 통해 본 성차별의 문제는 무엇인가?</li> <li>• 여성주의적 가족담론은 무엇이 되어야 하며, 여성운동의 접근은 어떠한가?</li> <li>• 돌봄과잉사회, 신가족사회에서 대안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구상이 가능한가?</li> </ul> </li> </ul> <p>토론1. 조주은(국회 입법조사처)</p> <p>토론2. 김효정(이화여대 여성학과)</p> <p>토론3. 조영임(광주여성민우회 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토론</li> </ul> <p>2. 보수화된 가족 담론에 대한 대응활동</p>
--	---

- 1/28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결과발표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의 "아빠는 '외롭고', 엄마는 '힘들어도 역시 내 남편, 내 아내가 최고!'라는 제목의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비판 논평(1/28)
--

## 특별기획 사업 : 민우회원 분석을 통해 본 민우회 여성운동 방향모색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민우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회원층, 지지층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민우회가 기반하고 있는 대중의 변화에 착목하고, 조직화와 운동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꾀하는 내용적 기반을 마련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민우회원 탐구 사업은 하나, 민우회원을 통한 여성의 일상 및 현실고민 찾기 들, 회원 간 소통강화 및 역동적 조직활동 방안 마련 셋, 향후 여성운동 방향 모색 및 이슈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심층인터뷰를 통해 활동여부와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22명의 회원을 만나 민우회 운동에 대한 의견, 일상 속 여성고민 그리고 관심 있는 여성이슈 등을 주요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본부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단답식 설문조사는 총 160명에게 응답을 받았으며 회원 조직 활동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사업은 회원과의 따뜻한 관계맺음을 돈독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동시에 민우회 활동의 근간이 되는 회원을 직접 만나 회원에게 당면한 현실고민과 여성으로서의 삶의 욕구를 상세하게 나눔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여성 의제 발굴 모색을 시도할 수 있었다. 심층 인터뷰뿐 아니라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과의 접촉면을 넓혔다는 데에 상당히 유의미한 활동이었으며 회원들의 반응 또한 자신들의 의견 표출 기회와 공간 마련 측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분석 회의를 통해 민우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

성을 가지며 여성운동을 이어가야 할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여성주의를 통한 일상적 힘 받기가 가능하고 편안한 공감대를 나눌 수 있고 민우회가 펼치는 활동을 신뢰하는 이유로 민우회원으로서는 함께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으며 민우회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의견들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이 같은 지점들을 견지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일상 속의 관심사는 배움에 대한 욕구부터 종교 활동 등 다양하게 드러났으며 회원 활동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조건 상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회원활동을 기획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적 네트워크나 자원이 없는 여성 대상이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주의에 관심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한 활동을 기획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분석되었다.

민우회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및 새로운 의제 발굴을 위한 기틀 마련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에도 민우회와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일상 속의 구체적인 의제를 이슈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민우회원 분석을 통해 본 민우회 여성운동 방향 모색

계획	<p>1. ‘민우회원’에 대한 통계 분석 및 지역여성 기초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부 회원의 일상 파악 및 민우회활동 관련 평가 등 기초조사 실시</li> <li>- 회원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방향 모색</li> </ul>																				
집행	<p>1. ‘민우회원’에 대한 통계 분석 및 지역여성 기초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뷰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 본부 회원 중 22명(활동여부 및 정도, 연령대별)</li> </ul>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padding: 5px;">활동여부</th> <th style="padding: 5px;">20대</th> <th style="padding: 5px;">30대</th> <th style="padding: 5px;">40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비활동 내지 중단</td> <td style="padding: 5px;">2명</td> <td style="padding: 5px;">2명</td> <td style="padding: 5px;">3명</td> </tr> <tr> <td style="padding: 5px;"></td> <td style="padding: 5px;">1명</td> <td style="padding: 5px;">2명</td> <td style="padding: 5px;">2명</td> </tr> <tr> <td style="padding: 5px;">• 활동</td> <td style="padding: 5px;">3명</td> <td style="padding: 5px;">5명</td> <td style="padding: 5px;">2명</td> </tr> <tr> <td style="padding: 5px;">합</td> <td style="padding: 5px;">6명</td> <td style="padding: 5px;">9명</td> <td style="padding: 5px;">7명</td> </tr> </tbody> </table> </li> <li>② 인터뷰 기간: 8월 초~9월 중순</li> <li>③ 인터뷰어: 김인숙, 박봉정숙, 주가이(주현정), 신기루(선백미록), 폴(강선미), 모후아(지은정), 하이디(김희정)</li> <li>④ 녹취 활동: 신기루(선백미록), 폴(강선미), 모후아(지은정), 회원 수폴(오영식), 파</li> </ul>	활동여부	20대	30대	40대	• 비활동 내지 중단	2명	2명	3명		1명	2명	2명	• 활동	3명	5명	2명	합	6명	9명	7명
활동여부	20대	30대	40대																		
• 비활동 내지 중단	2명	2명	3명																		
	1명	2명	2명																		
• 활동	3명	5명	2명																		
합	6명	9명	7명																		

	<p>도(박성은), 빠른거북이(유화정), 헤민(권혜민)</p> <p>⑤ 회원 조사 분석 및 토론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0월 6일 오후 1시</li> <li>- 참석: 김인숙, 박봉정숙, 주가이(주현정), 오이(이임혜경), 신기루(선백미록), 꼬깸(김희영), 나우(최진협), 모후아(지은정), 폴(강선미)</li> <li>- 내용: 인터뷰 내용 및 설문을 통해 본 회원 욕구 분석 및 민우회 활동 전망 나눔</li> </ul> </li> <li>• 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1월 2일 오후 1시</li> <li>- 참석: 김인숙, 박봉정숙, 주가이(주현정), 오이(이임혜경), 신기루(선백미록), 꼬깸(김희영), 나우(최진협), 모후아(지은정), 폴(강선미)</li> <li>- 내용: 1차 회의에 이어 인터뷰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민우회 활동 분석 구체화</li> </ul> </li> </ul> <p>■ 단답식 설문조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대상: 본부회원(총1,456명, 보류 및 회비장기미납 제외) 중 160명 응답 참여</li> <li>② 기간: 1차 7월 25일~8월 15일, 2차 8월 16일~ 8월 28일</li> <li>③ 방법: 구글 문서도구 설문조사 형식을 이메일로 발송 설문 체크 독려</li> <li>④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글 문서도구에서 각 질문에 따른 통계추출</li> <li>- 질문에 대한 세부(복합) 통계는 회원 핑(최혜영)의 자원 활동으로 추출</li> </ul> </li> </ol>
--	--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반차별 감수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방식의 대중 캠페인 ‘여자, 여자 괜찮아요!’ (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연대 활동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전개하며 다양한 운동세력간의 네트워크를 강화, 반차별 운동을 지속·발전시킨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속에서 2010년 반차별 캠페인 ‘여자, 여자 사랑해요!’에 연속해 반차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중 캠페인 ‘여자, 여자 괜찮아요!’를 기획했으나 사업 내용의 방향 전환 및 팀내 역할 조정 과정을 거쳐 차별금지법제정연대활동에 통합하여 진행했다. 올해 반차별 활동은 내용상 애초의 계획에는 없었으나 시의적절하게 운동적 과제로 부상한 문제들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펼친 것에 주목할 만하다. ‘반차별 연속포럼 주제논쟁’은 여성운동 내부의 논쟁의 장을 열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조사관 해고 대응활동은 정부기구의 비민주성에 적절하고 빠르게 대응한 활동이었다.

특히, ‘여성회의, 에프터를 신청합니다’와 ‘공정한 병역이행, 남자가 말한다’ 두 차례로 진행된 주제논쟁은 4월 여성회의 이후 떠오른 ‘세대론’을 중심으로 한 여성주의 내부 논쟁을 가시화 했고, 병역문제에 대해 공론의 장을 열어 남성들의 입장을 드러내고 성별 구도로만 논쟁되는 판의 변화를 시도했다. 두 차례의 포럼은 예민한 주제에 대한 과감한 기획과 접근으로 여성운동에서 침체되어 있는 담론 논쟁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공통질문을 던져 가볍고도 고르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 형식 측면에서도 새로웠다. 그러나 결론과 대안적 부분은 미흡했으며, ‘주제논쟁’이라는 사업명에 대한 기대와 달리 실제 토론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에 긴급토론회나 작은 포



럼 등의 방식을 통해 여성운동 현안에 대한 과감하고 재빠른 접근과 논의의 확장을 위한 기획을 탄탄히 하여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

주거권 모임으로 구성된 반지하사는 여성들의 모임 ‘반만올라가면 일층’은 1인 가구 문제의 가시화를 위한 활동으로서 서울시의 1인 가구가 4인 가구의 인구를 넘어선 시점에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존재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접근한 기획이었다. 이를 통해 빈곤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반지하’와 같이 비가시화 된 주거문제를 발굴했다. 주거복지, 1인 가구, 소수자 가족구성, 비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과제와 활동성을 띤 이슈모임으로서 이어질 필요가 있겠다.

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올해 법안을 확정된 후 사회적인 지지와 여론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쉽고 대중적인 방식의 홍보활동과 입법을 지원할 수 있는 연대 세력 구축에 힘썼고 유명 사회인사들의 지지 선언, 법안 주요내용 동영상 제작 배포, 국민 입법청원을 진행했다. 민우회는 사무국과 대중홍보팀에 결합해 대중홍보캠페인을 구성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권 소수자 단체 간의 연대를 확장하고 그 틀을 공고히 했으며, 다양한 운동세력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상반기 이후 방향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차별’에 기반한 피해자 담론의 법 제정 자체 보다는 당사자의 실질적인 욕구를 담은 ‘권리’로서 인권조례제정운동으로 장기적 전망을 세워 활동하였다. 그러나 성적지향과 관련된 보수기독교의 혐오대응이 심각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활동이 그 대응활동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담당자외에 조직적 활동결합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다양한 차별을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하는 법으로써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제정운동이 본격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결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반차별 대중캠페인 - 여자, 여자 괜찮아요!

계획	<p>1) 방향 및 목적</p> <p>내 가족, 친구의 성적체성과 상관없이 관계맺음을 할 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동성애자를 이상하거나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적 인식을 바로 잡도록 한다.</p>
----	--

	<p>2) “내 일촌이 동성애자여도 괜찮아!”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선언 기획단 조직</li> <li>② ‘괜찮은 선언문’ 제작 워크숍</li> <li>③ ‘괜찮은 2011명’ 선언자 모집</li> <li>④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작은 토론회 진행</li> <li>⑤ “내 일촌이 동성애자여도 괜찮아(가)” 선언 대중 캠페인 진행</li> <li>⑥ “여자, 여자 괜찮아요” 캠페인을 활용한 문화제 개최</li> </ul> <p>3) 차별금지법제정흐름과 연동해 캠페인 및 문화제 활동</p>
집행	<p>518기념재단 국내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 사회소수자약자 부문 프로젝트의 탈락으로 인해, 집중 사업 선정 및 팀 내 사업 조정 하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 중 대중 활동을 민우회 내에서 보다 소통적으로 진행해 목적인 활동을 통합하기로 함.</p>

## 2.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안제정을 위한 입법, 국회 대응활동</li> <li>- 캠페인 등 대중홍보활동</li> <li>- 반차별 운동단위 확장을 위한 연대단위 조직활동</li> </ul>
집행	<p>1.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회의: 월 1회 진행(3월 31일, 향린교회)</li> <li>- 사무국 회의: 인권운동사랑방(박석진, 훈창), 민우회(선백미록), 연분홍치마(김일란), 진보신당(나영정), 동인련(장병권), 공익변호사그룹공감(장서연, 조혜인), 언니네트워크(똥), 민주노동당(레이가) 월 2회 정기 회의 그 외 수시 진행.</li> </ul> <p>2. 법안 관련 활동</p> <p>(1) 법무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공개 질의 및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무부 장관 및 인권정책과장 등에 차별금지법 제정 거부 발언을 비롯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방향과 의지 확인 질의서 발송(1/13), 사회경제적 합의 부담으로 적극 추진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1/26).</li> <li>②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앞</li> <li>- 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자회견취지 및 경과보고 - 법무부 차별금지법 추진 계획에 관한 공개질의</li> <li>2.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무유기 규탄 발언</li> <li>3. 기자회견문 낭독</li> </ol> </li> </ul> </li> <li>③ 법무부 면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27일 12시 30분 정부과천청사</li> <li>- 참석: 이승한(법무부 인권정책과장), 홍관표(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나영정(진보신당), 헤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선백미록(한국여성민우회), 이진희(장애여성공감),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li> <li>- 내용: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밝히는 것은 반대세력을 자극하는 것, 사회경제적 합의의 어려움으로 의지는 있으나 부처간 협의 등 난관 있다.</li> </ul> <p>(2) 법안 토론회 및 설명회</p> <p>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의 법안 내부 토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장소 : 2011년 3월 16일 저녁 7시 향린교회</li> <li>- 프로그램</li> <li>1) 법안국회대응팀 쟁점 발제(조혜인)</li> <li>2) 질의응답</li> <li>3) 수정안 논의</li> </ul> <p>② 대학모임 법안설명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월 11일 오후7시, 친구사이 사정전</li> <li>- 대상: 제정연대 내 대학모임, 인권법모임 '두런두런'</li> <li>- 발제: 법안(조혜인), 활동(선백미록)</li> </ul> <p><b>3. 국회대응 활동</b></p> <p>(1) 박영선의원실 면담</p> <p>① 일시: 2011. 3. 18. 오전 10:30 장소: 박영선 의원실</p> <p>② 참석: 유진희 보좌관, 타리(진보신당), 장서연(공감), 서선영(민변)</p> <p>(2) 박은수 차별금지기본법안 발의 관련 대응과 별도 발의(권영길 대표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말 박은수 의원 삼육대 장애교육 이수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을 접하고 5월 입법 요청, 12월 공청회 진행하고 7월 법안 마련 후 8월 법제실 검토거쳐 9월 '차별금지기본법안'으로 발의함. 박은수 의원 면담해 '성적지향' 등 오류 내용 수정, 철회 요구함.</li> </ul> <p>② 제정연대 별도 발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제정연대 원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직).</li> </ul> <p><b>4. 대중홍보활동</b></p> <p>(1) 출범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1년 1월 5일(수) 오전 11시</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여의도 국민은행 앞</li> <li>- 프로그램</li> <li>사회: 정혜실(다문화가족협회)</li> <li>발언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취지- 고정갑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li> <li>발언2. 차별금지법 취지와 경과- 김덕진(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li> <li>발언3. 차별금지법안 내용- 장서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li> <li>발언4.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미셀(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윤가브리엘(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대표)</li> <li>발언5.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 국회 발언 “국회에 주문한다”-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li> <li>발언6. 기자회견문 낭독- 최용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li> <li>발언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후 활동 계획 발표</li> </ul> <p>(2) ‘올바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길라잡이’ 발간(1/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000부, 단체별 배포 및 이후 캠페인 활용</li> <li>-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에 제정연대 소개 및 후원조직 공문, 소책자 발송(민우회 공동집필)</li> </ul> <p>(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캠페인 NEVERHI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재를 감추지 마라! 분노도 감추지 마라! 차별금지법을 감추지 마라!</li> <li>- 일시 장소: 1/15(토) 정오(12시) 이대 ECC지하 222,224,225호</li> <li>- 프로그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FACE선언 :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만의 선언과 함께 즉석 사진 남기기</li> <li>2. 최신판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간 ‘올바른차별금지법제정을위한길라잡이’ 만나기</li> <li>3. 차별금지법제정 지지 서명 하기</li> <li>4. 하이라이트: Can't stop the Beat 댄스공연!</li> </ol> <p>(4) 차별금지법제정 다달의 캠페인: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요!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및 페이스 선언/ 설맞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제작 유인물 배포, 활동모금, 피켓으로 말하기/ You Can't Stop the baet 라인 댄스 공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설맞이 2/1(화) 오후1시~3시 서울역 광장</li> <li>② 정기 캠페인 2/19(토) 오후1시 창계광장</li> <li>③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민주노총 여성대회 캠페인 Women Can't Stop the baet : 3/5(토) 오후 1시 시청서울광장, 본무대 인권과 평화 부분 요구안 발언 및 공연</li> </ol>
--	--

	<p>④ 326장애인 대회 3/26(토) 오후2시~4시 마로니에 공원 : '차별로드맵_위대한 사연'으로 복합차별 사례 발굴 및 입법 청원 청원인 모집</p> <p>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4/12(월)~ 4/13(화) 오후3시~6시 : Face 선언(지민, 손경화, 이해영, 변영주 등 참여)</p> <p>⑥인권영화제 5/19 오후1시 마로니에 공원</p> <p>⑦ 퀴어문화축제 5/28 : 페이스 선언 참여자 현수막 들고 행진, 반차별 퀴즈 진행</p> <p>(5) 온라인 캠페인 활동 - 다음 아고라 입법청원: 3/8에서 4/20까지 1만인 서명(최종 432명 참여) - 차별금지법을 쉽게 알릴 수 있는 블로그, 트위터 용 동영상 제작, 배포(3/10)</p> <p>(6)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인사 릴레이 인터뷰 - 배우 김여진(3/8)-&gt; 배우 권해효(3/14)-&gt;밴드 브로콜리 너마저(3/24)-&gt; 조국 서울대 교수(5/15)</p> <p>(7) 천차만별 운동회 - 목적: 연대단위 내부 동력 강화와 친목 - 6/5(일) 오후2시~6시, 한강망원지구 배구장</p> <p>(8) 퀴어문화축제 민우회 캠페인 ① 일시와 장소: 5월 28일(토) 오전 12시~ 5시, 서울특별시 중구 삼각동 &lt;을지 한빛미디어파크&gt; ② 프로그램: - 이상형 월드컵! 나의 이상형은 누구? : 16강 레즈비언 ver이상형 월드컵 - 내 가족은 누구? '여자라서 햄북는 즐거운 우리집! : 정상가족을 넘어 가족구성해보기 - 이걸 마시면? 멍뚱! 칵테일로 마음을 전해요.: 칵테일 판매 1) '똑.똑.똑! 내 마음이 들리니?' (깔루아밀크) 2) '오늘 집에 가지마~'(블랙러시안) 3) '나는 바람피도, 너는 피자마'(스크류드라이버)</p> <p><b>5. 연대조직 활동</b> (1) 외부 간담회 진행을 위한 내부 워크샵 - 2/ 15(화, 민우회 교육장)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내부 워크샵 진행, 차별금지법 내용과 제정 필요성 피피티 제작 공유 (2) 간담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2/6) - 전주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인시설인권연대 등(3/22)</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산 이주인권단체들 (3/24)</li> <li>- 학벌없는사회, 향린교회(4/1)</li> <li>- 민노총 여성위(4/5)</li> <li>- 인권단체연석회의(4/27)</li> <li>- 장애인 차별철폐연대(4/18)</li> <li>-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와 간담회 진행(6/3).</li> </ul> <p>(3) 대학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단위: 이화여대 함께 만드는 변화, 고려대 사람과 사람, 이화여대 변태소녀하늘을날다, 고려대 석순, 성균관대 총여 비대위, 서울대 Qis, 카톨릭대 총학생회, 언니네트워크, 개인(아로)(참관: 외대 흡스이반)</li> <li>- 대학생이 말하는 차별 강연 진행: 5/12~ 24</li> </ul> <p>6. 기타 대응활동</p> <p>(1) 균형법 92조 계간 관련 현재 합헌 결정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기자회견 및 대응 긴급회의 (3/31)</li> <li>- 성명 '동성에 혐오와 차별을 드러낸 균형법 제92조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정신 실현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발표(4/1)</li> </ul> <p>(2) 7대 종단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에 대한 우려 성명: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바로 증오(12/29)</li> <li>- 각 종단에 질의서 발송: 원불교, 유교, 조계종, 천도교, 천주교주교회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기총에 질의서 발송함(1/5)</li> </ul> <p>(3) 노르웨이 백색테러에 대한 성명발표(7/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르웨이 백색테러사건에 드러난 극우보수민족주의자의 혐오범죄 비판, 차별금지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필요성 논평.</li> </ul> <p>(4)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1인 시위 참여(11/7): 밍, 모후아, 신기루</li> </ul>
--	--

### 3. 반차별 연속 포럼 <주체논쟁>

집행	<p>1. 첫 번째, '여성회의, AFTER를 신청합니다'</p> <p>① 배경</p> <p>여성운동은 소통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논쟁의 역사 속에서 성찰과 성장의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보수세력의 결집과 정권의 교체 등 여성운동의 존립 자체를 위해 혹은 논쟁의 의제화 부재로 여성운동이 보다 풍부해지기 위한 논쟁은 수면 아래에 있거나 가시화 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의제의 정치화, 활동가의</p>
----	--

	<p>재생산 등 여성운동의 주요 과제를 논쟁하면서 누가 여성운동의 주체이며, 무엇이 여성이슈인가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궁극적으로는 여성운동을 역동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p> <p>②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주의자(활동가, 연구자, 예술가 어느 위치이든)의 참여로 차별, 평등의제 속에서 여성운동의 담론을 생성하고 여성운동의 입장, 방향성을 모색한다.</li> <li>-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이슈(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여성주의자, 연구자, 운동 단위 등의 네트워크를 통한 포럼을 개최, 대응담론 또는 대안적인 입장과 내용을 생산한다.</li> </ul> <p>③ 첫 번째 &lt;주체논쟁&gt; ‘여성회의, 에프터를 신청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여성회의, 에프터를 신청합니다’</li> <li>• 시간과 장소 6/23 (목) 오후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경향신문 13층)</li> <li>•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최: 언니네트워크,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한국여성민우회</li> <li>- 주관: 한국여성민우회</li> <li>- 사회: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li> <li>- 여성회의 에프터 영상 상영(제작 케이)</li> <li>- 발제1. 케이(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디디다)</li> <li>- 발제2. 고미경(한국여성의 전화)</li> <li>- 발제3. 몽(언니네트워크)</li> <li>- 발제4. 신기루(한국여성민우회)</li> <li>- 발제5. 시타(여성학 강사)</li> <li>- 전체 토론</li> </ul> </li> </ul> <p>(발제 각 10분, 전체토론 1시간)</p> <p>&lt;공통질문&gt;</p> <p>: 발제자들은 공통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삶과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을 담아 자유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발제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회의 에프터 제안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고 왜 수락했는가?</li> <li>(2) 자신이 처해있는 여성운동에 던지고 싶은 질문(문제의식)은 무엇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의사소통의 부재, 관성적 운동방식, 방향설정 안 됨. 여성운동의 단일함 또는 소극성</li> </ul> </li> <li>(3) 자신이 재생산하고자하는 그 ‘여성운동’은 무엇인가?</li> <li>(4) 각자의 위치에서 (여성의 전화, 언니네, 민우회, 성대총여, 연구자)가 생각하는 여성운동의 ‘재생산’은 무엇인가?</li> </ol>
--	---

	<p>(5)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과 서로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p> <p>④ 사전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6/15(수) 한국여성민우회</li> <li>- 참가단위: 언니네트워크, 시타, 민우회</li> <li>- 논의 내용: 4월 여성회의 평가와 과제, 발제에 대한 고민 나누기, 공통질문에 대한 검토와 토론회 구성 검토</li> </ul> <p>⑤ 홍보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여성회의 참가자 185명 메일 홍보, 여성단체 40개 메일 발송, 언론보도 (6/13)</li> </ul> <p>⑥ 결과: 참가자는 40명. 여성운동 주체의 재생산을 주제로 활동가, 연구자, 대학활동가들이 모여 시의성 있는 논의를 함.</p> <p>2. 반차별 포럼〈주체논쟁〉 두 번째, ‘공정한 병역이행, 남자가 말한다.’</p> <p>①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대문제에 대한 여성 대 남성 구도 분쇄 및 새로운 군대이야기 발굴</li> <li>- 여성주의자들의 군대관련 쟁점 확인 후 대안적 입장 마련</li> </ul> <p>② 일시 및 장소 : 8/30(화) 오후7시, 여성미래센터 1층 소통방</p> <p>③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공정한 병역이행, 과제와 대책</li> <li>- 사회: 박봉정숙(민우회 공동대표)</li> <li>- 패널1. 제대군인 남성(민우회_오영식)</li> <li>- 패널2. 양심적 병역거부자(인권운동가_공현)</li> <li>- 패널3.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인권운동가_훈창)</li> <li>- 패널4. 변호사(여연 군가산제 담당 변호사_이한본)</li> <li>- 패널5. 진보신당(정책담당_김수현)</li> </ul> <p>〈공통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한 병역의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li> <li>- 군대가 소환하는 ‘남성’은 누구이며, 본인이 생각하는 군대문제는 무엇인가?</li> <li>- 남성이 말하는 군대문제의 본질과 해결방법은 무엇인가?</li> <li>- 병역문제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나?</li> </ul> <p>④ 홍보조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보도(8/16)</li> <li>- 홍보: 8월 1일 / 기획기사 제안서 발송: 일다, 프레시안, 시사인, 한겨레 21(8/19), 진행 후에도 결과로 언론보도 예정.</li> </ul>
--	--



⑥ 결과: 참가자 20명, 남성들이 군대 문제의 주체로서 발화하는 장을 마련했음.

#### 4.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조사관 해고 대응활동

집행	<p>(1) 사건경위: 인권위원회의 비민주성 강화 흐름 속에 인권위 차별조사과 강인영 조사관의 성차별 해고(1/28).</p> <p>(2) 대응</p> <p>①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조사관 해고 사건 대응 성명발표(2/9)</p> <p>② 강인영 조사관 면담(2/16)</p> <p>③ 국가인권위 성차별 조사관 해고 규탄 기자회견(2/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최 : 기독교여민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사회교육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li> <li>- 주관: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li> <li>- 사회: 강선미(한국여성민우회)</li> <li>-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조사관 해고 경과보고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발언1.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li> <li>발언2. 한국여성민우회 박봉정숙 공동대표</li> <li>발언3.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공동행동 집행위원 명숙</li> <li>-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성폭력상담소)</li> </ul>
----	--

#### 5. 반지하 사는 여성들의 모임을 통한 1인 가구 문제의 가시화

집행	<p>1. 주거권 모임'반만올라가면 일층'의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모임(5/9) 후 격주 목요일 정기 모임 진행</li> <li>- 오프라인 구성원: 신기루, 캔디, 룬, 블랙뽀, 바다 5명</li> <li>- 온라인 공간: <a href="http://cafe.daum.net/weliveinB">http://cafe.daum.net/weliveinB</a></li> </ul> <p>2. 교육활동</p> <p>① 임대차 보호법 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5(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li> <li>- 장소: 나루 교육장 임대차보호법 특강(강사: 조혜인 공감 변호사)</li> <li>- 강의: 혼자 사는 여성들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집과 관련된 분쟁사안에 대한 권리구제와 법적 권한 설명을 듣기. 집주인의 보상범위, 확정일자 받기 등 기본적인 법 권리</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비: 5천원</li> <li>- 대상: 민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듣고 싶은 사람 누구나. 20명 정도(비혼 1인 가 구)</li> </ul> <p>② 경제특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10/25(화) 7시 30분</li> <li>- 장소: 민우회 교육장</li> <li>- 강사: 박미정( "내가 만들어가는 참 삶 참 경제 이야기" 저자. 경제교육강사, 여성미래 재무상담센터 상담팀장)</li> <li>- 내용: 저임금으로 사는 사람들, 카드빚 고민자, 보증금 불리기, 공과금 체납자, 쓸데없는 보험가입자 등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돈 관리 특강</li> <li>- 참가비: 5천원</li> </ul> <p>3. '반지하에 산다' 스티커 제작액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지하의 삶의 실재를 알리는 스티커 제작 배포(11/29)</li> <li>- 해피빈 모금활동(10/25~12/25 11/23 현재 총 310,700원 모금)</li> </ul> <p>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문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li> <li>- 늘 시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들여다 보지 마세요.</li> <li>- 돌, 쓰레기, 담배꽂초 등을 집 앞에 버리지 마세요.</li> <li>- 골목에 오줌을 싸지 마세요. 냄새가 바로 들어와요.</li> <li>- 창문 앞에 너무 가까이 주차하지 마세요.</li> </ul> <p>집주인에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구 관리를 정기적으로 합시다.</li> <li>- 방범창, 가림막 등 반지하 집을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세요.</li> <li>- 방음, 방열, 방수 처리가 꼭 필요합니다.</li> <li>- 집을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li> </ul> <p>4. 서울시, 마포구청 대응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청구: 반지하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10월) 답변하지 않음.</li> <li>- 풍수피해: 완벽해 보이는 서울시, 각 구청의 방재대책을 모아 '서울시 침수대책, 촘촘한가요?' 성명발표(6/29).</li> </ul>
--	---

## I.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식당여성노동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적절한 호칭의 발굴과정과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의제를 채택한 범사회적인 캠페인을 통해 식당노동에 대한 재평가의 단초를 마련한다. 동시에 인권적 식당노동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각 주체들의 실천적 방안을 끌어냄으로써 식당여성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지난 5년간의 고용평등 상담사례 분석과 현실의 변화를 모아 여성노동운동 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의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는 작년에 이은 연속사업으로 노동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식당노동자의 노동인권 현주소를 파악하여,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의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기획과 내용은 식당노동자에게 자문을 받는 등 식당노동자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하고자 했다. 설문지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놓을 수 있는 매개이기도 하면서 만남을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 발설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기도 했다. 단순한 설문 부수의 확보뿐 아니라 설문을 통해서 식당노동자와 만나고 이야기 나눔으로써 조사원과 답변자의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 식당노동 설문조사사업은 본부의 설문조사뿐 아니라 지부와 시민들의 많은 참여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식당노동자와 직접 설문조사를 한 회원, 여휴인(식당여성노동자의 휴식을 꿈꾸는 사람들)실천단, 지부,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식당노동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가지고 고객으로서, 또 다른 노동자로서 실천하고 연대할 지점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실천단으로 조직하였던 여휴인기획단은 식당노동의 중요성과 노동환경 개선사안에 공감하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생각하고 꾸려졌으나 설문조사 한 양 자체가 많지 않았고, 설문조사 이후 해산되어 적극적인 활동회원 조직화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부수 확보나 설문지의 질에 초점을 두기보다 캠페인 단계에서 의제를 바탕으로 한 실천단을

기획하는 것이 기획단으로서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유의미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관련 사업을 지속할 때 차림사 호칭 홍보 등 기획실천단을 구상하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당여성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 결과 식당여성노동자의 현주소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의제는 12시간에 이르는 긴 노동시간과 시간당 최저임금을 밑도는 저임금으로 모아졌다. 이에 ‘아줌마가 아니라 노동자다’라는 부제속에 ‘**심심**(심하게 긴 노동시간, 심하게 낮은 임금)**타파**’ 캠페인 슬로건을 만들어내어 식당노동의 현실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식당노동환경에 대해 알려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맞물린 고객실천을 만들어냄으로써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천할 지점들을 만들어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부, 본부 공동사업으로 전국적인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포스터배포, 실태조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던 ‘식당여성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은 다소 포괄적인 의제로 비춰져 각 주체들에게 실질적인 운동의 의제로 이해되기 보다 시민(고객)들의 의식개선에 머무른 측면이 있다. 또한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에 식당노동자와 고객(소비자), 사업주 등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각 주체들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만들어내고,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요구 등이 전면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식당노동자 호칭공모사업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되어 전국에서 250여개의 호칭이 공모되었다. 공모과정 자체가 회원과 비활동회원, 일반 시민이 식당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고 민우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전에 호칭심사기준(직업명을 포괄할 수 있는 호칭 등)을 발표하여 목적에 걸맞은 호칭이 공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호칭공모결과 식당노동자의 새 호칭 ‘차림사’가 발굴되었고, 이를 통해 식당노동에 한 존중과 식당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내었다. 호칭결과 발표 문화제에서는 연극, 랩, 노래, 시 등 식당노동과 관련된 양질의 문화적 콘텐츠를 생산되었고, 이는 향후 ‘차림사’라는 호칭을 지속적으로 알려내는 소중한 콘텐츠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 호칭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실제적인 과정과 제도적으로 식당노동자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모색하고 실천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지부분부 공동사업으로서 올 한해도 전반의 모든 기획과 집행을 본부와 지부가 함께 진행함으로써 내용은 보다 풍성해지고, 집행은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될 수 있었다. 특히 공동사

업 2년차에 접어들면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식당노동자의 노동을 지역의제로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의미있다. 이러한 노력이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부본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지부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사업담당활동가의 업무부담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공동사업은 지부 편차를 고려해 공동 목표 속에서 지부가 사안별 선택적으로 앞으로 참여하고 지부의 새로운 내용이 가감되면 좋겠다는 공동사업의 전제와 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노동사안에서 지역에 맞는 것들을 더 고민하고 다양해지는 지점에서 공동사업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함께 했으면 한다.

2) 고용평등 상담사례분석을 통해 여성현실의 변화를 잡아내고, 여성노동운동의 활동방향과 구체적인 실천적 의제를 이끌어 내고자 지난 5년간의 상담사례 분석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금차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모성권,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차별 등 구체적인 여성노동현실이 상담통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과정은 민우회 고용평등 상담활동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확장시키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례분석과정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악화가 곧 문제해결의 주체적 동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노동자가 일터에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고민하고, 여성노동자가 스스로 관계를 조직하여 주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상담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변화흐름을 읽어내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성노동운동그룹과 간담회 등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의 과제와 고민을 심화시키는 기획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우회 상담사례에 국한한 것은 한계로 남는다. 이에 연구과정에서 주어진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고민을 민우회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여성노동운동 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담사례분석을 통해 상담활동에 대한 자원의 한계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점검 과정을 기반으로 여성노동운동의 의제와 과제를 발굴하는 연결성을 가지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그동안 고착화되었던 상담통계들의 재구성, 상담내용에 대한 변화 모색 및 상담역량강화, 상담현장을 기반으로 한 여성노동의제의 개발 등이 이후의 지속적인 과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평가과정 전반에서 상담역량강화를 위한 조직적 상황진단과 재점검 그리고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여성노동사안에 관한 다양한 해석과 의제화를 위한 고민을 숙성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는 활동기조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상담사례 워크숍을 진행하고 사안에 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공동의 논의테이블이 상시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내실 있는 상담원 교육 등을 통해 상담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을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여성노동팀 모든 구성원들이 여성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상담구조를 형성하여 상담에 대한 감각을 모든 구성원이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 올해 고용평등상담활동 중 기획상담과 상담대응은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기획상담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오니 연차휴가가 2개라고요?’는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비율적으로 적용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은 휴기일수에 불과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실에 착안한 기획이었다. 그러나 관련한 상담사례를 추적하고 여론화하여 지지집단을 형성한 후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대중을 설득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킬만한 논리와 언어를 발굴함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담대응활동이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사건 역시 원청업체에 대한 성희롱 사건해결 책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압박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여 사건해결지원에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기획상담을 적극적으로 발굴, 진행하여 여성노동의 변화흐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우회 고용평등상담활동속에 주되게 자리잡고 있는 차별프레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상담자원의 발굴을 위해 새롭게 기획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온라인상담이 감소하고 있는데 SNS 등 내담자와 충분히, 즉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기획하여 다양한 상담경로를 통해 여성주의 상담에 기반한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만의 상담특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주 들어오는 상담’을 온라인 상담실에 게시 및 재정비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대응방안에 대한 팁을 얻고 또 다른 방안을 상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0년은 여성노동과 고용평등상담활동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여성노동 이슈를 바탕으로 한 상담활동의 연계와 적극적인 계획 제출의 어려움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한계지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은 상담을 통한 현장성과 여성노동사안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과 고용평등상담활동을 통합 운영하였으나, 목적인 바에 걸 맞는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에 여성노동사안과 고용평등상담의 연계를 높일 수 있는 기획과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상담활동은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수동적 공간이 아니라 기획을 통해 여성노동경향을 적극적으로 읽어내고 여성노동운동 의제를 발굴하는 장으로서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상담대중교육 ‘여성노동교육, 시원하게 다이빙하라!’는 새로운 기획을 통해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노동시장의 흐름을 함께 읽고 새로운 대응력을 상상하고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상담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직접 획득해나간다는데 있어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여성노동과 관련된 연대활동은 ‘생생여성노동행동’과 전국 15개 고용평등상담실로 구성된 ‘고용평등상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돌봄 및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적 돌봄, 남성육아휴가 등을 이슈화를 시키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일상적 연대구조를 뚫으로써 유기적이고 기민한 사안별 연대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살려내지 못했고, 여성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색을 위해 기획되었던 대안노동포럼이 목표에 걸맞게 기획·집행되지 않았다. 향후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여성노동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내어 새로운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제를 중심으로 사안별 연대의 강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발족한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는 고용평등상담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성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겪는 현실의 문제를 공동으로 파악하고 발언하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 상담실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동사업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 집중상담, 정부는 낳으라고 난리! 회사는 낳는다고 난리?’진행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해 여성노동자가 겪는 고충을 대사회적으로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공유 등을 통해 상담실 간의 결속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전국 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로 TF팀을 중심으로 진행됨으로서 역량강화에 관한 균등적인 노력을 꾀하지는 못하였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지부분부공동사업]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2

<p>계획</p>	<p>-식당여성노동자 설문 실태조사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캠페인 기획 및 실천 -식당노동자 호칭 공모과 호칭 찾기</p>
<p>집행</p>	<p>1. 설문 제작 준비와 제작 ① 1차(김원정 연구자, 여성노동팀); 3월 17일. 설문지의 방향설정논의. 식당여성노동자의 임금, 노동시간, 휴식, 호칭을 담은 문항설계 방법 논의 ② 2차(김효정 연구자, 여성노동팀); 3월 24일.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의 성격에 대한 논의와 이를 측정할 문항 논의. ③ 설문지 문항 총 25문항, 내용: 근무시간, 임금, 휴가, 4대 보험, 건강 상태, 성</p>

<p>희롱, 호칭, 요구사항. 주관식과 객관식 혼용, 양적, 질적 측정 혼용.</p> <p>2. 설문지 배포와 수거</p> <p>① 설문지 인쇄 완료(5월 12일), 지부 배포, 실천기획단(여휴인) 배포, 활동가, 회원, 소모임 배포, 시민 참여, 대학생 배포. 조사기간 6월~7월</p> <p>② 총 354부 수거, 이후 코딩과 설문분석</p> <p>3. 식당여성노동자 동영상 제작</p> <p>① EBS 지식채널 e 시청자 UCC 공모전 응모(활동가 김희영, 안미선, 시민 이관택 참여)-장려상 수상</p> <p>② 지부 배포, 설문지 조사원 교육, 이후 실태조사발표회와 호칭 문화제 등에서 상영, 홍보</p> <p><b>4. 여휴인</b></p> <p>실천단 모집과 교육; 참가자-정은선, 오영식, 류현영, 장경민, 희정, 유나</p> <p>① 1차 모임 2011.5.17.; 설문지 내용 설명과 설문시 숙지할 내용,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자기 소개 등</p> <p>② 2차 모임 2011.5.24.; 설문지 배포에 대한 경험 나누기, 자신이 만난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설명, 설문시 유의할 점에 대한 내용나누기</p> <p>③ 3차 모임 2011.5.31.;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에 대한 의견 나누기,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 역량 강화 등</p> <p><b>5. 감사명함과 브로우셔</b></p> <p>① 식당노동자의 노동개선을 위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사항 ‘문을 닫을 즈음엔 식당에 가지 않는다.’ ‘벨은 필요할 때만 누른다’ ‘식당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을 지나치지 않는다’을 담은 명함을 배포하고 이를 식사 때 지인과 나누는 매개로 만들</p> <p>-제작 후 캠페인, 지부, 회원 등 배포</p> <p>②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당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초점을 맞춘 브로우셔 제작. 노동시간, 낮은 임금, 성희롱, 건강의 사안을 다룸.</p> <p>-지부, 회원, 캠페인시 배포</p> <p><b>6. 포스터 2종 제작</b></p> <p>① 포스터 1 제작; ‘심하게 긴 노동시간, 심하게 낮은 임금’-심심타파!</p> <p>목적: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식당노동자의 요구인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 해결을</p>
--



구호로 삼았으며, '식당아줌마가 아니라 노동자다!'라는 부제를 통해 일반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노동자로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다. 식당노동에 대한 인식과 노동자로서의 자리매김을 알리는 포스터였다.

-1000부 제작

-각 지부, 시민사회, 노동단체 배포, 거리부착 등

② 포스터 2 제작: '이름을 찾습니다' 식당노동자 호칭 공모 포스터

목적: 식당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인식개선과 노동에 대한 존중을 담은 호칭을 공모하는 포스터. 시민의 손으로 짓는 호칭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1000부 제작

-각 지부,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 배포, 회원들에게도 나눠줌.

### 7. 지부 본부 공동사업 진행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민우회 본부와 지부(서울 동북, 서울 남서, 광주, 인천, 춘천, 원주, 진주)에서 공동으로 진행함

: 매월 본부 지부 기획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기획하며, 슬로건, 캠페인, 고객실천 사항들을 논의해 만들.

고양(이정아), 동북(이윤경), 광주(백희정), 군포(이현정), 원주(심재희) 진주(이광진), 춘천(최은영), 인천(문미경), 남서(조성화, 부윤숙)

① 기획회의 일정 및 내용

-1차 회의: 4/7

;본부의 한 해 사업 내용 공유와 지부의 '함께 짓는 밥' 사업 계획 나눔.

-2차 회의: 5/13.

설문지 내용 공유와 의견 토론, 지부의 관련 사업 진행 사항 논의.

-3차 회의: 6/10

설문지 배포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

-4차 회의: 7/19

설문지 수거 완료, 이를 바탕으로 한 캠페인 의제 설정과 캠페인 일정 논의.

-5차 회의: 8/18

호칭 포스터 내용과 캠페인 내용 논의.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정책활동 논의

-6차 회의: 9/6

캠페인 기획 내용 공유, 각 지부에서 식품정책 관련 사안 조사해와 공유

-7차 회의: 10/21

실태조사 발표와 캠페인 평가, 각 지부 캠페인 진행 평가와 사업 개괄 평가

② 각 지부별 진행내용

-고양: 고양 자체적으로 식당노동자, 사업주에 대한 설문 실태조사와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토론회’(10/20) 진행. 10월 8일, 오후 1시~5시, 화정역 광장 ‘심심타파’ 캠페인 진행

-광주: 거리 캠페인, 11월 20일, 10시~12시 30분, 무등산 산장, 소모임 시나페의 ‘식당블루스’ 공연(광주, 서울)

-서울남서: 9월 24일, 10시~2시, 양천문화회관광장. 10월 29일, 10시~4시, 양천구청 광장

-서울동북: 10월 4일, 오전 11시~오후 1시, 노원역 롯데백화점 앞

-인천: 10월 8일, 11시~2시, 인천 대공원 궁도장 앞

-원주: 10월 12일, 오후 1시~3시, 중앙로

-춘천: 10월 20일, 춘천 명동, 12시~1시, 11월 5일 3시~5시

-군포: 11월 16일, 2시~5시, 중심상업지구 내

-진주: 11월 19일, 2시~4시, 신한동 주공1차 아파트 분수대, 알뜰시장, 식당영상 제작

### 8. ‘심심타파’ 거리캠페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 ① 실태조사발표회

9월 22일 10시 30분~11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

진행: 대표 인사, 동영상, 식당여성노동자실태조사 발표, 정책제언

-실태조사 결과 언론보도, 각 일간지, 방송에 보도

#### ② 캠페인

9월 22일 12~2시 시청역 정동길 (10월 8일 고양, 10월 15일 진주)

: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슬로건으로 해서 식당노동 실태를 이해하고 시민들 또한 노동자로서 자신의 노동환경과 식당노동환경을 성찰함으로써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 □ 참여 프로그램

- 퍼포먼스 “무거운 밥그릇” : 식당에서의 밥 한 그릇 속에 식당여성노동자의 어떤 노동환경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고 시각화한다. 사람들이 쉽게 대하는 밥이라는 소재를 통해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되짚어보자는 취지다.

- 퀴즈: 식당아줌마인가, 식당노동자인가? : ; 노동이나 노동자로 여겨지지 않는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문제를 퀴즈 문제로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식당노동이나 노동권에 대해 자신의 의식을 점검하고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 상상공감전. 식당여성노동자의 바람들 : 식당여성노동자의 바람을 적은 글들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며 참가자들의 바람도 함께 쓸 수 있는 쪽지를 마련한다.

- 시민들의 밥풀 실천 선언 ; 시민들이 고객들이로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적 노동환

	<p>경만들기의 내용을 공유하고 참가 의지를 밝히는 자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판. 노동의 비교 ; 노동자로서의 시민의 자신의 일의 성격(노동시간, 휴일, 임금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이를 식당여성노동자의 실태와 비교함으로써 노동이라는 점에서 이해를 같이하고 공감한다.</li> <li>- 비석치기 ; 식당노동의 열악한 조건을 써붙인 비석을 침으로써 참여형 놀이를 통해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동참 의지를 확인한다</li> </ul> <p>③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엑스배너: 실태조사 발표, 식당노동자 근무시간, 건강권, 저임금, 성희롱 실태 등에 대한 통계 발표와 고객실천</li> </ul> <p>④ 언론보도</p> <p>“식당이즘마의 싸움 5년” &lt;한겨레&gt;(8.19)</p> <p>"식당여성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 받아"&lt;연합뉴스&gt;(9.22)</p> <p>"식당 여성노동자는 '극한 직업' ' &lt;한겨레&gt;(9.22)</p> <p>"식당여성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받아" &lt;동아닷컴&gt;&lt;SBS 뉴스&gt; &lt;KBS 뉴스&gt;(9.22)</p> <p>등</p> <p>"식당에서 유난히 벨 많이 누르는 사람들 보면..." &lt;프레시안&gt;(9.22)</p> <p>"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인권을 고발한다." &lt;여성신문&gt;(9.23)</p> <p>"하루 12시간 노동에 최저임금도 못 받아"&lt;매일노동뉴스&gt;(9.23)</p> <p>"허리 끊어져도 참는다"...식당여성노동자들의 애환 &lt;메디컬투데이&gt;(10.17)</p> <p><b>9. 식당노동자 호칭공모와 문화제; ‘새로운 이름, 새로운 존중, 세상에 퍼지다’</b></p> <p>취지: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을 드러내고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단초로서 호칭을 공모한다.</p> <p>① 시상발표와 문화제 일정 및 장소: 2011.11.16. 시민공간나루</p> <p>② 참여인원: 1, 2부 총 50여 명</p> <p>③ 프로그램</p> <p>○ 1부: 식당노동자 호칭공모 시상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모된 250여 개의 호칭 중 금상 1(차림사), 가작 5(조양사, 두레손, 맞지기, 맞은사, 지미사) 발표</li> <li>- 사회: 오영식(수풀), 정은선(물결)</li> <li>- 심사위원: 김미화(방송인)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신지영(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정아(고양파주여성민우회 사무국장) 임지선(한겨레신문 기자) 최은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li> <li>- 2부 문화제</li> <li>-광주여성민우회 연극모임 &lt;시나페&gt; 공연</li> </ul> <p>“식당 블루스” : 우리는 꿈에서라도 모두 다 자유롭게 평등한 노동을 꿈꾼다!</p>
--	--

	<p>(연출과 출연자들: 나창진(망구), 김정식, 이유미, 줄비, 달자, 하루, 청아)  -창작시 시인 김사이 &lt;온몸으로 우는 북&gt;, 박상경 &lt;차림사를 위하여&gt;(이혜숙(동북여성민우회)낭독)  -나온 노래 &lt;심심타파&gt;  -어쿠스틱 힙합 '술담' ; 차림사에 대한 노래 공연</p> <p>④ 기타</p> <p>식당노동자 새 이름 '차림사' &lt;MBC 9시 뉴스 방영&gt;(11.16)  이슈투데이 보도(11.17)  '식당노동자의 새 이름 선정' &lt;TBS 방영&gt; (11.23)  KBS 목포 라디오 &lt;출발, 서해안 시대&gt; (12.6)  '식당 노동자는 당신의 '엄마'가 아닙니다' &lt;오마이뉴스&gt;(11.13)  '아줌마' '이봐' 대신 이젠 '차림사'라고 불러주세요" &lt;오마이뉴스&gt;(11.23)</p> <p><b>블로그 외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년 겨울, 여행길에 마주친 식당여성노동자2011/03/03 저는 일식집에서 일해요   2011/03/07 서울의 영웅, 식당 아줌머니?   2011/03/28</li> <li>•나의 식당 알바기   2011/04/15 아줌마라고 마구 불리는 '식당여성노동자'   2011/04/18</li> <li>•여휴인 실천단이 떴다!   2011/05/20</li> <li>•강릉의 여휴인을 만나다   2011/06/03</li> <li>•여휴인을 함께 하면서   2011/06/13</li> <li>•식당여성노동자를 만난 여휴인들의 이야기   2011/06/24 )</li> <li>•평화가 만난 식당여성노동자의 이야기   2011/07/29)</li> </ul>
--	---

## 2.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일상적 연대활동 : 생생여성노동행동

계획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개선을 위한 일상적 연대활동
생생여성 노동행동	<p>* 생생여성행동은 2011년 여성노동사안을 중심으로 민우회, 여연, 한국여노, 민주노총, 전국여성연대, 한국노총, 민변, 전여노조, 다함께, 서울여노로 참가단위를 재정비함.</p> <p><b>1. 돌봄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 및 2011 여성노동선언 기자회견</b></p> <p>1) 돌봄 노동자 권리 찾기 캠페인(3/2 오전11시, 광화문 원표공원)</p> <p style="padding-left: 20px;">- 시민참여캠페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나 그림자 노동, 돌봄'  : 가사, 간병, 청소, 식당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프로그램 및 돌봄노동무료 법률상담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퍼포먼스 및 발언, 여성노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선언문 낭독</li> <li>2)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토론회]‘일하는 여성, 복지국가를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9일(수) 오후2시, 한국노총 9층 회의실</li> <li>- 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여성노동 관점에서 본 복지국가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li> <li>② 복지국가, 비정규직 여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가? :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li> </ul> </li> <li>- 토론 : 김애화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좌혜경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순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 종합토론</li> </ul> </li> <li>3.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 여성계 캠페인 ‘위대한 탄생’(6/1 여의도 국민은행 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 최저임금댄스 배우기, 현장발언, 퍼포먼스 ‘최저임금, 두더지 잡기’, 최저임금 출생신고서(결의문) 낭독</li> </ul> </li> <li>4. 7. 25 [성명]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 확산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li> <li>5. 대안여성노동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9/8 비정규직 : 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② 9월 22일 성차별적인 직장문화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③ 10월 13일 임금 : 김혜진(세종대) ④ 10월 27일 감정노동과 노동안전 : 정진주(이대 한국여성연구원, 사회건강연구소) ⑤ 11월 10일 근로시간 :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⑥ 11월 24일 돌봄과 비공식노동 :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⑦ 12월 1일 운동주체 그리고 연대 : 단체</li> </ul> </li> <li>6.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월 18일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신설</li> </ul> </li> <li>- 11/4 18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여성노동 4대 현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아버지 영아 육아 휴가제 신설 ② 사회보험료 국가 지원(4대보험료의 50% 등) ③ 가사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④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방이양 관련법안 폐기</li> </ul> </li> <li>- 11/14 기자회견 “18대 국회는 여성노동 4대 현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li> </ul> </li> </ul>
<p>요양보호법 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요양보호법 개정 준비회의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노총 대회의실</li> </ul> </li> <li>2. 요양보호법 3년 평가와 대안 국회토론회 참가(11.22)</li> </ul>

### 3. 노동과 성을 통해 본 여성현실의 변화-최근 5년간 고용차별, 성폭력상 담사례분석을 바탕으로

계획	<p>1. 최근 5년간 고용차별, 성폭력 상담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의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반성폭력 운동의 새로운 담론을 이슈화하고, 여성노동운동의 활동방향을 모색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의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p> <p>2. 진행과정</p> <p>1) 전문가 워크숍 및 대응방안을 위한 간담회 등 : 비정규직 확대 등 여성노동을 둘러싼 변화를 읽어내고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여성노동운동 활동방향 모색을 위한 다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p> <p>2) 지난 5년에 대한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 분석 : 지난 5년간의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가 현장에서 여성노동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여 상담활동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그리고 여성노동운동의 활동방향을 모색한다.</p> <p>3. ‘노동과 성을 통해 본 여성현실의 변화’ 토론회 개최(10월) : 상담사례 분석 및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그간 주목해 온 여성현실의 변화를 읽어내어 여성운동의 활동방향과 대안을 도출한다.</p>
집행	<p>1. 목적 : 최근의 고용평등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상담 분석의 새로운 시각을 구성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자 삶의 변화 지점을 파악하여 여성노동자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의제를 도출하고자 함. 또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대응해왔던 그간의 방식을 평가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재적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굴하고자 함.</p> <p>2. [작은포럼]여성노동운동방향모색 제1차 작은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14일(목) 오후2시, 나루 지하1층 교육장</li> <li>· 발제</li> <li>-여성노동시장의 흐름과 여성노동운동의 과제 : 장지연</li> <li>-여성화된 사업장의 노동과정과 성희롱 : 권수현</li> <li>-‘여성노동상담을 통해 본 여성현실의 변화’ 사업 배경 : 최진협</li> </ul> <p>[참고자료1]2000년대 민우회 주요활동</p> <p>[참고자료2] 2007_20주년기념 여성노동운동 방향성모색을 위한 연속 심포지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토론 :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권수현(정책위원), 박기남(정책위원), 박선영(정책위원), 민우회(김인숙, 박봉정숙, 안미선, 이소희, 최진협)</li> </ul>

**2. [작은포럼]여성노동운동방향모색 제2차 작은포럼**

- 10월 24일(월) 오후2시, 나루 지하1층 교육장
- 발제
  - ‘워크하드’에서 ‘워크 스마트’로?! 정보화와 창의적 지식노동 : 김원정(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 이미지의 세계로 들어온 노동, 미적노동 : 심선희(서울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 참석토론 : 송은정(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이미숙(민주노총 엘카코리아 위원장), 민우회(김인숙, 박봉정숙, 안미선, 이소희, 최진협)

**4. [연구] 최근 5년간 고용평등상담사례를 통해 본 여성현실의 변화**

**1) 기획회의**

- 내부기획회의 (박봉정숙, 이소희, 최진협)  
: 6/14, 6/21, 6/23, 7/06, 7/14, 10/12
- 연구자와의 기획회의 (권수현, 박봉정숙, 이소희, 최진협)  
: 6/14, 7/14 연구기획안 논의 및 검토
- 8/25 성폭력상담소와의 연계 기획회의

**2) [토론회]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고용평등상담을 중심으로-**

- 일시 : 2011년 11월 1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사회 :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
  - ① 대한민국 여성노동 현주소-고용의 양과 질, 대표성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소 연구원)  
: 여성의 저고용, 경력단절의 문제, 남성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성별임금격차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하층부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의 현실속에서 여성의 비정규직근로와 저임금근로의 확대는 어떤 정책으로 문제제기 될 수 있는지 살펴봄.
  - ②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노동의 변화와 과제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장)  
: 지난 5년간 고용평등상담실 1959건의 상담통계와 사례를 기반으로 여성노동의 현실을 읽어내고, 여성노동의제 발굴에 있어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논의의 출발지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민우회 상담활동 자원의 한계와 과제는 무엇이 될 수있는지 살펴봄.

	<p>③ 고용평등상담을 통해 본 여성 현실- 문화 정치적 분석을 중심으로 : 권수현 (연세대학교 문화협동과정 박사 수료)</p> <p>: 여성노동현실을 문화 정치적으로 분석하여 '노동권에 국한되지 않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한국여성민우회 상담 및 대응활동을 검토하여 '반-차별' 프레임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짚어보고 여성운동의 새로운 인지 프레임 기획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함.</p> <p>· 토론 : 김원정 (서울대학교 여성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박홍주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위원),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장),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노우정 (민주노총 부위원장)</p>
--	--

#### 4. 상담활동 및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 1) 상담 및 상담 대응활동

사업	사업내용	시기																																							
상담 및 상담 대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화, 온라인(상담사이트, 이메일), 방문상담</li> <li>상담지원 및 대응활동</li> <li>기획 상담(연 2회): 핵심적으로 주목하고 발언해야 할 여성노동현실을 파악하여 상반기 기획상담 진행</li> <li>상담활동, 대응활동의 다양한 방식의 외화</li> </ul> <p>: 상담사례 기획뉴스화, 칼럼,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의 외화 작업 진행</p>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건 300건</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상담 방법</th> <th>총 계</th> <th>전화상담</th> <th>인터넷-메일</th> <th>방문상담</th> </tr> <tr> <td>상담 건수</td> <td>300</td> <td>228</td> <td>65</td> <td>7</td> </tr> </table>	상담 방법	총 계	전화상담	인터넷-메일	방문상담	상담 건수	300	228	65	7																														
	상담 방법	총 계	전화상담	인터넷-메일	방문상담																																				
	상담 건수	300	228	65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내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상담유형</th> <th>건수</th> <th>비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고용평등법 관련 상담 (% 건)</td> <td>직장내성희롱</td> <td>100</td> <td>33.3%</td> </tr> <tr> <td>폭언·폭행</td> <td>21</td> <td>7%</td> </tr> <tr> <td>임신·출산관련(임신·출산퇴직,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신중 보호 등)</td> <td>52</td> <td>17.3%</td> </tr> <tr> <td>양립지원 조치(육아휴직 등)</td> <td>36</td> <td>12%</td> </tr> <tr> <td>성차별적인 해고 (결혼·사내부부해고 등)</td> <td>2</td> <td>0.7%</td> </tr> <tr> <td>고용상의 성차별 (모집채용, 임금차별, 교육·배치·승진차별 등)</td> <td>11</td> <td>3.7%</td> </tr> <tr> <td>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 건)</td> <td>부당해고</td> <td>16</td> <td>5.3%</td> </tr> <tr> <td>비정규직 차별(계약해지, 근로조건 등)</td> <td>6</td> <td>2%</td> </tr> <tr> <td>체불임금</td> <td>16</td> <td>5.3%</td> </tr> <tr> <td>근로조건(근로시간, 법정휴가 등)</td> <td>13</td> <td>4.3%</td> </tr> <tr> <td>기타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 등)</td> <td>24</td> <td>8%</td> </tr> </tbody> </table>	상담유형		건수	비율	고용평등법 관련 상담 (% 건)	직장내성희롱	100	33.3%	폭언·폭행	21	7%	임신·출산관련(임신·출산퇴직,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신중 보호 등)	52	17.3%	양립지원 조치(육아휴직 등)	36	12%	성차별적인 해고 (결혼·사내부부해고 등)	2	0.7%	고용상의 성차별 (모집채용, 임금차별, 교육·배치·승진차별 등)	11	3.7%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 건)	부당해고	16	5.3%	비정규직 차별(계약해지, 근로조건 등)	6	2%	체불임금	16	5.3%	근로조건(근로시간, 법정휴가 등)	13	4.3%	기타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 등)	24	8%	
	상담유형		건수	비율																																					
	고용평등법 관련 상담 (% 건)	직장내성희롱	100	33.3%																																					
		폭언·폭행	21	7%																																					
		임신·출산관련(임신·출산퇴직, 산전후휴가, 생리휴가, 임신중 보호 등)	52	17.3%																																					
		양립지원 조치(육아휴직 등)	36	12%																																					
		성차별적인 해고 (결혼·사내부부해고 등)	2	0.7%																																					
고용상의 성차별 (모집채용, 임금차별, 교육·배치·승진차별 등)		11	3.7%																																						
근로기준법 관련 상담 (% 건)		부당해고	16	5.3%																																					
비정규직 차별(계약해지, 근로조건 등)	6	2%																																							
체불임금	16	5.3%																																							
근로조건(근로시간, 법정휴가 등)	13	4.3%																																							
기타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 등)	24	8%																																							



총계	전체	300건(100%)
<p>•상담지원 및 대응활동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여성노동자 성희롱, 부당해고 대응활동</p> <p>1)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원직복직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6/21(화)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p> <p>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경농성 지원 대책위원회 2차 회의 - 일시 및 장소 : 6/21(화),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논의내용 : 상경농성 지원 방안의 건 - 상경노동성 프로그램 검토, 촛불문화제 및 일인시위 담당단위 논의, 농성 현황 선전 방안 논의 트위터 및 블로그 계정 생성, 민우회 6/28 일인시위</p> <p>3) 전국동시다발 현대자동차 영업소 1인 시위 - 일시 및 장소 : 7/12(화) 낮 12시, 현대차 서교영업소</p> <p>4) 서울 상경농성 50일 응원문화제 - 일시 및 장소 : 7/21(목) 오후 7시, 여성가족부 앞</p> <p>5)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해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 산재 인정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7/22(금) 오전 10시, 근로복지공단 앞</p> <p>6) 양재동 현대차 본사 1인 시위 - 일시 및 장소 : 7/29(금) 낮 12시, 양재동 현대차 본사</p> <p>7) 8월의 메리'복직'크리스마스 - 일시 및 장소 : 8/18(목) 오후 7시, 여성가족부 앞</p> <p>8) 민우회 주관 9월, 시와 액션의 밤 - 일시 및 장소 : 9/1(목) 오후 7시, 여성가족부 앞 - 프로그램 평가 :</p> <p>9) 농성장 침탈 규탄 촛불집회 - 일시 및 장소 : 9/2(금) 오후 7시, 여성가족부 앞</p> <p>10)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여성 지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여성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5(월)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p> <p>11)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다음아고라 서명 진행 - 기간 :9/14~9/30, 1만명 목표로 서명진행 중</p>		

	<p>12)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여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당일 9/14(수), 국회 앞</li> </ul> <p>• 기획 상담 :</p> <p>1.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오니 연차휴가가 2개라고요?':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집중 상담(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 비율적용에 관한 상담 집중적으로 진행함)</p> <p>1) 평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상담을 통해 연차휴가가 전년도 노동에 대한 보상적 차원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노동을 위한 '쉽' 차원에서 지급되도록 휴가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됨.</li> <li>- 기획상담을 전국고용평등상담실과 함께 집행하여 상담결과를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관련한 내용을 노동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함.</li> </ul> <p>2) 언론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뿐인 육아휴직...일자리 담보로 휴직해야 할 판 "여자도 잘 안 쓰는 육아휴직을 남자가 써?" 불이익 감수해야 CBS(4/30)</li> <li>- [사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불이익 여전해서야... 서울신문(4/27)</li> <li>-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성차별 라디오 인터뷰(4/26)</li> <li>- 국가는 낳으라고 '성화'...기업선 낳는다고 '야단' 일하는 여성, 출산 불이익 여전 한겨레(4/25)</li> <li>- 육아휴직 복귀하니 대리에서 주임으로 변경(?) 메디컬투데이(4/18)</li> <li>- 육아휴직 후 퇴사압력 받으세요? 국민일보(4/15)</li> <li>- 육아휴직 복귀하니 연차휴가 안준다(?) 메디컬투데이(4/13)</li> </ul> <p>3) 전체상담 건수 44건 중(상담통계기간 1월-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 상 성차별 2건</li> <li>- 성차별적 인사 9건</li> <li>- 성차별적 해고 13건</li> <li>- 산전후휴가 4건</li> <li>- 육아휴직 등 15건(육아휴직 후 연차유급휴가 산정 상담 7건)</li> <li>- 기타 1건</li> </ul> <p>4) 집중상담 결과 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께 가는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관해 근로기준법대로 적용하는</li> </ul>
--	--

글 실음

- 육아휴직자 연차유급휴가 비율적용 관해 노동부에 의견 및 질의서 발송(6/29)
- 그 외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여성노동자 차별 상담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전국 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차원으로 언론보도 진행 함.(6/30)

2. 모집채용에 있어 나이차별·성차별 공고 모니터링 : 지역 생활지, 구인 사이트 등에 게시된 채용공고에서 성차별, 나이차별 모니터링 진행

1) 차별광고 모니터링 건수

- 조사기간 : 2011년 8월 22일 - 9월 21일
- 조사매체 : 조선일보, 벚룩시장
- 조사지역 : 벚룩시장 종로구 454건

2)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성차별적 모집·채용 모니터링건수	
251건	
'여'를 명시한 채용공고	'남'을 명시한 채용공고
179건	69건

- 업무상 반드시 특정한 성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여'를 명시한 경우는 179건, '남'을 명시해 모집한 경우는 69건이었음.
- '여'라고 명시된 179건의 채용공고 중 식당업 종사자 채용공고는 146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식당에 종사하는 자를 채용할 때는 주로 '여서빙', '여홀서빙', '주방아주머니', '주방찬모' 등으로 특정성을 지정하고 있었음.
- 여성은 경리직, 남성은 배달직과 같은 형식으로 성별로 직종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었음.

3) 연령차별적 모집·채용광고

연령차별적 모집·채용 모니터링건수
106건

- 간호조무사, 경리직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부분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여성을 채용하고자 함.
- 특히 간호조무사 채용공고의 경우 21세-25세로 명확하게 연령을 명시하고 있었음.

• **상담활동, 대응활동의 다양한 방식의 외화**  
 : 칼럼, 블로그 등 다양한 방식의 외화 작업 진행

## 2) 상담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상담대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노동교육 (연 1회)</li> </ul>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노동교육, 시원하게 다이빙하라!</li> <li>1) 일시 및 장소 : 7/20(수)-7/21(목),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교육장</li> <li>2) 강의참가자 : 지역여성민우회, 타단위 고용평등상담실, 성폭력 상담소, 노동조합 등 다양한 층위의 구성원 44명 참석함.</li> <li>3) 프로그램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교육내용</th> <th>강사</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첫째날 20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시-12시</td> <td>[1강]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그림자를 벗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김현미</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시-3시</td> <td>[2강] 여성노동, '시간'을 묻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국미애</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시 15분-5시 15분</td> <td>[3강] 여성노동, '돌봄에서 복지국가'를 상상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숙진</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둘째날 21일</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시-12시</td> <td>[4강] 여성노동, '감정'을 말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권수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시-3시</td> <td>[5강] 여성노동, '쟁점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말하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박봉정 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시 15분-5시 15분</td> <td>[6강] 여성노동, 회.노.에.락 워크샵</td> <td style="text-align: center;">강의 참가자</td> </tr> </tbody> </table> </li> <li>4) 강의평가 : 신자유주의라는 넓은 범주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가 여성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간의 여성노동운동의 쟁점을 짚으며 상담원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자체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연결하여 상담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 또한 내실 있는 강의 기획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담원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li> </ul>	교육내용		강사	첫째날 20일			10시-12시	[1강]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그림자를 벗자!	김현미	1시-3시	[2강] 여성노동, '시간'을 묻다!	국미애	3시 15분-5시 15분	[3강] 여성노동, '돌봄에서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이숙진	둘째날 21일			10시-12시	[4강] 여성노동, '감정'을 말하다!	권수현	1시-3시	[5강] 여성노동, '쟁점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말하다!	박봉정 숙	3시 15분-5시 15분	[6강] 여성노동, 회.노.에.락 워크샵	강의 참가자
교육내용		강사																										
첫째날 20일																												
10시-12시	[1강] 여성노동, '신자유주의' 그림자를 벗자!	김현미																										
1시-3시	[2강] 여성노동, '시간'을 묻다!	국미애																										
3시 15분-5시 15분	[3강] 여성노동, '돌봄에서 복지국가'를 상상하다!	이숙진																										
둘째날 21일																												
10시-12시	[4강] 여성노동, '감정'을 말하다!	권수현																										
1시-3시	[5강] 여성노동, '쟁점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말하다!	박봉정 숙																										
3시 15분-5시 15분	[6강] 여성노동, 회.노.에.락 워크샵	강의 참가자																										
상담 워크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 워크샵</li> <li>•상담인력재생산을 위한 워크샵 진행</li> </ul>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담 워크샵</li> <li>1) 상담인력 재생산을 위한 1월 상담사례워크샵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명군(김인숙), 바람(이소희), 나은(문성훈), 낭미(안미선), 평화(권유경)</li> </ul> </li> <li>2) 상담인력 재생산을 위한 2월 상담사례워크샵 진행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나우(최진협), 바람(이소희), 나은(문성훈), 낭미(안미선), 평화(권유경)</li> </ul> </li> <li>3) 상담인력 재생산을 위한 3-4월 상담사례워크샵 (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명군(김인숙), 바람(이소희), 나은(문성훈), 낭미(안미선), 평화(권유경)</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인력재생산을 위한 워크숍 진행</li> <li>1) 민주노총 노동법률학교 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23~3/16 (매주 수목 저녁)</li> <li>- 참석 : 바람(이소희), 낭미(안미선)</li> </ul> </li> <li>2) 직장 내 성희롱 법적 규제와 대응(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 교육자 나우(최진협), 참가자 바람(이소희), 낭미(안미선)</li> </ul> </li> </ul>
--	--

### 3) 연대활동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전국고용평등 상담실네트워 크	<p><b>1.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활동내용</b></p> <p>1)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TFT 1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2/16(수) 오전 10시 30분, 서울여노회의실</li> <li>- 참석 : 황현숙(서울여노), 임은주(한국노총), 나우&amp;바람(민우회),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p> <p>2)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TFT 2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3/11(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여노회의실</li> <li>- 참석 : 황현숙(서울여노), 임은주(한국노총), 바람(민우회),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p> <p>3)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발족기념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3/31 오전 11시 30분 - 오후 1시, 정동서울시립미술관</li> <li>- 참석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여협, 서울/인천/수원/부천/안산 여성노동자회</li> </ul> </p> <p>4)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TFT 3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4/5(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여노회의실</li> <li>- 참석 : 황현숙(서울여노), 바람(민우회),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p> <p>5)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TFT 4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5/11(수) 오후2시, 서울여노회의실</li> <li>- 참석 : 황현숙(서울여노), 바람(민우회),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p>
-----------------------	--

<p>6)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5/18(수) 오후4시, 과천 고용노동부</li> </ul> <p>7)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TFT 5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5/31(화) 오후 4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li> <li>- 참석 : 황현숙(서울여노), 바람(민우회),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p>8)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TFT 6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7/12(금) 오후 4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li> <li>- 참석 : 황현숙(서울여노), 바람(민우회),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p>9)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TFT 7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9/8(목) 오후 3시, 서울여노</li> <li>- 참석 : 황현숙(서울여노), 바람(민우회),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p>10)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2차 전체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9/29(목) 오후 1시, 공간여성과 일 4층</li> <li>- 참석 : 나우(민우회), 박경득(부산여성회), 이영희&amp;민대숙(여법), 박미영(마창여노), 김태임(인천여노), 김미경&amp;김정연(부천여노), 신미영(대구여성회), 김익자(전북여노), 황현숙(서울여노),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p>10)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 TFT 8차 회의 및 3차 전체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및 장소 : 11/24(목) 오후 1시, 공간여성과 일 4층</li> <li>- 참석 : 바람(민우회), 이영희(여법), 박미영(마창여노), 김태임(인천여노), 김미경(부천여노), 김익자(전북여노), 황현숙(서울여노), 조여옥(수원여노), 이영희(여법), 배진경(한국여노)</li> </ul>
--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낙태고발정국의 연속선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담을 체계화하고, 사례집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소시오드라마 UCC제작 등을 통해 낙태불법화로 인한 여성인권침해 현실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2) “전적내기 프로젝트\_성형OTL(가)”을 통해 성형을 둘러싼 의료문제, 젠더문제, 노동조건, 외모지상주의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어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환기시키고 관련된 정책 및 의료 지침 등을 구성한다.
- 3) 그동안 진행했던 민우회의 여성건강권활동과 관련한 내부 세미나와 자료 축적을 통해 장기적인 여성건강영역의 이슈 개발 및 활동의 상을 마련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2010년의 경우 낙태고발정국으로 시술 병원을 문의 하거나 사건 지원 동행을 문의하는 등 여성들의 전화나 언론사 인터뷰가 많았던 반면, 2011년에는 분위기가 다시 잠잠해져 실제 상담이나 문의해오는 전화가 많지 않아, 상담을 체계화하려던 계획은 다소 축소되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상담 체계화는 ‘낙태’와 관련된 활동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주도적으로 사례 발굴과 사건 지원을 통한 이슈화를 위해 기획된 것이며 성폭력상담소에 들어오는 낙태 관련 상담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구조화해내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진행하지 못했다.

올 해 상담 전화는 총 10건이었으며 주로 병원과 수술비를 묻는 내용이었다. 낙태불법화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고 공론화 하는 것은 올해 주된 활동의 내용이었으며, 그 내용의 근간은 낙태를 경험한 기/미혼 여성들의 심층인터뷰를 통해서였다. 초반 인터뷰이 섭외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피로그 모금함 개설을 통해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면서 애초 20명 계획을 넘어 30명이 넘게 인터뷰 신청을 받을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 내용을 가공하여 사례집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을 제작하였다. 사례집은 작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중적 감성과 언어의 필요에서 기획되었다. 애초에 사례집을 이후 활동이나 연구를 위한 자료 축적의 취지로 인터뷰 내용을 모두 실고 분석을 초점으로 구성하려 했으나 낙태와 관련되어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배포용 책자형태로 구성이 변화되었다. 사례집 홍보와 동시에 대학생, 지방의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의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전화, 이메일, 트위터 등을 통해 신청하는 등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의사계나 종교계가 주도하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들이 주를 이었던 것과는 달리 여성들의 고민의 과정과 위로를 담은 이미지와 내용 구성에 대한 회원, 비회원층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인터뷰와 사례집 배포 과정에서 여성들 스스로 입파워먼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우회와 여성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 계기를 마련한 점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차후에도 현재 사례집을 보완 및 가공하여 2차 제작이나, 출판 등 방법 모색을 통해 꾸준히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다.

회원 소시오모임<얼음, 땀! 2> 과 함께한 연극과 UCC제작은 회원들과의 깊이 있는 결합으로 사업진행에 있어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 매 회 연습과정을 공개함으로 평균적으로 1-2명의 일일 참가자가 결합하면서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해내고, 즉흥극, 연극 시나리오 구성, ucc 기획 등 회원 기획단이 활동의 전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여냄으로서 사업 진행의 역동성을 크게 부여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이슈와 관련된 활동에 회원 기획단 활동을 결합시켜 활동 회원층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회원 결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훈련된 연출가와 다큐멘터리 촬영팀이 모임에 함께하면서 문화예술 영역에 있는 여성주의자 그룹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낙태이슈를 생명과 선택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고통'과 '성적시민권'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낙태 문제에 대해서 일면 외부 '대응'하는 활동 방식을 넘어 주체적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알려낼 수 있는 언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후 제시된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확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올해 여성건강팀에서는 낙태를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여 연극, UCC, 사례집 등 문화컨텐츠를 생산하여 대중적 소통에 힘을 둔 해였다면 내년에는 법과 정책에 초점을 옮겨 국가의 책



임에 방점을 찍어 문제제기하고 낙태 대체어 개발을 위한 테이블 구성, 총대선 연결하여 이 슈화하기 등 담론 변화를 피하기 위해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최근 불법 성형의 문제, 성형의 의료관광산업화 등 성형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견적내기 프로젝트-성형OTL”사업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성형을 철저히 ‘개인’의 선택으로 축소하고 있는 사회구조를 문제제기하되, 성형 하는 여성들의 선택을 비난하는 것처럼 곡해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견적내기라는 여성의 행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속에서 탄생하였다. 직장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몇 차례의 집담회나 견적 내는 과정을 블로그에 연재하면서 온라인상으로 1,500여명이 조회하는 등 대중적인 관심이 있었으며 대학생 기획단 활동을 통해 회원 참여 활동의 역동성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사업 집행 과정에서 견적을 내보는 것 이상의 콘텐츠나 활동 목표의 필요를 느껴 지하철2호선의 성형 광고를 분석하여 미디어의 영향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업 기획을 우회하였다. 초반 기획 과정에서 사업 설계에 대한 정보나 활동 방향에 대한 상이 꼼꼼하지 못했고, 문제제기의 초점이 명확치 않아 아이템을 변경하면서 막연하게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성형 광고가 실제 많지 않았고, 교통 시설 내의 성형 광고 축소 문제도 이미 제기되어 개정이 추진되고 있었다. 성형이란 주제가 일면 굉장히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불법 성형, 의료산업의 문제, 미디어의 문제, 여성 노동 조건의 문제 등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제기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최종적으로 정책과 의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서 방향하면서 진행하지 못했다. 또한 단기 사업의 경우 실행의 효율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내기 위해서는 기간 설정과 목표가 오히려 더 선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3) 여성건강 이슈의 이해를 높이고 팀 내 역량 강화를 위해 세미나를 기획하였으나 3회 진행하였고 블로그나 칼럼 등으로 외화하지 못했다. 애초에 여성건강팀에서 과거에 진행한 활동 자료를 토대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낙태, 성형 등 당면한 활동 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한 아쉬움이 남는다. 상반기에 활동가 변동이 많아서 내실 있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함께 만들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하반기에는 팀원이 보강되어, 낙태토론회에 앞서 사회적 고통의 개념 이해를 통해 논거 확장과 이해를 높이는 팀 내부의 결의나 추동력이 있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향 후 기한을 설정하여 압축적으로 진행하여

사업 기획이나 집행의 풍부함을 담보하기 위해 상반기에 단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2011‘ 새롭게 쓰는 낙태 이야기

####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계획	<p>1. 상담 및 사례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낙태고발정국으로 인해 2010년부터 계속되는 시술병원 문의, 배우자 협박, 여성 고발 등의 상담 내용을 축적하고 대응 필요한 상담에 대한 지원 등</li> <li>•상담 내용 답변을 위한 법률 지원, 상담 내용 체계화, 관련 정보 등 수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진행</li> <li>•결혼여부, 계층, 세대 등으로 구분하여 과거 및 현재 낙태 사례 조사 진행</li> </ul> <p>2. 사례집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0년부터 축적된 상담 및 상반기 사례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례집 제작</li> <li>•상담 및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임신, 출산, 낙태를 둘러싼 여/남과의 관계, 낙태 경험 과정, 사회구조적인 낙태의 원인을 드러내고 낙태를 비롯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변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사례집 배포</li> </ul> <p>3. 사회심리극 “당신이 나라면?”(가) UCC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례집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기획하여 낙태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인 고통, 여성연대와 낙태, 낙태 과정 안에서의 남성과의 관계 등의 주제로 사회심리극 시나리오 구성</li> <li>•매 회의 연습 과정을 공개하고 상황별로 참여자 홍보 및 조직화</li> <li>•연습 및 최종 심리극을 ucc로 제작하여 온라인 배포</li> </ul> <p>4. 공개 집담회 “2011년, 새롭게 쓰는 낙태 이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적된 상담 분석 결과 보고 및 그간의 활동 내용 드러내기</li> <li>•사례를 중심으로 법, 정책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여성학자 등 토론자 섭외를 통해 정책, 법의 방향 뿐만 아니라 이후의 활동의 아이디어, 방향 등을 세밀하게 구축할 수 있는 기회 마련</li> <li>•사례조사 결과 및 사회심리극 발표</li> </ul>
----	---

**집행**

1. 상담 및 사례조사  
 일상적인 상담진행  
 -5/20, 6/3, 11/29 : 시술 가능한 병원 문의  
 -9/14 : 남성임,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 결정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태도 문의  
 -10/20 : 몇 년 전에 낙태 시술한 혐의로 경찰에서 와서 진술서를 쓰라고 연락 받음.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함.

집중상담  
 1) 일시 : 5월 간  
 2) 대상 : 2010년 처벌 정국 당시 낙태 경험 있는 여성  
 3) 홍보 : 홈페이지, 온라인 소식지 발송 등  
 4) 내용 : 총 5건 들어옴. 시기적으로 낙태 처벌이 완화되면서 작년에 비해 상담이 현저히 줄어들음. 작년에 상담을 요청한 여성들에게 이후 변화 등을 문의하기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거절함.

사례조사  
 1) 일시 : 6월 간  
 2) 홍보  
 - 홈페이지에 웹포스터 게시.  
 - 시민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민우회 지부 등에 공문 발송 및 전화 홍보  
 3) 사례조사팀 구성  
 - 백영경, 권유경, 김영지, 김희영, 정슬아  
 - 조사단 교육  
 • 일시 : 5/24, 5/27  
 • 내용 : 질적 연구 조사의 이해, 2010년 낙태범죄화 대응 활동 소개, 사업 취지 및 배경 등  
 4) 질문의 주요 키워드 : 자기선택(결정), 성적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육아, 피임, 삶의 계획(미래전망)  
 5) 인터뷰 진행  
 - 지역 : 서울 및 수도권, 춘천  
 - 시기 : 6/3 ~ 7/12(3건 추가 인터뷰 진행)  
 - 참가자 : 20대~60대, 낙태 경험 있는 여성  
 - 참가인원 : 총 23명  
 - 참여비 : 문화상품권(3만원) 지급

번호	일자	지역	혼인여부
1	6/3	망원1	기혼
2	6/3	망원2	기혼
3	6/7	춘천1	기혼

4	6/7	춘천2	기혼 (당시 미혼)
5	6/7	춘천3	기혼
6	6/8	인천1	기혼
7	6/8	인천2	기혼
8	6/8	인천3	기혼 (당시 미혼)
9	6/10	망원3	기혼
10	6/14	망원4	미혼
11	6/15	안양	미혼
12	6/20	망원5	사실혼 (당시 미혼)
13	6/22	연신내	기혼 (당시 미혼)
14	6/23	성남	미혼
15	6/24	여의도	기혼
16	6/26	망원6	미혼
17	6/29	망원7	기혼
18	6/29	망원8	미혼
19	6/29	고강동	기혼
20	6/29	청구역	기혼 (장애여성)
21	7/6	천안	기혼 (당시 미혼)
22	7/11	서면 인터뷰	미혼
23	7/12	압구정	미혼

6) 녹취 및 정리

- 참여 : 사례조사단
- 총 23건의 인터뷰 녹취 및 정리 완료함.

2. 사례집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 1) 일시 : 7~10월 간
  - 2) 사례분석회의
    - 일시 : 7/20, 8/9, 8/12
    - 참가자 : 백영경, 권유경, 김영지, 김희영, 정슬아
    - 내용 : 피임, 낙태이후, 산부인과 경험, 죄책감, 관계 등으로 인터뷰내용 영역화.
- 사례집 홍보방법 낙태 경험 여성들은 위한 팁 논의 등  
 (※ 23명 인터뷰 하였으나 1명의 인터뷰 내용의 분량의 이유로 사례집에 삽입하지 않음)
- 3) 사례집 사진촬영
    - 일시 : 8/19, 8/22
    - 장소 : 상암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및 마포일대
    - 촬영 : 권유경
  - 4) 사례집제작 : 8월 간

- 8/19 분석 및 원고 작성(김영지)완료
- 8/19, 22 관련 이미지 컷 촬영(권유경)완료
- 8/31 디자인 완료.
- 9/2 인쇄완료.
- 5) 홍보 및 배포 : 9~10월 간
  -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소식지 발송,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등
  - 배포처

배포처	부수	비고
일반개인	330부	이메일, 전화 트위터 등
시민단체	300부	민우회 지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대학 및 연구기관	100부	대학내 여성주이 모임 등
인터뷰이 등	50부	2010~2011년 상담 및 인터뷰
회원	50부	민우회 소모임 등
토론회	80부	발제자, 토론회 참가자 등
기타	90부	언론사, 보관본, 제출 등
총합	1000부	

6)언론보도

- 뉴스스(9/25), “피임도구 소지 거부시키는 사회 탓에… 낙태 다시”
- 메디컬투데이(10/4), “공공연히 시행되는 낙태수술… 무조건 금지도 문제”
- 연합뉴스(10/17), “여성민우회, 낙태사례집 발간”
- 여성신문(10/28), “낙태, 사회경제적인 환경의 변화가 필수이다.”
- 여성신문(10/28), “낙태 여성에게 죄책감 강요하는 사회”
- 아주경제(11/10), “여성단체 낙태 처벌은 위한… 출산 여성권리 보장하라”
- 여성신문(11/11), “여성단체 낙태 처벌 위한…여성 권리 보장해야”
- kbs1라디오정보센터(11/14)
- cjb청주방송(11/14) “오늘의 인물”
- 크리스천투데이(11/14), “현재 공개변론 계기로 낙태 논쟁 다시 본격화”
- 연합뉴스(11/10), “여성단체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은 위헌”
- 메디컬투데이(11/14) “낙태수술 허용 두고 갑론을박”
- 일다(11/15), “낙태, 사회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
- 메디TV(11/25)
- 코리아헤럴드(7/27) “A common practice outside the law”

3. 소사회심리극 연습 및 UCC제작

- 1) 일시 : 8~10월 간

2) 참가자 모집 홍보

- 일시 : 8/12 ~ 8/31
- 내용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연극모임 등 웹홍보물 배포

3) 소시오드라마 회원모임 <얼음, 땀!2>

- 활동기간 : 8~10월
- 모임일정 및 참가자
- 일정 : 8/29, 9/6, 9/10, 9/14, 9/20, 10/5, 10/13, 10/15, 10/20, 10/26 (총10회)
- 연출 : 양현경 (극단 <목요일오후한시> 배우)
- 구성원 : 김나현, 김지숙, 이가혜, 이유경, 오영식, 정은선, 김희영, 정슬아
- 내용 : 사례조사 내용 공유, 물체화 되기, 낙태를 주제로 한 즉흥극 진행, 연극 시나리오 구성 작업 및 공연연습 등

4) UCC 제작 및 배포

- 촬영 일정 : 9/18, 9/20
- 내용
- 사회심리극 모임의 즉흥극 연습과정을 담은 UCC를 제작하려고 했으나, 주제가 갖는 특성을 짧은 시간에 드러내기에는 한계를 갖고 있어 시나리오 구성을 통한 영상을 제작 함.

<그녀의 어떤 하루> 6:17

- \* 출연 : 소시오드라마 모임 <얼음, 땀! 2>
- \* 제작 및 촬영 : 조세영, 이관택
- \* 내용 : 여자와 남자, 연애, 임신테스트기, 빨간 색 두 줄, 그녀가 보낸 어느날의 어떤 하루를 담은 영상.

- 다음팟, 유튜브,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등 온라인 배포.

4. 토론회&연극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1) 공개 집담회 진행

- 일시 : 2011년 10월 27일 (목) PM 4:30~8:30
- 장소 : 시민 공간 <나루> 소극장
- 참가인원 : 80명

2) 홍보

- 일시 : 10/14~10/26
- 포스터 제작 및 배포내용:

배포처	부수	비고
시민사회단체	400부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
대학 및 연구단체	150부	대학내 여성주의 모임 등

노조단체	300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여성위원회 등
보관본 및 토론회	50부	토론회 세팅, 보관 및 제출 등
기타	100부	언론사, 회원, 마포일대 홍보 등
총계	1000부	

- 웹포스터 :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메일링을 통해 온라인 홍보함.

3) 내용

<p>• <b>1부 토론회(PM 4:30 ~ 6: 30)</b></p> <p>‘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公明)하다’</p> <p>- 사 회: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p> <p>- 발 제:</p> <p>한국 여성의 낙태 경험:  성적 시민권과 사회적 고통의 관점에서  백영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p> <p>- 토 론:</p> <p>강명신(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신승일(보건복지부 구강가족 건강과 과장)  배은경(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오승이(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p> <p>• <b>2부 연극 &lt;끓는다, 미역국&gt;</b></p> <p>(PM 7:30 ~ 8:30)</p> <p>- 출 연: 소시오드라마 회원모임 &lt;얼음, 땀! 2&gt;  김나현, 김지숙, 이가혜, 이유경, 오영식, 정은선, 김희영, 정슬아</p> <p>- 시 간: 20분</p> <p>- 연 출: 양현경(극단 &lt;목요일오후한시&gt; 배우)</p> <p>- 내 용: 2011년 한국. 아이 셋을 둔 엄마, 사람들에게 잊힌 연예인, 삶의 주인은  나야를 외치는 대학생, 창의시정을 꿈꾸는 공무원, 철없는 막내 등이 모여 이야기  를 한다.</p>
--

5. 임신·출산 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주요 참여 단위 : 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다함께, 진보신당, 민주노총 등

-11/10(목) : 헌법재판소 낙태죄(형법) 위헌 심판 공개 변론 당일 오전10시,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기자회견 : 장소 헌법재판소

6. 기타

	<p>-7/19, “사후응급피임약, 의약품 재분류 논의에 대한 입장”논평 발표</p> <p>-“세상이 알아야 할 &lt;낙태&gt;”모금함 개설 : 5/27~7/27(2개월간), 총 1,300명 모금 /1,128,900원</p> <p>-여성신문(9/9) “생필품 생리대 가격 거품 빼라”</p>
--	--

## 2.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중사업 : “견적내기 프로젝트\_성형OTL”

계획	<p>1. 2011년, 다시 성형 : 최근 성형으로 인해 사망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성형에 대한 접근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성형을 개개인의 인식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당위적으로 여성들의 삶의 맥락을 제거하는 것임. 이에 성형을 둘러싼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되 유쾌하고 공감을 높이는 방식의 일환으로 성형 견적내기 프로젝트를 통해 성형천국 한국 사회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모색</p> <p>2. 견적내기 프로젝트 -회원, 모집을 통해 성형 견적내기 실천단 구성 -성형외과 밀집 지역에서 직접 견적내기 실행 -“의사들의 말말말”, “내 얼굴이 제일 싫었어요”, “성형천국, 여성지옥”, “tv가 말하는 성형”, “3천만원 아끼고 나대로 살기” 등 견적 내는 과정에서 성형을 둘러싼 문제점과 단상 등을 르뽀 형식으로 5회~10회 블로그 포스팅 -기획과정에서의 언론사 컨택을 통한 홍보</p> <p>3. 정책 및 의사 지침 구성 -미디어 규제 정책 검토, 의료 현장 안에서의 시술 부작용 지침 개발 등의 성형 범람 규제를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 마련</p>
집행	<p>1. 사전조사 및 세미나 진행 : 3/2, 3/4 사전 견적내기 실시 후 성형외과 진료문화 논의 : 3/11 성형관련 기존연구자료 세미나 진행 : 3/21 [미용성형의료 네트워크의 재구성과 소비자/환자 주체의 형성] 태희원(연대 문화협동과정 여성학 전공)님과 미팅 진행</p> <p>2. 집담회 [성형하고 싶...] : 여성단체 활동가(회원), 취업을 앞둔 대학생, 직장여성 총3회를 걸쳐 20-30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다이어트, 미용, 성형 등 몸 가꾸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직장문화와 취업준비 안에서 들게 되는 소비되는 몸가꾸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① 여성주의자들의 다이어트와 성형</p>



- 3/18 낮 3시반 커피 문, 민우회 활동가, 여성단체 회원 등 5명

② 대학생들의 다이어트와 성형

- 3/22 저녁 7시 민우회 사무실, '물길' 캠프 참가자, 대학생 5명

③ 직장여성들의 다이어트와 성형

- 4/14, 저녁 7시반 민우회 사무실, 사회복지, 교육, 뷰티, 공연기획, NGO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여성 7명

직장 다니는 20-30대 여성 혹은 몸 가꾸기와 관련한 조직문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

### 3. [성형OTL 실천단 '지하철 2호선(line2)']

: 여성의 몸 그리고 성형을 둘러싼 여성들의 억압에 관심이 있는 20대 여성

- 구성원: 김영지, 권유경, 이정엽, 최다희, 정슬아, 김희영 총 6명
- 모집홍보: 4/21 홈페이지, 모람세상, 블로그, 트위터 등
- 활동시기: 4~6월 간 ( . 5/17, 5/26)

: 역할 및 활동내용

- 1) 4/25 성형관련 간단 세미나 진행 후 성형에 대한 스토리텔링 작업
- 2) 4/28, 4/29 성형외과를 찾아가 견적실시 후 성형외과 진료 분위기 파악
- 3) 4/28~5/11 지하철 2호선 성형외과 광고 및 인터넷 신문 모니터링

지하철 광고조사 실천단 <지하철 2호선>

\* 조사일: 2011년 4월 28일~ 5월 11일, 5월 26일

\* 조사대상: 지하철 2호선, 51개 역 + 3호선 압구정, 신사역 총 2개 역= 53개역

\* 비교: 여러 개의 호선이 있는 경우 2호선에 해당하는 출구와 승강장만 조사함

\* 내용: 2호선 51개역 총 70개(강남 12개, 건대입구 11개 등), 3호선 2개역 총 153개 가 있었음. 전체 광고에 따른 비중은 크지 않으나 성형광고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는 점과 그 내용에 있어 여성들의 몸을 보여주는 이미지와 광고문구는 분석 해볼 여지가 있었음. 더구나 지하철을 비롯한 교통수단의 광고에 있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아니기에 무분별한 광고물 개제와 내용의 선정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

4) 6/7~6/8 동영상 제작

제목: <곰이의 험난한 하루> 3:29

내용: 일상적으로 성형광고, 성형 권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 친구, 상사, 부모, 알바모집전단, 소개팅, 입사지원서, 옷가게 등 끊임없이 몸 관리를 강요당하는 우리의 사회, 성형을 선택하는 '개인'의 선택이 진짜 '개인'만의 선택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

5) 6/16~7/8 견적내기 후기, 지하철 성형광고 분석, 온라인 언론매체 광고 분석, 동

	<p>영상 제작 과정 등 블로그 연재기획 후 분야별 글 생산</p> <p><b>4. 블로그 및 홈페이지 업데이트</b></p> <p>[성형하고 싶...] '그래요, 나는 여성주의자입니다'   2011/03/24  취업성형이라   2011/03/31  &lt;함께가는 여성&gt; 3*4월호 [민우 ing] 견적내기프로젝트 성형OTL   2011/04/06  성형하고 싶.....   2011/04/19  [견적내기 프로젝트 성형OTL] 실천단 '지하철 2호선' 모집   2011/04/21  내 새벽을 누가 알겠어.   2011/04/21  미용성형에 관한 '윤리적인 질문' 만들기 - 태희원   2011/05/09  성형광고 취재기 - '지하철 2호선을 타봤어' ①   2011/05/18  사실, 성형할 수 있을 것 같아.   2011/06/16  &lt;함께가는 여성&gt; 5*6월호 [민우ing] '지하철 2호선' 혹은 'project line2'   2011/06/05  성형광고 취재기 - '지하철 2호선을 타봤어' ②   2011/06/27  [영상] 곰이의 험난한 하루   2011/06/30  내 모니터 화면을 뒤덮는 'oo'한 광고들   2011/07/08</p> <p><b>5. 기타</b></p> <p>-매일경제(2/18) mk토론 "성형 부추기는 사회가 문제"  -시사IN(7/4) "여성운동가들이 낸 성형 사회의 견적"  -2011맑시즘(7/21) "성형, 벗기기, 섹시 강박-여성의 자신감인가 은폐된 성차별인가"</p>
--	--

### 3. 여성건강권 세미나

<b>계획</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리모, 생명공학기술, 제왕절개 분만을 낮추기 운동, 생명윤리, 난자채취 피해자소송 등 민우회 활동 내용 및 관련 논문 등 세미나 및 자료 체계화</li> <li>•온라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세미나 과정 및 고민 등</li> </ul>
<b>집행</b>	<p>-팀 내부에서 3회 진행함</p> <p>: 3/11(금), 논문 “미용성형의료 네트워크의 재구성과 소비자/환자 주체의 형성, 2011, 태희원</p> <p>: 4/8(금), “낙태행위의 사회경제적 사유 분석과 관련 정책 개선방안”, 2010, 여성정책연구원, 이미정 외</p> <p>“법여성주의를 통해 본 낙태죄의 비판적 고찰”, 2007, 서울대학교대학원, 오승이</p> <p>: 9/28(수), 『사회적 고통』, 아서 클라이만 외, 2002</p>

# 미래준비사업

## 민우유쓰네트워크<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 : 물, 길> 2기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민우회 내에 20대가 직접 활동을 기획, 실천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민우회 내부에 20대 여성운동의 장을 마련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올 해 <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 2기 사업은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를 실천하며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한 여성주의 경험을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됨으로써 대학 내 여성주의자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방향성 하에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였다. 캠프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멘토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여성주의적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시간을 통해 지속적인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길> 2기에서는 2009년 페미블로거 캠프, 전년도 <물,길> 1기 참가자들 중 5명이 기획단으로 활동하여 민우회 내 20대가 직접 기획하고 실천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물,길> 2기 기획단은 대학 내 여성주의 활동의 고민과 실질적 욕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전의 <물,길> 경험을 가진 기획단의 구성과 탄탄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20대 여성운동가를 발굴,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후 <물,길> 2기 참가자들은 액션팀으로 이어져 직접 고민을 발전시키고 실천을 시도하는 장을 꾸려냈다. 일회성 활동이 아닌 3개월간 직접 액션을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자신의 고민이나 상상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성운동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하며 확장시켰다.

액션에 있어서는 멘토와 강사(총 8명)뿐 아니라 민우회 활동가가 액션팀의 멘토가 되어 캠프 때 상상했던 액션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액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결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우회 신뢰지관계가 형성되었고, 액션팀 대부분 회원이 되어 앞으로 민

우회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접점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단기간의 액션팀 활동은 내부에서만 그친 것이 아닌 널리 알리는 자리로써의 촉발문화제를 통해 다양한 여성주의 단위와 소통하였으며 이후 마포FM방송출연, 타 단체와의 연대 등으로 이어진 활동을 펼쳤다. <물,길> 2기는 액션 이후로도 민우회의 소모임, 여성학 세미나 등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주의에 대한 욕구를 찾아가며 자기만의 여성주의를 성장시켜나감에 민우회와의 연계를 높였다. 이는 민우회가 4년간 지속해온 20대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민우회 내 20대 여성운동의 장 마련까지 충분히 이어내지는 못했으나 그 본격적인 시작으로 단초를 마련하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유효한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지점들을 발전시켜 20대 여성주의자들이 더욱 다양하고 도전적인 활동을 풀어 낼 수 있는 장을 유지 형성할 필요가 있다.

## 미래준비사업 : 민우회 별칭짓기 프로젝트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미래세대와 조응할 수 있는 민우회가 되기 위해 새로운 명칭모색을 하는 과정으로, 전환기 별칭으로 쓸 수 있는 이름 몇 개를 신중히 만들어 내년 총회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별칭 짓기 사업의 경우 미래 준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으로 활동 내용이나 방식과 다르게 ‘올드한’ 민우회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기획회의 과정에서 단순히 별칭을 짓는 것에 끝나지 않고 현재 민우회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 마케팅을 통해 활동의 홍보 효과를 높여내는 ‘과정’으로서의 별칭 짓기 사업을 활용하기 위한 온라인 조사 방법, 타 단체 사례, 회원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기획회의 과정을 통해 올 해 하반기에 진행된 회원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민우회 이미지 조사라는 회원 대상의 조사를 이중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고, 회원 조사 결과가 별칭짓기 사업의 구체화를 위한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조

사 작업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자는 결정이 있었다. 올 해는 별칭을 짓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단체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많은 역량을 투입하여 추진해야 하는 일인 점 등을 파악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꼭 이름이나 별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도 슬로건 변화, CI 제작 등 단계적으로 민우회 이미지나 활동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홍보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II. 사업 내용

<p>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지 쇄신을 위한 프로젝트</li> <li>  : 그동안 회원이나 민우회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실제 활동 과정에서의 신선함과 대중성에 비해 처음 이름을 접했을 때의 무거움, 올드함에 대한 얘기가 많았음. 회원과 활동가들과 TF팀을 꾸려 민우회 이미지에 대한 논의과정과 투표 등을 통해 활용성 높은 별칭을 선정함.</li> <li>▪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TF팀 구성 : 팀/부설별 활동가, 회원, 지부 활동가 등</li> <li>▪ 온/오프라인을 통한 민우회 별칭 투표 및 선정</li> <li>▪ 담당팀 : 홍보팀</li> </ul>
<p>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25(목), 9/1(목) 회의 진행 : 박봉정숙, 김희영, 문지은</li> <li>- 내용 : 타 단체 사례 조사 공유, 온라인 조사 방법, 지부 및 전문가 등 TF 구성, 전문가 컨택을 위한 기획안 구성 등</li> </ul>

## 사회개혁과제 대응 활동

사업	사업내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다양한 연대활동 및 대응활동이 예상된다. 또한 4대강 문제, 남북평화 문제, 복지담론 논쟁 등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위의 움직임에 함께 하여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의 진보에 기여한다.</li> </ul>
집행	<p>■ <b>핵전환공동행동</b></p> <p>1) 연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성명서], 4/4,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li> <li>-[공동성명], 4/12,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동아일보 사실에 대한 핵전환공동행동 성명서”</li> <li>-4/9, “핵으로부터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여성생명평화 마당”, 홍대 걷고싶은거리 열린무대</li> </ul> <p>2) 활동가 강의 : 5/4, 굿모닝위민링크, 김혜정(환경연합), 반핵운동 과정의 의미와 과제</p> <p>■ <b>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운동네트워크 &lt;10.26엔 투표당&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19,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참여운동네트워크 &lt;10.26엔 투표당&gt; 창당 기자회견” 및 홍대 거리 캠페인</li> </ul> <p>■ <b>FTA반대 활동</b></p> <p>1) 연대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성명], 11/3, “공공정책 입법주권을 미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한다.”</li> </ul> <p>2) 일인시위 : 11/9, “1%만을 위한 한미FTA 반대” 일인시위</p>

# 성평등 복지국가 전망 그리기

## 1. 사업총평

### 1. 사업목표

- 1) 여성의 관점에서 복지논의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논의를 확대한다.
- 2) 다양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여성운동의 지속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여성역할로 집중되어지던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미흡해 여전히 여성, 가족, 사적 책임 하에 존재한다. 또 한편 돌봄시장의 노동자로서 여성이 위치하게 되면서 저임금, 열악한 나쁜 직종군을 이루게도 되는 등 여성 삶에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양극화의 하부에 존재하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설계시 여성계는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정책설계방향은 무엇이며, 그것이 주목하는 여성현실은 무엇일 수 있으며, 여성들의 현실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고자 하는 것인지 등 여성계 내부에서조차 그 이견이 존재함을 감지하게 되었다. 이에 돌봄으로 재편되는 사회에 대한 그 전망의 차이와 교차점을 드러내고 여성운동이 꿈꾸는 사회에 대해 풍성하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라운드테이블] 여성운동, 돌봄으로 변화를 기획하다를 진행하게 되었다. 기획회의를 통해, 정교한 질문을 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이 충분한 준비 속에 참석하도록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돌봄에 대한 차이와 공통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2013년을 위한 여성계 돌봄정책 요구안 마련을 위한 합의점을 만들고자 하였다.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진솔한 의견 발표는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을 확인하게하고 논의를 성숙하게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돌봄으로의 사회재편에 대해 설득 가능한 용어와 논리를 좀 더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고 이것은 이후 여성운동계가 완성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시급하게 기획되고, 논의내용이 복잡하여 회원 등 대중적으로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점도 아

쉬움으로 남는다. 연초 사업계획 속에 제출된 사업이 아니었음에도, 이사들의 밀착된 결합이 사업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완성도를 높였다. 다만, 라운드테이블에서 드러난 여성운동계 안에서의 다양한 의견차이가 이후 돌봄사회에 대한 전망그리기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논의되어야 하는지 이후 후속 복지국가 토론 속에서 짚어질 필요가 있다.

2)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주의적 복지정책이 왜곡, 협소하게 접근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성평등복지국가 전략회의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성평등복지국가 전략회의의 결과로 도출되는 여성복지정책 요구안은 사회 각계에서 제출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여성의 시각으로 큰 틀에서 재구성하여 미래사회의 전망을 그리는 밑작업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외부여성단체, 젊은 세대 여성활동가 그리고 민우회의 결합으로 전략회의의 멤버를 다양하고 단출하게 구성하고 매 회기 각 분야 전문가와의 미팅을 통해 집약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 내용적 풍부함과 차후 확산의 구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집중도와 사업진행 속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약 5개월에 걸쳐 총 20여차례에 걸친 논의, 그중 8차례의 연구전문가와 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각 구성원들이 주제를 담당,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책임있는 결합이 돋보였다. 사회흐름에 발맞추어 시기적절하게 기획되어 여성계가 활용할 성평등복지정책 밑그림이 만들어짐으로서 총, 대선이 치러지는 2012년에 그 결과물의 활용이 기대되어진다. 하지만 좀더 다양한 여성들의, 다양한 여성 삶의 문제들이 촘촘하게 반영된 세밀한 정책안을 마련할 필요가 과제로 남는다. 이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노력에 기초한 사업진행은 돋보였으나, 연초 사업계획 속에 반영되어 진행되어, 활동가의 결합, 충분한 공유, 전체 실무량이 적절히 안배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좀더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그 해의 주요 활동을 기획해야 하는 것이 과제이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라운드테이블] 여성운동, 돌봄으로 변화를 기획하다. “복지국가 논의에서 돌봄패러다임 개입의 의미와 전략은 ?”

계획	연초에 계획 없었음. 정세판단과 운동의 흐름 속에서 사업의 필요성 생김.
집행	1. 배경 및 목적 :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가족 내 여성역할로 집중되어지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화, 혹은 사회적 가치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



	<p>던 여성운동은 돌봄패러다임, 돌봄정책이 복지국가설계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복지국가 설계 속에서 돌봄패러다임이 가지는 여성운동적 의미는 무엇인지,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 정책설계방향은 여성들의 현실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게 하는 것인지 전망의 차이와 교차점을 드러내어 여성운동이 꿈꾸는 사회를 풍성하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함.</p> <p>2. 기획회의의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기획회의(7월 4일) : 라운드테이블 기획 및 질문구성 참석자 : 김인숙, 박봉정숙, 이숙진이사, 장지연이사, 최진협</li> <li>- 2차 기획회의(7월 22일) : 기획구체화 및 질문확정 참석자 : 김인숙, 박봉정숙, 이숙진이사, 박차옥경(여연)</li> </ul> <p>3. [라운드테이블] 여성운동, 돌봄으로 변화를 기획하다. “복지국가논의에서 돌봄패러다임 개입의 의미와 전략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8월 16일 2시, 민주노총 대회의실 9층</li> <li>- 사회 : 이숙진(한국여성민우회 이사, 젠더사회연구소),</li> <li>- 패널 :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엄규숙(경희사이버대),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최은영(충북대),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li> </ul> <p>&lt;공통질문&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돌봄'과 '돌봄노동'은 서로 같은 개념인가? 정의는 무엇인가?</li> <li>2. '돌봄중심사회' 그리고 '일중심사회'란 무엇인가? 어느 입장을 가지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3. 우리가 생산하려는 돌봄패러다임의 개입을 통해 바꾸려고 하는 여성의 현실은 무엇인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으며 변화시키고 싶은 여성의 현실은 무엇인가?</li> <li>4. 돌봄의 가치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사회를 재편하는 전략은 무엇이며, 그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와 재편된 사회의 상은 무엇인가?</li> <li>5. 돌봄을 통한 복지국가개입을 이야기 할 때 사회정책의 범주는 어느 것이며 어떤 방식의 사회정책화인가?</li> <li>6. 2012년 총, 대선 국면에서 어느 것을 우리 주장으로 할 수 있는가?</li> </ol>
--	---

## 2. 성평등복지국가 전략보고서 작성

계획	연초에 계획 없었음. 정세판단과 운동의 흐름 속에서 사업의 필요성 생김.
집행	<p><b>1. 필요성 및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여성운동의 포부에도 불구하고 여성운동의 복지정책개입이 협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고 여김. 시시각각 제출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여성의 시각으로 큰 틀에서 재구성하여 미래사회의 전망을 그리는 밑작업이 되고자 함.</li> <li>- 전문가결합과 외부여성단체, 젊은 세대 여성활동가 등으로 전략회의의 멤버를 다양하게 하여 내용적 풍부함과 차후 확산의 구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함.</li> </ul> <p><b>2.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 회의 구성</b></p> <p>성원 : 김인숙, 박봉정숙, 권미혁(여성연합), 오매(살림의료생협), 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정진주(노동건강???)</p> <p><b>3. 예산 : 강사비와 식사비 등 약 100여만원 소요 예상. 이숙진 이사의 100만원 쾌적으로 기금 확보.</b></p> <p><b>4. 진행내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회의 : 7월 27일(수) 전략보고서 회의 구성목적 공유, 운영방향 논의</li> <li>- 2차회의 : 8월 10일(수) “지속가능한 사회” (김은경 대표 (주)지속가능성센터 지우)</li> <li>- 3차회의 : 8월 23일(화) “건강보험 부과체계와 여성/가족” (이용갑,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사회학 박사)</li> <li>- 4차회의 : 9월 2일(금)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건의료 개혁 과제”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조교수)</li> <li>- 5차회의 : 9월 9일(금) “복지국가와 여성노동”(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li> <li>- 6차회의 : 9월 21일(수) “주거복지” (홍인옥, 전 도시연구소 연구원)</li> <li>- 7차회의 : 10월 11일(화) “연금체계와 여성”(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li> <li>- 8차회의 : 10월 19일(수) 추가해야할 의제논의와 보고서수위 및 정리방식논의</li> <li>- 9차회의 : 10월 25일(화) “복지국가의 조세체계와 합의” (윤홍식, 인하대 정책대학원)</li> <li>- 10차회의 : 11월 7일(월) 전략보고서 정리방향 논의 및 이후 활용계획</li> <li>- 11차회의 : 11월 16일(수) “한국교육의 현실과 21세기의 요구”(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장)</li> <li>- 12차회의 : 12월 5일(월) 전략보고서 분야별 페이퍼 검토회의(연금, 교육, 주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3차 회의 : 12월 20일 (화) 전략보고서 분야별 페이퍼 검토회의(건강, 노동, 돌봄, 서론, 조세 등)</li> <li>- 최종 회의 : 1월 6일(금) 최종 보고서 마무리 작업. 이후 발표방안 및 활용논의.</li> </ul>
--	--

## 회의체계

### I. 총평

본부와 지부 그리고 부설의 활동을 공유하고 주요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앙위원회는 올해 주요 현안과 공통사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퀴즈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보고는 논의에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긍정적이었으나 주요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민우회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방향을 함께 설정해가는 정책토론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중앙위원회의 상과 지역민우네트워킹의 상을 명확하게 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이 함께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사회는 올 해 핵심사업에 대해 깊이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업의 방향을 정립하고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핵심사업에 이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기획, 연구, 인터뷰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활동 결합력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상임집행위는 사안별 결정과 논의가 많아지면서 각 팀과 부설의 사업에 대한 검토나 의견 개선이 부족하였다. 각 사업에 대한 원활한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집자료를 회의 전에 미리 공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II. 사업집행

회의체계	집행
중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할: 본부, 지부의 활동을 공유하고, 주요 사업집행과 관련된 논의 사안을 토론, 심의한다.</li> <li>•구성 : 본부 대표, 사무처장, 부설기구 장, 생협 연합회장, 본부 팀장, 지부</li> </ul>

	<p>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횡수 : 분기별</li> <li>• 집행 : 4/8(금), 7/7(목), 10/21(목)</li> <li>• 내용 : 활동보고는 퀴즈로 대체하고, 현 사안과 공통사업을 중심으로 논의 진행</li> <li>• 중앙위 워크숍 : 11월 30일(수) 2011년 공통사업 평가 및 2012년 공통사업 주제 선정</li> </ul>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 민우회 주요 사업 및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li> <li>• 구성 : 김인숙, 박봉정숙, 백영경, 유경희, 유선영, 윤정숙, 이숙진, 장지연, 정영애, 최은순, 하승수 / 참관 : 주현정</li> <li>• 횡수 : 연 4회</li> <li>• 집행 : 1/12(화), 3/8(화), 7/4(월)</li> <li>• 내용 :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분기별 사업 보고 및 계획 승인, 재정사업 논의, 제24차 정기총회 위임 안건 처리, 한국여성민우회 복무에 관한 내규 개정, 팀별 집중 사업에 대한 방향 논의</li> </ul>
상임집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 본부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해 논의, 의결한다.</li> <li>• 구성 : 본부 대표, 처장, 부설기구의 장, 팀장</li> <li>• 횡수 : 정기 회의 2주에 1회</li> <li>• 집행 : 1/10, 2/7, 2/23, 3/10, 3/24, 4/6, 4/19, 5/17, 6/13, 6/28, 7/13, 7/26, 8/11, 8/23, 9/6, 9/23, 9/27, 10/10, 10/28, 11/11, 11/17, 11/21, 11/29, 12/8, 12/19</li> </ul>
굿모닝위민링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 : 민우회 상근활동가들의 소통과 교육의 자리 겸 월례조회.</li> <li>• 구성 : 사무처 및 성폭력상담소 전체 상근활동가</li> <li>• 횡수 : 월 1회</li> <li>• 집행 : 1/4, 2/8, 3/4, 4/6, 5/4, 6/8, 7/1, 8/3, 9/7, 10/6, 11/7, 12/6</li> <li>• 내용 : 신입 발표, 회원확대,</li> </ul>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업	집행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함.</li> <li>- 회의 : 3/17, 4/13, 5/11, 7/13, 8/10, 10/12, 11/9, 12/6</li> <li>- 10주년 기념 심포 및 후원행사 참여 : 6/9</li> <li>- 시민운동가대회 참여 : 9/29 ~ 10/1</li> </ul>
정치개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개혁법(안)을 마련하고 토론회와 의원 면담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함</li> <li>- 정치개혁위원회 회의 : 5/12, 6/30, 7/12, 7/22, 12/1, 12/6</li> <li>-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워크숍 : 7/5</li> <li>-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안 토론회 : 8/31</li> </ul>
유권자자유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권자의 자유가 보장되는 선거법 개정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네티즌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 활동을 펼침.</li> <li>- 4/28 선거법 개정(안) 논의</li> </ul>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사업평가(안)

## I. 사업목표

1. 성인지적관점의 지상파 및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여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2. 여성연예인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3. 미디어교육 영역과 대상을 확장하여 성평등한 미디어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4.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변화하는 방송 정책에 수용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제 발굴 및 대안을 마련한다.

## II.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2011년은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보수적 신문이 주축이 된 종합편성채널이 개국을 하여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한해였다. 이에 미디어운동본부는 지상파 방송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인권침해, 각종 차별 등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달의 나쁜 방송 프로그램 시즌2-지상파방송! 이게 최선입니까?'를 매달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해당 방송사에 개선을 촉구하였다. 특히 젊고 예쁜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기생이 된다는 설정의 SBS의 <신기생던>의 경우 이 드라마가 종영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해당 방송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또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방송한 입양아와 입양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5월의 나쁜 방송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 나아가 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고'를 받게 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4대강 찬양을 하고(특별생방송 4대강 새물결맞이), 이승만 대통령을 편파적인 시각으로 다룬 프로그램(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지상파방

송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개국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여성연예인의 사생활침해 동영상 뉴스를 반복적으로 보여준 종편채널인 <채널A-뉴스 830>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유료방송채널까지 놓치지 않고 시의성 있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방송제작자들에게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사례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이후 과제로 남았다.

-미디어운동본부는 2010년에 개소한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6월에는 홍대 앞에서 연극 '故 장자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시민법정 <분노의 목소리>를 공연하여 여성연예인 인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당일 많은 관람객이 함께 보고 다수의 언론에 소개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여성연예인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연예인 지망생이 몰려있는 대학에 배포하는 등 홍보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연계하여 대학의 연예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성연예인인권과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관련한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연예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기획사 실장에게 성추행 당한 연예인지망생에 대한 재판에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 받게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당한 여성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하나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2011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뉴미디어의 보급은 이용자의 편리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청소년들이 유해 어플리케이션 접속을 통해 성인 게임, 음란물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그 폐해 또한 나타나고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미디어 교육분과에서는 모바일 미디어에 대한 교안을 개발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바일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측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홍보 후 이틀 만에 120강의 강의가 다 마감되어 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실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호응도가 다른 미디어교육에 비해 높았다. 또한 삼년 연속 수원시청과 함께 '양성평등 미디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수원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심어주는데 기여 하였고 서대문구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여 미디어 교육을 꾸준히 확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리고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교육비를 모금하여 네티즌들에게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렇게 모금된 교육비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수도권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미디어운동본부의 미디어교육을 널리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1년은 케이블지상파 재전송 논란, KBS 수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 개국, 미디어랩 법안, 디지털 전환 등 수용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안들이 많았다. 미디어운동본부는 이러한 현안들에게서 수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특히 디지털 전환 정책과 관련하여 9개 시청자시민단체들을 모아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를 구성하고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 서명운동, 정책관련자 면담 등의 활동을 하여 디지털 전환 이후에 야기될 수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 지역인 제주를 방문하여 디지털 전환 사업의 실상과 문제점을 직접 조사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을 아날로그 직접수신 가구 100%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방송사가 광고를 직접적으로 영업 할 수 없도록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밖에도 2010년에 이어 합의를 하지 못하고 급기야 지상파 디지털 방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인 케이블지상파 재전송 논란에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수용자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등 수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회원들의 활동이 빛났던 한해였다. 미디어 교육분과 회원의 경우 스스로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고 끊임없이 교육 대상을 확장하고 내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미디어 교육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모니터분과 회원의 경우에도 모니터링 대상을 드라마와 연예오락에서 보도와 교양으로 까지 확대하여 내용을 다양화 하고 보는 시각을 넓혔다. 또한 많지 않은 인력으로 매달 나쁜방송프로그램2를 선정하고 더불어 모니터 보고서까지 내는 등 자신들의 역량을 120% 발휘하였다.

### Ⅲ. 각 주제별 사업

#### 1. 조직사업

계획	1. 후원 회원 모집 및 관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 후원 회원 조직</li> <li>2) CMS 시스템 관리</li> </ul> <p><b>2. 확대 실무회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하반기 실시</li> <li>2) 미디어운동본부의 사업과 전반적인 운영 논의</li> </ul> <p><b>3. 모니터분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1회 정기 모임 진행</li> <li>2) 성인지적 관점의 지상파 및 뉴미디어 관련 모니터링 실시</li> <li>3) 문제 프로그램 개선 활동</li> </ul> <p><b>4. 교육분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1회 정기 모임 진행</li> <li>2) 성인 대상 강의 교안 및 교재 개발</li> <li>3)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 실시</li> </ul> <p><b>5. 여성연예인인권지원 운영위원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분기별 정기 모임 진행</li> <li>2) 여성연예인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li> <li>3) 피해여성연예인 상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집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1. 후원 회원 모집 및 관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후원회원들에게 매달 온라인 소식지 발송</li> <li>2) CMS 매달 출금 및 관리</li> </ul> </li> <li><b>2. 확대 실무회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 : 권지연(모니터분과장), 김현희(교육분과장), 윤정주, 이운소</li> <li>2) 1차 회의 : 2/16일(수) 진행. 미디어운동본부 상반기 운영과 관련한 논의</li> <li>3) 2차 회의 : 9/7(수) 진행. 미디어운동본부 하반기 운영과 관련한 논의</li> </ul> </li> <li><b>3. 모니터분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1회 정기 모임 진행</li> <li>2) 성인지적 관점의 지상파 모니터링 실시</li> <li>3) 이달의 나쁜방송프로그램2 선정 및 발표</li> <li>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자 민원제기</li> </ul> </li> </ul>

	<p><b>4. 교육분과</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1회 정기 모임 진행</li> <li>2)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 및 중학생 대상 &lt;모바일 미디어바로보기&gt; 121강 실시</li> <li>3) 수원지역 초등학교, 중학생, 교사 대상 &lt;양성평등 미디어바로보기순회교육&gt; 113강 실시</li> <li>4) 서대문구지역 초등대상 &lt;미디어 바로보기&gt; 51강 실시</li> <li>5)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상 &lt;미디어 바로보기&gt; 5강 실시</li> <li>5) 성인대상 강의 &lt;여성과 미디어&gt; 교안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스터디</li> <li>6) &lt;모바일 미디어바로보기&gt; 강의를 위한 스터디 및 교안 개발</li> <li>7) &lt;초등대상 미디어바로보기&gt; 교안 업그레이드 실시</li> <li>8) &lt;양성평등 미디어바로보기&gt; 교안 업그레이드 실시</li> </ol> <p><b>5. 여성연예인인권지원 운영위원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23, 6/1 정기 모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석 : 조인섭 (변호사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이임혜경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조희정 (성폭력 상담원 / 성희롱예방교육 전문강사 /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 강혜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윤정주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li> <li>-논의 안건 : 여성연예인인권 가이드라인 홍보 방안, 연예인지망생 김은주 소송 지원 및 여성연예인인권개선 활동 관련 논의</li> </ul> </li> <li>2) 여성연예인권가이드라인 제작 자문</li> <li>3) &lt;여성연예인과 인권&gt; 강의 : 10/19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학생 대상 (강사 : 선종문 변호사 / 법무법인 현우)</li> <li>4) 연예인지망생 김은주(가명) 소송 지원 :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 됨.</li> </ol>
--	---

## 2. 정책사업

<p><b>계획</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의 New Normal 만들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과 폭력, 여성과 건강 등의 주제를 가지고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여 문제점을 찾아냄</li> <li>2) 대안적 모델 제시</li> <li>3) 패러디 물 등을 제작하여 인터넷 홍보</li> </ol> </li> <li>2. 시민미디어포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2회 시민미디어포럼 개최</li> </ol> </li> </ol>
------------------	---

	<p>2) 정책반영을 위한 의견서를 관련기관에 제출</p> <p>3. 디지털전환&amp;보편적 서비스 정책 감시</p> <p>1) 미디어정책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의제 발굴 및 대안 마련</p> <p>2) 대중 홍보</p> <p>4. 여성연예인인권지원</p> <p>1) 여성연예인인권 가이드라인 제작</p> <p>2) 인권침해 여성연예인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p> <p>3) 여성연예인들의 성적 착취 구조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p>
<p>집행</p>	<p>1. 미디어의 New Normal 만들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p> <p>1) ‘이달의 나쁜 방송 프로그램 시즌2-지상파방송! 이게 최선입니까?’를 선정</p> <p>2) 인권침해, 각종 차별,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 등을 기준으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모니터링</p> <p>3) 3월의 나쁜방송 : MBC 섹션TV 연예통신 4월의 나쁜방송 : SBS 신기생년 5월의 나쁜방송 : MBC 생방송 오늘 아침 8월의 나쁜방송 : KBS2 출발 드림팀 시즌2 9월의 나쁜방송 : MBC 아나운서 대격돌-최고의 머느릿감을 찾아라, KBS1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초대 대통령 이승만 10월의 나쁜방송 : KBS1 특별생방송 4대강 새물결 맞이 11월의 나쁜방송 : KBS1 지식콘서트 내일</p> <p>4) 이달의 나쁜방송 선정 후 언론보도</p> <p>5) 해당 방송사에 의견 제시</p> <p>2. 시민미디어포럼</p> <p>1) 제15차 시민미디어포럼 &lt;수용자의 관점에서 본 방송사 광고 직접 영업의 문제점&gt;</p> <p>-일시 : 10월 13일(목) 오후 2시-5시</p> <p>-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p> <p>-사회 : 김민기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교수</p> <p>-발제 : 지상파방송의 자회사 미디어랩 소유/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p> <p>-토론 :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p>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3. 디지털전환&보편적 서비스 정책 감시

- 1) 디지털전환 및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감시하기 위해 수용자 단체를 중심으로 연대 구성 (3차에 걸친 준비 모임 실시)
- 2)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출범식
  - 일시 및 장소 : 2011년 7월 6일(수) 오후 1시 (서울YMCA 2층 친교실)
  - 참여단체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사무국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1부 출범식
    - 인사말
    - 경과 및 사업 소개
    - 시청자선언
  - 2부 라운드테이블
    - 발제 : 국민은 '없고' 종료만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강혜란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토론 :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송환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이인한 (서울YMCA 노년연구회 회원)  
한석현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 3) 7/1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추진단> 및 <DTV코리아>에 디지털전환정책 및 직접수신환경구축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음
- 4) 8/11 오전 10시 <DTV코리아>와 간담회 개최
- 5) 9/1 오후 3시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전환추진단> 단장 및 실무자 면담
- 6) 10/2 오전11시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운 의원 면담
  - 디지털전환정책 및 직접수신환경 구축과 관련한 민주당 협조 당부
  - 디지털전환정책 결산 및 예산에 대한 의견서 보내고 2012년 예산에 반영해 주길 요청
- 7) 11/4 시민단체 <나눔과 미래>에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인 '두꺼비하우징'을 통해 개보수된 주택에 지상파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설비 제안
- 8) 11/21 예결소위 강기정 민주당 위원 디지털전환정책 예산에 대한 의견서 보내고

	<p>2012년 예산 반영 요청</p> <p>9) 토론회 &lt;디지털전환 정책, 이대로 좋은가&gt; 개최  -일시 : 2011년 11월 10일(목) 오후 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30호  -주최 : 김재운 의원실,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인사말 : 김재운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회 :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발제 : 시청자의 관점에서 본 국내 디지털 전환 정책의 현주소 및 개선 방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토론 : 김 혁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 실무위원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박종원 KBS 뉴미디어·테크놀로지본부 뉴미디어센터 뉴미디어기획부장  송상훈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융합정책실 팀장  신진규 DTV코리아 교육사업팀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p> <p>10) 기자회견 &lt;KBS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사는 2012년 디지털 난시청 해소 약속을 지켜라!&gt; 개최 및 거리서명 실시  -일시 : 2011년 11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 YMCA 친교실  -주최 :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p> <p>11) &lt;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gt; 블로그 운영  (<a href="http://blog.naver.com/watch_dtoa">http://blog.naver.com/watch_dtoa</a>)</p> <p><b>4. 여성연예인인권지원</b></p> <p>1) 여성연예인인권 가이드라인 제작</p> <p>2)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1주년 기념 토론회 &lt;여성연예인 인권 개선 방안 모색&gt;  -일시 : 2011년 6월 1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사회 : 유선영 (성공회대 교수)  -발제 1 : 여성연예인 성적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  -이수연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  -발제 2 : 여성연예인인권 가이드라인 구성 및 내용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p> <p>-토론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p>
--	---

	<p>김재련 (변호사)  서병기 (헤럴드경제 대중문화전문기자)  허 린 (배우)</p> <p>3) 여성연예인인권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 방송연예과, 실용음악과 등 여성연예인 및 여성연예인 지망생이 많은 학과에 배포</p> <p>4) 연예인 지망생 김은주(가명) 사건 소송 지원  -담당 : 조인섭 변호사  -2010. 10. 21 김은주(가명) 사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 함.  -2011. 1. 17. 기획사 대표 구속  -2011. 1. 27 김은주와 비슷한 다른 사건이 있어 서부지검에서는 이 사건들을 중부지검으로 이송하였고 이에 김은주 건은 다른 사건들과 함께 다뤄지게 됨.  -2011. 2. 24 중부지검에서 김은주와 기획사 대표와의 대질 조사가 있었음  -2011. 4. 11 재판에서 김은주가 피해자 진술을 함  -2011. 7. 22 피의자가 실형을 선고 받음</p> <p>5) ‘故 장자연 사건’ 시민법정 &lt;분노의 목소리&gt;  -일시 : 2011년 6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흥대 걷고싶은거리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침묵을깨는아름다운사람들  -순서  ·사회 : 오한숙희 (여성학자)  ·여는 마당 : 재즈밴드 공연과 박봉정숙(민우회 공동대표), 김금옥(여연 공동대표) 발언  ·시민 법정 : 극 ‘분노의 목소리’  ·닫는 마당 : 재능기부자 나온(민우회 회원) 공연, 심상정, 유지나 발언  ·현장에서 여성연예인 인권 개선을 위한 법 제정 서명을 받음.</p> <p>5. 제주 디지털전환 시범사업 실사  1) 일시 : 6월 29일~30일  2) 활동내용  -제주시 디지털방송 시청자 지원센터 방문 및 센터장 인터뷰  -제주시 아날로그 OFF 행사 참석  -디지털전환 이후 안테나 설치 현장 실사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디지털 전환 과정 및 실태 조사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에 활동을 보고하고 문제점에 대해 대안 모색</p>
--	---

**6. SBS미디어홀딩스 광고 직접영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

- 1) 일시 : 11월 3일(목) 오전 11시
- 2)장소 : 목동 SBS 앞
- 3) 참여단체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사단법인 보리,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4) 기자회견 직후 방송사 광고 직접 영업과 관련하여 SBS미디어홀딩스에 질의서 및 의견서를 보냄
- 5) 참여단체들과 SBS 재허가 거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하기로 함
- 6) <기자회견문> Remember 2004! 2004년을 기억하라! 우리 시청자단체는 SBS미디어홀딩스의 광고직접영업을 허용할 수 없다!

**7. 시청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디어 의제 2011 발표**

- 1) 2/10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과 공동으로 4대 핵심과제 및 10대 세부 과제를 발표
- 2) 4대 핵심과제
  -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자유를 중심에 둔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 경쟁 가속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방송의 제도화, 공영방송 정상화
  - 종편 출범에 따른 저널리즘의 황폐화 견제 수단 마련
  - 콘텐츠 중심, 시청자이용자 중심 미디어정책 견인
- 3) 10대 세부과제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임 저지, 공공성 중심 위원 선임
  -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간자율심의기구 설립
  - 제한적 미디어렐 경쟁체계, 종편의 직접 영업 금지
  - 공공서비스방송을 제도화, 전파사용자로서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히 함
  - 수신료위원회 설치
  - 디지털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환경 구축 및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의무화(2012년 일몰제)
  - 무료 다채널 서비스 허용
  - 콘텐츠 중심의 유료방송 선순환 구조 마련
  - 간접광고의 합법화에 따른 견제장치 마련
  - 방송광고 사전심의 불철저 이행 엄단

**8. 모니터 보고서 발행 및 언론보도**

- 1) 지상파 3사 메인뉴스의 사건·사고 보도 화면분석
- 2) 도시 중산층의 여성을 말한다-KBS 2TV <여성공감>, <생활의 발견 오감도>를

	<p>보고</p> <p>3) 갈등만을 부각시킨 무상급식 주민투표 보도태도-지상파 3사 메인뉴스를 중심으로</p> <p>4) &lt;도가니&gt; 그 후, 지상파 3사는 성폭력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가?-불안감만 조성하는 TV 뉴스</p> <p>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민원</p> <p>1) 2/25에 방송된 KBS 1TV &lt;소비자 고발-'현장추적! 초고가 부적의 진실&gt;에 관련된 방송민원을 내고 이후 이 프로그램은 경고 조치를 받음</p> <p>2) 4/27에 방송된 MBC &lt;생방송 오늘 아침-긴급취재&gt;에 입양아와 입양가족의 부정적인 내용 및 불에 탄 시신을 보여주어 방송민원을 냄. 이후 이 프로그램은 경고 조치 받음</p> <p>3) 12/7에 방송된 채널A 뉴스830 'A양 비디오' 관련 뉴스</p> <p>10. 성명서 및 논평 발표</p> <p>-3/4 &lt;성명&gt; 이보다 더한 막장 드라마는 없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 결정을 철회하라!</p> <p>-3/23 &lt;논평&gt; 방통위의 '지상파방송 한시적 의무재송신' 안을 지지한다</p> <p>-10/7 &lt;성명&gt; 민주당은 정신차리고 1공영 다민영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p> <p>-10/31&lt;성명&gt; 지상파 방송 재전송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p> <p>-11/15 &lt;성명&gt; 시청자를 불모로 한 재전송 중단 협박을 당장 그만둬라!</p> <p>-11/29 &lt;논평&gt; 시청자를 불모로 한 지상파 HD 방송 중단을 당장 그만둬라!</p>
--	--

### 3. 교육사업

<p>계획</p>	<p>1.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모니터링 대회</p> <p>1) 성평등적 관점의 모니터링 글쓰기 대회 개최</p> <p>2. 초중고 대상 미디어 바로보기</p> <p>1) 초중고 대상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p> <p>2)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성과 미디어 교육</p> <p>3)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미디어교육 개발 노력</p> <p>3. 여성과 미디어</p> <p>1) 미디어 속의 성과 여성에 대한 일반 성인 강좌</p>
<p>집행</p>	<p>1. 초등학생 대상 미디어 모니터링 대회</p> <p>1) 접수 : 2010년 10월 10일 ~ 12월 2일</p>



	<p>2) 1차 심사 : 2010년 12월 12일 ~ 13일</p> <p>3) 최종 심사 : 2010년 12월 15일</p> <p>4) 응모 자격 : 초등학교 학생 누구나</p> <p>5) 공모 내용 : TV, 영화, 광고, 게임 등에서 나타나는 성평등 및 성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비평문</p> <p>6) 심사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 선정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li> <li>-주제 전달의 명확성</li> <li>-문장력 및 완성도</li> </ul> <p>7) 심사 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초등학교 대상 비평문 공모</li> <li>-2단계 : 1단계에서 응모된 작품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최종 후보작 선정</li> <li>-3단계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lt;미디어교육분과&gt;와 &lt;모니터분과&gt;에서 최종 수상작 선정</li> </ul> <p>8) 2011 초등학교 대상 미디어 모니터링 대회 시상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후 3시</li> <li>-장소 : 목동 방송회관 회의장</li> <li>-프로그램</l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2011 초등학교 대상 미디어 모니터링 대회&gt; 시상</li> <li>·축하공연 : 큐트걸스 (나무와 숲 지역아동센터 합창단), 한태주(오카리나 연주자)</li> </ul> </ul> <p>9) 수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소연 은어송초등학교 4학년 2반 : 남자아이가 핑크색, 여자아이가 파란색이라면!</li> <li>-김소영 구일초등학교 4학년 6반 : 내가 좋아하는 색은 파랑색이야!</li> <li>-김수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6학년 1반 : 운동하는 여자도 있어요!</li> <li>-김유정 냉정초등학교 6학년 7반 : 성차별 문제점</li> <li>-송지혜 모당초등학교 6학년 3반 : 개그 “언제까지 똥똥하고 못생긴 여자를 웃음거리로 삼을 것인가?”</li> </ul> <p>2. 초중고 대상 미디어 바로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원지역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교사 대상 &lt;양성평등 미디어바로보기순회교육&gt; 113강 실시</li> <li>2) 서대문구지역 초등대상 &lt;미디어 바로보기&gt; 51강 실시</li> <li>3) 서울 구산초(4학년), 안양 석수초(5, 6학년) 미디어 바로보기 및 모바일 바로보기 교육 실시</li> </ol>
--	--

	<p><b>3. 여성과 미디어</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인 대상 &lt;여성과 섹슈얼리티&gt; 강의를 위해 스터디 진행</li> <li>2) 전국 성폭력상담소에 강의 홍보</li> <li>3) 강화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안양여성의전화, 정왕사회복지관 등에서 강의 실시</li> </ol> <p><b>4. 2011 모바일 미디어 바로보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2월 1일~27일 : &lt;2011 모바일 미디어 바로보기&gt; 교육을 청덕중, 일산동중, 산남중, 성남여중, 목동중, 삼각산초 등 총 121강 실시</li> <li>2) 스마트 폰 중심의 &lt;모바일 미디어바로보기&gt; 강의 내용 및 교안 개발</li> <li>3) 기존의 2교시 수업에서 탈피해 1교시 수업과 2교시 수업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안 개발</li> <li>4) 홍보 이틀 후 전 강좌가 마감되었으며 이후에도 학교에서 많은 문의 사항과 교육 요청이 있었음</li> </ol> <p><b>5. 해피빈 후원 지역아동센터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 일정 : 8/24 일산 동녘지역아동센터 8/31 인천 으라차차지역아동센터 9/8 인천 논현지역아동센터 9/7 일산 밀알지역아동센터 10/21 인천 온세미로지역아동센터</li> <li>2) 모금 일정 : 4월~7월</li> </ol> <p><b>6. 제1회 시민교육 박람회 참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9/20, 9/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시민교육 박람회에 참여하여 2010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 &lt;‘원래 그래’를 뒤집자&gt;에 대해 발표 및 전시 진행</li> <li>2) 장려상 수상</li> </ol>
--	--

#### 4. 홍보사업

<p>계획</p>	<p><b>1. 미디어운동본부 홈페이지 관리</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및 자료 업데이트</li> <li>2) 핵심 활동가 커뮤니티 활성화</li> <li>3) 미디어운동본부 정책 및 활동 홍보</li> </ol>
-----------	---

	<p>2. 온라인 소식지 발송</p> <p>1) 월 1회 미디어운동본부의 활동 내용을 소식지로 만들어 미디어운동본부 후원 회원 및 관련 단체에 발송</p>
집행	<p>1. 미디어운동본부 홈페이지 관리</p> <p>1) 이달의나쁜방송프로그램 시즌2, 모니터 보고서, 시민미디어포럼 자료, 미디어운동본부 관련 기사 등록, 언론관련 이슈 업데이트</p> <p>2) 미디어 교육분과 및 모니터분과 분과원들의 커뮤니티 활성화</p> <p>3) 분과원들의 활발한 정보 공유의 장이 됨</p> <p>2. 온라인 소식지 발송</p> <p>1) 3, 4, 5, 7, 9, 10, 11, 12월 미디어운동본부의 활동 내용을 소식지로 만들어 미디어운동본부 후원 회원 및 관련 단체에 발송</p> <p>2) 미디어운동본부의 활동을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옴</p>

## 5. 연대사업

계획	<p>1. 미디어행동</p> <p>1) 격주 1회 집행위원회</p> <p>2) 미디어정책 이슈 개발 및 대응활동</p>
집행	<p>1. 미디어행동</p> <p>1) 격주 1회 집행위원회</p> <p>2) 미디어정책 이슈 개발 및 대응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0 방송통신위원회 3년 평가 토론회</li> <li>-조중동 종편 특혜 저지 운동</li> <li>-KBS 수신료 인상 거부 운동</li> <li>-SBS, MBC 광고 직접영업 대응 활동</li> <li>-미디어랩 관련 대응 활동</li> <li>-KBS 도청 의혹 진상 조사 관련</li> </ul> <p>3) 기자회견, 논평 및 성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6 [논평] 희망 불씨 지퍼준 '날라리 외부세력'</li> <li>-1/27 [기자회견] 조중동 방송 퇴출 무한행동 1차 투쟁선포식</li> <li>-1/28 [논평] 불공정 심사 감추기 위해 국민 알권리 우롱하는 방통위</li> <li>-1/31 방통위의 종편심사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제출</li> <li>-2/8 [논평] 방통위는 수신료 알기알부할 권한 없다</li> <li>-2/15 '종합편성채널, 언론, 의료, 교육,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다' 토론회 개최</li> <li>-2/17 [기자회견] 수신료는 국민에게, 최시중은 집으로</li> </ul>

	<p>-2/21 [논평] 2기 방송통신위원의 자격</p> <p>-3/3 [논평] 민주당 2기 방통위원 추천을 보며</p> <p>-3/8 [논평] 또 최시중이 이끄는 방통위 2기</p> <p>-3/8 [논평] PD수첩 불방사태와 ‘조중동’만도 못한 김재철의 MBC</p> <p>-3/8 [기자회견문] 조중동방송 1차 불매운동 선포식 관리자</p> <p>-3/9 [논평] 민주당은 ‘조중동 방송’을 위한 수신료 인상 불가를 재확인하라!</p> <p>-3/17 [성명] 지나가던 소도 웃을 최시중씨의 궤변 관리자</p> <p>-3/18 [논평] 제 얼굴에 침 뱉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삼성 X파일 보도유죄 판결</p> <p>-3/18 [논평] 공영방송 MBC 황폐화의 종결자, 엄기영</p> <p>-4/18 [논평] 수신료 공청회, 한나라당에 끌려다니는 민주당</p> <p>-4/19 [논평] 수신료 인상에 눈이 먼 KBS의 추태</p> <p>-4/22 [논평] KBS에 관한 최시중식 통제와 김인규식 통제</p> <p>-4/28 [논평]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p> <p>-7/01 [논평] KBS 이사회는 즉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p> <p>-7/07 [논평] 이원창 씨 코바코 포기하세요</p> <p>-7/11 [기자회견문] KBS이사회는 즉시 도청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p> <p>-7/12 [결의문] 이제 우리는 KBS를 청산하고자 한다!</p> <p>-7/13 [논평] 방통심의위는 회의 방청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p> <p>-7/22 [논평] 언론약법 날치기 2년의 교훈</p> <p>-7/22 [기자회견] 언론약법 날치기 2년 규탄, 위법특혜 조중동방송 퇴출</p> <p>-7/25 [기자회견] 친일비호 독재자 이승만 미화방송 강행 KBS 규탄기자회견</p> <p>-7/29 [논평] 김재철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p> <p>-8/5 [논평] 김재철씨, MBC를 완구용품 정도로 가지고 놀며 ‘공갈’치다!</p> <p>-8/9 [논평] 방송통신위원회의 진주-창원 MBC 강제합병 허가는 원천무효다</p> <p>-8/22 [논평] 언론노동자의 총파업투쟁 지지한다</p> <p>-10/6 [성명] 민주당 김재윤/전병헌/전혜숙 의원에게 묻는다!</p> <p>-10/14 [성명] 향후, 방통위의 권고안은 무시하면 그만인가?</p> <p>-10/19 [논평] 유권자 입 틀어막는 트위터 유죄 판결</p> <p>-12/6 [논평] 방심위의 SNS 전담팀 신설, 국민불신만 자초할 뿐이다</p> <p>-12/9 [기자회견문] 1% 위한 조중동 방송, 국민 99%가 반대한다.</p> <p><b>2. 토론회 &lt;TV 속 간접광고, 이대로 좋은가&gt; 개최</b></p> <p>-일시 : 2011년 12월13일(화) 오후2시</p> <p>-장소 : 서울YMCA 2층 친교실</p> <p>-주관 : 서울YMCA, 언론인권센터</p>
--	--

- 주최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 사단법인보리,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사회 : 김민기 교수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 발제 : 한석현 팀장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심영섭 박사 (언문학 박사,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 토론 : 김형성 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준현 변호사 (우리로법률사무소)  
문철수 교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윤정주 소장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3. 토론회 <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년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 일시 : 2011년 5월 12일(목) 오후 2시 ~ 6시
- 장소 :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 세미나실(종로구 인사동 소재)
- 주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서울YMCA·매비우스·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언론인권센터
- 사회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1부
  - 발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윤여진/언론인권센터)  
방송심의 사례분석 (주정순/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 토론 : 방송심의 1기평가 (백미숙/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융합환경에서의 방송심의 방향 (정준희/중앙대 신문방송학과)
- 2부
  - 발제 : 통신심의 사례분석 (정민경/진보네트워크)  
통신심의의 위헌성과 대안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토론 : 통신심의 1기 평가 (엄주용/전 방송통신심의위원)  
민간자율심의기구의 방향 (송경재/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회)

### 4.故장자연 편지 관련 여성단체 연대

- 3/8 故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 ‘故장자연씨 사건을 재수사 하여 진실을 밝혀라!’ 발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연예인인권지원서포터즈(침묵을 깨는 아름다운 사람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3/10 故장자연 편지 관련 대응 모색을 위한 1차 대책 회의 개최
  - 참석자 : 김금옥(여연), 윤정주(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미례(성매매지원연대), 배수민(여연), 김인숙(민변), 란희(여전), 토리(한국성폭).
  - 논의 사항 : 성접대가 아닌 ‘성착취’, ‘성폭력’ 등의 용어로 바꾸자

	<p>: 추모 문화제 개최에 대한 역할 분담(이는 이후 광화문 침묵시위로 바뀜)</p> <p>: ‘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아고라 서명’ 개설 및 배너 홍보</p> <p>-3/15 2차 대책회의 개최</p> <p>·참석자: 김금옥(여연), 김인숙(민변), 란희(여전), 백수민(여연), 오한숙희(침묵아사), 유지나(침묵아사), 윤정주(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이애경(이프토피아), 전보경(한소리회), 정미래(성매매해결전국연대), 토리(한국성폭)</p> <p>·논의 사항 : 여성연예인인권 운동의 장기적 비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p> <p style="padding-left: 20px;">① 특검요구</p> <p style="padding-left: 20px;">② 법제정운동</p> <p style="padding-left: 20px;">③ 연예인sos센터강화</p> <p>: 서명운동 : 현재 진행중인 아고라 서명 카페 연동은 여성의전화에서 작업.</p> <p>: 국과수발표에 따른 논평 작성</p> <p>-3/16 국가수 및 경찰 발표에 대해 논평 ‘장자연은 살아있다’ 발표</p> <p>-3/17 광화문에서 여전, 민우회, 한국성폭, 여연 등의 활동가들이 모여 故 장자연 사건 특검을 요구하는 침묵 시위를 함</p> <p>-3/10~27 다음 아고라에서 사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원 진행 (약 4400명가량 서명)</p> <p><b>5. 아시아지역 여성 단체 활동가 방문</b></p> <p>1)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아시아여성 연대를 위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 여성 단체 활동가를 초청함. 이들 여성활동가들이 미디어운동본부에 방문해 미디어 교육, 미디어 모니터링,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의 활동을 공유함.</p>
--	---

## 6. 시상사업

<b>계획</b>	<p>1. 푸른미디어상</p> <p>1)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회적인 차별 개선에 기여한 프로그램 발굴</p> <p>2) 소신 있는 제작자 격려</p> <p>3)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제시</p>
<b>집행</b>	<p>1. 푸른미디어상</p> <p>1) 1단계 추천</p> <p>·1차 추천 기간 : 2011년 11월 9일 ~ 25일 (17일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차 추천 대상 : 일반인을 포함해 각 방송사 제작본부,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 및 심의실 관계자, 각 언론사 방송담당기자, 방송유관정보지 기자 등</li> <li>·총 51개 작품이 추천됨</li> <li>2) 2단계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니터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모니터분과원</li> <li>·모니터기간 : 2011년 11월 30일(월) ~ 2011년 12월 4일(일)</li> <li>·결과 : 모니터결과회의를 통해 1차 추천 프로그램 중 분야별 3배수 선정</li> </ul> </li> <li>3) 3단계 수상작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심사 일시 : 2011년 12월 9일 (목) 오후 4시</li> <li>·회의장소 : 미디어운동본부 회의실</li> <li>·심사위원 :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li> <li>안정임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li> <li>윤정주 (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li> <li>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li> </ul> </li> </ul> </li> <li>4) 수상자 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1 푸른미디어상 언어賞 : 김원희</li> <li>·2011 푸른미디어상 어린이賞 : EBS &lt;TV로 보는 원작동화&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 : 이은정 / 연출 : 안소진, 이호</li> </ul> </li> <li>·2011 푸른미디어상 청소년賞 : 해당작 없음</li> <li>·2010 푸른미디어상 가족賞 : MBC &lt;무한도전-나비효과&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출 김태호, 김민정 / 작가 김정은, 배경숙, 이지연, 이지예, 장미, 정지혜, 최혜정</li> </ul> </li> <li>·2011년 푸른미디어상 특별賞 : SBS &lt;SBS스페셜-화장, 마음을 훔치다&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출 황승환 / 조연출 조정래 / 작가 홍정아 김지희</li> </ul> </li> <li>·2011년 푸른미디어상 특별賞 : KBC &lt;해방되지 못한 영혼, 조선여자근로정신대&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출 김한민 / 촬영 이상원 / 구성 이국연</li> </ul> </li> </ul> </li> <li>5) 2011 푸른미디어상 시상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12월 21일(수) 오후 3시</li> <li>-장소 : 목동 방송회관 회의장</li> <li>-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사위원 소개 및 경과 보고</li> <li>·각 부문별 시상 및 소감 듣기</li> <li>·축하공연 : 김거지 (제22회 유재하음악경연대회 대상)</li> </ul> </li> </ul> </li> </ul>
--	--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사업평가(안)

## I. 사업총평

### 1. 2011년 사업목표

- 1) 최근 5년간의 상담 분석을 통해 성폭력 유형, 상담내용의 변화지점을 발견하고 피해자 지원 방향을 모색한다.
- 2) 지부 성폭력상담소들과 함께 지역공동체에서 집행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정책에 대해 점검하고 정부중심의 성폭력예방정책 방향에 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 3) ‘몰래카메라 피해예방을 위한 액션 I·II’ 캠페인을 통해 몰래카메라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또한 치유상담, 포털사이트 공개상담 등 성폭력 생존자 임파워먼트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만든다.
- 4) 일상 속 성문화 변화 및 확산을 위한 교육, 강좌, 소책자 등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실천 활동을 도모한다.

### 2. 목표에 따른 평가 및 과제

1) 상담소는 반성폭력 운동을 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점검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설정, 구체적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해 반성폭력 운동 담론 모색을 위한 사전 작업에서는 장기적인 안목 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리고 올 해는 지난 5년간의 상담 내용을 정리하면서 성폭력 피해 유형과 상담 내용의 변화지점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피해자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총 5,785개의 상담일지를 검토, 통계와 내용 분석 작업을 하였고 이와 함께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 상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을 드러내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자 ‘5,785개의 물음표를 풀다’라는 이름의 토



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작업은 매 해 간략한 상담 통계와 주요 경향이나 고민들을 드러내고 공유해온 바는 있으나 5년이라는 시간동안 축적된 방대한 상담 자료를 정리하며 상담 활동을 통해 드러난 성폭력 현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고민의 계기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분석이 이루어진 5년의 기간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담 내용 분석은 현재 사회적으로 구성된 논의의 흐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그간 상담소 활동을 통해 산발적으로 드러났던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고민들은 크게 ① 아동 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감시권 강화 흐름, ② 성폭력 관련 개념에 대한 점검, ③ 여성에게 강요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성 규범을 해체하기 위한 조건을 발굴하는 것의 중요성 등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앞으로 상담소 활동을 계획하는데 나침반 역할이 될 중요한 성과이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이나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우선 5년간의 상담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성폭력 유형이나 상담 내용의 변화 지점 도출을 기대하였으나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한 채 어려움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세밀한 분석 시도와 고민을 보다 심화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해 인과관계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담소의 상담 활동과 여타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역량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해나갈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짚어내는 작업,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에 대한 고민은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논의가 요구되는 과제이며 지속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상담 분석과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과제 설정을 향후 활동에 실천적인 계획과 과감한 도전으로 잘 기획하고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조\*\*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아동이나 특정한 약자에 대한 보호담론으로 성폭력 정책이 확산되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 또한 강화되며 다양한 성폭력 상황에 대한 몰이해로 이어지는 것을 상담현장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예방에 대한 정부정책 모니터링과 평가 속에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가 명시되면서 전국의 행정단위마다 녹색어머니회, 배움터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어머니폴리스, 실버잡, 사회복지관, 지역 단

체 등의 지역연대가 구성되어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에 정부의 각 행정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예방 사업들이 본래 목적인 성폭력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적절한지, 지역연대 구성원들은 본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을 살피고 실효성 있는 성폭력정책을 만들어가는 역할도 중요하다는 판단 속에서 민우회 지부 본부 공동사업으로 선정하고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기획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을 기획하면서 본부가 그리고 있던 상과 사업의 방향(아동성폭력 정책 제언)이 지부의 욕구(아동지킴이집 실태조사)와는 잘 맞지 않아 본부 상담소의 의지가 약화되었고, 때문에 공동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본부의 역할인 적극적인 추동과 고민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결국 애초 계획했던 각 지부에서 조사한 현황을 토대로 한 정책 제언 토론회를 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한 몇 개의 지부에서만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지부 본부 공동사업으로서 진행에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의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성폭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5년 상담 통계 분석 및 전망 찾기 토론회'에서 놓치지 않고 반영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논의 진전이 있었다.

올해의 논의들을 이어 가기 위해 정부 정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모으고 법 처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의 실효성 등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성폭력정책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부 본부 공동사업 진행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 판단, 사업에 대한 욕구 확인, 예산의 확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체 동력 등의 사전 확인 과정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과정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구체적 논의와 참여, 지역과 본부 역할의 구체적인 조율 등은 이후 지부본부 공동사업 진행에 있어 반드시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3) [몰래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액션 I·II]은 몰래카메라 유포(협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작년에 이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몰래카메라가 담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여성의 성경험을 비난하는 잘못된 문화를 짚고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유포되면서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확장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던 애초의 기획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때문에 2011년에는 캠페인의 목표를 '성관계 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대처'로 두고 피해 중단을 위한 피해자 행동요령과 몰래카메라 촬영물 다운로드와 협박/유포하는 가해 행동 중단을 위한 행동요령 등의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였다. 또한 대응 매뉴얼을 온라인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쇄물로 제작하여 상담소, 토론회, 교육 등에서 배포하였다. 몰래카

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액션은 대응 매뉴얼의 확산 뿐 아니라 대응을 위한 노하우 모집과 공유를 통해 성관계 촬영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관계 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대중적 인식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적극적인 이슈화의 방법을 기획해야 했으나 피해 사례를 알리는 것의 부담, 선정적인 접근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대응 중심으로 흐른 한계가 있다. 이는 곧 몰래카메라 피해 예방을 위한 액션이 캠페인으로 기획되었으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 문제점, 이슈에 대한 확산의 미흡함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대응력을 키우는 것 뿐 아니라 피해의 실상을 알리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상담소의 과제로 남는다.

4) 상담소는 연속적으로 진행해 온 성문화 운동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학교 성교육, 거리성교육, 성폭력 관련 일반 및 심화교육, 가해자교육 등 교육·출강 활동을 성실하게 진행하는 한편 대중 교육인 기획 강좌를 새롭게 시도하여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장하였다. 또한 멋진 하루, 성교육 교구개발 기획단 활동, 명랑성생활백서 워크북 발간 등 다채로운 실천 활동을 함으로써 성문화 변화의 기치를 올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다.

[학교 성교육과 출강 교육]은 대상과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했기에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적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설정한 목표에 부합한 활동을 하였다. 여기에 더해 대중과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시도한 것이 2차례 진행 된 [기획강좌]이다. 이는 상담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다. 1차 기획강좌는 상담소 활동에 아이디어를 구할 수 있는 ‘여성주의와 법’이란 주제로 기획, 타 단체 및 상담소의 활동가들과 만날 수 있는 교육이었기에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에 힘을 얻어 소통의 장을 보다 확장하고자 다시 한 번 기획되었던 총 3강의 2차 기획강좌는 시의 적절한 주제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며 대중 교육으로써 상담소와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되었다. 하지만 기획강좌는 짧은 회기로 진행 됐기에 교육을 들었던 참가자들이 상담소로 유입되거나 활동으로 이어지는 관계의 연속성을 갖기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후일의 대중교육에서는 이를 놓치지 않고 고려해 대중과의 접점을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활동으로의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갖는 고리를 마련해야 하겠다.

일상의 성·성문화에 대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수다의 장인 [섹슈얼리티 놀자, 멋진하루]는 3년간 진행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 해의 경우, 연초에 주제를 기획, 일정과 구성 안내를 하였고 중간평가라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연간 주제를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시의성을 살리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홍보 기간의 문제, 기획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매년 새로운 주제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

는 수다의 장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성적의사소통 문화 확산을 위한 [명랑성생활백서] 소책자 발간 사업은 회원으로 구성된 기획단이 기획부터 내용 구성, 삽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활동이 함께 했다는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명랑성생활백서가 우리교육 별책부록으로 배포되도록 하여 노력한 것은 문화와 인식 변화라는 기획 의도에 잘 맞았다고 평가된다. 다만 해피빈 모금, 물품 후원, 인쇄 후원을 받기 위한 과정 상의 어려움으로 발간 시기가 늦어졌고, 발간을 알리는 홍보를 활발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의 문제와 재정마련을 사업수행 속도에 맞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조직사업\_ 회의

#### 1) 사업명: 자문회의

계획	·목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담지원 및 반성폭력운동의 내용을 풍부히 한다. ·내용: 상담활동, 반성폭력 활동에 대한 자문
집행	·자문위원 : 고경심(메이산부인과), 김수정(법무법인 지향), 신동원(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이근덕(다미신경정신과), 전지홍(전지홍 신경정신과), 조인섭(법무법인 C&C), 최보문(가톨릭의대 인문사회외과), 윤지영(형사정책연구원) ·상담에 필요한 법률 등의 일상적 자문과 연계, 강의 등을 통해 상담지원의 효율성을 높임.

#### 2) 사업명: 운영위원회

계획	·목표: 상담소 사업 내용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 ·내용: 상담소 활동 방향, 상담소의 운영, 정책사업 등에 대한 논의
집행	1차 ·일시 : 2011년 8월 12일 금요일 오후1시 ·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 ·참석 : 유경희, 장영숙, 이임혜경, 정하경주 ·내용 : 11년 1~7월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8~12월 사업계획(안) 검토, 뮤지컬 빨래 진행사항 공유

	<p>2차</p> <p>·일시 : 2011년 12월 14일 수요일 오후3시</p> <p>·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p> <p>·참석 : 유경희, 임재련, 장영숙, 황금소영, 이임혜경, 정하경주, 이선미1, 이선미2, 최김하나</p> <p>·내용 : 11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안), 12년 사업계획(안) 검토, 총회 계획 공유 등</p>
--	---

### 3) 사업명: 민우상담네트워크

계획	<p>·목표: 민우회 지부 상담소와의 워크숍을 통해 민우회 상담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연대를 꾀한다.</p> <p>·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폭력 이슈에 대한 공동사업 진행 및 여성주의 상담운동의 방향과 원칙 공유, 성교육이나 성폭력 관련법 등 하나의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정리</li> <li>2. 공유된 논의가 확장되는 워크숍 운영</li> </ol>
집행	<p>1차</p> <p>·일시 : 2011년 3월 2일 수요일 12시-3시30분</p> <p>·장소 : 민우회 회의실</p> <p>·참석 : 고양(이소희),군포(심용선,박선인),광주(허정순),진주(강문순),파주(안선희),본부(이임혜경, 정하경주)</p> <p>·내용 : 각 상담소, 쉼터 상반기 사업계획공유,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대응 공유, 여성부 인센티브반납 대응 공유</p> <p>2차</p> <p>·일시 : 2011년 9월 8일 목요일 오후12시</p> <p>·장소 :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파주성폭력상담소</p> <p>·참석 : 고양(이소희),군포(심용선),광주(허정순),진주(강문순),파주(안선희),본부(이임혜경, 정하경주), 하남(이여로), 다솜누리(박영희)</p> <p>·내용 : 여성부 관련 이슈 공유 및 방향 논의, 진행 사업 공유, 성폭법에서 강간치상의 범위에 대한 법률개정운동 제안(파주성폭력상담소) 등</p>

## 2. 조직사업\_ 모임

### 1) 사업명: 성교육강사모임

계획	·목표: 기존 성교육 강사모임의 역량강화와 신입세미나를 통한 신입강사의 유입 및 훈
----	--

	<p>련으로 강사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교육을 활성화한다.</p> <p>·내용:</p> <p>1. 여성주의 인식, 강의기법, 강의소재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강의 구조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 마련</p>
집행	<p>·일시 : 2011년 7월 7일 목요일 오전10시</p> <p>·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회의실</p> <p>·참석 : 김영애, 이선미1, 이선미2, 정하경주, 조희정, 최김하나</p> <p>·내용 : 연간 교육 일정 공유 및 강의안 논의</p> <p>1. 대상에 따른 주제 논의: 고등학교 1학년 여/남고 대상에 따른 주제 구성</p> <p>2. 강의 소재 공유 및 개요안 구성</p> <p>: 영상자료 및 기타 소재 공유</p>

## 2) 사업명: 치유상담모임

계획	<p>·목표: 성폭력 피해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치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사례논의와 스터디를 진행한다.</p> <p>·내용</p> <p>1. 상담 사례논의</p> <p>2. 임파워먼트를 위한 스터디</p> <p>3. 신입상담원을 위한 상담 준비 스터디</p>
집행	<p>·일시 : 1월 13일, 1월 27일, 2월 10일, 2월 17일, 3월 10일, 4월 14일, 4월 28일, 5월 12일, 5월 26일, 6월 9일, 7월 7일, 7월 26일, 8월 10일, 8월 24일, 9월 7일, 11월 2일</p> <p>·참석 : 권현주, 이정숙, 이인숙, 박윤정, 박종숙, 이해영, 황금소영, 이선미</p> <p>·내용: &lt;감정자본주의와 치유문화&gt; 세미나, 여성영화제 '소용돌이 속에서' 관람, 영화 '카모메 식당' 관람 후 여성공동체와 여성연대에 대한 이야기, 봄나들이, 연속 면접 상담 사례스터디, 치유상담매뉴얼 작업</p>

## 3. 일상 속의 성/ 성문화 사업

### 1) 사업명: 명랑성생활백서

계획	<p>·목표 :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유롭고 솔직한 성적의사소통 문화를 제언하고 확산한다.</p> <p>·내용 :</p> <p>1. 명랑한 성 생활 에피소드를 주제로 한 웹툰과 올바른 성 지식 정보 등을 담은 소책자 제작을 위한 모금</p>
----	---

	<p>2. 소책자 제작</p> <p>3. 소책자 배포 및 홍보</p>
집행	<p>1. 기획회의</p> <p>·일시 : 2011년 2월 9일, 2월 17일, 2월 22일, 3월 10일</p> <p>·장소 : 민우회 회의실</p> <p>·참석 : 달개비, 물결, 용가리, 하나</p> <p>·내용 : 명랑성생활백서 소책자 목차 기획</p> <p>2. 모금</p> <p>1) 해피빈 모금함</p> <p>·일시 : 2011년 3월 23일~12월31일</p> <p>·내용 : 목표액 3,000,000원 중 310,600원 모금(2011.12.7 현재)</p> <p>2011년 6월 13일 네이버 캐스트 메인에 모금함 홍보됨.</p> <p>2) 물품 후원</p> <p>유니더스 코리아에 후원요청서 발송해서 배포용 콘돔 2천개 후원 받음</p> <p>3) 인쇄 후원</p> <p>: 우리교육(출판사)에서 1천부 인쇄 지원 및 계간지 겨울호 부록으로 실림.</p> <p>: 2011년 11월 30일 출판.</p> <p>3. 명랑성생활백서 발간</p>

## 2) 사업명: 몰래카메라 피해예방을 위한 액션 I · II

계획	<p><b>·목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피해를 알리고, 대응방법을 적극적으로 배포한다.</li> <li>2. 몰래카메라가 피해로 구성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피해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점 모색하기</li> </ol> <p><b>·내용</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몰래카메라 피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상담사례분석과 몰래카메라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li> <li>- 각 분야의 제언을 통해 상황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한다.</li> </ul> </li> </ol>
----	--

	<p>2. 대응방법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 대응(유포되었을 때, 협박받을 때), 유포시키거나 다운받는 사람 대응을 온라인을 통해 배포한다.</li> </ul>
집행	<p>1. 몰래카메라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매뉴얼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1년 1월</li> <li>· 내용 : 그 간의 활동 [한 눈에 보기] 홈페이지 및 온라인 게재</li> </ul> <p>2. 기획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3월 22-28일, 4/13, 5/23, 25, 26, 6/1, 2, 15, 16</li> <li>· 참석: 이선미1, 이선미2</li> <li>· 내용: 내용 확산을 위한 배포 계획, 토론회 방향설정 및 온라인 공개 상담 게재 계획 설정</li> </ul> <p>3. 정책위원과 토론회 및 사업 방향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임다혜 정책위원을 통한 사업 내용의 법적 검토.</li> </ul> <p>4. 온라인 활동&lt;그녀들의 반전을 위한 액션 노하우 온라인 공개모집!&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계각층의 노하우 공유(7월 모집 완료)</li> <li>: 노하우 총 3탄에 걸쳐 시리즈 공개 (8월 시리즈 공유)</li> <li>: 연애는 함께하고 여성의 성적경험(과거 연애사)을 문제시하는 시선들을 이용하는 치졸하고 짜질한 짓을 하는 전 남자친구의 협박으로부터 대차게 혹은 아무 지게 혹은 자유롭게 무시하는 노하우/힘을 내서 마음으로 지지 않는 법</li> </ul> <p>5. 유인물 배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뉴얼 내용 수정 및 재배포(9월)</li> <li>: 매뉴얼 웹자보 홍보, 인쇄용 유인물을 제작하여 전국 성폭력상담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카페에 파일 게시</li> </ul>

### 3) 사업명: 거리성교육

계획	<p>·목표 : 열린 공간에서 내가 아는 성·알고 싶은 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올바른 소통을 위한 의사결정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간다.</p> <p>·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고등학교, 대학교,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반성폭력징검다리, 콘돔실습, 다양한</li> </ol>
----	--



	<p>: 피임도구전시, 성폭력예방실사 등 체험식 프로그램을 진행.</p> <p>2. 대학 성폭력상담소 대상 체험식성교육 프로그램 설명회 진행</p> <p>: 축제 기간에 거리성교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p>
집행	<p>1. 서울시립대 거리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5월 18일</li> <li>·장소 : 서울시립대</li> <li>·강사 : 김영애, 이선미1, 이선미2</li> <li>·내용 : 성인식징검다리, 성지식테스트, 피임실습</li> </ul> <p>2. 중앙대 거리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5월 19일</li> <li>·장소 : 중앙대</li> <li>·강사 : 김영애, 이선미2, 최김하나, 이해영, 이미경</li> <li>·내용 : 징검다리, 성지식, 피임실습, 의사소통점검, 월경주기팔찌</li> </ul> <p>3. 성미산마을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5월 29일 일요일</li> <li>·장소 : 성서초등학교</li> <li>·강사 : 이선미2</li> <li>·내용 : 성지식테스트 및 내 몸 들여다보기</li> </ul> <p>4. 마포여성주간 캠페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7월 9일 토요일</li> <li>·장소 : 월드컵공원 유니세프광장</li> <li>·강사 : 최김하나, 정하경주</li> <li>·내용 : 나는 어떤 부모일까? 부모성교육 상담</li> </ul> <p>5. 가톨릭대학교 거리성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9월 23일</li> <li>·장소 : 가톨릭대학교</li> <li>·강사 : 김영애, 이선미1, 정하경주</li> <li>·내용 : 성인식징검다리, 성지식테스트, 피임실습</li> </ul>

#### 4) 사업명: 멋진 하루

<p>계획</p>	<p>·목표: 다양한 사람들이 섹슈얼리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상담소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p> <p>·내용 : 일상 속 성폭력 경험 드러내기, 욕망/관계/소통과 섹슈얼리티를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p>
<p>집행</p>	<p>&lt;1차 봄날의 멋진 하루 - 10대 남성과 여성 교사의 연애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3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li> <li>·장소 : 지하1층 교육장</li> <li>·참석 : 11명</li> <li>·내용 : 10대 남성과 여성 교사의 연애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li> </ul> <p>&lt;2차 여름날의 멋진 하루 - 공공장소 성추행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1년 6월 21일 화 19:30</li> <li>· 장소 : 민우회 회의실</li> <li>· 참석 : 6명</li> <li>· 내용 : 대중교통, 길거리, 공중 화장실, 공연장 등 공공장소에서 비밀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날 것의 경험담과 생각 나누기 + 속 풀이 액션</li> </ul> <p>&lt;3차 가을날의 멋진 하루 - 아이돌, 소비하는 욕망 &amp; 구성되는 욕망&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1년 9월 27일 화 19:30</li> <li>· 장소 : 민우회 회의실</li> <li>· 참석 : 8명</li> <li>· 내용 :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뮤직비디오 감상, 아이들에 대한 흥미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에 대한 이야기 나눔. 아이들이 성애화 되어 기획/소비 되는 구조, '현아'로 대표되는 섹시한 이미지의 여자 아이들을 둘러싼 시선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li> </ul> <p>&lt;4차 겨울날의 멋진하루_멋진 하루 중간 평가&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11월 14일 (월) 11시~1시</li> <li>· 장소 : 민우회 회의실</li> <li>· 참석 : 5명</li> <li>· 내용 : 멋진 하루 참여 동기와 불참 이유, 멋진 하루 참여시 좋았던 점과 개선하면 좋을 점 등에 관해 솔직한 소감과 평가 나누기</li> </ul>

#### 4. 정책 및 제도 대응 사업

1) 사업명: 5년 상담 통계 분석 및 전망 찾기

<p>계획</p>	<p>·목표 : 성폭력 상담 경향 분석을 통해 성폭력 이슈를 외화하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개념과 관련된 심층적인 논의, 반성폭력운동의 방향을 점검하고 전망을 세운다. ·내용 : 최근 5년간 상담일지 검토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상담 경향 흐름 파악 및 분석</p>
<p>집행</p>	<p>1. 기획회의          4월 ~5월 : 전체 일정 조율 및 기획회의          6월 ~7월 :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상담일지 검토          8월~ : 상담일지 검토 후 검토 의견 정리 후 활동가 내부 논의          9월~ : 5년간 상담통계 정리 및 상담경향 분석, 반성폭력 운동의 과제 도출에 대한 분석글 작성</p> <p>2. 통계 분석 발표 및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11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내용:          - 사회 :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발제 : 2006년~2010년 상담 분석 및 반(反)성폭력 운동에 대한 고민과 과제          _최김하나, 이선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토론          1. 반성폭력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단상 : 작은 정치의 복원을 위하여          _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2. 반성폭력 운동의 현재 - 대표성의 위기와 여성 주체의 문제          _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 수료)          3. 민주노총 내 성폭력사건의 논쟁지점과 그로 인한 사건 해결의 문제점          _조지영 (민주노총 충남본부 서부지역지부 교육선전부장)          4. 발제에 대한 토론 두 마디          _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서울권역 대표)          5. 상담운동의 급진성을 생각한다          _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p>

2) 사업명: [지부분부공동사업]성폭력 정책 분석과 제언 -아동지킴이집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p>계획</p>	<p>·목표 :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성폭력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한다. ·내용 :</p>
-----------	--

	<p>1. 아동지킴이집 실태조사 : 지부, 지부 부설 상담소와 공동으로 아동지킴이집 실태 조사 진행</p> <p>2. 실태 조사 분석 : 실태 조사 설문을 모아서 분석 작업 진행</p> <p>3. 정책 제언 토론회 :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결과 보고와 정책 제언 진행</p>
집행	<p>1. 1차 회의 ·일시 : 2011년 3월 2일 수요일 3시30분-5시30분 ·장소 : 민우회 회의실 ·참석 : 고양(김문정, 주정희),군포(심용선,박선인),광주(허정순),진주(강문순),파주(안선희),성산(이임혜경, 정하경주) 동북(권주희) ·내용 : 각 지부 사업계획 공유, 사업 방향 논의</p> <p>2. 2차 회의 ·일시 : 2011년 3월 29일 화요일 12시-3시30분 ·장소 : 민우회 회의실 ·참석 : 고양(김문정, 주정희),군포(심용선),광주(허정순, 유희정), 진주(배순직),파주(김향숙),성산(이임혜경, 정하경주) 동북(권주희) ·내용 : 각 지역 아동안전망현황 공유, 아동안전망 현황조사 설문 내용 공유, 향후 계획과 일정논의</p> <p>3. 아동지킴이를 위한 매뉴얼 제작 목차) 아동지킴이란? 아동성폭력이란? 아동성폭력에 대한 오해 아동성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 아동성폭력 관련 법규 어린이 성폭력 피해생존자 권리헌장 아동성폭력 발생 시 부모/보호자 유의사항</p> <p>4. 실버캡 설문조사 ·일시 : 2011년 6월 23일 목요일 ·내용 : 마포구 실버캡 대상 아동지킴이 실태 설문조사 진행(50부)</p>

### 3) 사업명: 반성폭력운동제도화 대응

172 제25차 정기총회

<p>계획</p>	<p>·목표 : 반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마련 이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반에 관한 제도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성폭력운동의 역량과 자율성 침해 문제에 대응한다.</p> <p>·내용 :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쉼터 평가지표, 중형주의 법·정책 중심의 제도, 정부 보조금 운영방식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회의를 통한 연대 강화, 대응전략 모색), 상담소 정체성 및 운동성을 살리는 전망 찾기 논의</p>
<p>집행</p>	<p>1. 기자회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1월 6일 목요일 1시</li> <li>·장소 : 여성가족부 앞(청계광장)</li> <li>·주최 : 인센티브예산을 피해자지원예산으로! 공동행동</li> <li>·내용 : 여성부 평가 인센티브 반대 기자회견, 반납 퍼포먼스</li> </ul> <p>2. 최영희의원실 여준성 보좌관 미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8일 화요일 9시 30분</li> <li>·장소 : 최영희의원실 회의실</li> <li>·내용 : 여가부 인센티브 반납의 건, 사복시</li> </ul> <p>3. 세계여성의날기념 기자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3월 9일 수요일 2시</li> <li>·장소 : 서울시의회 대회의실</li> <li>·주최 : 인센티브예산을 피해자지원예산으로! 공동행동</li> <li>·참석 : 비마이너(BeMinor), 헤럴드경제</li> <li>·내용 :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상담소 등 인센티브제도 문제 발제, 사회복지정보시스템 문제 발제, 여성부 예산분석과 대안 제시</li> </ul> <p>4. 국정감사 질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10월 14일 금요일</li> <li>·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일모아시스템</li> </ul> <p>5. 회의</p> <p>1) 1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11일 금요일 4시</li> <li>·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의실</li> <li>·참석 : 한국성폭력상담소(이윤상,어진) 한국여성민우회(이임혜경, 정하경주), 장애여성공감(배복주,지성), 한국여성의전화(유리화영)</li> <li>·내용 : 여성부 평가 인센티브 반납 관련 대응 논의, 전성협 총회 안건 논의, 여성부 안전지도 관련 대응 논의</li> </ul> <p>2) 2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3월 9일 수요일 4시</li> </ul>

	<p>·장소 : 서울시청 카페</p> <p>·참석 : 한국성폭력상담소(이윤상, 어진, 이미경) 한국여성민우회(이임혜경, 정하경주), 장애여성공감(배복주, 지성), 한국여성의전화(유리화영)</p> <p>·내용 : 인센티브관련 대응 향후 활동, 관 주도 여가부 예산정책 속에서 ngo상담소의 역할에 대한 고민</p> <p>3) 3차 회의</p> <p>·일시 : 2011년 5월 4일 수요일 3시</p> <p>·장소 : 민우회 회의실</p> <p>·참석 : 한국여성민우회(이임혜경), 한국성폭력상담소(이윤상), 열림터(송미현), 장애여성공감(배복주), 한국여성의전화(유리화영),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민병윤)</p> <p>·내용 : 여가부 예산(범죄피해자기금)논의, 여가부의 상담소 차등지원의 안에 대한 논의,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요건 학력차별 관련 인권위제소 논의</p> <p>4) 4차 회의</p> <p>·일시 : 2011년 7월 1일 금요일 1시 30분</p> <p>·장소 : 민우회 회의실</p> <p>·참석 : 한국여성민우회(이임혜경/정하경주), 한국성폭력상담소(이윤상), 열림터(송미현), 장애여성공감(배복주, 지성), 한국여성의전화(유리화영)</p> <p>·내용 : 범피기금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 논의</p> <p>5) 5차 회의</p> <p>·일시 : 2011년 12월 16일 금요일 4시</p> <p>·장소 : 민우회 회의실</p> <p>·참석 : 한국여성민우회(이임혜경/정하경주), 한국성폭력상담소(이윤상), 열림터(송미현), 장애여성공감(배복주, 지성), 한국여성의전화(유리화영)</p> <p>·내용 : 11년 활동평가 및 12년 계획</p>
--	--

## 5. 교육 사업

### 1) 사업명: 출강 교육

계획	<p>1. 학교 성교육</p> <p>·목표: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적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p> <p>·대상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학부모</p> <p>·내용 : 몸에 대한 이해, 연애, 성적의사소통, 아동과 왜곡된 성문화 등 외부에서 의뢰하는 주제별 강의 및 성폭력예방교육</p>
----	--

	<p><b>2. 성폭력 관련 일반 및 심화 교육</b></p> <p>·대상 : 학생, 학부모, 직장인, 상담원, 노조, 단체 등</p> <p>·내용 : 성폭력에 대한 이해(실태와 예방), 여성주의 상담, 성문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쟁점,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반폭력 감수성 키우기, 성적의사소통, 성폭력 가해자를 말하다, 성폭력상담의 지원체계 등</p>
<p>집행</p>	<p><b>1. 학교 성교육</b></p> <p>4.11 서울시립대학교, 거리성교육 프로그램 강의_김영애, 이선미2</p> <p>6.10~17 서울디자인고, 연애, 데이트성폭력_김영애, 조희정, 이선미1, 이선미2</p> <p>7.12~13 한세사이버고등학교 5개 반, 데이트 성적의사소통_김영애, 조희정, 이선미1, 이선미2, 최김하나</p> <p>7.13 덕성여자중학교 1-3학년, 성폭력예방교육_정하경주</p> <p>8.20 경성고등학교 1학년 5개반, 연애·성적의사소통_김영애,이선미1,이선미2,정하경주,조희정</p> <p>8.2~9.5 광성고등학교 1학년 5개반, 연애·성적의사소통_김영애,정하경주,이선미2,최김하나,조희정</p> <p>8.26 경일고등학교, 거리성교육 콘돔실습_김영애</p> <p>9.3 문래중학교, 성폭력예방교육_김영애</p> <p>11.7 종암초등학교, 성폭력예방교육_김영애</p> <p>11.19 흥대부속여자고등학교 1학년 5개반/ 2학년 5개반, 연애·성적의사소통_이선미1,정하경주, 이선미2, 최김하나, 조희정</p> <p><b>2. 성폭력 관련 일반 및 심화교육</b></p> <p>1.11 생협본부, 청소년 성교육_조희정</p> <p>1.21 생협 신정매장, 청소년 성교육_조희정</p> <p>1.21 생협 방화매장, 청소년 성교육_김영애</p> <p>1.26 생협 구로매장, 청소년 성교육_김영애</p> <p>3.15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실태와 예방_이임혜경</p> <p>3.30 고양성폭력상담소, 가해자를 말하다_이임혜경</p> <p>4.7 군포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실태와 대책_이임혜경</p> <p>4.23 경원사회복지회 성폭력상담소, 한국 사회 성문화_이임혜경</p> <p>4.27 파주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를 말하다_이임혜경</p> <p>5.11 조치원YWCA성폭력상담소, 한국 사회 성문화_이임혜경</p> <p>5.12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를 말하다_이임혜경</p> <p>5.24 충북여성발전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문화_이임혜경</p> <p>6.3 동북여성민우회, 성폭력 바로보기_이임혜경</p>

	<p>6.16 원주여성민우회, 성폭력 바로보기_이임혜경</p> <p>6.21 제주여성상담소, 성폭력 가해자를 말하다_이임혜경</p> <p>6.29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가해자의 심리_이임혜경</p> <p>8.20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 여성의 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_이임혜경</p> <p>8.22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성폭력 상담_이임혜경</p> <p>8.26~27 성폭력피해쉼터 하담, 몸성위크숍_이선미2, 최김하나</p> <p>10.19 충북여성발전센터(제천), 가해자를 말하다_이임혜경</p> <p>10.24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집단가해자교육 수퍼비전_이임혜경</p> <p>10.25 상원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성폭력예방교육_이임혜경</p> <p>11.7 안산 YWCA, 성교육양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안'_이임혜경</p> <p>11.22 휴샘통합상담소, 성교육강사양성교육 '청소년 성교육의 실제'_이임혜경</p> <p>11.24 휴샘통합상담소, 성교육강사양성교육 '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의 실제'_이임혜경</p> <p>11.28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집단가해자교육 수퍼비전2_이임혜경</p> <p>12.28 여성민우회생협 행복중심, 초등성교육_조희정</p>
--	---

## 2) 사업명: 대중 교육

계획	<p>1. 기획 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한 대중적인 여성주의 교육을 통해 만남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li> <li>·내용 : 성폭력 법제화의 한계와 여성주의 전략, 상처 흘리, 외모지상주의 등 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여성 이슈의 접점을 찾아 강좌를 기획한다.</li> </ul>
집행	<p>1. 1차 기획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1월 7일 금요일 3시</li> <li>·장소 :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교육장</li> <li>·참석 : 30명</li> <li>·내용 : 법은 여성주의의 전략적 도구인가? - 성희롱 법제화의 한계를 중심으로 -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li> </ul> <p>2. 2차 기획강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3월 22일~28일</li> <li>·장소 :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 교육장</li> <li>·참석 : 총 70명</li> <li>·내용 :</li> </ul> <p>3.22 1강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나_ 권수현(연세대 문화학과 박사</p>



	과정) 3.25 2강 감정자본주의와 치유문화_ 정승화(연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3.28 3강 '나 주식회사'와 외모관리_ 김고연주(연세대 문화학과 박사)
--	--

### 3) 사업명: 활동가 교육

계획	<p>1. 활동가 스터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li> <li>·내용: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내부논의와 더불어 외부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li> </ul> <p>2. 활동가 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이슈, 쟁점, 여성주의 담론 등 최근 떠오르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교육의 기회 마련</li> </ul>
집행	<p>1. 활동가스터디</p> <p>1) 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1월 17일 월요일 4시</li> <li>·장소 : 상담소 회의실</li> <li>·참석 : 이선미(너굴), 이선미(썸), 이임혜경, 정하경주, 최김하나, 윤지영(상담소 자문위원)</li> <li>·내용 :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시민위원회/형사조정위원회, 배상명령제도 등 검토</li> </ul> <p>2) 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24일 목요일 10시</li> <li>·장소 : 상담소 회의실</li> <li>·참석 : 이선미(너굴), 이선미(썸), 이임혜경, 정하경주, 최김하나</li> <li>·내용 : &lt;친밀한 적-감정자본주의와 치유문화&gt; 세미나</li> </ul> <p>3) 3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8월 18일 목요일 4시</li> <li>·장소 : 상담소 회의실</li> <li>·참석 : 이선미(너굴), 이선미(썸), 이임혜경, 정하경주, 최김하나, 윤지영(상담소 자문위원)</li> <li>·내용 : 형법,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등 최근 개정법률안 검토</li> </ul> <p>2. 활동가 재교육</p> <p>1) 여성가족부 종사자 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22일~24일, 삼정호텔</li> </ul>

	<p>·참석 : 이임혜경</p> <p>·내용 : 상담원 역량강화 보수교육(여성가족부 주최)</p> <p>2) 무료법률구조 워크숍</p> <p>·일시 : 2011년 10월 28일</p> <p>·장소 : 여성플라자 NGO센터 열린마당</p> <p>·참석 : 이선미2, 최김하나</p> <p>·내용 :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사례 판결문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법적 지원방안 모색</p>
--	--

## 6. 상담 지원 사업

### 1) 사업명: 상담 및 피해자 지원

<b>계획</b>	<p>·목표: 법률의료지원 및 심리적지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돕고,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p> <p>·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담내용: 성폭력 사건대응 및 피해자보호조치, 성상담</li> <li>2. 전화상담: 02-335-1858 (상담시간: 9:30- 17:30(월~금))</li> <li>3. 면접 및 지원상담: 의료적, 법적, 정서적, 기타</li> <li>4. 치유상담(연속상담)을 통한 피해 경험 재해석 기회 마련</li> <li>5. 포탈사이트 게시판 공개상담: 찾아가는 상담 지원</li> <li>6. 상담 Q&amp;A: 성폭력 사례 공유를 통한 일상 속 성문화 성찰</li> <li>7. 사건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li> </ol>																																										
<b>집행</b>	<p>〈2011년 1월-12월 상담 통계〉</p> <p>1) 월별 상담 횟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월</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th> <th>12</th> <th>계</th> </tr> </thead> <tbody> <tr> <td>상담 건수</td> <td>64</td> <td>42</td> <td>67</td> <td>69</td> <td>56</td> <td>59</td> <td>51</td> <td>65</td> <td>53</td> <td>50</td> <td>66</td> <td>44</td> <td>686</td> </tr> <tr> <td>상담 횟수</td> <td>112</td> <td>96</td> <td>133</td> <td>159</td> <td>108</td> <td>112</td> <td>113</td> <td>115</td> <td>80</td> <td>82</td> <td>102</td> <td>91</td> <td>1,303</td> </tr> </tbody> </table> <p>- 2011년에는 686건의 사안에 대하여 단회 상담 및 연속 상담을 합쳐 총 1,303회의 상담을 진행하였음.</p>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상담 건수	64	42	67	69	56	59	51	65	53	50	66	44	686	상담 횟수	112	96	133	159	108	112	113	115	80	82	102	91	1,303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상담 건수	64	42	67	69	56	59	51	65	53	50	66	44	686																														
상담 횟수	112	96	133	159	108	112	113	115	80	82	102	91	1,303																														

2) 연간 피해 유형별 상담 통계 (중복 집계)

강간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 / 사이버	스토킹	성 문제	기타	계 (건)
219 29.2%	361 48.2%	32 4.3%	43 5.7%	57 7.6%	37 5%	749 100%

- 피해 유형의 경우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중복해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중복집계 되었음. 때문에 전체 상담 건수(686건)보다 총계(749건)가 증가하였음.
- 피해 유형을 살펴볼 때 총계보다는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함.

: 성폭력 피해 내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 치유 상담에 힘썼고, 그에 따라 전체 상담 횟수 중 2회 이상의 연속 상담 횟수가 예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47%를 차지함. 그러나 상담 방법별 비중에서 면접 및 방문/동행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과 비슷한 13%대에 머무른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 지점임. 내담자의 치유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 상담을 기획할 때 상담 방식은 면접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면 지속 상담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특정 성폭력 사건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관련 법 개정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올해 흐름을 반영하듯 법적 해결 가능 여부를 묻는 상담이 많았음. 법률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내담자들을 위해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연계하거나 법적 해결 과정을 함께 논의하여 대응하는 등 법적 지원 상담이 활발하였음. 아울러 법적인 해결과 더불어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일환으로 개인적 사건 해결 내용 중 하나로 개인 가해자 교육을 의뢰하는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따라서 이후 상담 과정 속에서 피해자가 법적 해결을 도모할 때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한편,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피해나 법적 해결 이후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민이 꾸준히 이어져야 할 것임.

2) 사업명: 상담분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수퍼비전과 상담분석을 진행하고, 사건지원을 체계화하여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례분석 : 월1회 진행</li> <li>2. 외부 수퍼바이저와 함께 하는 수퍼비전 : 연2회 진행</li> </ol> </li> </ul>
집행	<p>1. 사례분석</p> <p>1) 1차</p> <p>· 일시: 3월 1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상담 사례공유의 대응 논의</li> <li>2) 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6월 30일</li> <li>· 내용: 상담 사례공유의 대응 논의</li> </ul> </li> <li>3) 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8월 3일</li> <li>· 장소 : 상담소 회의실</li> <li>· 참석 : 이선미1, 이선미2, 정하경주, 최김하나</li> <li>· 내용: 상담 사례공유의 대응 논의</li> </ul> </li> </ul> <p>2. 슈퍼비전</p> <p>1) 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1년 5월 30일</li> <li>· 장소 : 상담소</li> <li>· 참석 : 유경희, 이임혜경, 이선미1, 이선미2, 최김하나, 정하경주</li> <li>· 내용 : 슈퍼바이저(유경희), 슈퍼바이저(이선미2)</li> </ul> <p>2) 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11년 12월 9일</li> <li>· 장소 : 상담소</li> <li>· 참석 : 유경희, 이임혜경, 이선미1, 이선미2, 최김하나, 정하경주</li> <li>· 내용 : 슈퍼바이저(유경희), 슈퍼바이저(최김하나)</li> </ul>
--	---

## 7. 가해 예방 사업

### 1) 사업명: 성폭력 가해자 교육(개인/ 집단)

계획	<p>·목표: 성폭력 가해자들의 이중 성 규범 및 왜곡된 성 의식 점검, 자신의 책임 인정하기와 피해자 공감하기 등을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수정하고 성폭력 가해에 대한 잘못을 성찰함으로써 성폭력 재범을 방지한다.</p> <p>·내용: 개인 면접 교육, 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집단 프로그램 진행.</p>
집행	<p>1. 개인 가해자교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월-2월 A박물관(유경희)5회기 완료</li> <li>2) 2월-3월 C대 (이선미) 5회기 완료</li> <li>3) 2월-3월 B대 (정하경주) 10회기 완료</li> <li>4) 3월-4월 A교회(김영애)6회기 중단</li> </ol>

- 5) 3월-5월 A당(이임혜경)10회기 완료
- 6) 5월-6월 D대(유경희) 10회기 완료
- 7) 6월-8월 E대 (정하경주) 10회기 완료
- 8) 6월-8월 F대 (최김하나) 10회기 완료
- 9) 8월- 10월 G대(이임혜경) 10회기 완료
- 10) 11월 A공동체(유경희) 5회기 진행 중

2. 집단 가해자교육

1) 1차

- 일시 : 2011년 5월 24일~ 6월7일
- 장소 : 서울보호관찰소
- 참여 : 청소년(남) 성폭력 가해자 9명
- 내용 :

회차	시간	내 용	강사
1회 5/24 (화)	13:30-14:30	오리엔테이션	김영애
	14:30-16:00	몸 풀기 및 얼굴 익히기, 집단프로그램	
	16:00-18:00	폭력에 대한 이해, 폭력피해에 대한 공감	
2회 5/26 (목)	10:30-13:30	성이란?	최김하나
	13:30-15:30	나의 성역사 돌아보기	
	15:30-18:00	올바른 성 지식의 이해	
3회 5/31 (화)	10:00-12:30	성매매에 대한 이해 및 예방	조희정
	13:30-16:00	성폭력이란?, 성적자기결정권 이해	김영애
	16:00-18:00	성폭력 비디오 시청 및 토의	
4회 6/2 (목)	10:00-12:30	성적의사소통 훈련	김영애
	13:30-16:00	장벽 세우기	
	16:00-18:00	재범방지계획 세우기	
5회 6/7 (화)	10:00-12:30	법 제정의 취지 이해	이선미1
	13:30-15:30	인권감수성 키우기	인권교육센터
	15:30-17:00	나의 장점 찾기, 미래 목표 세우기	이선미1

2) 2차

- 일시 : 2011년 7월 18일~ 7월22일
- 장소 : 고양보호관찰소
- 참여 : 성인 성폭력 가해자 14명
- 내용 :

회차	시간	내 용	강사
1회 7.18 (월)	13:00-14:30	자기 소개, 교육 소개, 교육을 위한 서약, 몸 풀기 및 얼굴 익히기	김영애
	14:30-17:30	폭력에 대한 이해, 폭력피해에 대한 공감	
2회 7.19 (화)	13:00-15:00	성이란?	최김하나
	15:00-17:30	나의 성역사 돌아보기	
3회 7.20 (수)	13:30-16:00	성폭력이란?, 성적자기결정권 이해	김영애
	16:00-18:00	성폭력 비디오 시청 및 토의	
4회 7.21 (목)	13:00-15:00	성적의사소통 훈련	김영애
	15:00-17:30	올타리 세우기 재범방지계획 세우기	
5회 7.22 (금)	13:00-15:00	성매매에 대한 이해 및 예방	조희정
	15:00-16:30	나의 장점 찾기, 미래 목표 세우기	
	16:30-17:30	사후검사/ 소감	

3) 3차

- 일시 : 2011년 8월 1일~ 8월5일
- 장소 : 고양보호관찰소
- 참여 : 청소년(남) 성폭력 가해자 9명
- 내용 :

회차	시간	내 용	강사
1회 8.1 (월)	13:00-14:30	자기 소개, 교육 소개, 교육을 위한 서약, 몸 풀기 및 얼굴 익히기	김영애
	14:30-17:30	폭력에 대한 이해, 폭력피해에 대한 공감	
2회	13:00-15:00	성이란?	이선미2

	8.2 (화)	15:00-17:30	나의 성역사 돌아보기, 올바른 성지식	
	3회	13:30-16:00	성폭력이란?, 성적자기결정권 이해	
	8.3 (수)	16:00-18:00	성폭력 비디오 시청 및 토의	김영애
	4회	13:00-15:00	성적의사소통 훈련	이선미1
	8.4 (목)	15:00-17:30	울타리 세우기/ 재범방지계획 세우기	
	5회	13:00-15:00	성폭력 법제정의 취지	최김하나
	8.5 (금)	15:00-16:30	나의 장점 찾기, 미래 목표 세우기	
		16:30-17:30	사후검사/ 소감	

2) 사업명: 성폭력 가해자교육 강사를 위한 심화교육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여성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가해자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li> <li>·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력 감수성, 성인식 점검, 성적자기결정권, 성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 구성</li> <li>- 가해자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li> </ul> </li> <li>2.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월 : 기획 및 강사 섭외</li> <li>- 5월 : 홍보</li> <li>- 6월 : 성폭력 가해자교육 강사를 위한 심화 교육</li> </ul> </li> </ol> </li> </ul>					
	집행	·일시 : 2011년 6월 11일~ 6월25일 매주 토요일 10:00-18:00, 10:00-16:00 ·장소 : 나루 지하1층 교육장 ·참여 : 상담소 활동가 등 16명 ·내용 : <2011 성폭력 가해자교육 강사 워크숍> '기본 익히기와 실전 맞보기'				
6/11 (토)		10:00 -12:00	<table border="1"> <tr> <td>1강. 가해자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td> <td>이선미</td> </tr> <tr> <td>성폭력 가해자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가해자 교육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점검함</td> <td>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td> </tr> </table>	1강. 가해자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	이선미	성폭력 가해자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가해자 교육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점검함
1강. 가해자 교육, 그것이 알고 싶다!	이선미					
성폭력 가해자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가해자 교육의 도입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점검함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6/18 (토)		니다.	
		13:00 -16:00	2강. 경계를 넘나드는 성폭력 개념	<b>전희경</b>
			흔히들 성폭력은 나쁘다고 하는데,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기란 쉽지 않다?! 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등장한 배경과 '피해자 관점'의 맥락을 살펴 보면서 내 안의 의문을 성찰해 봅니다.	가톨릭대 강사, [오빠는 필요 없다] 저자
		16:00 -18:00	3강. 남성의 권력 지도 : 지배와 폭력의 관계를 넘어	<b>조중현</b>
			도대체 가해자들은 어째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성폭력 가해자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남성' 집단이 '가해 행위'를 실행하기 까지 어떤 배경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들여다봅니다.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10:00 -12:00	4강. '성폭력,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성폭력 가해자	<b>이임혜경</b>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가해자의 '피해의식'이 존재한다면?! 본 상담소의 가해자교육 경험을 토대로 현장에서 만난 가해자들의 반응과 이를 대하는 강사의 고민을 공유하고, 실제 가해자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13:00 -16:00	5강. 성 의식 점검의 필요성 + 강의안과 팁	<b>유경희</b>	
		왜 성폭력 가해자 '치료'가 아닌 '교육'일까? 인지 교정을 통한 가해자 교육의 핵심, 즉 왜곡된 성 의식과 성차별적 가치관이 성폭력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이해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6/25 (토)	10:00 -13:00	6강. 반(反)폭력 감수성을 키우다 + 강의안과 팁	<b>정하경주</b>
			세상엔 '성폭력'만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만연한 폭력적인 문화와 성폭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폭력의 의미와 법칙 그리고 반(反)폭력 감수성 키우기의 필요성을 파악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14:00 -16:00	7강. 성폭력의 이해 + 강의안과 팁	<b>이임혜경</b>
		성폭력 가해자 교육의 핵심은 '성폭력'이다! 성적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자기 결정권을 비롯한 성폭력 개념의 기본 요소를 익히고, 올바른 성적 의사소통의 필요성과 내용을 파악합니다.	소장
--	--	--	----

3) 사업명: 가해자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발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10년 진행된 가해자교육 평가와 강의안 구성 논의를 정리하여 매뉴얼을 발간한다.</li> <li>·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기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월 14일 : 프로그램 강의안 작성 및 강사 코멘트 받기</li> <li>- 1월 31일 : 성폭력 재범방지 강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 작성</li> <li>- 2월 : 편집 및 인쇄</li> <li>- 3월 : 매뉴얼 발간 홍보</li> </ul> </li> </ul> </li> </ul>
집행	<p>1. 6월 10일 발간, 총 180p, 판매가격 14,000원</p> <p>2. 목차</p> <p>1부 가해자교육을 점검하다</p> <p>2부 기본기 익히기</p> <p>  성의식 점검의 필요성</p> <p>  경계를 넘나드는 성폭력 개념</p> <p>  남성권력지도 : 지배와 폭력의 관계를 넘어서</p> <p>  성폭력 가해자교육 + 반폭력 감수성 키우기</p> <p>  ‘성폭력’,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성폭력 가해자의 피해의식, 그러나 핵심은 분명하게!</p> <p>3부 성의식 변화 프로그램 매뉴얼(강의안)</p> <p>  반폭력감수성 키우기</p> <p>  성의식 인지과정</p> <p>  성폭력의 이해</p> <p>  성폭력 발생과정 이해와 울타리 세우기</p> <p>  성적의사소통</p>

8. 연구 개발 사업

1) 사업명: 성교육 교구개발

계획	·목표: 참여식 성교육 대상의 확대를 위한 교구 연구 및 개발 시도
----	---------------------------------------

	<p>·내용: 성교육 교구 개발을 통한 현장에서의 활용방안 검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회를 구성하여 퍼즐, 십자말풀이 등 새로운 교구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진행 및 교구, 워크북 마련</li> <li>2. 거리성교육 및 마포지역 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성교육 교구의 활용방안 및 가능성 검토</li> </ol>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획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5월 31일, 6월 23일</li> <li>·장소 : 상담소</li> <li>·참여 : 이선미2, 정하경주</li> <li>·내용 : 기획단 구성 및 운영 방향 논의</li> </ul> </li> <li>2. 기획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6월 16일, 6월 24일, 7월 7일, 7월 21일, 8월 4일, 8월 5일, 8월 11일, 18일, 25일, 9월8일</li> <li>·장소 : 민우회 회의실</li> <li>·참여 : 정은선, 문구미정, 김하니, 오영식, 안초롱, 김수정, 심민지, 이선미2, 정하경주</li> <li>·내용 : 초경선물셋트, 개쌍카드 개발 논의</li> </ul> </li> </ol>

## 2) 사업명: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의 책 '순간' 재발행

계획	<p>·목표: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자신의 변화를 살펴보며, 자신의 성장과 재발견을 위해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의 책 '순간' 재발행</p> <p>· 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11년 1월~5월: 2010년 발행된 '순간' 재인쇄를 위한 해피빈</li> <li>2. 5월 : 2쇄 인쇄를 위한 수정작업</li> <li>3. 6월 : 재인쇄 이후 성폭력 피해자에게 배포</li> </ol>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발행 비용이 모금 완료 된 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li> <li>2. 2011년 8월 2일 네이버 캐스트 메인에 모금함 홍보.</li> </ol>

## 9. 홍보 사업

### 1) 사업명: 언론홍보

<p>계획</p>	<p>·목표: 상담소 사업과 관련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발 빠른 이슈대응을 한다. ·내용: 사업관련 홍보 및 언론의 성폭력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이슈에 적극개입함으로써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여론화 도모</p>
<p>집행</p>	<p>3/7 한겨레, '여성폭력피해 쉼터 이용자 정보 '정부 전산망 5년 보관' 갈등 지속' (사복시 관련), 이임혜경 3/9 비마이너(인터넷신문), '지원은 열악, 단체는 줄세우기'하는 여성가족부, 인센티브 기자회견 3/9 참세상, 성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내줘야 지원해준다?, 사통망기자회견 3/10 헤럴드경제, 성폭력 피해자 '진술전문가' 양성 흐지부지, 이임혜경 5/6 여성신문, 여성이여, 변태하라!_이임혜경 6/3 리얼tv, '성충동 약물치료 법률 우려점'_최김하나 6/3 단비뉴스, 논란부글 '성이해' 여전히 성황_이선미2 6/12 일다, 의료행위 빙자한 성폭력 여성들은 불안하다_논평 인용 6/21 kbs 8시 아침뉴스타임, 10대 성범죄 원인_ 최김하나 6/24 오마이뉴스, '빠뜨려진 김지사에게 춘향전 1권 보낸다'_정하경주 6/24 세계일보, 슬릿워크_이선미1 7/12 한겨레21, 슬릿워크_정하경주 7/13 아시아투데이, 성폭력 이대로 안된다 1.허점 드러난 전자발찌_최김하나 7/15 아시아투데이, 성폭력 이대로 안된다 2.화학적 거세 실효성 있나_최김하나 7/19 아시아투데이, 성폭력 이대로 안된다 3.알아서 보라는 성범죄 알림e_최김하나 7/22 중앙일보, 지하철 성추행 여성전용칸_이선미1 7/26 천지일보, 지하철 성추행 (여성전용칸)_이선미1 8/18 뉴스한국, 고대 의과대 성추행 사건 피해자,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논의 시급, 최김하나 8/31 한국일보, 강용석 제명안 부결, 정하경주 9/2 뉴스앤조이, 전광훈 목사,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한 의견, 최김하나 9/4 프레시안, 고대 성폭력사건, 이선미2 9/10 노컷뉴스, '징계'만 앞선 대학들, 소통과 대책 노력은?, 이선미2 9/22 한국일보, 우리동네성범죄자..그냥 조심만 하라는 거냐, 정하경주 9/23 김소원의 sbs전망대, 아동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우편고지 관련 라디오인터뷰, 정하경주 10/7 연합뉴스, 청소년 낙태 문제_정하경주 10/10 천지일보, 공소시효폐지 관련_정하경주 10/20 코리아헤럴드, 여성주의자기방어_정하경주 10/24 MBC뉴스24,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 형사미성년 가해자 처벌 논란_하나</p>

	11/8 헤럴드 경제, 연합뉴스, 한국미디어, 파이낸셜뉴스, 메트로신문, 이투데이, 매일경제, 한국일보, 데일리경제, 뉴시스, 충청일보, 여성신문, 메디컬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천지일보, 매일신문, '성폭력 80%는 이성친구, 친인척 등 아는 사람' 이임혜경
--	--

## 2) 사업명: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홍보

계획	<p>·목표: 상담소 활동과 성폭력 이슈를 현장감 있는 정보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상담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회원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p> <p>·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담소 홈페이지의 노후한 정보들을 수정·보완</li> <li>2. 관련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업데이트</li> <li>3. 월경주기 팔찌, 발간 책자 등 상담소 자료를 등록 및 홍보</li> <li>4. 메일링리스트 보완작업을 통해 메일 수신 대상을 확대·정비</li> </ol>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련 블로그(민우 트러블, 네이버 해피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업데이트 함</li> <li>2. 메일링리스트 보완작업을 통해 메일 수신 대상을 확대·정비함</li> </ol>

## 10. 연대 사업

### 1) 사업명: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집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16일 수요일 11시</li> <li>·장소 : 국회 본관 의원식당</li> <li>·내용 : 성폭력상담소, 가폭, 쉼터 현황 공유, 제안</li> </ul> </li> <li>2.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16일 수요일 2시~5시</li> <li>·장소 : 국회 최영희의원실 회의실</li> <li>·안건 : 총회 준비 및 역할분담, 권역대표, 공동대표 선출의 건, 쉼터권역 분리의 건</li> </ul> </li> <li>3. 전성협 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21일 월요일 1시~6시</li> <li>·장소 : 중앙대학교 208동 101호 강의실</li> <li>·내용 : 특강, 2010년 성폭력수사재판상의 디딤돌, 걸림돌 발표 및 시상, 2011년 정기총회</li> </ul> </li> </ol>
----	--

	<p>4. 서울인천권역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5월 6일 금요일 10시</li> <li>·장소 : 우리함께빌딩 2층 회의실</li> <li>·참석 : 고명희(벤엘케어), 김미순(천주교), 김영란(나무여성인권), 이화영(한국여성의전화), 서혜숙(서초),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이정숙(휴샘), 추국화(탁틴내일), 이운상(한국성폭력), 조중신(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정원(인구보건복지협인천지회), 민병란(서울여장연), 이현숙(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성폭력상담소, 공동대표), 서복란(전성협사무국)</li> <li>·내용 : 의제 및 정책개발·행정매뉴얼 개발 사업에 대한 TFT구성 및 방향논의, 권역별 연수, 전성협 위상 및 활동방향과 전략(차등지원에 대한 논의, 여성가족부와 의 협력관계, 전성협의 비전과 전략 등), 상담소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전성협 가입자격, 총회 평가 및 제안</li> </ul> <p>5. 서울인천권역연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6월 27일 월요일</li> <li>·장소 : 삼각산</li> <li>·참석 :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탁틴내일청소년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인천여협 가정성폭력상담소, 인천여성가정성폭력상담소</li> <li>·내용 : 전성협 비전 공유와 친목도모</li> </ul>
--	---

2) 사업명: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대응

<p>집행</p>	<p>1. 국회의원실 보좌관 면담 - 최영희의원실 여준성, 김상희의원실 배은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8일 오전 10시</li> <li>·장소 : 국회</li> <li>·참석 : 이임혜경(민우회), 이운상(한국성폭), 배복주(공감), 정미래(전국연대), 이화영, 고미경(한여전)</li> <li>·내용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전산망 관련 문제점 공유 - 쉼터 입소자들 생계비 신청 시 개인 민감 정보가 인터넷 망과 정부 전산망에 집적되는 문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확인해야하는 사항 요청</li> </ul> <p>2. 1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17일 목 오전 10시</li> </ul>
-----------	--

	<p>·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회의실</p> <p>·참석 : 하나(민우 성폭), 정미례(성매매 전국연대), 김복자(이룸), 이화영(한여전 성폭), 배인숙(한여전 오래뜰)</p> <p>·내용 : 여가부 장관 면담 계획 논의, 3.8 여성의 날 맞이 집회 개최 논의</p> <p><b>3. 여성가족부 면담</b></p> <p>·일시 : 2011년 3월 2일 수 오전 9시</p> <p>·장소 : 여성가족부</p> <p>·참석 : 하나(민우 성폭), 정미례(성매매 전국연대), 김복자, 깡통(이룸), 지성(공감 성폭), 어진(한국 성폭), 이화영(한여전 성폭), 배인숙(한여전 오래뜰)</p> <p>·내용 : (여가부 장관 면담 거부 후 권익기획과 강선혜 과장, 양철수 사무관과 면담) - 여가부 장관 면담 재요청, 사복시/사통망 전면 사용 일시 중단과 TFT 구성 요구</p> <p><b>4. 2차 회의</b></p> <p>·일시 : 2011년 3월 2일 수 오후 12시</p> <p>·장소 : 여성가족부 인근 식당</p> <p>·참석 : 하나(민우 성폭), 정미례(성매매 전국연대), 김복자, 깡통(이룸), 지성(공감 성폭), 어진(한국 성폭), 이화영(한여전 성폭), 배인숙(한여전 오래뜰)</p> <p>·내용 : 여가부 장관 면담 거부에 대한 대응 논의, 입소자 정보 입력 대응에 관한 최종 목적 논의, 3.8 맞이 집회/선전전 계획 논의</p> <p><b>5. 3.8맞이 여성폭력피해자 정보 집적에 관한 정부 규탄 집회' 및 거리 선전전</b></p> <p>·일시 : 2011년 3월 8일 (화) 12:30</p> <p>·장소 : 청계광장 (여성가족부 앞)</p> <p>·참석 : 사복시 대응 모임 소속 단체</p> <p>·내용 : 1. 여성폭력피해자 정보 집적 반대 2. 여성폭력피해자 예산 지원 시 자산조사 반대 3. 무조건적인 정보집적 강요하는 여성가족부 규탄, 시민들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리 선전전 : 관련 유인물 배포 등</p> <p><b>6. 4차 회의</b></p> <p>·일시 : 2011년 5월 17일 화 오전 10시</p> <p>·장소 : 한국여성의전화 회의실</p> <p>·참석 : 하나(민우 성폭), 단아(한여전 쉼터), 정미례(성매매 전국연대), 김복자(이룸), 장미경(새움터)</p> <p>·내용 : 1. 4월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쉼터 입소자 보고를 사복시로 일괄 입력할 것을</p>
--	---

	<p>요구함 2. 보복부 교육에서 사통망을 통해 관리번호를 부여 받으면 사복시에 주민 번호 대신 관리번호로 입력 가능함을 확인받음 3. 현재 대응팀 공통 입장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쉼터 중심으로 입장 확인 후 변동 상황 시 다시 회의 소집하기로 결정.</p>
--	---

### 3) 사업명: 국회의원 성희롱 사건 대응

집행	<p>1. 국회 윤리특위 위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 일시 : 5월 23일 발송하여 27일 취합하였음.          · 내용 : 윤리특위 참석과 제명안 처리에 대한 질의서 발송</p> <p>2. 기자회견          · 일시 : 5월 30일 11시          · 내용 : 강용석의원 제명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p> <p>3. 국회 본회 제명안 상정 압박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 내용 : 전국의 단체들의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회 본회 참석과 강용석 제명안 처리에 대한 질의서 발송</p> <p>4. 기자회견 및 본회의 방청          · 일시 : 8월 31일 1시          · 내용 : 강용석의원 제명안 촉구위한 기자회견 및 국회 본회의 방청</p>
----	--

### 4) 사업명: 미군 및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응 모임

집행	<p>· 일시 : 2011년 10월 5일, 10월 20일, 11월 7일          · 장소 : 여성미래센터 회의실          · 참석 : 김숙경 기독교여민회 총무, 장명숙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 이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권혜민 자원활동가), 박성희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서운미 새움터 대표, 오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간사, 여성연합-김금옥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백수민 활동가          · 내용 : 단체상황 및 사건대응의견 공유, 항거불능 워크숍, 성폭력 특별법 개정 관련 논평 발표</p>
----	---

## 11. 기타 사업

### 1) 사업명: 연예인 인권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집행	<p>1. 1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3월 23일 수요일 6시</li> <li>·장소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회의실</li> <li>·안건 : 고소 사건 진행 사항 공유, 가이드라인 검토 등</li> </ul> <p>2. 2차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6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li> <li>·참석 :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세계로), 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조희정, 강혜란, 조희정, 이윤소(미디어운동본부)</li> <li>·내용 : 연예인인권지원 가이드라인 평가, 토론회 평가, 사업 논의 등</li> </ul>
----	--

2) 사업명: 마포구 아동·여성 연대 네트워크

집행	<p>1. 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16일 수요일 2시</li> <li>·장소 : 마포성산복지관 프로그램5실</li> <li>·참석 : 마포구청, 마포성산복지관, 마포희망나눔, 마포지역아동센터, 한국여성의집,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li> <li>·내용 : 여성발전기금 사업 계획 논의</li> </ul> <p>2. 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3월 31일 목요일 2시</li> <li>·장소 : 마포구청 6층 회의실</li> <li>·참석 : 마포구청, 마포성산복지관, 마포희망나눔, 세이브더칠드런(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독서실), 서울마포경찰서 여청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li> <li>·내용 : 지역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마포 만들기 소개, 지역연대 사업 논의, 지역연대 방향성과 연대구축 활성화 논의, 사업진행에 있어서의 역할 논의</li> </ul> <p>3. 3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7월 14일 목요일 4시30분</li> <li>·장소 :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3층 회의실</li> <li>·참석 : 마포구청, 마포성산복지관, 마포희망나눔, 세이브더칠드런(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독서실), 해바라기아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li> </ul>
----	--



·내용 : 아동지킴이 매뉴얼 평가, 아동안전지도 진행 상황 공유, 설문조사 진행 상황 공유
--

### 3) 사업명: 518 재단연수

집행	·일시 : 2011년 4월 9일~15일	
	·장소 : 싱가포르	
	·참석 : 이임혜경, 정하경주, 최김하나	
	·내용 : 싱가포르 여성단체 방문	
	방문 일시	방문기관명
4/11 (월)	AWARE	싱가포르의 여성단체 중 유일하게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급진적인 활동을 하면서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유했음. 성폭력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강경 처벌로 문제를 덮는 정부 정책은 여성문제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여성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사회의 인식을 변화 시켜나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4/12 (화)	PPIS-Jurong Family Service Centre	구조적인 측면에서 무슬림 처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지원과 남성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 전략을 공유했음.
	TRANS SAFE Centre, TRANS Family Services	노인 학대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자원을 제공하는 방식과 협력 구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음.
	SCWO	SCWO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운영현황 및 싱가포르 여성단체들의 연합체로서 다양한 사안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으며,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여성이슈에 대해서 논의했음.
4/13 (수)	PAVe	폭력 피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 활동 내용, 지원 이후 피해자 스스로의 자립과 인식 변화를 어떻게 도모, 가해자 프로그램, 경찰 인

		식 교육 내용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음.
--	--	-----------------------

4) 사업명: 자문회의 및 연대회의

집행	<p>1. 국회여성위원회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2월 16일 수요일 11시</li> <li>·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li> <li>·내용 :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실태, 정책요구안 등</li> </ul> <p>2. 마포구 위기가구 통합사례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3월 24일 목요일 3시</li> <li>·장소 : 마포구청 회의실</li> <li>·내용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종결 및 스크리닝 〈통합사례관리회의 업무 협약 체결〉</li> </ul> <p>3. 2011 여성회의 기획회의</p> <p>1) 기획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4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 / 26일 화요일 10시</li> <li>·장소 : 여성재단</li> </ul> <p>2) 여성회의 여성폭력분과 [간힌 여성폭력/피해자, 변태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4월 28일 ~ 30일</li> <li>·장소 : 한국여성수련원</li> <li>·내용 : 사회-이미경(한국성폭 이사), 발표-이임혜경(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김홍미리(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부장), 허오경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직팀장), 배복주(장애여성공감대표)</li> </ul> <p>4. 서울시 여성폭력 관련시설(단체) 대표 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11년 5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li> <li>·장소 : 서울시청</li> <li>·민우회 의견 :</li> </ul> <p>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에 대한 의견 - 여성 안전에 관한 정책이 여성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 여성을 안전을 100% 믿고 의탁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충족된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음.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여성들의 '보호자'였으며, 성폭력 가해자의 80%가 피해자 지인 등 여성에 대한 보호담론에 대한</p>
----	---

	<p>문제제기와 여성을 인격적 주체로 상정하지 않고 수동적 존재로 바라봄으로써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p> <p>좀 더 적극적 의미의 권리 확보 측면으로 바라보며 제목 자체를 ‘성폭력 예방 지역연대’ 또는 ‘시민 안전권 확보 지역연대’로 제안함.</p> <p>2) 가폭 성폭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 - 가해자교육을 교도소와 구치소로 제한하여 상담소가 맞는 것의 적절성의 문제 등</p> <p><b>5. 여성정책연구원 여성폭력중사자 관련 자문회의</b></p> <p>·일시: 8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p> <p>·장소: 여성정책연구원 3층 연구실</p> <p><b>6. 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정책 리뉴얼회의</b></p> <p>·일시: 9월28일 시</p> <p>·장소: 여성미래센터 회의실</p> <p>·참석: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이임혜경), 한국성폭(이운상, 백미순), 한국여전(정춘숙), 여성연합(김금옥, 백수민, 배은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염)</p> <p>·내용: 2012년 총선 정책(해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통합적 여성인권 실효성 제고, 임신중절,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기금, 일모아시스템 등) 관련 논의</p> <p><b>7. 장애인 등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절차보조인 간담회</b></p> <p>·일시: 9월22일 2시</p> <p>·장소: 원경선배움터</p> <p>·참석: 장애여성 공감,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여성의전화, 김정혜(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애인복지관, 장차법연대, 한국성폭,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p> <p>·내용: 절차보조인 입법의 필요성과 법안에 관한 발표 후 의견 나눔.</p>
--	---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결산 (안)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수지계산서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대차대조표
- 2011년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수지계산서
- 2011년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대차대조표
- 2011년 부설 성폭력상담소 수지계산서
- 2011년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차대조표

















# 2011년 지역여성민우회 사업평가

- 2011년 지역여성민우회 활동 총평



# 2011년 지역여성민우회 활동 총평

2011년 지역여성민우회는 짧게는 창립 10년, 길게는 창립 20년을 내다보는 긴 활동역사를 갖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여성과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는 지역여성대중운동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 회원과의 소통 강화와 회원참여를 통한 조직의 내실화에 주력한 해

여성대중운동의 핵심인 회원을 중심에 두고 회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 내실화 및 회원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를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과 실천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심에 운영위원회(또는 이사회)가 존재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한 해였다.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걷기, 다양한 주제와 방식의 ‘회원만남’이 진행되었고 건강, 문화, 자기성찰 등 회원들의 폭넓은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소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회원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졌으며 운영위원(또는 이사)들이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소모임이 안정화되고 회원 간의 소통 및 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본부와 지부가 함께 수행한 회원조사사업은 지역과 여성의 삶 속에서 지역여성운동의 나아갈 바와 지역민우회의 활동과제를 찾아가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활동과정에서 회원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확장할 수 있었고 활동에 참여한 운영위원(또는 이사) 및 활동가들이 회원활동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수행과정이 지부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었으며 지역여성운동의 의제 발굴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으나 2012년 활동 속에서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 변화된 지방권력 구조 속에서 성평등한 지역정책 형성을 위해 노력한 해

범야권의 연대와 결집을 통해 치러진 2010년 지방선거의 결과로 지역정치권력구조가 변화된 상황 아래서 2011년 지역여성민우회는 지역의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성평

등한 지역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역 내 성주류화 촉진 활동은 지역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개정 요구,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성주류화 현황분석, 지역네트워크 및 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과 통로를 통한 정책 제안,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시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지역시민사회와의 적극적 연대와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무상급식 실현 등 다양한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활동을 전개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제도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식당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대와 인권적 노동환경 개선의 요구가 전국에 울려 퍼진 해**  
취업여성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및 인권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본부 지부공동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식당여성노동자들을 만나 그들도 노동권이 보호되는 노동자임을 알리고 “개념 있는 손님들의 8가지 실천” 포스터를 식당에 부착하거나 인식개선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진행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역 극단과 협력하여 극을 만들기도 하고 지역민우회 소속 연극 소모임에서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연극 ‘식당블루스’를 만들어 여성주간행사와 지역축제에서 공연을 했고 서울까지 원정공연을 하여 식당여성노동자의 삶을 세상에 알렸고 지역시민미디어센터와 협력하여 함께 짓는 밥 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식당여성노동자의 감정노동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설문조사와 실태조사, 거리캠페인, 연극 제작 및 상연, 토론회 등 모든 활동이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만들어졌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워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임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권 확대 및 인권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은 지역에서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식당여성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여성민우회가 여성노동에 대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여성운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주의 대중화를 위한 교육·성평등 문화확산 활동, 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해**



여성주의 대중화를 위해 기존의 성교육과 성폭력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성교육강사양성교육, 환경강좌, 민우여성학교, 여성주의학교 두드림, 성희롱 예방교육, 민우열린강좌 등 여성주의와 관련된 교육이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진행된 해였다. 교육을 통해 지역여성들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교사, 학부모, 지역 단체 및 생협 회원 및 활동가, 직장인, 청소년, 부부 등 다양한 위치와 조건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 여성민우회를 알리고 여성주의를 확산하는 한해였으며 지역 내 단체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하는 성과를 얻었다.

본부지부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동시에 진행한 민우여성학교는 삶을 둘러싼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누구의 시선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를 전국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해 여성민우회 전체가 통일성과 연대감을 갖기에 좋은 사업이었다.

여성글쓰기, ‘춤추는 인형이 찾아가는 성평등 세상’ 성교육 인형극, ‘미혼모 인식개선 캠페인’, 다양한 여성의제를 담은 지역여성영화제, 지역여성문화제, 성폭력안전도 모니터 사업, ‘아동성폭력 없는 지역 만들기’ 포럼, 성폭력예방 캠페인 등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들도 지역여성민우회마다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역여성민우회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회원확대 및 회원들의 안정적인 회비 납부 유지를 기본으로 일상적인 판매사업, 10주년 기념사업과 후원사업, 송년회와의 결합, 인터넷 모금활용, 지역대형업체 영수증 적립, 바자회 등 특별행사 뿐 아니라 후원처 개발 및 후원회원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재정안정화 방안들이 모색되고 실천되었다.

### **9개 지부 9가지 색깔과 모양의 풍부하고 독창적인 활동이 이루어진 해**

위에 열거한 공통적 특징 외에도 지역여성민우회 각 지부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풍성한 활동들이 진행되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는 2011년 새롭게 파주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하고 파주지역의 개발과 함께 파주시로 터전을 옮긴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고양파주여성민우회로 명칭을 개칭했으며 2012년 창립 15주년을 맞아 15년의 역사성을 가진 여성대중운동조직으로서, 또한 지역의 중견 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해였다. 한부모지원사업은 한울타리 소모임의 정례적인 만남을 넘어서 개인별 경제자립기반과 한부모여성들의 일자리

공동체를 꿈꿔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면서 내부 동력을 갖게 됐고 고양시 여성·아동·사회복지정책 실천과제를 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해였다. 조직적 지원 속에 파주상담소를 중심으로 파주지역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교육후속모임, 소모임 등이 구성되어 파주지역의 조직적 활동기반이 마련되었다. 성폭력피해자들의 안정적 생활적응을 이루고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하담에서의 자원활동이 풍성해졌고 지역아동센터 ‘꿈틀이’는 모람활동과 집단 상담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자율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했으며 부모자치운영회 구성을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 확산을 꾀했고 운영자 문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내 인적 자원을 다양화하여 ‘꿈틀이’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낼 수 있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광주여성재단 출범 등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 여성불편개선을 위한 리더교육 및 여성실천단 동별 대중강좌, 민우여성학교, 성인지정책 제안 및 교육활동, 등하교길 아동도우미 사업, 여성폭력상담원 역량강화 사업인 오롯이 즐기는 색깔여행, 성폭력피해자치유회복프로그램,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연극‘식당블루스’, 성폭력 피해자지원 및 가해자 치유교정 프로그램을 통한 반성폭력운동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10년의 성과를 이어 생활 속의 여성운동 기반을 확고히 하고 동네별 여성조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동네별 여성실천단을 꾸리고 첨단, 운암동, 광천동, 수완동, 매곡동 등 5개동에서 대중강좌를 진행했다. 쉼터와 상담소는 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지원연계체계를 더욱 확대 구축하였고 유관기관과의 사례회의, 지원시설과의 연대활동 활성화 및 쉼터생활인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용문제 제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 제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제안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전체상근활동가 풀뿌리 조직가 훈련 40시간 진행, 전체회의를 이용한 정책토론, 부산지역 여성단체 마을활동 탐방 등을 진행해 활동가 역량강화를 꾀했고 민생, 민주, 평화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대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돌봄단기, 민우10년 비전을 말하다”사업을 통해 다양한 NGO 단체들의 활동과 사회적기업, 공동체 운동 등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가져 회원 및 상근활동가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2011년 한부모사업은 ‘위기의 미혼·한부모가족 사례관리와 순회포럼 및 국회간담회’, 당사자 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등 정책사업에 주력한 해였다. 영화관람과 연극 ‘대머리 여가수’, 뮤지컬 ‘빨래’, 음악회 ‘서혜경 피아노 연주회’ 등 다양한 문화적 체험과 ‘강화도 체험농장’, 양평 ‘숲속의 집’으로의 여행을 통해 을 통해 삶에 활력을 불어넣

었고 가족들과 회원 서로에게 지지와 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홈은 LH공사와 4채를 재계약 하고 한부모위원회의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주기 위해 입주기간을 조정하여 2년에서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고, 그룹홈 신고문제를 마무리하였다. 상담소는 상담원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보수교육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했던 한 해였다. 아동안전망 사업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순회교육과 실태조사를 3년째 지속하여 진행했다.

남서여성민우회는 활동가 부족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다양한 활동 속에서 적절한 역할분담과 합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지부 운영이 짜임새가 있었다. 서울성곽걷기모임, 독서모임, 판주머니모임, 영화모임 등 소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운영위원들이 각각 1개 정도 소모임장을 맡아 팀회원관리와 프로그램기획과 진행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양천생활자치네트워크라 활동이 재개되면서 공동 강연회, 양천구 친환경급식설명회, 서울시장 투표참여 길거리독려활동, 가을한마당축제,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안, 식생활교육양천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활발한 지역자치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민우회의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공동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여러 단체 활동가와 교류하고 그 속에서 여성주의 의미를 확산하는 기회가 되었다. 대학생자원활동가가 결합한 해피빈 모금사이트 개편과정에서 '신나는'이 '아름드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롭게 발전된 모습의 아동센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고 센터아이들 학부모의 입소문에 의한 자연스런 홍보와 지역 기관들의 협조로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안에 안착되고 좀 더 발전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동북여성민우회는 달맞이, 오야, 다푸리, 십시일반, 문화팀, 교육기획팀, 생강팀 등 기획팀의 활동이 활발한 한 해였다. '달맞이데이', 도봉구 성폭력 지원체계 모니터 사업, 대보름행사, 어린이날 행사, 되살림장터와 여성주간, 송년회, 새로운 공부방 간식 후원 등은 모두 팀들이 진행한 활동들이며 기획팀들은 각 사업에 맞게 외부 교육도 수강하며 역량강화를 했다. 새로 구성된 생강팀은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적극 결합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되어 동별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다. 버마 난민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불펜행동 사업을 통해 회원 자녀들과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2012년 20주년을 맞아 총회, 민우데이를 통해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2년에는 도봉여성센터를 수탁 운영하게 되었다. 3월 결성한 도시협의 대표 역할을 맡아 참여예산, 일본발 원전사고, FTA날치기 통과 등 시국 상황에 대응 활동을 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노

원, 도봉 급식네트워크에 참여하며 무상급식반대 투표 거부 등의 활동을 했고 급식네트워크는 조례재개정의 성과를 이뤄냈다.

원주여성민우회는 운영위원 워크숍을 통해 운영위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활동역량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발성이 높아진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교육사업, 정책사업, “한미 FTA반대 촛불집회” 등 정치적인 사안에도 적극 참여해 민우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민우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 성교육강사양성, 환경강좌, 민우여성학교 등 여성주의와 관련된 교육이 어느 해보다 풍성하게 진행되었으며 반응도 매우 뜨거운 한 해였다. 성교육강사과정을 통해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나, 생협 활동가로 일하는 여성들에게 양성평등한 성문화 교육을 통해 자신의 직장 내에서 강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제학강좌, 청소년을 위한 POP특강,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의회학교, 신입회원을 위한 신입회원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다양한 교육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고 새로운 소모임을 확대한 것이 회원확대의 주요한 요인이었다. 회원들의 욕구를 담아 다양한 소모임을 만들고자 시도를 하였으며 소모임의 안정을 위해서 모든 소모임에 활동가가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결과 올레의 경우 구성원대부분이 회원가입을 하였고 민우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인천여성민우회는 활동성을 갖춘 회원의 증가가 예년에 비해 잘 이루어졌고 각 소모임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한 한해였다. 본부와 함께하는 민우여성학교는 여성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정체성 확립을 어려워하는 회원 및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었고 많은 공감을 얻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인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 ‘여성글쓰기 낙서혁명’ 프로그램은 글쓰기를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진행한 춤추는 인형이 찾아가는 성평등 세상 역시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을 꾸준히 진행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한 ‘토닥토닥 3대가 함께 하는 마음여행’은 엄마-나-자녀로 이어지는 갈등구조가 소통구조로 바뀌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 ‘미혼모 인식개선 캠페인’ 역시 여성인권의 교두보 역할을 이어가고자 하는 민우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지역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인천 시민사회단체연대 및 여성연대의 활동, 인천의제21, 성평등분과, 주민참여예산 등에 참여하여 성인지 예산 및 구정, 시정 예산을 모니터링 했다.

진주여성민우회는 2011년 야외로 나가 폐식용유로 세탁비누 만들기, 지리산 만인보 실상

사 1박 2일, 텃밭 분양식과 농장교육, 5월애 영화관람, 창립일 기념 파티, ‘달빛아래 놀자’, 여성영화제 등 때로는 땀으로 때로는 문화와 감동으로 때로는 대화와 강좌로, 때로는 함께 책을 읽고 나누면서 다양한 구성과 조합으로 여성주의를 경험하고 나눈 해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동, 올바른 여성웰빙센터활용을 위한 운동, 이성자미술관건립 운동 등 생활밀착형 여성운동으로 세상과 소통했다. 지역방송 토론회와 신문 기고문, 방송 인터뷰를 통해 임신·출산의 사회문제와 공공성을 강조했고 올바른 여성웰빙센터활용을 위한 운동은 진주여성웰빙센터가 가족을 포함한 여성들의 문화공간이며 진주의 여성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실현하는 기관이 진주여성웰빙센터내에 입지하기를 주장했다. 이성자미술관건립 운동은 지역의 문화예술적, 교육적, 여성운동적 가치에 뜻을 두고, 이성자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3.8세계여성의 날과 진주시 여성주간에 진주시여성단체가 함께 여성친화도시 진주 선포, 시설물·표지판·기호·교통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지역의 여성인권현황 점검 발표, 진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한 한나라당도가니대책위원장 대응활동 등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해였고 애매한 성희롱의 기준을 정해주는 ‘애정녀’ 공연은 진주여성민우회의 운동을 쉽고 재미있게 전할 수 있었다. 해아해아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지역연계사업과 자원봉사자의 확대를 꾀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성폭력상담소는 다른 해보다도 성폭력 사건지원이 증가하고 활성화 된 해였다. 성폭력추방캠페인은 성폭력 취약 대상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가에서 실시하여 호응도가 높았고, 지역의 단체나 기관들과 연대하여 실시한 캠페인은 비용과 수고를 절감하면서도 재미있고 효과적인 캠페인이 되었다. 생협은 위원회 활동이 활발했고 새로운 소모임과 마을모임을 통해 생협운동을 더욱 열심히 알려낸 해였다.

춘천여성민우회는 매년 지속적인 회원릴레이를 통해 전체 회원이 확대되고 안정되어 새로운 활동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2011년은 가장 중요한 동력인 회원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롭게 확인한 해였다. 회원 만남의 날은 회원중심으로 모임을 계획, 다양한 회원들의 만남의 자리가 되었고 춘천여성문화제는 작지만 짜임새 있는 사업기획으로 참여자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발생으로 인해 단체들 간 연대의 필요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조직들이 사업을 실행한 해였다. 강원여성연대는 강원도여성정책관련예산을 분석하여 강원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춘천공동행동은 지역 현안 및 교육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춘천급식네트워크는 활동을 통해 2012년 강원도 내 17시도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게 되었으나 정작 춘천시만 하지 않아 집중투쟁의 과제가 남았다.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감사 보고서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 감사 보고서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재정 감사 보고서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 감사 보고서

김경희(한국여성민우회 감사, 중앙대 사회학과)

한 조직을 모니터링하는 감사의 역할을 잊고, 총회에만 오면 민우회의 일 년 활동에 감사(thank)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소임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2011년 한 해에도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1)여성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담론형성, 2)운동의 심화를 통한 전환의 모색, 3)여성운동의 재생산을 통한 미래의 준비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활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목표에 대한 활동의 성과와 미래의 과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여성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노동, 성과 재생산, 가족에 대한 새로운 담론 형성을 위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종단적으로 여성들의 삶에 밀착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론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드러낸 점이 그 어느 때의 활동보다 훌륭하다고 판단됩니다. 성폭력, 고용차별 등에 관한 상담사례를 5년에 걸쳐 분석한 점이나, 낙태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낸 점에서 그러합니다. 더욱이 비공식 부문의 대표적인 여성일자리인 식당노동에 대한 조사와 인식전환 캠페인은 지속성을 지닌 민우회의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업주부 신화 혹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적이고 대안적인 논의의 제시도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담론형성이라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모색과 노력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담론형성은 한 번의 문제제기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론은 지형의 역동성으로 인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늘 짚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민우회가 대안담론으로 제시하고자 했던 쟁점들은 담론의 지형이나 구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쉽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고용차별이나 성폭력의 문제는 이미 그 문제점과 심각성을 수용하여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현시적으로는 대항 구도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쟁점들에 대한 대안 담론은 잠재

적이고 숨은 내용들을 드러내고 대중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업주부 이데올로기 또한 교육을 통한 가족재생산의 욕망과 경쟁적인 노동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어 성역할로만 타개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족재생산과 계급재생산의 메카니즘에 대한 천착과 대중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 여성운동의 심화를 통한 전환의 모색이라는 목표는 공통사업을 통해 운동의 확산, 지역여성운동의 활성화, 조직 기반 강화,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공통사업이었던 식당사업은 2년 연속 공통사업으로 선정된 주제로 실태조사를 통해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어 사회적인 관심을 촉발하고, 식당노동자의 새 호칭 ‘차림샤’가 발굴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식당노동에 대한 존중과 식당노동자의 노동환경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식당사업은 그 동안 어느 집단에서도 하지 않았던 조사와 캠페인을 벌였다는 점에서 매우 독보적이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여성들이 수행하는 식당노동의 열악함과 소비자인 우리 자신들의 태도를 각성하게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활동은 대안까지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식당 자영업의 문제점과 노동환경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었지만, 현재 서비스 산업과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산업구조, 여성 일자리의 부족, 가계경제의 위축 등을 고려했을 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식당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저임금 구조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무례함에 대한 경종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해봅니다.

회원조사와 지역여성조사는 회원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과 여성의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운동의제를 발굴하고 민우회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회원조사를 통해 민우회 회원들과 조직의 모습을 진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1500명 정도의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의 표본은 10% 남짓한 160명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규모의 표본과 정교한 설문지를 활용했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조사결과를 통해 미래의 운동 과제를 발굴했는지,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는 후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우회 운동의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민우회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우회 운동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에 대한 모색 속에서 기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운동의 재생산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자는 목표는 한 해에 성과가 두드러질 수는 없는 운동 목표이지만,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한발 한발 옮겨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별칭짓기, 20대를 위한 여성주의 교육과 액션 등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앞의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는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핵심적인 운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무엇을 여성운동과 민우회 운동의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인지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우회 운동의 전환이나 미래의 준비는 20년 이상의 민우회 운동의 연속성 속에서 모색되어야겠습니다. 운동의 연속성(continuity)이란 어떤 운동조직이 과거와 현재가 비교적 일관된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사회적 속성을 의미하지만, 연속성은 역사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동반하면서 유지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가 변화되고 여성의 삶이 변화한 것만큼 민우회의 활동도 다양하고 변화를 수반했지만, 20여 년의 운동 역사를 관통하는 진보성과 대중성이라는 다소 일관된 정체성은 운동의 연속성을 부여하는 중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우회 운동이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해 온 진보성과 대중성이라는 집합적 정체성을 가능하게 한 것은 꾸준히 전개된 생활정치의 실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생활정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이고 기득권 세력의 권력관계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진보적이며,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대한 정치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 국면에서 평등, 복지의 공공성, 정의가 담보된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여성운동의 담론 제시와 대중 사업들을 함께 가는 여성들, 민우회가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재정 감사 보고서

남윤인순(한국여성민우회 감사,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본 감사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회계연도의 재정부문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수지 현황

민우회는 2011년 민우회 본부와 부설 미디어운동본부 및 성폭력상담소, 각 지부로 회계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했습니다.

- 민우회 본부 사무처는 2011년도 총수입 509,861,400원이며 총지출 501,139,903원으로 8,721,497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바 수입과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회비수입	227,405	39.50%	230,258	45.16%	1.25%
후원금	54,422	9.40%	55,098	10.81%	1.24%
고평상담지원금	19,074	3.30%	19,000	3.73%	-0.39%
조직사업					
교육사업	24,330	4.20%	15,620	3.06%	-35.80%
정책사업	47,279	8.20%	60,483	11.86%	27.93%
재정사업	151,966	26.40%	128,047	25.11%	-15.74%
기타수입	51,827	9%	1,356	0.27%	-97.38%
총계	576,303	100%	509,862	100%	-11.53%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액	비율	액	비율	
인건비	207,610	41.6%	199,704	39.85%	-3.81%
활동비	27,300	5.5%	39,937	7.97%	46.29%
공동경상비	67,423	13.5%	75,029	14.97%	11.28%
조직사업	65,849	13.2%	54,579	10.89%	-17.11%
교육사업	23,448	4.7%	15,996	3.19%	-31.78%
정책사업	44,044	8.8%	62,981	12.57%	43.00%
재정사업	63,163	12.7%	52,913	10.56%	-16.23%
총계	498,837	100%	501,139	100%	0.46%

- 미디어운동본부는 2011년도 총수입 68,863,786원이며 총지출 86,571,900원으로 17,708,114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바 수입과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액	비율	액	비율	
후원금	49,673	62.97%	28,989	42.10%	-41.64%
교육사업	28,221	35.77%	39,865	57.89%	41.26%
정책사업	450	0.57%	0	0.00%	-100.00%
기타수입	543	0.69%	10	0.01%	-98.16%
총계	78,887	100%	68,864	100%	-12.71%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액	비율	액	비율	
인건비	18,061	25.82%	21,214	24.50%	17.46%
경상비	18,482	26.43%	17,252	19.93%	-6.66%
조직사업	657	0.94%	103	0.12%	-84.32%
교육사업	27,744	39.67%	41,558	48.00%	49.79%
정책사업	3,541	5.06%	3,179	3.67%	-10.22%
기타사업	1,454	2.08%	3,266	3.77%	124.62%
총계	69,939	100%	86,572	100%	23.78%

- 성폭력상담소는 2011년도 총수입 142,433,958원이며 총지출 138,021,291원으로 4,412,667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는바 수입과 지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액	비율	액	비율	
법인전입금	14,308	8.57%	8,736	6.13%	-38.94%
후원금	20,190	12.09%	15,742	11.05%	-65.90%
성폭력상담지원금	79,281	47.48%	77,923	54.71%	0.00%
교육사업	9,275	5.55%	7,225	5.07%	0.22%
정책사업	21,832	13.07%	13,822	9.70%	0.42%
재정사업	21,024	12.59%	16,989	11.93%	0.17%
기타수입	1,073	0.64%	1,997	1.40%	-1.08%
총계	166,983	100%	142,434	100%	0.04%

[지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율
	액	비율	액	비율	
인건비	88,086	44.19%	90,196	65.35%	2.40%
경상비	68,506	34.36%	18,904	13.70%	-72.41%
상담사업지원금	13,410	6.73%	9,000	6.52%	-32.89%
조직사업	537	0.27%	313	0.23%	-41.71%
교육사업	4,663	2.34%	2,135	1.55%	-54.21%
정책사업	17,889	8.97%	14,281	10.35%	-20.17%
재정사업	6,259	3.14%	3,192	2.31%	-49.00%
총계	199,350	100%	138,021	100%	-30.76%

따라서 민우회 본부 전체의 2010년 총수입은 721,159,144원이며 총지출은 725,733,094원으로 4,573,950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 2. 재산현황

-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민우회 본부 사무처의 자산은 798,643,699원입니다.
-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미디어운동본부의 자산은 35,520,797원입니다.
-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성폭력상담소의 자산은 72,987,158원입니다.

## 3. 감사보고 및 건의사항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수지계산서는 민우

회의 재무상태, 사업운영과 지출의 내용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우회 본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나서 다행입니다. 연말에 회원이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주었고, 다양한 방식의 후원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빚을 갚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적금을 들고 있고 2012년 1월이 만기라서 건축 부채를 일부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꾸준히 적금으로 빚을 갚아서 경상비를 줄이는 데 노력하고 계신 민우회 대표님과 모든 활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 몇 가지 보완할 점을 건의 드리면

1. 금전출납부와 지출결의서를 매달 마지막날로 일괄 정리하고 있는데 이를 은행에서 인출하는 날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번씩 결재를 하고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일부 영수증이 세금계산서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증 처리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와 카드 영수증을 기본으로 하고 간이영수증은 일정금액 미만으로 한다든지 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우회 자체 영수증도 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2. 미디어운동본부는 2011년 미디어 관련 대외활동과 교육사업이 강화되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났습니다. 미디어바로보기 교육은 예산보다 4배정도 늘어나서 매우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결구조에서 사업변경 및 추경을 해서 예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보완할 점은 영수증 미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출결의서 양식에 미디어본부라는 명칭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 회비가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일상적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슈 캠페인을 온-오프 모금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2. 상근활동가 인건비를 다른 시민단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신의 경력을 쌓고 비전을 갖고 일하려면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70% 정도 임금을 받고 나머지 30%는 공익적이고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민우회가 본부와 부설기구가 독립재정을 하면서 회계정리 방식도 각각입니다. 최소한 회계 매뉴얼(회계규정)은 공유하고 정리방식을 맞춰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본부가 사용하는 더존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부설기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기 바랍니다.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안)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계획(안)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업계획(안)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업계획(안)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 사업계획(안)

## 사업목표

---

1. 2012년 열린 정치공간에서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시민적 권리로 구성하여 공적 요구화 함으로써 성평등이 새로운 정치의 전제이자 기본 가치임을 알린다.
2. 지속사업의 심화를 통해 운동의 완결성을 꾀하는 한편, 새롭게 제기 되는 사업 및 이슈는 공론화하고 의제로 안착시킨다.
3. 참신한 교육기획, 대학여성모임 지원, 지역여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여성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한층 더 확대한다.
4. 민우회 활동을 알리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브랜드별칭을 개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
5. 다양한 모금기획 및 시도를 통해 모금경로를 다채널화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비비율 제고에 노력한다.

## I. 사업 목표

1.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_2040 여성들의 산부인과 경험 드러내기”를 통해 20~40대 여성들이 겪는 산부인과 경험, 진료 태도, 질환에 대한 사회적 시선 및 의료시스템 등을 드러냄으로서 저출산과 의료상업화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몸이 도구화되고 객체화 되는 현실을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2.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례집의 출판 기획, 영상 강연회를 통해 구축된 문화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정부 정책 모니터링, 총선 대응 등 일상적인 대응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낙태 범죄화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려낸다.

## II. 사업 계획

### 1.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_2040 여성들의 산부인과 경험 드러내기

사업	사업내용	시기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_산부인과 경험 드러내기	1) “나의 산부인과 이야기”(가) 실태조사 -20대~4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관식, 객관식이 혼합된 수첩 500부 배포 -산부인과 경험, 의사의 태도, 질환의 종류, 질환에 대한 주변의 반응, 출산 경험 유부에 따른 차이 등의 질문 구성 -세대별 여성들의 경험 취합 및 영역화하여 세대별 과제 도출 -회원 수다회 등 2)“나의 산부인과 사용설명서”(가) 소책자 및 의사지침서 개발 -실태조사 결과 여성들이 겪는 주요 질환이나 경험, 불편했던 산부인과 경험, 자궁경부암 백신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 등 병원 이용부터 질환에 대한 접근까지 전반적인 내용 담은 소책자 제작 -관련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한 정보 담기 -대학, 단체, 여성모임, 연계 병원 등 배포 -전문가 간담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뀌어야 할 의사들의 태도 등을 담은 의사 지침서 개발 및 배포	연중

	<p>3) UCC 제작 및 배포 : 기획단과 함께 실태조사에서 취합된 산부인과 경험을 기반으로 여성의 몸과 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등의 내용을 담은 UCC영상을 제작 및 배포함.</p> <p>4) 토론문화제 : 토론회와 영상, 공연을 접목한 문화제를 마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여성건강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함.</p>	
--	---	--

## 2. 낙태이슈관련 지속적 기획활동

사업	사업내용	시기
낙태이슈 관련 지속적 기획활동	<p>1) 사례집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출판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인터뷰이, 개별신청자, 민우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사례집 평가의견 취합 후 내용을 수정 및 보강  -출판을 위한 모금 기획  -관련 출판사 등 연결</p> <p>2) 낙태관련 법, 정책 이슈화를 위한 기획활동  - 총/대선 후보 대상으로 정책요구안 전달  - 보건복지부 낙태 관련 정책 모니터링  - 2011년 제작한 UCC 등을 통한 영상 상영회 등</p>	연중

## 3. 여성건강이슈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사업내용	시기
여성건강이슈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p>1. 여성건강에 대한 일상적 자료축적과 이슈발굴을 위한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건강팀 전용 트위터를 개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뉴스, 정보를 수집 및 외화 함</li> <li>• 여성건강권 세미나 내용, 일상적 여성건강이슈 대응을 위한 블로그 포스팅, 3줄 논평 작성</li> </ul>	연중

# 여성노동 · 노동 상담

## I. 사업목표

1. 확정된 호칭 홍보를 통해 식당노동자가 노동자임을 사회적으로 보다 알려내고, 조례 제·개정 작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초 작업을 통해 식당노동자의 노동이 인정되고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2.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통해 여성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성노동자의 건강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속적인 상담과 이슈 대응 활동 등을 통해 비가시화된 여성노동을 가시화하며, 고용차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한다. 발빠르게 대응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간다.

## II. 사업계획

1.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개정 활동 및 호칭확산 활동

사업	사업내용	시기
식당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개정 실현화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지부 본부의 기획회의<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국 지부와 공동적으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법 제개정 운동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li></ul></li><li>2. 정책제언 간담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각계 전문가와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정책과제를 살펴보고 제도화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다.</li></ul></li><li>3.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바꾸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관련 단체와 기관과 함께 연구해서 제시한다.</li></ul></li><li>4. 대시민 홍보와 서명받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li></ul></li></ol>	4-6월

	<p>통해 제도변화의 동력을 삼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전국 지부와 함께 이를 수행해 민우회 사업의 홍보와 조직 강화의 계기로 삼고, 제도적 약자에 대해 민우회가 정책변화를 일궈 내는 주체로서 활동을 수행한다.</li> </ul> <p>5. 식당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총대선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하기 위한 정책요구안 및 기획상담 등 실증자료를 통해 여성노동자 환경에 대한 변화를 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하여 요구하도록 한다.</li> </ul>	
<p>언론 및 다양한 방안을 통한 차림사 호칭확산</p>	<p>1. 한국직업분류 중 '음식서비스관련직'에 '차림사'를 직업명으로 등재하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림사'를 한국직업분류 직업명에 등재하는 활동을 통해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만들어 간다.</li> <li>- '식당노동자, 차림사권리장전(기)'을 제작·배포하여 '차림사'라는 호칭을 식당노동자가 스스로 호명하는 호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식당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요구할 수 있는 노동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p>2. 언론을 중심으로 한 대안호칭의 적극적 대중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된 대안호칭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배포하여 시민사회와 제반단체, 시민들이 이를 인식하는 계기로 한다.</li> <li>- 대안호칭을 사용하는 식당의 사례와 실천사례를 사회적으로 알려낸다.</li> </ul> <p>3. 식당에 직접 알리기(명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에 있는 여성노동자들과 손님이 일상적으로 대면하고 호칭을 부르는 공간인 식당에 직접 대안호칭을 담은 명찰을 전달해 대안호칭을 알린다.</li> </ul> <p>4. 영상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여성노동자 호칭문제와 대안호칭 확산에 대한 영상제작을 하여 사회적으로 대안호칭을 알리고 이에 동참하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북돋운다.</li> </ul>	연중

## 2. 여성노동자, '건강'을 말하다!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

사업	사업내용	시기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	<p>1.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노동자건강권에 대한 이해, 노동자건강권운동 현황, 여성 노동</li> </ul>	3-4월

를 위한 활동	<p>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외국 사례 및 활동 검토, 산재상담을 위한 관련법 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4회에 걸쳐 관련 전문가, 노무사 등과 함께 내부 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li> </ul>	
	<p>2.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기획 상담 '건강녀(女)자 방해물 소탕작전'(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에서 여성이 건강권과 관련하여 산재 신청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건강 관련 상담, 산재승인을 확장하기 위한 상담.</li> <li>- 기획상담은 상담의 추후 상황에 대한 공유와 법적 대응을 함께하고 이를 통해 여성건강권에 대한 여론화를 목표로 한다.</li> </ul>	5-7월
	<p>3.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토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여성노동자의 건강권, 성희롱 산재판례를 통해 본 여성노동자 건강권,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 개최</li> </ul>	9-10월
	<p>4. 시민캠페인단 '꿈틀단, 반동녀(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캠페인단 '꿈틀녀, 반동녀(가)' 모임은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의제 개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여성건강권 스터디 및 여성건강 이슈와 관련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노동상담 활동의 외화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여성노동이슈에 관한 지지와 전달력을 확산하도록 한다.</li> </ul>	연중

### 3. 여성노동교육 활동

신입사원이 알아두면 덕이 되는 노동교육(가)	<p>1. 신입사원이 알아두면 덕이 되는 노동교육(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노동법, 노동환경, 대응력 향상 등, 이십대 초기 직장인을 대상으로 교육, 파견, 간접고용 등에 대해 민우회의 토론회와 상담을 기반으로 한 내용포함,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한 체크 등 청년노동에 대한 이슈화 도모, 소책자 등 구상.</li> </ul>	3-4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p>1. 강사단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강사단을 확충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강사단을 구성한다.</li> </ul> <p>2. 적극적인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탄한 콘텐츠와 효과적인 강의법을 가진 민우회 전문 강사단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적극 홍보한다.</li> </ul>	연중

### 4. 상담활동 및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232 제25차 정기총회



<p>일상적 상담 활동</p>	<p>1. 상담일지, 상담틀 재설계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5년간 고용평등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변화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기존 상담일지 및 상담틀이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게 됨. 여성노동자의 건강 이슈 등 다양한 맥락에서 여성노동자의 삶을 녹여낼 수 있는 상담일지와 상담틀을 재설계 하도록 함.</li> </ul> <p>2. 여성노동사안과 관련한 기획 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당노동자 노동사안 및 여성노동자 건강권 등 여성노동사안과 연관된 기획상담을 통해 현실 사안을 여론화하고 노동권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함.</li> </ul> <p>3. 일상적 상담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고용상 성차별, 고용평등, 모성보호, 비정규직 등 상담활동</li> <li>② 전화, 온라인(상담사이트, 이메일), 방문 상담 지속</li> <li>③ 매월 상담분석 및 통계작성</li> </ul> <p>4. 상담대응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담내용에 대한 대응, 상담지원 및 대응활동을 위한 내부 워크샵</li> <li>③ 민우회 상담결과, 의견서 제출, 항의공문발송 등</li> </ul>	
<p>상담원 재생산 및 상담기반 강화를 위한 활동</p>	<p>1. 상담원 재생산 및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원 재생산을 위한 상담 매뉴얼 작성 및 상담원 재생산 교육을 통해 상담원 재생산을 진행함.</li> </ul> <p>2. 상담 워크샵 및 상담대응력 향상을 위한 상시적 논의테이블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중상담 시기에 팀내 내부상담원들 교육 (연 2~3회)</li> <li>- 일상적인 회의 속에서 상담의 지속적 주요사례 공유. 상담 내용에 대한 일반 논의는 상시적, 일반 회의 속에서 진행.</li> </ul>	<p>연중</p>
<p>상담실 홍보</p>	<p>1. 기획상담에 대한 집중 홍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 상담에 대한 언론보도</li> <li>- 홈페이지, 인터넷, 트위터, 민우회 행사시 홍보활동</li> </ul> <p>2. 여성노동상담사례집 연간 보고서 발간(2013년 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와 대응활동, 상담분석 등</li> </ul> <p>3. 온라인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주 들어오는 상담에 대한 답변을 보완, 온라인 중심 활동영역 강화하여,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활동 강화 및 상담실 홍보 배너 제작, 배포</li> </ul>	<p>연중</p>
<p>상담 사이트 운영</p>	<p>1. 상담 DB시스템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통계 시스템의 입력 체계 점검 및 시스템 보완</li> </ul>	<p>연중</p>

	2. 상담 틀에 대한 개편 : 상담 내용 분류틀과 기록사항 등에 대한 현실적 변경	
--	--	--

## 성평등 복지

### I. 사업목표

1.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여성주의 관점으로 논의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2. 여성주의 관점의 보편적 복지 담론에 대한 대중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활동으로 이슈화한다.

### II. 사업 계획

#### 1. 성평등 복지정책 개발

: 4W(Women, Well-made, Welfare, Well-being) 프로젝트

사업	사업내용	시기
성평등 복지정책 개발: 4W 프로젝트	<p>■ 4W(여성의 관점으로 잘만들어진 복지정책으로 잘 살자) 프로젝트 :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 회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설계 도를 만들고 정책제안 마련을 위한 연구 사업</p> <p>① 복지정책 검토 및 대안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복지정책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 : 노동, 건강, 교육, 주거, 4대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li> <li>-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정책 재검토</li> <li>- 여성의 삶에 기반 한 복지정책 세부화 : 전업주부, 여성노동자, 비혼, 여성독거노인 등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균열 지점에 있는 주체들의 스토리텔링에 기반 한 복지제도 모색</li> <li>- 대안적인 여성 복지정책 개발 : 정상가족을 대체할 새로운 복지 단위를 바탕으로 복지제도 및 정책 구체화</li> </ul>	연중

	② 연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성평등 복지제도 초안을 정교화, 향후 과제 도출 - 대안적인 복지정책 제시	
--	---	--

## 2. 대중 캠페인: 모두가 행복한 평등복지로!(가)

사업	사업내용	시기
모두가 행복한 평등복지로!(가)	■ 「모두가 행복한 평등복지로!」 소책자 발간 및 배포 - 성평등 복지국가 전략보고서 회의 결과를 분야별로 정리 - 성평등 여성 복지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상반기
	■ 성평등 복지제도 연구 사업을 기반으로 도출된 핵심적 여성복지 의제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이 과정을 통해 총대선 국면에 우리의 요구안이 반영토록 하는 활동을 기획한다. - 대중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의 공감대 형성 - 본부·지부 함께하는 사업으로 기획 진행	하반기

## 연대활동

사업	사업내용	시기
임신출산결정권 을위한 네트워크	'낙태'범죄화 대응 활동을 통해 여성인권의 현실을 드러내고, '낙태' 관련 법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연중
생생여성행동	여성노동관련 정책과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사회적 여론을 확산한다.	
전국고용평등 상담실 네트워크	각 상담실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담실 운영과 상담실로 접수된 상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민주노총 성평등위원회	민주노총 사업과 문화가 성평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하여 여성노동운동의 확대에 기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및 법제정에 대한 대중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 노력한다.	
국가인권위 공동행동	•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연대 활동을 펼친다.	
노인장기요양	• 범대위의 대표단체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개정과 장기요양	

보험 법개정을 위한 범대위	보호사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꾀한다.	
여성연합 정책기획위	여성연합의 주요사업에 대해 기획하고 정책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수요집회를 주관(연1회)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FTA저지 범국민	99%의 시민이 고통 받게 될 한미 FTA의 폐해를 알려내고 한미 FTA 를 무효화시키는 활동을 펼친다.	

## 회원조직

### I. 사업 목표

1.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한 잠재적 회원층의 발굴과 회원을 통한 회원확대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회원층을 확대한다.
2.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회원 활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회원층 발굴하여 핵심회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
3. 물, 길 네트워크와의 지속적 관계 맺음과 새로운 대학 발굴 및 공동 캠페인을 통해 20대 여성운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II. 사업 계획

#### 1. 회원확대 및 회비인상 캠페인

사업	사업내용	시기																								
회원 확대 및 회비인상 캠페인	<b>1. 본부-지부 회원가입 목표 : 총 910명</b>	연중																								
	<table border="1"> <thead> <tr> <th>소속</th> <th>본</th> <th>고양</th> <th>광주</th> <th>군포</th> <th>남서</th> <th>동북</th> <th>원주</th> <th>인천</th> <th>진주</th> <th>춘천</th> <th>지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소속	본	고양	광주	군포	남서	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지부	합계											
소속	본	고양	광주	군포	남서	동북	원주	인천	진주	춘천	지부	합계														

	부										소계	
회 원	500 명	55 명	50 명	50 명	30 명	55 명	40 명	30 명	50 명	50 명	410 명	910 명

## 2. 본부 회원확대 캠페인\_25주년 기념 “2.5.0.0. 캠페인(가)”

※ 본부 회원가입 목표 : 정회원 500명

-현재 본부 회원 2036명임. 464명 모으면 2,500명이 달성됨. 탈퇴 가능성을 포함한 약 500명을 회원확대를 통해 2012년 회원 2,500명을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1) 대중과의 점점 높여내기

- 1) 민우회 홍보 영상 제작
- 2) 회원 가입의 풀은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구체적인 컨셉화
- 3) 온라인 해피빈 고액/잘은 기부자 대상으로 회원 가입 유도 방안 모색
- 4) 각 팀의 이슈별 회원확대/출강 시 홍보 매뉴얼 제작

(2) 거리 캠페인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단체회원 되기 캠페인(3월2일~ 3월8일)
- 여성영화제 여성단체 회원되기 캠페인(4월 중)

### 3. 회원을 통한 회원가입 캠페인

- 1) 홍보대사 2기 출범을 통한 회원을 통한 회원확대 강화
    - 이슈별 홍보 대사 구성
    - 온/오프라인 홍보
    - 회원, 유명인사 등 조직
  - 2) 송년회 등 회원 참여 문화행사를 활용한 회원확대 독려
  - 3) 일상적인 회원확대 분위기 조성 및 온라인을 통한 독려 지속화
3. 회비인상 캠페인

## 2. 회원 활동의 다양화, 안정화를 통한 새로운 회원층 발굴

사업	사업내용	시기
다양한	1. 소모임의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한 회원 소모임의 안정화	연중

<p style="text-align: center;">소모임 활동의 안정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모임 소개 동영상 제작</li> <li>2) 각 소모임별 새로운 회원확충</li> <li>3) 기존 소모임 활동의 활성화(계획 아직 안나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소(격주 모임)</li> <li>• 작심삼일(격주 모임)</li> <li>• 요망단(격주 모임)</li> <li>• 코드명: 치명적(격주 모임)</li> <li>• 설로우고고(격주 모임)</li> <li>• 자기성장모임(격주 모임)</li> <li>• 여성주의 내공세미나(격주 모임)</li> <li>• 여성주의 생활글쓰기(격주 모임)</li> <li>• 자전거 소모임(격주 주말 모임)</li> </ul> </li> <li>4) 기존 모임 통폐합 및 다양한 주제와 형태의 새로운 소모임 신설 (예: 운동 소모임, 댄스 소모임, 이슈별 기획단 등)</li> <li>2. 회원참여기획단 ‘다다다’ 활동 강화(격월 연 6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활동 및 비활동 회원 참여프로그램 기획과 집행 : 홍보대사 운용, 회원 송년회(12월) 등</li> <li>2) 소모임 활동공유 및 소통</li> <li>3) 민우회 활동공유 및 회원 사업에 대한 논의</li> </ol> </li> <li>3. 소모임 상근자 교육 및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담당 활동가의 조직 활동 역량 키우기</li> <li>1) 소모임 담당 활동가 교육(상반기)</li> <li>2) 소모임 담당 활동가 회의(연 4회)</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신입회원 만남의 날 + 신입회원 세미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입회원 만남의 날(격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회원들의 유기적이고 진솔한 관계맺음을 통한 새로운 회원층발굴</li> <li>1) 민우회 활동 소개</li> <li>2) 다양한 주제로 신입회원 소개하기</li> <li>3) 함께 하는 프로그램(1주)</li> </ul> </li> <li>2. 신입회원 세미나(연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리큘럼의 다양화, 적극적 홍보 및 조직을 통해 활동 회원층 발굴</li> <li>- 여성학, 섹슈얼리티, 가족, 소수자, 문화 등 주제로 4~5회 진행</li> </ul> </li> </ol>	연중

### 3. 회원과의 일상적인 관계맺음으로 소통강화 및 회비 안정화

사업명	사업내용	시기
회원과의 소통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우회원 만남의 날 '답나는 다방'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상근활동가들이 회원들의 삶의 공간에 직접 찾아가 민우회 활동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나누고 이를 모람세상을 통해 공유</li> </ul> </li> <li>2. 회원참여 캠페인 '여성주의 실천 바톤터치'(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들이 자신의 일상(직장, 가족, 동호회 등)에서 여성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회원캠페인을 진행.</li> <li>2)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회원들의 참여 유도</li> </ol> </li> <li>3. 모람세상을 통한 회원과의 소통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람세상 가입률 증대</li> <li>2) 다양한 회원소모임, 활동 공유</li> </ol> </li> </ol>	연중
전체회원에게 대한 접촉면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일상화하고 회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획, 독려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회원에 문자 메시지: 민우회의 주요한 활동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li> <li>2) 주기적인 '회원소통day'를 만들어 팀의 회원 업무의 집중을 높여내고 회원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관계맺음</li> </ol> </li> </ol>	연중
회원정보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원 DB에 들어갈 기초정보 업데이트</li> <li>2) 회원DB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일관성 있는 정보관리</li> <li>3) 후카메모장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기록 공유관리</li> <li>4)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한 백업</li> </ol>	연중
가입 탈퇴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입 시 감사전화, 우편물 발송(사업브로셔, 손편지, 뱃지 동봉)</li> <li>2) 탈퇴, 보류 시 전화를 통한 확인 및 처리</li> <li>3) 가입서의 체계적인 정리 및 보관</li> </ol>	연중
회비납부율 향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적인 회비납부 독려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비 미납 회원 전화 연락(3개월 단위)</li> <li>-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회비 납부한 회원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li> </ul> </li> </ol>	연중

	2) 첫 달 회비 납부 회원에게 감사 문자 보내기	
연말정산 영수증	연말정산 영수증(1월초) 발송 - 1년간 후원한 회원에게 감사편지를 동봉하여 영수증 발송	1월
홍보물 발송명단 업뎃	뉴스레터 주소록 업데이트, 참여발송 회원명단, 반송된 명단 정리 및 주소 변경 처리	연중

#### 4. 민우유스네트워크 <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 : 물, 길>

사 업 명	사업내용	시기
물, 길 네트워크	1. 대학 발굴을 통한 새로운 여성주의 모임 인큐베이팅 - 수도권 내 여성주의 모임 시작 단계에 있는 대학 발굴 - 학내 의제 발굴 및 공동 캠페인 진행 - 민우회를 찾는 20대 자원활동가 조직화  2. 기존 물, 길 네트워크와의 지속적인 모임을 통한 관계맺음	연중

## 지역

### I. 사업 목표

1. 2011년 회원인터뷰 사업 후속으로 지역민우네트워크에서 각 지부의 현안과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부 활성화를 도모한다.
2. 민우회 회원 캠프를 통해 지부와 지부 사이, 본부와 지부 사이 소통과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표, 운영위원 등 역할 별로 나누는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부 활동가 층을 강화한다.

### II. 사업 계획

240 제25차 정기총회



## 1. 지역민우네트워크 - 지부 활동 돈보기 포럼

사업	사업내용	시기
지역민우네트워크	1. 참가대상 및 운영방식 : 각 지부 대표 / 5~6회 2. 지역민우네트워크의 정책논의를 지부 활동 돈보기 포럼으로 진행한다. 1) 매 회의마다 지부를 선정, 해당 지부가 자기 지부의 현황과 고민을 발제 2) 지부 현황과 고민 발제는 회원인터뷰 종합토론회 발표 내용을 기본으로 보완 3) 지부 대표들이 멘토가 되어 해당 지부 과제 집중 토론	연중

## 2. 민우회 회원 캠프(가)

사업	사업내용	시기
민우회 회원 캠프(가)	본부지부가 함께 기획하는 회원한마당(가)을 통해 회원들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민우회 회원캠프는 민우회 회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지부 및 본부회원들의 이후 여성주의 활동에 힘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한다.	7~9월

## 3. 신입 지부대표 등 지부 활동가 연수

사업	사업내용	시기
지부 활동가 연수 정기화	1. 신입 대표 연수 1) 목적 : 신입 지부대표의 역할 수행 지원 2) 기획단위 : 본부 지역팀 + 지부대표 1~2인 3) 연수내용 : 민우회 정체성, 민우회 정관 이해, 조직문화 이끌기, 회계 등 2. 지부 운영위원 및 부설기구장 연수 1) 목적 : 지부 운영위원의 역할 수행 지원 2) 기획단위 : 지부대표3인 + 본부 지역팀 3) 연수내용 : 민우회 정체성, 운영위원의 역할 등	3~4월

## 4. 지역민우회ON!

사업	사업내용	시기

지역민우회 ON!	1. 각 지부 활동 후기 온라인 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게재 2. 한 달에게 2개 지부 내용 게시 3. 사전 게재 순서를 정하고 시작	연중
--------------	---	----

## 교육

### I. 사업목표

1. 2012 총대선 국면 속에서 여성운동 및 이슈를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대중과의 접촉면을 확장시키기 위해 기획력 있는 대중강좌 및 여성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우회 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꾀한다.

### II. 사업 계획

#### 1. 민우여성학교 <토크콘서트(가)>

사업	사업내용	시기
대중강좌 <토크 콘서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 총대선 국면에서 사회 전반의 이슈를 여성주의 관점으로 대중적으로 쉽게 풀어내고 특히 정치 관련하여 여성이슈에 대해 대중의 큰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전국순회 대중강좌를 기획하여 진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목: 여성, 정치를 말한다.(가)</li> <li>- 방식: 여성인사의 인터뷰 특강 혹은 대담 형식</li> <li>- 내용: '정치'를 중심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이슈를 담아 기획</li> <li>-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강좌 기획 회의(2월)</li> <li>• 대중강좌 사회 및 강연자 섭외(3월)</li> <li>• 대중강좌 전국 순회: 서울 및 지부 지역 중심으로(4~6월)</li> </ul> </li> </ul> </li> </ul>	상반기

#### 2. 여성주의 고전읽기 <열독2>

사업	사업내용	시기
----	------	----

여성주의 고전읽기 〈열독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 진행한 여성주의 고전읽기 〈열독〉에 이어 여성주의 고전을 통해 여성주의 심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열독2〉를 진행한다.</li> <li>- 강좌 기획: 강사, 고전 선정 및 진행 방식, 회차(4회) 등</li> <li>- 강좌 이후 소모임 등 조직화로 연결 유도</li> </ul>	연중
-----------------------	---	----

### 3. 활동가 교육

사업	사업내용	시기
신입활동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입활동가의 민우회조직 및 여성주의에 대한 기본이해를 높인다</li> <li>- 교육 내용: 민우회 여성운동의 역사, 조직체계 및 정관 내규 이해, 조직 활동가로서의 기본인식, 여성주의 세미나, 회계 및 회원회비관리(지부) 등</li> <li>- 대상: 본부, 지부 신입 상근활동가</li> <li>- 시기: 3월 중</li> </ul>	상반기
활동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 포럼 진행: 여성주의 및 운동 이슈 이해도, 대응력, 상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포럼을 기획하여 진행</li> <li>- 대상: 본부, 지부 활동가 및 운영위원</li> </ul>	연중

## 정보(온라인 홍보)

### I. 사업목표

1. 새롭게 구축된 온라인 활동(SNS, 블로그, 해피로그)의 채널을 집중하고 안정화함으로써 민우회 활동을 홍보하고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2. 민우회의 DB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 II. 사업계획

#### 1. 홈페이지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	시기
----	------	----

3줄논평, TED, 영문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자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글에 대한 회원 반응, 조회수, 리플수, 블로그와 쇼케이스 등 홍보)을 통한 민우칼럼 활성화</li> <li>- 홈페이지의 내용을 블로그, SNS로 연동, 발행</li> <li>- 민우TED "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 업데이트 : 1달에 1회씩, 5분 내로 회원, 활동가 등이 느낀 여성 관련 에피소드와 사건 등을 영상 강의로 코믹하게 기획</li> <li>- 영문 홈페이지 수정 및 보완</li> <li>- 3줄논평 활성화 : 트위터, 홈페이지를 통한 즉각적 이슈 대응 등</li> </ul>	연중
온라인 소식지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소식지 발송 리스트 정비</li> <li>- 타단체 온라인 소식지 콘텐츠, 서식 등 참고하여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디자인 정비</li> </ul>	연중
민우회 블로그 운영 및 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로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자료를 편집하고 업로드하여 후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게시</li> <li>-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 꾸준히 업데이트</li> <li>- 한사람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블로그 텍스트형식 통일</li> <li>- &lt;일상다반사&gt;, &lt;대표적으로&gt; 꼭지의 안정화 및 고정 필자 칼럼을 통한 블로그 활성화 유도</li> </ul> </li> <li>■S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일 1명의 트위터러인과 소통하기</li> <li>-이슈별 기획 트윗, 팀별 계정 트위터 활성화 등 sns 활용의 작은 실험 지속해가기</li> </ul> </li> </ul>	연중
해피로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롱 기부자들과 관계망 형성 : 고액 기부자들 위주로 감사편지나 뉴스레터 발송으로 DB화 시키기</li> <li>-팀별 다양한 콘텐츠로 모금함 개설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 및 추동하기</li> <li>-블로그 형태로 지속적인 해피로그 관리를 통한 콘텐츠 노출 가능성 높이기</li> </ul>	연중

## 2. 자료 DB 체계적 구축 및 체계적 관리

사업	사업내용	시기
자료 DB 정비 및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DB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자료실 정비</li> <li>- 외장하드에 자료 업로드 및 관리</li> </ul> </li> <li>▶오프라인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 제본, CD화</li> <li>- 지하 1,2층 자료실 리스트 정리 및 정비</li> </ul> </li> </ul>	상반기

	▶영상자료DB 구축 - 행사 시 영상자료 축적 및 관리 - 이슈별 UCC를 만들어 홍보와 배포	
시스템 관리	- 노후된 노트북정리 및 재단 등을 통한 중고노트북후원 요청 - 시기별 노트북 정비 및 관리 매뉴얼 - 캠코더 관리	연중

## 홍보(오프라인 홍보)

### I. 사업목표

-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회원을 포함한 대중들이 민우회를 보다 참신하고 열린 단체로서 이미지화 할 수 있도록 민우회 별칭짓기 사업을 진행한다.
- 민우회 활동을 보다 폭넓게 가시화하고 대중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홍보 업무를 체계화한다.

### II. 사업 계획

#### 1. 창립 25주년 맞이 <별칭짓기> 사업

사업	사업내용	시기
별칭사업	■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민우회의 가치와 활동을 두루 나타낼 수 있는 별칭을 짓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 민우회에 대한 대중의 접근도를 높이고 이미지 변화를 꾀하는 민우회의 취지를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회원, 대중 대상으로 민우회 이미지 조사 - TF팀을 구성하여 이미지 조사 내용 분석, 별칭 키워드 정하기 - 진행 내용을 대외적으로 홍보 및 회원참여 유도	상반기
	■ 별칭안을 기획검토하여 회원 및 대중의 투표를 거쳐 정한다. - 가안 투표를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진행내용을 알림 - 정해진 별칭을 홍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구체화 함	하반기

#### 2. 홍보 업무의 체계화

사업	사업내용	시기
홍보 리스트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리스트 정리 및 체계적 관리</li> <li>- 각 언론사의 민우회 사업관련 담당 기자 리스트 정리</li> <li>- 시민단체 및 노조 리스트 통합적 관리</li> <li>- 분기별로 리스트 업데이트 및 상시 점검 정례화</li> </ul>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홍보 활용 및 네트워크: 민우회 활동에 대한 언론 기사를 수집하여 각 활동별 담당기자와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언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li> <li>- 민우회 활동 관련 언론 기사 취합 (홈페이지, 블로그 활용)</li> <li>- 민우회 활동을 보도화한 언론사 기자들과의 네트워크 기획</li> <li>- 상근활동가 대상 언론 홍보 및 활용에 대한 교육 및 방법 공유</li> </ul>	

### 3. 기관지 <함께가는 여성> 발행

사업	사업내용	시기
기관지 <함께가는 여성>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함께가는 여성&gt;의 기획 단위인 편집이루미를 원활하게 운영한다.</li> <li>■ &lt;독자 평가&gt; 꼭지 신설: 회원들의 평가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를 지면에 마련하여 본다.</li> <li>■ &lt;함께가는 여성&gt; 광고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한다.</li> <li>■ 발행: 격월 간(홀수 달 말~ 짝수 달 초 발행, 총6회)</li> <li>■ 판형: B5 변형</li> <li>■ 매수: 48~52p</li> </ul>	연중

## 재정

### 1. 사업목표

1. 다양한 후원방법에 대해 사전 조사작업과 기획 등 적극적인 재정보호방안을 모색한다.
2. 후원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맺음에 노력을 기울인다.

3. 후원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후원행사를 기획함으로써 재정마련에 기여한다.

## II. 사업계획

### 1. 재정사업

사업	사업내용	시기
문화행사	- 후원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상반기
바자회	- 적극적 물품 후원처 발굴 - 다양한 바자회 물품 개발	연중
다양한 후원 통로 마련	- 다양한 후원 통로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 다양한 통로를 활용한 후원을 기획하고 시도한다. - 해피빈 외에 다양한 SNS를 활용한 후원금 조직화 방안을 기획하고 시도한다. - 여성기업인과의 교류 및 네트워킹 추진을 통해 기업 후원 조직화를 위해 노력한다.	연중
후원인과의 소통강화	- 모금함에 참여한 후원인들에게 모금함 홍보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발송한다. - 모금함 참여 후원인들에게 온라인 소식을 발송한다. - 후원인과의 소통강화를 통해 후원의 지속화를 도모한다.	연중

### 2. 회계매뉴얼 보완 관리

사업	사업내용	시기
회계매뉴얼 보완	- 회계업무 효율화와 체계화를 위해 회계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월 결산 정례화 및 분기별 온라인 오프라인 결산서 공개	연중

### 3. 나루운영

사업	사업내용	시기
나루 교육장 운영	- 나루 교육장 대여 관리 - 나루 교육장 시설물 관리	연중
나루 활동가 교육	- 나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집행하기위한 교육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체계적인 활동가교육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연중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사업계획(안)

## I. 사업목표

1. 디지털 전환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가 실현 될 수 있도록 수용자 입장의 의제 발굴 및 대안을 마련한다.
2. 선거 국면을 맞아 지상파 및 유료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확보 한다.
3.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자율심의 방향 및 수용자 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4. 미디어교육 영역과 대상을 확장하여 성평등한 미디어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II. 각 주제별 사업계획

### 1. 조직사업

사 업	사업내용	시기
후원 회원 모집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후원회원 조직으로 재정의 안정화를 꾀함</li> <li>•내용 : 미디어 후원 회원 조직 및 CMS 시스템 관리</li> </ul>	연 중
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미디어운동본부의 정책 방향 결정</li> <li>•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상하반기 2회 회의 진행</li> <li>② 시민미디어 포럼 기획</li> </ul> </li> </ul>	상 하 반 기
모니터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분과원 결속 및 지상파 및 유료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함</li> <li>•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주 1회 정기 모임 진행</li> <li>② 성인지적 관점의 지상파 및 유료방송 모니터링 실시</li> </ul> </li> </ul>	연 중

	③ 문제 프로그램 개선 활동	
교육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분과원 결속 및 분과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함</li> <li>•내용</li> </ul> ① 주 1회 정기 모임 진행 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스터디 실시 ③ 다양한 미디어교육 내용 및 교안 개발	연 중
여성연예인인권지원 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여성연예인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함</li> <li>•내용</li> </ul> ① 상하반기 2회 모임 진행 ② 여성연예인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③ 피해여성연예인 상담	상 하 반 기

## 2. 정책사업

사 업 명	사업내용	시기
선거방송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선거 시기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여 방송의 공정성 확보</li> <li>•내용</li> </ul> ① 선거 시기에 방송되는 보도 또는 후보자 출연 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 ② 문제점을 방송사에 제출하여 개선 도모	연중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무력화 하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 방향성 및 내용 모색</li> <li>•내용</li> </ul> ① 일반인으로 구성된 심의원 모집 ②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패러디한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 ③ 시의성 있는 방송 심의 진행	연중
시민미디어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미디어 정책 및 지상파·유료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수용자관점의 대안 마련</li> <li>•내용</li> </ul> ① 연 2회 시민미디어포럼 개최 ② 정책반영을 위해 의견서를 관련기관에 제출	연중
디지털전환 및 보편적 서비스 정책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미디어 정책과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수용자관점의 정책 수립</li> <li>•내용</li> </ul>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수용자 관점의 의제 발굴 및 대안 마련</li> <li>② 지상파 직접수신환경개선을 위한 노력</li> </ul>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여성연예인인권 개선에 노력</li> <li>•내용</li> <li>① 인권침해 여성연예인 상담 및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li> <li>② 여성연예인 지망생들을 위한 교육 실시</li> </ul>	연중

### 3. 교육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시기
초중고 대상 미디어 바로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비판적 미디어 읽기 확산을 통해 성평등 의식과 프로슈머로서의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함</li> <li>•내용</li> <li>① 초중고 대상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li> <li>② 미디어 속에 나타나는 성과 미디어 교육</li> <li>③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미디어교육 개발 노력</li> </ul>	연중
여성과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일반 대중들에게 성평등 의식 확산</li> <li>•내용 : 미디어 속의 성과 여성에 대한 일반 성인 강좌</li> </ul>	연중

### 4. 홍보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시기
온라인 소식지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미디어운동본부 활동 홍보</li> <li>•내용 : 월 1회 미디어운동본부의 활동 내용을 소식지로 만들어 미디어운동본부 후원 회원 및 관련 단체에 발송</li> </ul>	연중

### 5. 연대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시기
미디어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각종 미디어 정책 관련 공동대응</li> <li>•내용</li> </ul>	연중

	① 격주 1회 집행위원회 ② 미디어정책 이슈 개발 및 대응활동	
--	---------------------------------------	--

## 6. 푸른미디어상

사 업 명	사업내용	시기
푸른미디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 상업화되는 방송환경에 대한 견제</li> <li>•내용</li> <li>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사회적인 차별 개선에 기여한 프로그램 발굴</li> <li>② 소신 있는 제작자 격려</li> <li>③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제시</li> </ul>	하반기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사업계획(안)

## I. 2012년 사업목표

- 1) 공동체(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순 처벌을 넘어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한다.
- 2) 여성의 정의감과 성욕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이중적 성 규범에 균열내기를 시도한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소통하며 결정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 3) 상담소에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외화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한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상담소의 사업이 드러날 수 있게 정비하고,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이슈 대응을 통해 반성폭력 사안들을 시의적절하게 알리고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낸다.

## II. 각 주제별 사업

### 1. 조직사업\_ 회의

사업	사업내용	시기
자문위원	<p>·목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상담지원 및 반성폭력운동의 내용을 풍부히 한다.</p> <p>·내용: 상담활동, 반성폭력 활동에 대한 자문</p> <p>·자문위원 : 이근덕(다미신경정신과), 전지홍(전지홍 신경정신과), 조인섭(법무법인 세계로), 최보문(가톨릭의대 인문사회외과), 윤지영(형사정책연구원)</p>	연중
운영위원회	<p>·목표: 상담소 사업 내용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한다.</p> <p>·내용: 상담소 활동 방향, 상담소의 운영, 정책사업 등에 대한 논의</p>	연중

	·운영위원: 김영애, 유경희, 장영숙, 정은선, 황금소영, 이임혜경, 정하경 주	
민우상담 네트워크	·목표: 민우회 지부 상담소와의 워크숍을 통해 민우회 상담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연대를 꾀한다. ·내용: 1. 성폭력 이슈에 대한 공동사업 진행 및 여성주의 상담운동의 방향과 원칙 공유, 성교육 이나 성폭력 관련법 등 하나의 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정리 2. 공유된 논의가 확장되는 워크숍 운영	연중

## 2. 조직사업\_ 모임

사업	사업내용	시기
성교육 강사모임	·목표: 신입성교육 강사의 역량 강화로 강사풀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성교육을 활성화한다. ·내용: 1. 여성주의 인식, 강의기법, 강의소재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강의 구조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리 마련	연중
치유상담 모임	·목표: 성폭력 피해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치유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사례논의와 스터디를 진행한다. ·내용 1. 상담 사례논의 2. 피해자 임파워먼트를 위한 단기 연속상담 프로그램 개발 진행. 3. 신입상담원을 위한 상담 준비 스터디	
17기 상담원 후속교육	·목표: 신입자원상담원 활동기를 대상으로 여성주의상담 심화스터디와 실습을 한 후 상담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 여성주의상담, 여성운동사, 섹슈얼리티에 관한 주제토론과 상담 실습	5월~6월
신입 상담원실습	·목표: 성폭력상담원교육 후속스터디를 마친 신입자원상담원들이 실제 상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운다. ·내용 : 전년도 온라인/전화 상담 일지와 수퍼비전 자료 검토 및 포털	7월~8월

	사이트 상담을 통해 실제 상담의 구체적 흐름을 익힌다.	
--	--------------------------------	--

### 3. 일상 속의 성/ 성문화 사업

사업	사업내용	시기
<p>내 안의 '성' 마 주 하 기 (가) - 여성의 성욕구, 성경험, 성의식 조사 -</p>	<p>·목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설문 조사와 결과 발표를 통해 여성들의 다양한 성 욕구, 성 경험, 성 의식 실태를 가시화하고, 이를 구성하는 사회적 배경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이중적 성 규범에 균열을 낸다. 더불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에 대해 소통하고 결정하는 문화를 확산한다.</p> <p>·배경: 우리 사회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대하는 방식은 남성의 그것과 달리 매우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과 달리 성적 욕구가 없거나 매우 약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동시에 남성의 성적 욕망을 부추기거나 충족시키는 유혹의 존재로 상정하여 일방적으로 구성된 이미지를 소비하는 식이다. 이렇게 여성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이중적 성 규범은 여성을 피해자로서의 여성이거나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으로 양분하는 효과를 낳으며 성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형성한다. 실제로 본 상담소의 2006~2010년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낸 문제의식 중 하나는 이러한 이중적 성 규범의 영향으로 인해 일상에서 성적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여성들은 스스로의 성 경험이나 피해를 부끄럽게 여기며, 이러한 통념이 실제 가해 행위나 사후 해결 과정에 강하게 반영되어 여전히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의 문제점만이 강조됨으로써 권리 침해라기보다 '정조 침해'로 인식되거나, 여성의 성을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약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식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등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 현실적인 성 욕구와 경험, 의식이 갖는 다양성을 가시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성욕 신화와 규범에 균열을 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p> <p>·내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의 성 욕구, 경험, 의식에 관한 설문 조사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문 문항 기획 회의</li> </ol> </li> </ol>	<p>3월 ~10월</p>

	<p>: 전문가의 의견 검토를 거쳐 문항 확정</p> <p>2) 설문 조사 실시</p> <p>: 성관계 경험, 피임 과정과 제안, 내송의 경험, 자위, 성경험에 대한 소통 등의 설문 조사 실시</p> <p>: 응답자 개인의 경험과 의식 바탕을 구성하고 있는 경험과 계기, 가치관과의 연관성 조사</p> <p>2. 실태조사 결과 발표 문화제 (일명 ‘클럽 M’)</p> <p>: 단순히 수치 결과만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문화제를 기획한다. 여성들의 자유 발언대, 관련 용품 전시회, 공개 고민 상담 코너 등</p>	
<p>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 II - 양형 경 향 분석을 중심으로-</p>	<p>·목표: 성범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법정형과 실제 처벌 형량의 차이, 부적절한 감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실질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제대로 처벌 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p> <p>·배경: 최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은 가해자를 사회에서 분리하거나 고립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드러나며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경처벌과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강경정책이 실질적인 처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판결과정에서 감형이나 무죄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형량을 높인 법 개정만으로 현실의 성폭력에 대한 규율이 되지 못하며 법 개정만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거나 가해자의 실질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가해자의 처벌이 미진했던 것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정형이 낮아서가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법정형 상향조정, 강경처벌만이 성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정책 흐름 속에서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논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p> <p>·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폭력 관련 법률 변화 경향 속 성폭력 사건 양형의 변화 비교 검토</li> <li>2. 판례의 양형 요지에서 드러나는 법조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과 판단 근거 분석</li> </ol>	<p>하반기</p>



	3. 양형 분석 결과를 통해 부적절한 양형 사유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변화 요구	
공동체 (조직) 내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공동체에서 의뢰되었던 가해자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과 성폭력 사건 이후의 공동체 역동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이후 성의식, 조직문화 점검과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li> <li>· 배경 : 공동체에서 성폭력을 사건화 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만드는 과정은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성폭력을 조장하는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을 공동 논의로 이끌어 가는 과정은 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해결의 의미는 잊혀지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것으로만 집중되고 있다. 또한 논란과 혼돈은 공동체 문화나 성의식에 대한 성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간단한 방법만을 찾게 된다.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점검과 성문화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고 의미를 재정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지금까지 공동체에서 의뢰되었던 가해자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과 성폭력 사건 이후의 공동체 역동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li> <li>· 내용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토 작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해자교육 시 드러난 가해자의 태도, 마음, 변화 검토</li> <li>2) 가해자교육을 의뢰한 공동체 담당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 교육을 의뢰하게 된 이유, 성폭력 사건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 가해자교육 이후 가해자의 태도 변화 등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위한 인터뷰</li> </ul> </li> <li>3) 공동체 해결의 지향점, 한계지점을 살펴보고 공동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요인 찾기</li> </ol> </li> <li>2. 자력갱생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민한 감각과 느그러운 정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건 이후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함</li> </ul> </li> <li>3. 프로그램 시범운영</li> </ol> </li> </ul>	5월 ~10월
거리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 열린 공간에서 내가 아는 성·알고 싶은 성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해 보고, 올바른 소통을 위한 의사결정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어 나간다.</li> </ul>	연중

	<p>·내용 :</p> <p>1.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반성폭력징검다리, 콘돔실습, 다양한 피임도구전시, 성폭력예방실사 등 체험식 프로그램을 진행.</p> <p>2. 명랑성생활백서 활용한 부스 및 체험식 성교육 교구 개발</p>	
--	---	--

#### 4. 교육 사업

사업	사업내용	시기
출강교육	<p>1. 학교 및 집단 성교육</p> <p>·목표: 성교육을 통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적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킨다.</p> <p>·대상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학부모</p> <p>·내용 : 몸에 대한 이해, 연애, 성적의사소통, 아동과 왜곡된 성문화 등 외부에서 의뢰하는 주제별 강의 및 성폭력예방교육</p> <p>2. 성폭력 관련 일반 및 심화 교육</p> <p>·대상 : 학생, 학부모, 직장인, 상담원, 노조, 단체 등</p> <p>·내용 : 성폭력에 대한 이해(실태와 예방), 여성주의 상담, 성문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쟁점, 성적자기결정권의 이해, 반폭력 감수성 키우기, 성적의사소통, 성폭력 가해자를 말하다, 성폭력상담의 지원체계 등</p>	연중
성폭력 가해자 교육	<p>·목표: 성폭력 가해자들의 이중 성 규범 및 왜곡된 성 의식 점검, 자신의 책임 인정하기와 피해자 공감하기 등을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수정하고 성폭력 가해에 대한 잘못을 성찰함으로써 성폭력 재범을 방지한다.</p> <p>·내용: 개인 면접 교육</p>	연중
대중교육	<p>1. 기획 강좌</p> <p>·목표: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한 대중적인 여성주의 교육을 통해 만남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p> <p>·내용 : 섹슈얼리티와 인문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 강좌 진행</p>	연중
	<p>2. 성폭력상담원교육</p> <p>·목표: 여성주의 상담에 기반한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고 성폭력</p>	3월~4월

	<p>을 주제로 대중적인 여성주의 교육의 장을 만든다.</p> <p>·내용: 성폭력 상담 관련 100시간 교육,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성폭력, 여성주의 상담, 성폭력 상담의 대응방법, 상담실습, 관련기관 방문 등</p> <p>·일정: 3월 13일-4월 26일(매주 화/목 오전 10시-오후 6시)</p> <p>·교육비: 35만원</p>	
	<p>3. 성교육 강사교육</p> <p>·목표: 성폭력상담원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강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p> <p>·내용 : 여성주의 인식, 강의기법, 강의소재 등에 대한 공유를 통해 강사로 양성</p>	5월~8월
활동가 교육	<p>1. 활동가 스터디</p> <p>·목표: 활동가 역량 강화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p> <p>·내용: 여성주의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내부논의와 더불어 외부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p> <p>2. 활동가 재교육</p> <p>·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이슈, 쟁점, 여성주의 담론 등 최근 떠오르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교육의 기회 마련</p>	연중

## 5. 상담 지원 사업

사업	사업내용	시기
상담 및 피해자 지원	<p>·목표: 법률의료지원 및 심리적지지, 정보제공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돕고, 인권을 보호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p> <p>·내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담내용: 성폭력 사건대응 및 피해자보호조치, 성상담</li> <li>2. 전화상담: 02-335-1858 (상담시간: 9:30- 17:30(월~금))</li> <li>3. 면접 및 지원상담: 의료적, 법적, 정서적, 기타</li> <li>4. 연속상담(단기/장기)을 통한 피해 경험 재해석 기회 마련</li> <li>5. 포탈사이트 게시판 공개상담: 찾아가는 상담 지원</li> <li>6. 사건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li> </ol>	연중

상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 수퍼비전과 상담분석을 진행하고, 사건지원을 체계화하여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한다.</li> <li>· 내용</li> <li>1. 사례분석 : 월1회 진행</li> <li>2. 외부 수퍼바이저와 함께 하는 수퍼비전 : 연1회 진행</li> </ul>	월1회
------	--	-----

## 6. 성교육 교구 개발 사업

사업	사업내용	시기
성교육 교구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참여식 성교육 대상의 확대를 위한 교구 상용화를 위한 상품 출시</li> <li>·내용: 2011년도 성교육 교구 개발 기획단에서 구체화된 선물 셋트, 보드게임 시안 제작 및 판매 가능성 타진 후 상품 출시 및 실용신안 등록</li> </ul>	1월-6월

## 7. 홍보 사업

사업	사업내용	시기
언론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상담소 사업과 관련 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발 빠른 이슈대응을 한다.</li> <li>·내용: 사업관련 홍보 및 언론의 성폭력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이슈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여론화 도모</li> </ul>	연중
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 상담소 활동과 성폭력 이슈를 현장감 있는 정보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상담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회원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li> <li>·내용:</li> <li>1. 상담소 홈페이지 리뉴얼</li> <li>2. 관련 블로그 등의 온라인 매체를 정기적으로 신속하게 업데이트</li> <li>3. 월경주기 팔찌, 발간 책자(가해자교육 매뉴얼, 순간, 명랑성생활백서) 등 상담소 자료를 등록 및 홍보</li> <li>4. 메일링리스트 보완작업을 통해 메일 수신 대상을 확대·정비</li> </ul>	상반기

## 8. 연대 사업

사업	사업내용	시기
단체·기관 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대활동: 여성인권 관련 긴급현황 대책 활동 등</li> <li>·법 제도 제정 및 개선을 위한 연대 : 반성폭력운동제도화대응,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모니터링 및 대응, 여성연합 인권위원회 등</li> <li>·협력관계 구축 및 정책대안을 위한 활동: 전국성폭력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등</li> </ul>	연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예인 인권지원센터 운영위원회</li> <li>마포구 아동·여성 연대 네트워크</li> <li>성폭력 관련 자문회의</li> </ul>	연중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예산 (안)

- 2012년 한국여성민우회 예산(안)
- 2012년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예산(안)
- 2012년 부설 성폭력상담소 예산(안)









# 2012년 지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 2012년 지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 2012년 지역여성민우회 사업계획

2012년은 고양파주여성민우회와 진주여성민우회가 지역여성운동단체로 뿌리 내린지 15주년, 서울동북여성민우회가 20년이 되는 해이다. 20여년 간의 역사와 활동은 민우회 지부가 여성대중조직으로서 조직의 성장과 활동역량에 걸맞게 활동하였는지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봐야 할 시점이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여성운동사>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군포여성민우회는 사무실 이전과 북카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남서, 원주, 춘천, 인천지부도 조직을 재정비하여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선 회원활동을 보면, 이사회, 운영위원회, 각 위원회, 팀별, 소모임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각 단위마다의 적합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면 조직의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작년의 회원 인터뷰에서도 나타났듯이 회원들이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을 확대하고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소모임이 있긴 하나 이들의 활동력을 높이고 소모임 지기들의 모임을 정례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들의 활동은 조직 간의 연대강화와 다른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원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부설기구의 다양한 조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회원들과의 결합력을 높여낼 것이다. 또 새로운 정회원 확보와 활동가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날, 민우시네마, 무지개 토크(다양한 주제 토론마당), 내안의 재능 찾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정책활동을 통해 여성대중 조직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힘쓰려 한다. 본부지부 공동사업으로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레 제개정 활동 및 호칭확산 활동>이 펼쳐질 것이다. 올해 새롭게 기획된 <산부인과 바꾸기 프로젝트> 사업은 산부인과 문화 바꾸기를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확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2013년에 시행될 성인지 예산제도 관련 모니터링과 성별영향평가도 꾸준히 진행한다.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여성주간도 그 의미를 더욱 넓히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여성단체간의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찾아가는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지속 진행할 것이고, 아동안전망 실태조사와 여성 불편도 조사는 지역에서 어린이와 여성이 일상에서 겪는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어 정책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설문지조사, 풀뿌리 활동가대회, 한부모 자립지원 활동, 마을 만들기 등에 적극 결합함으로써 지역 내 이슈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정책감시 활동과 유권자 운동이 총대선으로 모아지는 해이기에 지역단체들과 연대하여 대응할 것이다.

교육활동에서는 교육전담기구인 교육기획팀을 신설하여 교육활동을 전문화하고자 한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회원참여를 극대화하여 여성주의 강화와 민우회 여성운동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민우여성학교는 지역여성들과 회원들의 여성주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여성주의 강좌를 열어 참여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회원들의 의식 성장은 심화강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입회원 교육을 통해 민우회를 제대로 소개하여 조직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활동력을 높인다. 활동가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운동, 사회운동 의제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고 민우회 정체성을 공유한다. 회원 및 지역민들에게 여성주의를 확산하는 교육 강좌와 담론은 민우회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 사업으로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인권감수성 향상과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성평등교육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성평등교육 활동가를 양성하고 조직하며, 아동 안전도우미 양성교육을 통해서도 지역사회에 예방중심의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재정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재정사업을 일상화하고 다양화하여 물품판매, 하루밥집, 각 기구별 후원회 발굴, 희망나눔 바자회 등이 기획되어 있다. 홍보 방안으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소식지 개편 기획으로 민우회 활동을 널리 홍보하려 한다. 온라인 카페 활성화, 효과적인 언론 노출, 캠페인 등을 구상하고 있다.

지역의 중요사안을 함께 공유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연대활동은, 각 지부의 민우회가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대활동을 통해 지역운동 발전에 기여하여 왔고 지역 내 민우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올해 총대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일상 활동 전개는 물론 즐거운 참여 속에 유권자가 정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치와 지역문제에 대해 소통하며 시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2012년 Readyaction, 유권

자 활동 등이 펼쳐질 것이다.

이밖에 고양성폭력상담소가 개소 10주년을 맞이한다. 군포 역시 상담소의 조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광주는 올해부터 ‘가족과 성 상담소’에서 ‘성폭력상담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활동의 중심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 피해자상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등 성폭력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피해자상담과 피해자지원 활동 등을 강화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성폭력 피해쉼터인 하담(고양파주)과 다솜누리(광주)는 적합한 상담으로 피해자를 지지/지원하고 사회적 지지공동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인 꿈틀이(고양)와 아롬드리(남서), 해아해아(진주), 달팽이(춘천)는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아동과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인천지부의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는 자조모임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고 회원들의 욕구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연구, 심리치료를 통한 내면 트라우마 해소, 미혼모 관련사업도 구상중이다.





## 별첨자료

- 임원 선거 자료
- 2011년 한국여성민우회 발간 자료 목록
- 본부 / 지부 활동가 명단



# 임원 선거

## 임원 입후보자 공고

2012년 1월 28일(토) 오후 2시에 개최되는 제25차 한국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25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는 [한국여성민우회 임원 선출에 대한 내규] 제6조(입후보자 공고) '공천 위원회는 선거 7일 전까지 추천된 후보 명단과 약력을 공개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11년 1월 10일 개최된 제2차 공천위원회 결과에 따라 아래의 후보를 추천합니다.

### ■ 감사 후보 ■

김경희(사업감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경희(회계감사)	(재) 다솜이재단 상임이사

#### 김경희

- 2002.3 -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2000.4 - 2002.2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 2004.8 - 2006.8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심의위원
- 2003. 4 - 2005.3 여성부 정부업무평가위원
- 2005.1 - 2007. 11 한국여성학회 연구위원장, 편집위원장
- 2011.1 - 2011.12 한국사회학회 이사
- 2003 - 현재 한국여성민우회 성인지 예산과 정책분석 활동, 민우회 20년사 연구위원장, 감사

#### 강경희

- 2011. 5 - 현재 (재)다솜이재단 상임이사
- 2002. 4. - 2011. 2.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 1998. 9. - 2002.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장
- 1990. 1. - 1993. 9. 천주교 사회 문제 연구소 선임 연구원
- 1986. 1. - 1989. 12. 한국 교회 사회 선교 협의회 국제 업무 담당
- 1982. 7. - 1985. 12. 가톨릭 학생 운동(International Movement of Catholic Student) 아시아 사무국 Coordinator

## 2011년 발간 자료 목록

- 『당신이 생각하는 낙태는 없다』 사례집
- 『낙태, 여성의 경험으로 세상과 공명하다』 토론회 자료집
- 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 : 물, 길 <캠프 자료집>
- 2011 민우여성학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료집
- 아이쿱생협 강좌 "천고마비: 가을 하늘이 높으니 여성주의로 마음을 살찌운다!" 자료집
- "신가족주의사회, 전업주부를 말한다" 토론회 자료집  
(문의 : 02-737-5763 / [minwoo@womenlink.or.kr](mailto:minwoo@womenlink.or.kr) / 트윗 @womenlink)
  
- 2010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사례집
- 2011 여성노동상담원교육 : 여성노동시원하게 다이빙하라!
- 2011 식당여성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2006~2010 상담사례분석 토론회 : 1959개의 물음표를 풀다 (고용평등상담)
- 2011 여성운동 길잡이를 위한 토론회 : 민우회 회원탐구를 중심으로  
(문의 : 여성노동팀 / 02-737-5763 / [equallove@womenlink.or.kr](mailto:equallove@womenlink.or.kr) / 트윗 @equallabor)
  
- 여성연예인인권가이드라인  
(문의 : 미디어 운동본부 / 02-734-1046 / [media@womenlink.or.kr](mailto:media@womenlink.or.kr))
  
- 아동지킴이를 위한 성폭력예방지원매뉴얼
- 명랑성생활백서 '섹스만큼 중요해!'
- 성폭력 가해자교육 매뉴얼 -성의식 변화프로그램-
- 2006~2010년 상담사례분석 토론회 : 5785개의 물음표를 풀다 (성폭력상담)  
(문의 : 성폭력 상담소 / 02-739-8858 / [fc@womenlink.or.kr](mailto:fc@womenlink.or.kr))

## 2011 본부 활동가

공동대표	김인숙, 박봉정숙	
이 사	백영경, 유경희, 유선영, 윤정숙, 이숙진, 장지연, 정영애, 최은순, 하승수	
감 사	김경희_사업, 남윤인순_회계	
사무처장	주현정	
사무처	강선미, 김가영, 김희영, 김희정, 문성훈, 문지은, 선백미록, 안미선, 이소희, 정슬아, 지은정, 최윤라, 최진협, 홍지명	
정책위원	권김현영, 권수현, 김원정, 김진, 마경희, 박건, 박기남, 박선영, 박홍주, 이은 아, 장서연, 장임다혜, 전희경, 정형욱, 조영미, 조인섭, 최정은영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정책 위원	강남준, 강형철, 고민수, 문성현, 손병우, 심미선, 안정임, 하종원, 황성기
부설 성폭력 상담소	이임혜경_소장, 이선미1, 이선미2, 정하경주, 최김하나	
	운영 위원	김영애, 유경희, 임재련, 장영숙, 한정원, 황금소영, 이임혜경, 정하경주
	자문 위원	고경심, 김수정, 신동원, 이근덕, 윤지영, 전지홍, 조윤아, 조인섭, 최보문

## 2012 본부 활동가

공동대표	김인숙, 박봉정숙	
이 사	백영경, 유경희, 유선영, 윤정숙, 이숙진, 장지연, 정영애, 최은순, 하승수	
감 사	(김경희_사업), (강경희_회계)	
사무처장	주현정	
사무처	강선미, 권박미숙, 김희영, 문성훈, 문지은, 안미선, 이소희, 정슬아, 지은정, 최윤라, 홍지명	
정책위원	권김현영, 김원정, 김진, 마경희, 박건, 박기남, 박선영, 박홍주, 이은아, 장서 연, 장임다혜, 전희경, (정진주), 정형욱, 조영미, 조인섭, 최정은영, (홍성수)	
부설 미디어 운동본부	윤정주_소장, 이윤소	
	정책 위원	강남준, 강형철, 고민수, 문성현, 손병우, 심미선, 안정임, 하종원, 황성기
	여성 연예인 인권 지원센터 운영위원	선종문, 조인섭, 조희정, 강혜란, 이임혜경, 윤정주
부설 성폭력 상담소	이임혜경_소장, 이선미1, 이선미2, 정하경주, 최김하나	
	운영 위원	김영애, 유경희, 장영숙, 정은선, 황금소영, 이임혜경, 정하경주
	자문 위원	이근덕, 조인섭, 전지홍, 최보문, 윤지영

\* ()안은 추천 상태임.

## 2011, 2012 지부 활동가

고양 파주 여성 민우회	2011	감사	박기남(사업), 김영숙(회계)
		이사	김진희, 박선주, 박주경, 안인숙, 안선희, 이선희, 이소희, 이숙희, 이여로, 이정아, 왕희애, 임재련, 전순애
		자문위원	나임윤경, 김양희, 정선철
		정책위원회	임재련(위원장), 김인숙, 김유임, 박옥기
		홍보·편집위원회	전순애 (위원장), 손홍만, 이정아, 최문선, 주정희
		사무국	김민문정(대표), 이정아 (사무국장), 주정희, 최정은
		고양 성폭력상담소	이소희(소장), 김지현, 최문선 (자문변호사 : 최애숙)
		지역아동센터 꿈틀이	왕희애(센터장), 남기남, 손홍만
	성폭력피해자쉼터 하담	이여로(소장), 이미연, 최소영	
	파주 성폭력상담소	안선희(소장), 김향숙	
	2012	감사	박기남(사업), 김영숙(회계)
		이사	김문정, 김선희, 김진희, 박선주, 박주경, 안인숙, 안선희, 이선희, 이숙희, 이여로, 이정아, 왕희애, 임재련,
		사무국	김민문정(대표), 이정아(사무국장), 주정희 외 상근활동가1인
		정책자문위원	김인숙, 임재련, 김유임 외 외부전문가1인,
홍보편집위원회		김지현, 남기남, 박수봉, 조혜옥, 이정아, 주정희.	
고양 성폭력상담소		김문정(대표겸임), 김지현, 윤소희, 최정은 (자문변호사 : 최애숙 )	
지역아동센터 꿈틀이		손홍만(센터장), 남기남, 왕희애	
성폭력피해자쉼터 하담		이여로(소장), 김현심, 조혜옥, 조미원,	
파주 성폭력상담소	안선희(소장), 박수봉, 상근활동가 1인 (자문변호사:김효정)		
군포 여성 민우회	2011	대표	김인자
		성폭력상담소장	심용선
		운영위원회	김인자 최자영, 박은영, 김영숙, 심용선, 박지희, 권미희, 송연자
		사무국장	김혜정
		상근활동가	권명애, 김혜정, 이현정, 이명숙, 박선인
		상담위원회	김지연, 박선인, 이정애, 이금순, 최미애
		상담자문위원	강중구, 권미희, 김민호, 이문식, 한혜규
		지역자치위원회	박은영, 박지희, 송연자, 이현정, 김혜정
		한부모위원회	송순자, 임경혜, 손성학, 김영숙, 김인자, 권명애, 최자영
		감사	이여로(사업), 이경란(회계)
	편집팀	이유미, 박선인, 김인자, 이현정, 김혜정	
	성교육강사팀	송순자, 임경혜, 최미애, 김지연, 남혜영, 김보선, 이유미, 곽미경, 배소영, 신은경, 심영미, 어정은, 정현주, 현미숙, 박선인, 도영옥, 박지희	
	2012	대표	김인자
		성폭력상담소장	심용선
운영위원		김인자, 심용선, 김영숙, 박은영, 송연자, 권미희, 이금순	
사무국장		김혜정	

		상근활동가	권명애, 김혜정, 박지희, 이명숙, 박선인
		감사	이여로(사업)
		상담위원회	이금순, 이정애, 김지연, 현미숙, 정현주, 정은영, 한미석
		상담자문위원	강중구, 권미희, 김민호, 이문식, 한혜규
		지역자치위원회	박은영, 박지희, 송연자, 김혜정
		한부모위원회	송순자, 임경혜, 손성학, 김영숙, 김인자, 권명애, 최자영
		편집팀	이유미, 김선애, 김인자, 박지희, 김혜정
		성교육강사팀	송순자, 김지연, 남혜영, 김보선, 곽미경, 어정은, 정현주, 현미숙, 박선인, 도영옥, 정은영, 한미석, 이성경, 이광진, 경미현, 김현미
광주 여성 민우회	2011	대표	조영임
		운영위원	문춘희, 김해숙, 김경례, 이수진, 김항심
		사무국	백희정, 이미선
		감사	김미라(사업), 나인형(회계)
		활동가	백희정, 김효경, 이미선, 허정순, 유희정, 박영희, 박도야, 박다현, 채현숙
		이사	정인경, 임선숙, 김기태, 최영, 신향미, 송진희, 신기숙, 최정인, 박종민, 정은의, 송선희, 안진
	2012	대표	백희정
		운영위원	미정
		사무국	김효경, 이미선
		감사	이수진(회계) 신기숙(사업)
		활동가	박다현, 박도야, 유희정, 허정순, 박영희, 이미선, 김효경
		이사	조영임, 정인경, 임선숙, 안진, 송진희, 신향미, 김기태, 최영, 정은의, 채현숙, 나인형
남서 여성 민우회	2011	대표	조성화, 이경란
		사무국	고나경
		운영위원	이미숙, 주영, 부윤숙, 양정순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양정순, 이우영, 박정숙
		남서생협 이사	박성완, 정미옥, 황혜경, 여상희, 이지영, 박정현
		남서생협 사무국	이지영, 원화연, 김혜경
		녹색가게 운영위원	이경란, 하임행
		감사	김영숙, 정용수
	2012	대표	조성화, 이경란
		사무국	고나경
		운영위원	부윤숙, 양정순
		아름드리지역아동센터	양정순, 이우영, 박정숙
		아동센터 봉사자	한국사교육봉사단(김용재, 이난애 외 22명) 전인선, 민선빈, 이지수
		녹색가게 봉사자	곽현정, 김명경, 김복자, 남은경, 박귀영, 박미향, 육현희, 이미향, 이유자, 이은주, 이현미, 최혜화, 하임행
감사	김영숙, 정용수		
동북 여성 민우회	2011	대표	오경훈
		운영위원	임현희, 서혜정, 황선아, 홍문정, 김성희, 옥은희, 권주희, 이중희, 박숙희(생협이사장), 오경훈

		감사	권수현(사업), 임재련(재정)
		상근활동가	이윤경, 권주희
		생협이사	강은경, 박숙희, 오경훈, 이영애, 조숙희, 정효진, 박미량
		생협사무국 활동가	강은경(상무이사), 김미옥, 이현정, 고희라
		매장 활동가	(방학)김인경, 유애리, 이애경, 정혜리, 주영자, 홍종민 (중계)김안나, 안은경, 오은주, 정경림 (창동)김성임, 김태희, 신경숙, 정미희
		대표	오경훈
	2012	운영위원	(추천)오경훈, 권주희, 박숙희(생협이사장), 남충진, 김성희, 박숙희, 서혜정, 임현희, 홍문정
		감사	권수현(사업), 임재련(재정)
		상근활동가	권주희, 이윤경
		생협이사	(추천)강은경, 박숙희, 오경훈, 이영애, 조숙희, 정효진, 박미량, 김양순
		생협상근활동가	강은경(상무이사), 김미옥, 이현정, 고희라
		매장활동가	(방학)주영자, 최은옥, 김인경, 이애경, 홍종민, 정혜리 (중계)정경림, 안은경, 오은주, 김안나 (삼각산)최정희, 김지선
원주 여성 민우회	2011	대표	정유선
		운영위원	김용희, 김정민, 김상훈, 최정애
		사무국	심재희
		감사	최효심(회계), 권오분(사업)
	2012	대표	정유선
		운영위원	김용희, 김정민, 김상훈, 최정애
		사무국	심재희, 이연이
인천 여성 민우회	2011	감사	최효심(회계), 원향숙(사업)
		대표	정유선
		운영위원	김용희, 김정민, 김상훈, 최정애
		사무국	심재희, 이연이
		감사	최효심(회계), 원향숙(사업)
	2012	대표	신소영(대표) 정인채(부대표), 이화용(부대표), 최정인(부대표)
		운영위원	채현자, 장희정, 문미경, 최리주, 남혜연, 박신아
		자문위원	김상하, 장혜순, 홍미영, 최선희, 이명숙, 최인순, 김연령, 최지숙
		사무국	문미경
		감사	송기찬(재정), 권옥례(사업)
		대표	장혜순(대표) 정인채(부대표), 이화용(부대표), 최정인(부대표)
		운영위원	채현자, 장희정, 문미경, 최리주, 남혜연, 박신아
		활동가	허미경, 문미경(기획홍보팀), 채현자, 남혜연, 박신아, 장효원(교육팀), 최정임, 강신우(조직연대팀)
자문위원	김상하, 신소영, 홍미영, 최선희, 이명숙, 최인순, 김연령, 최지숙		
사무국	문미경		
감사	송기찬(재정), 권옥례(사업)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장희정(센터장), 정옥경(기획홍보팀), 강정현(교육팀)		
진주 여성 민우회	2011	대표	손미옥(대표), 강은주(부대표)
		부설기구	강문순(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소희(생협 이사장)
		활동가	사무국 : 정윤정(사무국장), 이광지(간사), 정인례(지역아동센



2012		터시설장), 김점숙(지역아동센터 전담교사) 상담소 : 박해숙(사무국장), 배순직(간사) 생협 : 권금자(매니저), 김민자(매장담당), 이경희(매장담당)
	운영위원	이경미, 서은애, 김연우, 이종숙, 정연미 정수희, 이영, 이선영, 박미경, 천명희(상담소)
	이사	이정선, 정연미, 정수희, 이영
	감사	이명숙, 윤정임
	대표	강은주(대표)
	부설기구	강문순(성폭력상담소 소장), 신소희(생협 이사장) 정인레(해야해야지역아동센터장)
	활동가	사무처 : 정윤정(사무처장), 이광지(사무국장), 신규1명채용 3 월예정(간사) 상담소 : 박해숙(사무국장), 배순직(간사) 생협 : 000신규채용예정(사무국장), 권금자(매니저), 김민자 (매장담당), 이경희(매장담당) 지역아동센터 : 전담교사(진선명)
	운영위원	이종숙, 서은애, 김연우, 정연미, 이선영, 박현자, 박미경, 천명희, 장유희, 권선화
	이사	손미옥, 하영진, 곽미경, 이혜숙, 강민아, 박미련
	감사	정수희, 김석봉
	대표	신현암
	운영위원	김영준, 김호연, 박기남, 유은정, 이정미, 정윤경, 이운재옥
	사무국	김진희, 최은영
	감사	김양선(사업), 홍예진(회계)
이사	남궁순금, 김민정, 김은주, 김정애, 박기남, 박미숙, 박준식, 신경아, 엄해숙, 유현옥, 이선향, 정연숙, 홍숙기, 황경자	
달팽이 지역아동센터	이정미(센터장), 이승현	
2012	대표	신현암
	운영위원	이정미, 정윤경, 김호연
	활동가	이운재옥, 최은영
	감사	김양선(사업), 이상임(회계)
	이사	남궁순금, 김민정, 김은주, 김정애, 박기남, 박미숙, 박준식, 신경아, 유현옥, 정연숙, 홍숙기, 황경자
	달팽이 지역아동센터	이정미(센터장), 이승현